

국립국어원 2010-01-26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28-000215-01

어문 규범의 단계별 교재 집필 지침서

연구 책임자
이관규



국립국어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고려대학교 Center for Korean L & L Education

제출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어문 규범의 단계별 학습을 위한 교재 개발 연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연구 책임자: 이관규(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주관 연구 기관〉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연구진〉	
연구 책임자	이관규(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공동 연구원	허재영(단국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김유범(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주세형(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신호철(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연구교수)
	이영호(서울교대 국어교육과 강사, 석춘초교 교사)
연구 보조원	양세희(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상봉중 교사)
	하성욱(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오산고 교사)
	윤구희(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서울사대부중 교사)
	박보현(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심승호(고려대학교 국어교육전공 석사과정 수료, 태원고 교사)
	정지현(동작고등학교 교사)
	조정인(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과정)
	유성호(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과정, 정신여고 교사)
	이규범(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과정)
	김남희(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과정)
	김도혁(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과정)
	김미미(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과정)
	이수진(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과정)
	정지현(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과정)

〈요약문〉

본 지침서는 ‘어문 규범의 단계별 교재’ 개발 절차 및 교재 내용 선정과 배열에 대하여 해설하고 단계별 교재에 대한 활용법을 안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침서의 개발은 국민의 어문 규범에 대한 인식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왜냐하면 지침서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교재의 구성 체제에서 단계 설정의 원리나 교육 내용의 선정과 배열의 근거가 실태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태 조사 내용은 어문 규범 내용을 초급, 중급, 고급 각 단계별 교재에 맞게 등급화하기 위해 어문 규범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도를 조사하는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더불어 각 어문 규범 항목의 예시로 들어갈 어휘에 대한 등급까지도 결정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문 문항을 만들었다. 이해도는 곧 난이도로서, 조사 대상자가 어문 규범의 내용 항목을 이해하는 용이한 정도이다. 그리고 중요도는 어문 규범 세부 규정의 적용을 받는 단어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가에 대한 빈도이면서, 일상생활에서 그 단어들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조사 이전에 전문가 평정을 통해 매겨진 어휘 등급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하여 실태 조사와의 밀접한 연계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실태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교재 집필에 연계할 요소나 시사점을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따라서 지침서 총론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부(部)	장(章)	절(節)	항(項)	주요 내용
총론	지침서	목적		지침서 개발 목적 기술
		성격		지침서의 성격 기술
		구성 체제		지침서의 형식적 체제 기술
		개발 방향		교재 개발의 기본 방향 및 세부 방향 기술
	교재	집필 기준	편찬상의 유의 사항	교재 편찬 시 유의 사항 기술
			내용 선정 시 유의 사항	교재 내용 선정 시 유의 사항 기술
			제재 및 자료 선정 시 유의 사항	교재 제재 선정 시 유의 사항 기술
		특성	내용적, 구성적, 대상적 특성	교재의 특성 기술
		체제	단계 설정 원리	설문 조사 결과에 기초한 등급별 단계 설정 원리 기술
			단원 구성의 원리	각 교재의 단원 구성 원리 기술
			단원 내 구성 체제	단원 내 구성 체제 기술
			예시 단원	단원 모형 예시
			편집 규정	편집 규정 기술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의 선정과 배열 근거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른 교육 내용 선정과 배열의 근거 기술
			교육 내용 선정	설문 조사 결과와 교육 내용 선정의 연계 기술
			교육 내용 배열	설문 조사 결과와 교육 내용 배열의 연계 기술

위 내용은 지침서의 총론에 해당한다. 교재의 구성 체제에서는 단계 설정의 원리와 단원 구성의 원리, 단원 내 구성 체제 등을 해설하고, 교재의 교육 내용에서는 교육 내용의 선정과 배열 근거를 제시한 후 각급별 교육 내용의 선정과 배열을 제시하였다. 단계 설정의 원리는 ‘어문 규범 항목의 이해도’와 ‘어문 규범 관련 제시어의 일상생활상의 중요도’의 상호 작용이며, 단원 구성의 원리는 ‘양적 제한에 따른 조정, 범주의 균형성에 따른 조정, 교수·학습의 적절성에 따른 구성, 어문 규범의 체계에 따른 구성, 소단원 중심의 단원 구성’이 해당된다. 그리고 단원 내 구성 체제는 ‘길잡이 - 미리보기 - 탐구하기 - 연습하기 - 참고하기 - 마무리’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교육 내용 선정과 배열의 원리는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고빈도에서 저빈도로, 필요성이 큰 것에서 필요성이 작은 것으로’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각론의 구성 체제는 아래와 같다.

부(部)	장(章)	절(節)	주요 내용
각론	학교급 편	어문 규범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국어과 교육에서 어문 규범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기술
		새로운 기준 근거 설정	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한 학교급별 어문 규범 교육 목표 및 내용 재구성
		초등학교	초등학교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 재구성
		중학교	중학교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 재구성
		고등학교	고등학교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 재구성
	일반 성인 편	초급 교재	주요 내용 기술
			기술상의 유의점
			교수·학습 방안 제시
		중급 교재	주요 내용 기술
			기술상의 유의점
			교수·학습 방안 제시
		고급 교재	주요 내용 기술
			기술상의 유의점
			교수·학습 방안 제시

각론에서는 교재에 대한 구체적인 집필 지침을 안내한다. 여기에는 지침서의 부수적인 목적이 되는 국어과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내용 체계를 구성하거나 집필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된다. 각론의 본격적인 내용이 되는 일반 성인 편에서는 각급별 교재의 주요 내용 및 기술상의 유의점을 서술할 뿐만 아니라 예시 단원을 제시하여 교수 학습 방법까지도 보여주게 된다.

Abstract

This guidelines are aimed at explaining development process of the step-by-step textbook of the Regulation of Standard Korean(Eomungjubeom), a selection and an array of textbook content, and at guiding the usage of the step-by-step textbook.

The development of guidelines are based on the survey for national recognition of Eomungjubeom. Because the principles of stage settings and grounds of a selection and an array of educational content is basis of the results of the survey.

Survey consisted of the survey questions for grading of the understanding and importance of Eomungjubeom contents of the beginner, intermediate, and advanced level. Besides, Eomungjubeom of lexical items to determine the rating, even made questionnaires. The understanding is the difficulty, it is the degree of ease to understand Eomungjubeom content item. The importance of Eomungjubeom are subject to detailed rules in their everyday life how often a word about what is the frequency. And how many words in everyday life that is needed is a concept representing the degree of awareness.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is survey correlate with the textbook writing elements and implications were separated by General Summary and particulars.

General Summary of the configuration system is shown below.

part	chapter	section	term	contents
General Summary	Guideline	Goal		Guidelines for development purposes
		Nature		The nature of the guidelines
		Configuration system		Guidelines of the formal system
	textbook	Development direction		Textbook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main directions and details
		Writing Standard	Notes on Compilation	Notes on Compilation of textbook
			Notes on the content selection	Precautions when selecting textbooks contents
			Notes on the content selection	Precautions when selecting textbooks material
		Feature	Contents and composition, target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of textbook
		System	Step principles set	Survey rating based on the principles set stage
			Configuration section of the Principles	Organizing principle for each textbook section
			Section in the configuration system	on in the configuration system
			Sample Lesson	Lesson Example Models
			Editing rules	editing rule information
		Educational Contents	Based on the selection and arrangement of educational content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and an array of educational content based on selected
			Selected educational content	Selected results of a survey of information and education links
			Array of educational content	For the survey results and an array of educational links

Particulars of the configuration system is shown below.

part	chapter	section	contents
Particulars	School level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Regulation of Standard Korean Education Code	Korean language education Code Status and Problems of Education
		Setting a new standard based on	Using the survey results for all school levels and educational goals the Regulation of Standard Korean
		Elementary School	Reconstruction of educational goals and standards for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Reconstruction of educational goals and standards for Middle school
		High school	Reconstruction of educational goals and standards for High school
	Adult level	Beginner textbook	Main content
			Description in compliance
			Strategies of Teaching and Learning
		Intermediate textbook	Main content
			Description in compliance
			Strategies of Teaching and Learning
		Advanced textbook	Main content
			Description in compliance
			Strategies of Teaching and Learning

- 차례 -

제 1 부

총론

1	지침서의 성격과 구성 체제	2
	1.1. 연구의 의의	2
	1.2. 지침서 개발 목적과 성격	4
	1.2.1. 개발 목적	4
	1.2.2. 성격	5
	1.2.2.1. 국어과 교육의 기초 자료들과의 관련성	5
	1.2.2.2. 어문 규범 교육으로서의 독자성	6
	1.3. 지침서의 구성 체제	7
	1.3.1. 총론	7
	1.3.2. 각론	8
2	교재의 개발 방향 및 집필 기준	10
	2.1. 교재 개발 방향	10
	2.2. 교재 집필 기준	11
	2.2.1. 편찬상의 유의 사항	12
	2.2.2. 내용 선정 시 유의 사항	12
	2.2.3. 제재 및 자료 선정 시 유의 사항	13

3 교재의 특성 14

3.1. 내용적 특성	14
3.2. 구성적 특성	14
3.3. 대상적 특성	15

4 교재의 구성 체제 17

4.1. 단계 설정 원리	17
4.1.1. 단계별 교재 구성 원리	17
4.1.2. 어휘 선정 개요	20
4.2. 단원 구성의 원리	37
4.3. 단원 내 구성 체제	38
4.4. 예시 단원	39
4.5. 편집 규정	49

5 교재의 교육 내용 51

5.1. 교육 내용의 선정과 배열 근거	51
5.1.1. 설문 조사 결과	51
5.1.2. 설문 조사 결과의 시사점	56
5.1.3. 설문 조사 결과의 제한점	64
5.2. 교육 내용 선정	67
5.3. 교육 내용 배열	97

제 2 부

각론

6 「단계별 어문 규범 교재 집필 지침」: 학교급 편 106

6.1. 현 학교 교육에서 어문 규범 교육의 현황과 한계점	106
6.2. 새로운 기준 근거 설정: 설문 조사 결과의 활용	110
6.3. 초등학교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 재구성	110
6.4. 중학교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 재구성	123
6.5. 고등학교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 재구성	133

7 「단계별 어문 규범 교재 집필 지침」: 일반 성인 편 139

7.1 초급 교재	139
7.1.1. 주요 내용	139
7.1.2 기술상의 유의점	140
7.1.3 교수 학습 방법: 예시 단원을 중심으로	142
7.2. 중급 교재	152
7.2.1. 주요 내용	152
7.2.2 기술상의 유의점	153
7.2.3 교수 학습 방법: 예시 단원을 중심으로	154
7.3. 고급 교재	163
7.3.1. 주요 내용	163
7.3.2 기술상의 유의점	164
7.3.3 교수 학습 방법: 예시 단원을 중심으로	165

부록

1.	어문 규범 등재 어휘 목록 I (2,056개)	176
2.	어문 규범 등재 어휘 목록 II (1,841개)	198
3.	등급별 선정 어휘 목록(835개)	218
	3.1. 초급 어휘 총 186개	218
	3.2. 중급 어휘 총 278개	220
	3.3. 고급 어휘 총 371개	223
4.	어문 규범 단계별 교재 수업 시연 후 학생 의견 조사 ..	227
5.	어문 규범 단계별 교재에 대한 수업 시연 설문지	234

제 1 부

총론

1. 지침서의 성격과 구성 체제

1.1. 연구의 의의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조선어 철자법 통일안)’이 공포된 이후 이 통일안이 우리의 어문 생활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이후 수차례의 수정과 개정 작업을 거쳐 1988년 문교부 고시의 ‘한글 맞춤법’이 재탄생되어 우리의 어문 생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학계와 정부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어문 생활에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국어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61.8%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양명희,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국립국어원, 2005:11)는 실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¹⁾ 이러한 실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9년간 교육을 받고 국민 대부분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3년간의 교육을 더 이수한다. 그러나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어문 생활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는 것은 교육 기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문 규범에 대한 교육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인식의 미미함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양명희, 2005:180)”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어문 규범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아무리 법적으로 의무 교육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어문 생활의 만족도는 질적으로 향상되기 어렵다.

어문 규범의 중요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낮다는 사실은 국어 교육의 제도적인 차원이나 교육 과정 내용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의 학년별 교수·학습 내용에는 1학년에 ‘문장 부호의 이름과 쓰임을 안다.’, 4학년에 ‘표준어와 방언의 사용 양상을 이해한다.’, 10학년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을 알고 정확하게 사용한다.’ 정도가 들어가 있다. 국어과의 학년별 교수·학습 내용 중 어문 규범과 관련해서는 이 3개의 내용 요소가 들어 있을 뿐이다.

또한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 어문 규범의 교육 내용이 포함된 것도 제6차 교육 과정 시기 이후의 일이다. 제6차 교육 과정과 현행 교육 과정의 “문법” 교과서에서 그 내용 분량은 전체 단원의 평균에도 미치지 않는 적은 분량이다.

1) 국립국어원 국고보조사업 결과보고서, 현대리서치연구소 발행, “어문 규범 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2005:11)에 따르면, 문인들의 83.6%가 어문 규정에 대해 불만족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1-1) “문법” 교과서의 단위별 분량 및 백분율

교육 과정	단위	총설	말 소 리	단어	어 휘	문장	의 미	이 야 기	국어 생활	어문 규범	부록	기 타	합계
6 차	분량	17	21	25	×	35	17	21	35	18	30	17	236
	백분율	7.2	8.9	10.5	×	14.9	7.2	8.9	14.9	7.6	12.7	7.2	100
7 차	분량	39	29	33	31	47	23	29	×	25	33	32	321
	백분율	12.2	9.1	10.3	9.7	14.6	7.2	9.1	×	7.7	10.2	9.9	100
평균	백분율	6.3	9.2	18.2	9.7	28.6	7.4	9.0	14.9	7.6	10.0	7.6	11.6

(1-1)은 신호철(2008)의 도표를 재구성한 것이다. (1-1)의 도표를 보면 어문 규범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 7.6%로 전체 평균 11.6%에도 미치지 못한다. 총설 부분을 제외한다면, 의미 단위와 함께 가장 적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초·중·고 국어과 교육 과정 내용 선정 측면에서도, 교과서의 내용 배열 측면에서도 어문 규범과 관련된 교육이 미미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나마 2009년 개정 국어과 선택 과목 교육 과정에서 어문 규범 교육이 확대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즉 2007년 개정 교육 과정 문법 과목에서의 내용 체계는 ‘국어와 읽, 국어와 삶, 국어와 열’의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여기에서 어문 규범은 ‘국어와 삶’의 하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독서와 문법 I·II>로 독서 과목과 문법 과목을 통합하였다. 여기에서 문법 과목의 내용 체계는 ‘국어와 읽, 국어와 삶, 국어와 규범, 국어와 열’의 네 개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어문 규범 차원에서 본다면 하위 요소에서 상위 범주로 격상되어 교수·학습 내용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은 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교육 과정 내용 체계의 변화로 인해 어문 규범에 대한 만족도나 중요성 인식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설부른 판단이다.

또한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국어능력인증시험의 성적 현황을 살펴보면 수험자들의 어문 규범의 성적이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떨어짐을 알 수 있다.

(1-2)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국어능력인증시험 성적 현황표

영역	'05년	'06년	'07년	'08년	평균
어휘	57.48	64.54	64.66	57.45	61.03
어법	없음	없음	59.10	61.04	60.07
어문 규범	41.51	56.78	57.43	56.56	53.07
듣기	68.12	67.00	73.66	69.08	69.47
읽기	58.79	57.16	58.92	64.31	59.80
쓰기	48.03	62.73	54.12	51.32	54.05
영역 평균	56.43	60.69	61.61	61.45	60.05

이러한 학교급별 교육 제도적인 실정이나 교육 현실과 성인들의 어문 규범 능력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어문 규범 능력 신장을 위한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립국어원의 본 연구 영역(“어문 규범의 단계별 학습을 위한 교재 개발 연구”)은 국민의 어문 규범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어문 규범을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계획되었다.

본 연구 영역은 이러한 본질적인 목적 하에 과제 1은 ‘어문 규범의 세부 항목별 이해도와 중요도 인식 실태 조사’, 과제 2는 ‘어문 규범의 단계별 학습을 위한 교재 집필 지침서 개발’, 과제 3은 ‘어문 규범의 단계별 학습을 위한 교재 개발’이라는 세 가지 하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지침서 개발은 하위 과제 2에 해당하는 것이다.

1.2. 지침서의 개발 목적과 성격

1.2.1. 개발 목적

먼저 본 지침서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앞서 지침서 개발의 목적, 지침서의 성격 등 기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지침서 개발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먼저 ‘어문 규범의 단계별(초·중·고급) 교재(이하 ‘교재’)' 개발 절차 및 구성, 활용법 등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 지침서 개발의 첫 번째 목적이다. 이는 다시 ‘1. 어문 규범 교육을 위한 단계별 교재 개발 절차에 대한 안내, 2. 교재 내용 선정과 배열에 대한 해설, 3. 단계별 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 수행’과 같이 하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초중고교 학생들이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초·중·고급) 교육을 수행할 어문 규범의 교육 내용을 정리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지침서 개발의 두 번째 목적이다. 이는 어문 규범 교육에서 교육 내용에 대한 사항들을 위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 초중고교 학생들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문 규범 교육에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어과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내용 체계를 구성하거나 집필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어과 교육 과정이나 국어 교과서에서 국어 어문 규범과 관련된 교육 내용은 다른 단위이나 내용에 비하여 분량이나 수업 시수가 매우 적다. 그 이유는 어문 규범이 다른 교수 학습 내용보다 중요성이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니요, 국어 능력을 신장하는 데에 어문 규범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해서도 아니다. 어문 규범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관련 지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어문 규범에 대한 자세한 해설서나 관련 서적들이 이미 다수가 출간되어 유통되고 있지만, 직접 국민의 인식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어문 규범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도를 기반으로 한 어문 규범의 내용 선정과 배열, 기술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은 없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 영역의 어문 규범 단계별 교재 집필 지침서를 통하여 국어과 교육 과정 개발이나 교과서 집필에 참조가 될 만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자 하였다.

지침서 개발의 목적은 위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는데, 이를 본 연구 영역의 수

행 내용과 관련하여 다시 직접적인 목적과 부수적인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인 목적은 본 연구 수행에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실행과 관련되는 목적이고, 부수적인 목적은 본 연구 영역의 결과에 의해서 향후 파생될 수 있는 효과와 관련되는 목적이다. 이와 같이 지침서 개발의 목적을 세분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3) 지침서의 목적

가. 직접적인 목적

- ① ‘어문 규범의 단계별(초·중·고급) 교재’ 개발 절차 및 교재 내용 선정·배열 해설
- ② 단계별 교재 활용법 등에 대해 안내

나. 부수적인 목적

- ① 초중고교 학생들이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교육을 수행할 어문 규범의 교육 내용을 정리하여 문서화함.
- ② 국어과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내용 체계를 구성하거나 집필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를 개발함.

1.2.1. 성격

본 지침서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영역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교재와의 관계 설정에서 도출된다. 본 지침서는 교재 내용을 단순히 안내하는 성격만을 지닌다고는 볼 수 없다. 이는 교육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 교육 과정, 교육 과정 해설서,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교과서 집필 기준안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래 국어과 교육에서는 이러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위계적인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국어 능력 속에 어문 규범 능력이 포함된다고 할 때, 본 연구 영역에서 추구하는 어문 규범 능력 신장도 국어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국어과의 교육 목표 속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문 규범과 관련된 이와 같은 교육적 기초 자료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해당 교과나 과목의 목표에 따라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문 규범 교육만을 목표로 하는 교육적 기초 자료(교육 과정, 교육 과정 해설서,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교과서 집필 기준안 등)는 아직 없다.

이러한 두 정황 속에서 본 지침서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다. 지침서의 성격으로 종래 국어과 교육과의 관련성 속에서의 성격과 어문 규범 교육의 독자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을 본 지침서의 기본적인 성격으로 보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아래 1.2.2.1.과 1.2.2.2.에 제시하겠다.

1.2.2.1. 국어과 교육의 기초 자료들과의 관련성

먼저 본 지침서는 국어과의 교육적 기초 자료들과 일정한 관련성을 가진다. 본 지침서는 어문 규범 능력 신장을 위한 어문 규범 교육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종래의 국어과의 교육 목표와 부분적으로 공통점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 기초 자료들과 깊은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지침서는 이러한 국어과 교육과의 관련성 속에서 국어과 교육 과정, 국어과 교육

과정 해설서,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 교과서 집필 기준안 등의 문서와 일정 부분 그 성격을 공유한다.

첫째, 본 지침서는 국어과 교육 과정 문서와 공통되는 성격을 지니는 부분이 있다. 교육할 대상이 최종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능력을 설정한 후, 이를 교육 목표로 삼아 기술한다는 점에서는 국어과 교육 과정 문서와 일맥상통하는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지침서는 교육 과정 해설서와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교육 과정 해설서는 교육 과정 문서에서 추상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성취 기준 및 내용 요소에 대하여 상술함으로써, 해당 성취 기준 및 내용 요소가 국어과 각 영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교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본 지침서는 설문 조사 결과를 해석하면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하는 절차를 설명하게 되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교육 내용이 어떻게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논리를 설명하게 된다는 점에서 교육 과정 해설서와 그 성격을 공유한다.

셋째, 본 지침서는 교사용 지도서와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국어과 교과서는 물리적 형상을 띠고 있기는 하나 국어과 교육 과정을 몇 단계 실행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 여전히 추상적인 실체이다. 이에 교수자는 국어 교과서의 각 단원 내용에 대하여 국어과 교육 과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는 바로 그 역할을 해 주는 문서이다. 본 지침서 제2부에서는 초급, 중급, 고급 단계의 교재가 각 단원별로 어떠한 구성을 이루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단원 구성 원리에서 설명된 내용과 함께 교재의 각 활동 단계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점에서 교사용 지도서의 성격을 공유한다.

넷째, 본 지침서는 국어 교과서 집필 기준안과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국어 교과서 집필 기준안은 국어 교과서가 국정 체제에서 검정 체제로 전환되면서 새로이 개발된 문서로, 교과서의 개발과 검수 과정에서 활용되는 실질적인 참고 자료에 해당한다. 본 지침서 역시, 실제 개발 과정을 염두에 두어 교재의 모든 자료를 검수하는 차원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국어과 교과서 집필 기준안과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1.2.2.2. 어문 규범 교육으로서의 독자성

본 지침서는 이렇게 기존의 국어과의 교육적 문서들, 즉 교육 과정 문서, 교육 과정 해설서, 교사용 지도서, 교과서 집필 기준안과 그 성격을 일정 부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문서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성격을 지닌다. 즉, 어문 규범 교육이라는 차원에서의 독자성이다.

국어과 교육 과정 속에 어문 규범 관련 교육 내용이 학년별로 명시되어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용역에서 개발하려는 교재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어문 규범 자습용 교재이기 때문에 국어과 교육 과정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 대상에서부터 국어과 교육과는 차이점을 가진다. 일반 성인들은 이미 국민 공통 기본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로써 어문 규범 교육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재교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지침서는 국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섯 개의 영역별 교육(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어문 규범이라는 특정한 교육 내용을 대상으로 하기 때

문에 교육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국어과 교육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영역에서는 어문 규범에 대한 교육 내용을 이미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한다는 특이점을 가지고 교재 집필 지침서를 구성하고 개발한다.

이러한 교육 대상과 교육 내용상의 특징으로 지침서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국어과 교육의 기초 자료들과는 구별되는, 지침서의 독자성을 포함해야 한다. 본 지침서의 목적과 성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4) 지침서의 성격

가. 국어과 교육의 기초 자료들과의 관련성

나. 어문 규범 교육으로서의 독자성

1.3. 지침서의 구성 체제

지침서는 크게 제1부 ‘총론’과 제2부 ‘각론’으로 나누어 두 개의 체제로 구성한다. 총론에서는 교재 개발의 절차와 교재의 내용 선정과 배열의 원리를, 각론에서는 교재 활용 방법을 설명한다.

1.3.1. 총론

총론에서는 지침서와 관련된 목적이나 성격, 구성 체제 등에 대해서 설명·기술한다. 그리고 교재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는데, 교재의 특성, 구성 체제, 단원 구성 원리, 교육 내용 등에 대한 것을 상술한다. 이러한 내용 기술의 흐름에 따라 총론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체제로 이루어진다.

(1-5) ‘총론’의 구성 체제

부(部)	장(章)	절(節)	항(項)	주요 내용
총론	지침서	목적		지침서 개발 목적 기술
		성격		지침서의 성격 기술
		구성 체제		지침서의 형식적 체제 기술
	교재	개발 방향		교재 개발의 기본 방향 및 세부 방향 기술
		집필 기준	편찬상의 유의 사항	교재 편찬 시 유의 사항 기술
			내용 선정 시 유의 사항	교재 내용 선정 시 유의 사항 기술
			제재 및 자료 선정 시 유의 사항	교재 제재 선정 시 유의 사항 기술
		특성	내용적, 구성적, 대상적 특성	교재의 특성 기술
		체제	단계 설정 원리	설문 조사 결과에 기초한 등급별 단계 설정 원리 기술

			단원 구성의 원리	각 교재의 단원 구성 원리 기술
			단원 내 구성 체제	단원 내 구성 체제 기술
			예시 단원	단원 모형 예시
			편집 규정	편집 규정 기술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의 선정과 배열 근거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른 교육 내용 선정과 배열의 근거 기술
			교육 내용 선정	설문 조사 결과와 교육 내용 선정의 연계 기술
			교육 내용 배열	설문 조사 결과와 교육 내용 배열의 연계 기술

1.3.2. 각론

각론에서는 각급별 교재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한다. 각론은 크게 ‘학교급 편’과 ‘일반 성인 편’의 두 부분으로 구성한다. 먼저 학교급 편에서는 본 연구 영역의 직접적인 실행 목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향후 국어과 교육 과정이나 국어과의 교과서를 제작할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교재 개발 지침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한다. 교재 구성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학교급별 어문 규범 교육 내용에 대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일반 성인 편에서는 이미 단계별로 구분한 초급, 중급, 고급 교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상술한다.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습용 교재로서 전체적인 교재의 구성 체제는 공통된 틀을 유지하지만, 각각 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 체제, 주요 교육 내용,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에서의 유의점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한다.

(1-6) ‘각론’의 구성 체제

부(部)	장(章)	절(節)	주요 내용
단계별 어문 규범 교재 집필 지침	학교급 편	어문 규범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국어과 교육에서 어문 규범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기술
		새로운 기준 근거 설정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한 학교급별 어문 규범 교육 목표 및 내용 재구성
		초등학교	초등학교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 재구성
		중학교	중학교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 재구성
		고등학교	고등학교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 재구성
	일반 성인 편	초급 교재	주요 내용 기술
			기술상의 유의점
			교수·학습 방안 제시

		중급 교재	주요 내용 기술
			기술상의 유의점
			교수·학습 방안 제시
		고급 교재	주요 내용 기술
			기술상의 유의점
			교수·학습 방안 제시

2. 교재의 개발 방향 및 집필 기준

2.1. 교재 개발 방향

어문 규범의 단계별 학습을 위한 교재 개발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기본 개발 방향을 설정한다. 즉 국민의 어문 규범에 대한 인지도 향상, 어문 규범 교육의 효율성을 바로 교재 개발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된 교재 집필의 두 가지 기본 방향에 유념하면서 교재를 개발하되,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의 세부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통찰하면서 교재를 개발할 것이다.

먼저 국어과 교육 과정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는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2007 국어과 교육 과정의 ‘성격’을 규정하는 부분에서는 ‘국어 교과’가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국어를 사용하고,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뜻을 세우게 하기 위한 교과’임을 밝혀서 국어 교육의 기본 정신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물론 본 개발 교재가 교육 정책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급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문 규범 교육이라는 국어 교육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교육 내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어과의 교육 과정에서 천명하고 있는 기본 정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문 규범 교육을 통해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문 규범의 단계별 학습을 위한 교재는 이러한 기본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과 체제를 갖추어 개발할 것이다.

두 번째, 본 연구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국어 능력 신장’이라는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활용할 수 있고,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며, 국어 현상에 흥미를 가지고 탐구하는 태도를 갖추어 국어 발전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세 가지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 영역의 본질적인 목적인 ‘국민의 어문 규범 능력 신장’도 이러한 맥락 속에 자리하고 있다. 국민들이 어문 규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국어 생활 속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국어를 사용하면서 말(담화)과 글(문장)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데에 원활한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세 번째,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한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어문 규범은 지켜야 하지만 너무 어려워서 지킬 수 없는 규칙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고정된 틀에서 탈피하고 선입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머릿속에서만 갈무리되어 있는 언어 자료가 아닌 실제 말글살이에서 부려 쓰고 있는 언어 자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즉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언어 자료들을 대상으로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번째,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일반 성인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어문 규범에 대한 지식을 이미 일정 수준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확보하고 있는 지식 수준은 학습자의 인지 능력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성인 학습자들은 이미 인지적, 정의적 사고와 언어 능력의

완성 단계에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성인 학습자들의 관점에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제재나 학습 동기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교재를 편성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초급, 중급, 고급 수준에 알맞은 적절한 난이도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교재를 제작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국민의 어문 규범 인식 실태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 용역에서 첫 번째 과제로 어문 규범의 세부 항목별 이해도와 중요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설문 조사 결과를 교재 개발에 반영하여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된 교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

여섯 번째, 성인 학습자가 자습용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성인 학습자들은 학생들과 달리 바쁜 사회생활 속에서 어문 규범에 대한 집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성인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고 익힐 수 있는 어문 규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교재를 쉽게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성인들이 어문 규범 지식을 갖추어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국어 어문 규범은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되는 지식 내용이며, 학습자로 하여금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국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어문 규범을 성인 학습자들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앞에서 교재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1) 교재 개발 방향

가. 기본 방향

- ① 국민의 어문 규범에 대한 인지도 향상
- ② 어문 규범 교육의 효율성 제고

나. 세부 방향

- ① 국어과 교육 과정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는 교재 개발
- ② 어문 규범 능력 신장을 실현할 수 있는 교재 개발
- ③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한 교재 개발
- ④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교재 개발
- ⑤ 국민의 어문 규범 인식 실태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교재 개발
- ⑥ 성인 학습자가 자습용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교재 개발

2.2. 교재 집필 기준

앞에서 제시한 교재 개발의 기본 방향과 세부 방향을 천착하고 교재를 집필한다. 그러나 교재 집필의 기본 방향이나 세부 방향은 말 그대로 교재 집필자의 집필 방향 안내 기능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더욱 세부적인 집필 기준을 제시하여 다수의 교재 집필자가 하나의 교재를 개발하는 데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교재 집필 기준으로 ‘편찬상의 유의 사항’, ‘내용 선정 시 유의 사항 및 기준’, ‘제재 및 자료 선정 시 유의 사항 및 기준’의 세 가지를 제시한다.

2.2.1. 편찬상의 유의 사항

편찬상의 유의 사항은 교재를 집필하는 데 당위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지켜야 할 기준들이다. 먼저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 교육기본법,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등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교재 속의 내용에는 교육의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교육 내용 자체가 정치적, 종교적, 사회·문화적인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교육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 정당, 종파, 인물, 인종, 상품, 기관 등을 선전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되며, 남녀 간의 평등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세 번째로, 학습자 중심의 목표가 진술되어야 한다. 즉 어문 규범 교육을 통하여 성인 학습자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학습 목표를 학습자 중심으로 진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표기와 인용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한다. 교재 내의 표기나 표현은 국어 어문 규범이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고, 계량 단위 등은 국가 표준 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인명, 지명, 통계, 도표, 지도 등 모든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활용한다. 또한 의미의 정확한 해석과 전달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병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인용한 모든 자료의 출처를 밝힌다. 다섯 번째로, 학습 목표, 학습 안내, 학습 활동 등의 진술이 간결하고 구체적이며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멀티미디어, 인터넷 웹 사이트 등을 활용할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다양하게 활용하되, 공공 기관이나 단체에서 개설한 웹 사이트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편찬상의 유의점을 유념하면서 교재 집필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 편찬상의 유의점

- 가. 관계 법령 준수
- 나. 교재 내용에 교육의 중립성 유지
- 다. 학습자 중심의 목표 진술
- 라. 표기와 인용의 정확성 유지
- 마. 자료 활용의 다양성
- 바. 진술 내용의 구체성, 간결성, 통일성 유지

2.2.2. 내용 선정 시 유의 사항

본 교재를 개발하면서 교재의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에 고려해야 할 대상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예로 등장하는 어휘이고 다른 하나는 어문 규범 항목이다. 국어 어문 규범(규정 본문, 비고란, 해설)에는 2,500개가 넘는 어휘들이 예시되어 있다. 물론 이것은 표준어 모음(1990. 9. 14. 문화부 공고 제36호로 발표됨)에 등장하는 어휘 목록(1200여 개)을 제외한 수치이다. 수많은 어휘들이 등장하는데 이 어휘들 가운데에는 현재 국어 생활 속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어휘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어휘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예시할 어휘들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4대 어문 규범의 원칙 항목의 숫자는 205개에 달한다.

이 역시 교재에 모두 수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문 조사에서 실시한 일상생활상의 필요 정도(중요도)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어문 규범 항목들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교재에 들어갈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어휘와 어문 규범 항목을 염두에 두면서 내용 선정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2-3) 내용 선정 시 유의 사항

가. 어휘의 난이도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선정한다.

나. 4대 어문 규범 각각의 세부 항목들의 난이도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선정한다.

다. 어휘와 어문 규범 항목 선정 시에 '과제 1: 설문 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한다.

라. 교재의 내용은 실제 국어 사용 맥락에서의 유용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마.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

바.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하고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며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한다.

사. 일반적인 한국인의 국어 생활 속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학습자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한다.

아. 4대 어문 규범의 항목 수를 고려하여 균등하게 비례적으로 내용을 선정한다.

자. 국어 현상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탐구 활동과 학습한 내용을 국어 사용의 실제에 적용하는 활동을 하는 데 적합한 내용을 선정한다.

차. 정확한 국어 자료뿐만 아니라 오남용을 보여 줄 수 있거나 국어 문제를 발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한다.

카. 학습자의 어문 규범 능력을 신장시키고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 언어 현상을 자료로 활용한다.

2.2.3. 제재 및 자료 선정 시 유의 사항

교재에는 교육 내용뿐 아니라 이를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제재에 대한 선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범교과 학습 제재를 선정하도록 하되 다음과 같은 유의 사항과 기준으로 제재를 선정하도록 한다.

(2-4) 제재 및 자료 선정 시 유의 사항 및 기준

가. 국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어문 규범에 대한 바른 사고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 학습자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라.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이해하고 이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마. 학습자의 정서를 순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바. 다문화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사. 다루어지는 설명이나 예문 등은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한국인의 국어 생활 속에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 가능한 한 학습자의 수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자. 지나치게 특정 이론서에서 다루어지는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선정되지 않도록 한다.

3. 교재의 특성

본 연구 영역에서 개발하는 교재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자습용 어문 규범 교재로서 집합 교육용 교재의 성격도 충족할 수 있는 교재이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재는 교육 대상에서부터 교육 내용, 교재의 성격에서 다른 교과서나 교재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을 지닌다.

3.1. 내용적 특성

우선 교재의 내용적인 면에서 다른 교과서나 교재와는 구별되는 특징적인 점이 있다. 교재의 교육 내용이 국어 어문 규범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국어 교육의 문법 영역에서도 국어 어문 규범이라는 내용 범주에 속하는 것을 특성화하고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어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의 양적 제한과 시수의 제한 때문에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국어 어문 규범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국민의 어문 규범 능력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문 규범만을 교육 내용으로 한다는 것은 학습자의 어문 규범 능력을 신장하여 정확하고 원활한 국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어문 규범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세 권의 단계별 교재로 개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발주처인 국립국어원에서 국민의 어문 규범 능력을 신장하고자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국민의 어문 규범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도 인식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하였다는 점을 특징적인 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 영역의 제1 과제인 어문 규범의 세부 항목별 이해도와 중요도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완료하였다. 여기에서 국민의 어문 규범 자체에 대한 이해도 실태 조사와 어문 규범 관련 제시어의 일상생활상의 중요도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어문 규범 항목에 대한 정답률의 정도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수준으로 등급화하고, 어문 규범 관련 제시어(예시 어휘)들의 중요도 인식 결과에 따라 역시 초급, 중급, 고급 교재에 분산하여 배치하였다. 이는 여타의 특성화된 교과서나 교재에서는 볼 수 없는 실증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이해의 수준에 따라 선정하고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배열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점으로 제시할 만한 특성이다.

그리고 언어 자료가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맥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교재라는 특성을 가진다. 본 교재에서 추구하는 사항은 바로 실제로 살아있는 언어 자료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실제 언어 자료를 예로 제시함으로써 본 교재는 어문 규범 항목들이 적용되는 국어 사용 맥락을 교재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생생한 어문 규범 교재라는 것을 내용적 특성으로 삼을 수 있다.

3.2. 구성적 특성

다음으로 교재의 구성적인 특성으로는 우선적으로 어문 규범 교육 내용을 초급-중급-고급의

3단계로 구별하여 구성하였다는 점을 특징으로 삼을 수 있다. 이는 학습자의 어문 규범에 대한 이해 정도와 어문 규범의 필요 정도를 고려한 단계적인 구성의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느 교과서나 교재와 마찬가지로 각 소단원의 구성 체제를 ‘길잡이’-‘미리보기’-‘탐구하기’-‘연습하기’-‘참고하기’-‘마무리’로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길잡이’의 경우는 종래의 길잡이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즉, 현재 학습해야 할 교육 내용에 대해 학습자에게 제시하여 학습자가 학습 준비를 흥미 있게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탐구하기’를 두어 어문 규범 내용의 실제와 원리를 동시에 학습하는 부분을 두었다. 그리고 단원과 장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단원 구성 체제를 특징으로 한다. 어문 규범의 단계별 학습 교재는 기본적으로 단원(unit)이란 명칭으로 구성하되, 대단원과 소단원(‘장’에 해당)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곧 각 단계별 교재는 4대 어문 규범 즉,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차례로 하나씩 대단원을 구성하며, 대단원 내부의 구성은 각 어문 규범의 세부 항목별로 소단원을 구성한다.

3.3. 대상적 특성

마지막으로 교육 대상적 특성을 제시할 수 있다. 본 개발 교재의 교육 대상은 일반 성인 학습자이다.²⁾ 이 성인 학습자들은 이미 고등학교 교육까지 마친 학습 대상으로 어문 규범에 대한 교육 내용을 다시 학습하는 성격을 가진다. 성인 재교육 차원의 어문 규범 교육을 하여야 할 환경이기에 본 교재는 성인 학습자들의 집합 교육용 교재의 성격과 자습용 교재의 성격을 모두 충족하도록 계획하지만, 주로 성인 학습자의 자습용 교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미 고등 교육을 이수한 성인 학습자라 하더라도 어문 규범에 대한 인지 정도는 개인별로 차이가 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수준별로 단계를 구분하여 교육하기 위해 교재를 구성하였다는 점도 본 교재의 특성이라 할 만하다.

(3-1) 교재의 특성

가. 내용적 특성

- ① 어문 규범 내용만을 대상으로 특성화한 교재
- ② ‘실제 어문 규범 항목의 이해도’와 ‘어문 규범 관련 제시어의 일상생활상의 필요 정도’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한 교재
- ③ 언어 자료가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맥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교재

나. 구성적 특성

- ④ ‘초급’-‘중급’-‘고급’ 교재의 단계적인 구성
- ⑤ 현재 학습 내용의 알림 기능
- ⑥ 이전 단계의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구성

2) 물론 지침서에서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교재 개발의 지침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2010년 본 연구 영역의 교재 개발 범위에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교재는 제외되어 있다.

- ⑦ 실제와 원리를 탐구할 수 있는 구성
- ⑧ 대단원과 소단원(장)의 복합적 단위 구성 체제

다. 대상적 특성

- ⑨ 어문 규범 재교육 차원에서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자습용 교재
- ⑩ 성인 학습자의 어문 규범 인지 수준별로 단계를 구분한 교재

4. 교재의 구성 체제

4.1. 단계 설정 원리

우리가 개발하려는 교재의 주된 특성은 초급·중급·고급의 단계별 구성으로 집약된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 구별을 위한 대상과 기준을 바탕으로 초급·중급·고급 3단계 설정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4.1.1. 단계별 교재 구성 원리

우선 교재의 단계 설정을 위한 기본 대상으로 어문 규범에 예시된 어휘를 선택하였다. 일반 어휘가 아닌 어문 규범에 예시된 어휘이기 때문에 어문 규범에 대한 규칙과 원리가 이 어휘들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어문 규범에 예시된 어휘를 대상으로 이들의 수준별 난이도를 설정하여 각 단계를 설정한다면 각 어문 규범 항목의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어문 규범의 인식 실태 조사를 통하여 검증할 수 있다. 즉, 두 차례의 어휘 선정 과정을 거쳐 선정된 100개의 어휘 항목을 바탕으로 설문지 문항을 작성하고, 작성된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각 어휘 항목(또는 문항)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도’에 대한 조사 대상자(피설문자)의 응답을 통하여 각 단계를 설정한다. 그러한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기술한다.

여기에서 어문 규범 항목의 ‘이해도’와 ‘중요도’에 대한 개념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 두 개념은 단계를 설정하는 하나의 기준과 원리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개념적 해석이 명확해야 한다. 일단 ‘이해도’와 ‘중요도’의 개념은 ‘과업 지시서’에 예시된 사이시옷 규정에 대한 세부 항목별 ‘난이도3)·중요도 조사 대상의 예’에서 찾을 수 있다.

(4-1) [참고 1] 한글 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 규정의 세부 항목별 난이도·중요도 조사 대상 예
가. [문 1] 아래의 단어들의 표기에는 사이시옷 규정이 관련됩니다. 사이시옷의 세부 규정이 이해하기 쉽습니까?

	쉽다	보통이다	어렵다
①넋가(순 우리말 합성어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남)			
②뱃물(순 우리말 합성어이고 ‘ㄴ’ 소리가 났남)			
③나뭇잎(순 우리말 합성어이고 ‘ㄴㄴ’ 소리가 났남)			
④땃줄(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남)			

나. [문 2] 아래의 단어들의 표기에는 사이시옷 규정이 관련됩니다. 해당 세부 규정의 적용을 받는 단어들을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 3) 어문 규범 자체의 ‘난이도’와 어문 규범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의 ‘이해도’는 개념상 차이가 있다. 그러나 난도가 높으면 이해도가 낮아지고, 난도가 낮으면 이해도가 높아지는 식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 용역 ‘과업 지시서’에서는 ‘난이도’와 ‘이해도’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매우 자주	보통으로	드물게
①넋가(순 우리말 합성어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남)			
②넋물(순 우리말 합성어이고 ‘ㄴ’ 소리가 넋남)			
③나넋잎(순 우리말 합성어이고 ‘ㄴㄴ’ 소리가 넋남)			
④넋줄(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남)			

다. [문 3] 다음은 사이시옷 규정에 제시된 예들입니다. 모르는 단어, 사용 빈도가 낮은 단어가 있으면 해당 칸에 모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모르는 단어 (√)	사용 빈도가 낮은 단어 (√)
가윗일		
갯날		
고랫재		
곶간(庫間)		
곶밥		
곶병		
곶목		
곶잎		
나룻배		

(4-2) [참고 2] 실태 조사의 유의점

어문 규범의 세부 내용 자체의 이해도와 중요도에 대한 인식 점검이 중심이되, 필요시 (위 [문 3]과 같이) 규정집에 예시된 단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일상생활상의 출현 빈도·중요성에 대한 인식 점검을 포함할 수 있음.

(4-1)의 (가)는 제시한 어문 규범 관련 문항을 조사 대상자가 이해하기 쉬운가, 어려운가, 아니면 보통인가를 점검하는 설문이다. 여기에서 난이도는 조사 대상자가 어문 규범의 내용 항목을 이해하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쉬운지의 정도(즉, 이해의 용이성)를 가리킨다. 즉, 어문 규범 항목에 대한 난이도와 이해도는 유사한 개념으로 해석된다.

또한 (4-1)의 (나)는, 어문 규범 관련 세부 규정의 적용을 받는 단어들을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그 빈도를 점검하는 설문이다. 어문 규범 세부 항목의 적용을 받는 단어들의 출현 빈도는 그 단어들의 국어 생활상의 중요성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출현 빈도가 높은 것은 국어 생활에 그만큼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출현 빈도가 낮은 것은 국어 생활에 그만큼 덜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어휘 항목의 중요성 개념은 해당 어휘 항목의 ‘출현 빈도’와 ‘일상생활상의 필요성’에 기초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4-1)의 (다)는 어문 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단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해의 정도와 출현 빈도를 동시에 점검하는 설문이다.

이와 같이 과업 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어문 규범 세부 항목의 ‘난이도’는 이해의 용이성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어문 규범 세부 항목의 ‘중요도’는 어문 규범 세부 항목(예: 사이시옷 규정, 두음 법칙 규정 등)의 출현 빈도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필요성의 정도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4-3) 어문 규범 세부 항목의 ‘이해도’와 ‘중요도’의 개념

가. 이해도: 어문 규범 세부 항목에 대한 조사 대상자(피설문자)의 이해 정도

나. 중요도: 어문 규범 세부 항목의 출현 빈도나 일상생활에서의 필요 정도

어문 규범 세부 항목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도의 개념을 (4-3)과 같이 해석하였다. 해석된 개념을 바탕으로 설문 조사에 나타나는 어휘 항목(또는 문항)에 대한 정답률을 바탕으로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다. 곧 어휘 항목의 정답률이 높은 것은 조사 대상자(피설문자)의 어문 규범 세부 항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정답률을 보이는 것은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어휘 항목(어문 규범 관련 제시어)에 대한 일상생활상의 필요 정도를 묻는 5점 척도에 의해서 해당 어휘 항목의 일상생활에서의 필요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문 규범의 단계를 구분하는 원리를 설정한다. 즉, 어문 규범에 예시로 나타나는 어휘 항목을 단계 설정의 대상으로 삼고, 어휘 항목의 ‘이해도’와 ‘필요 정도(중요도)’의 응답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 양자의 상호 복합적인 작용을 통하여 어문 규범의 단계별 학습 교재(즉 초중고급 교재) 각각에 예시할 어휘 후보를 분류하는 원리를 삼는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4) 어문 규범 항목의 단계 설정의 원리(초중고급 교재에 예시할 어휘 후보를 분류하는 원리)

가. 대상: 어문 규범 항목의 예시 어휘

나. 기준: ‘어문 규범 항목의 이해도’와 ‘어문 규범 관련 제시어의 일상생활상의 중요도’

다. 원리: ‘어문 규범 항목의 이해도’와 ‘어문 규범 관련 제시어의 일상생활상의 중요도’의 상호 작용

- 1) 초급: 가) 매우 필요하고 아주 쉬운 항목
나) 매우 필요하고 보통 쉬운 항목
다) 보통 필요하고 아주 쉬운 항목
- 2) 중급: 가) 보통 필요하고 보통 쉬운 항목
나) 매우 필요하나 어려운 항목
다) 드물게 필요하고 아주 쉬운 항목
- 3) 고급: 가) 드물게 필요하고 어려운 항목
나) 보통 필요하고 어려운 항목
다) 드물게 필요하고 보통 쉬운 항목

(4-5) 어문 규범 단계 설정 도표

중요도 이해도	높음 (일상생활에 매우 필요함)	보통 (일상생활에 보통 필요함)	낮음 (일상생활에 드물게 필요함)
높음 (아주 쉬움)	★초급	★초급	★★중급
보통 (보통 쉬움)	★초급	★★중급	★★★고급
낮음 (어려움)	★★중급	★★★고급	★★★고급

4.1.2. 어휘 선정 개요

본 항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어휘 선정 작업의 경위와 기준을 밝히고, 전국 단위 설문 조사 개요를 언급하여 앞 절에서 밝힌 어문 규범 항목의 단계 설정 원리 설정의 과정에 대하여 상술한다. 이러한 단계 설정 원리의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어문 규범 항목의 단계 설정의 근간이 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본 개발 교재의 핵심적인 특성인 단계(초급·중급·고급)의 범위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4.1.2.1. 1차 어휘 선정

4.1.2.1.1. 선정 경위

어문 규범의 단계별 교재를 개발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어문 규범에 대한 이해도와 일상생활에서의 중요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를 조사하였는데, 설문 조사 항목으로 선정할 어휘로 어문 규범에 예시로 등재되어 있는 어휘의 수를 자체 조사하였다. 한글 맞춤법에 수록된 어휘 1,012개, 표준어 규정에 수록된 어휘 1,092개, 외래어 표기법에 수록되어 있는 어휘 395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수록되어 있는 어휘 98개, 총합 2,597개의 어휘를 추출하였다. 이 가운데에서 각 어문 규범에 중복으로 출현하는 어휘를 제외하고, 용언의 어간 활용형으로 등장하는 어휘들을 제외하여 2,056개의 어휘를 추출하였다.⁴⁾ 이 가운데에서 다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어휘를 중심으로 선별하여 1,841개의 어휘를 추출하였다.

이를 가지고 국어 전문가인 참여 연구원 14명(책임 연구원 1명, 공동 연구원 5명, 연구 보조원 8명)에게 초급, 중급, 고급의 어휘들과 등급 외에 해당하는 어휘들을 선별하도록 하였다. 초급은 1점, 중급은 2점, 고급은 3점, 등급 외는 4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4) 여기 2,056개에서 국립국어원의 과업 지시서의 지시 내용에 따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수록되어 있는 어휘 98개는 설문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2,056개 - 98개 = 1,958개).

(4-6) 14명의 전문가 평정 1단계 예시

어휘	평균	전문가 1	전문가 2	전문가 3		전문가 11	전문가 12	전문가 13	전문가 14
(전략)									
부로	3.071	2	4	3		3	2	3	4
연로	2.214	2	3	2		3	1	2	2
지뢰	1.642	1	1	2		1	1	2	2
낙뢰	1.928	1	2	3		1	2	2	2
(후략)									

이렇게 해서 전체 14명의 연구원이 부여한 점수들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각각의 어휘에 평균값이 정해졌다. 이 가운데에서 3.0~3.356점에 해당하는 14개의 어휘는 등급 외로 분류하여 제외하고 전체 1,826개 어휘를 선별하였다.

1,826개 어휘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선별하였다. 어문 규범의 단계별 교재의 각각의 분량적 제한을 고려하여 초급 교재에 150여 개, 중급 교재에 250여 개, 고급 교재에 400여 개 어휘를 수록한다는 판단 하에 800여 개의 어휘를 단계별 교재에 수록하기로 결정하였다.

어문 규범에 수록되어 선별한 어휘 1,826개에서 700개를 선별하고, 나머지 135개의 어휘는 어문 규범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실생활에서 그 사용 빈도나 필요성이 높은 어휘들을 “표준국어대사전”과 최근에 발간된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 교재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이하 ‘기타 어휘’).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어문 규범에 수록되어 있는 어휘와 ‘기타 어휘’를 합쳐 총 835개 어휘를 선정하였다.

4.1.2.1.2. 선정 기준

835개의 어휘를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4-7) 1차 어휘 목록 선정 기준과 절차

가. 어문 규범 등재 어휘(2,597개)

나. ‘가’에서 중복 어휘, 어간의 활용형 제외(2,056개)

다. ‘나’에서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어휘 중심 선별(1,840개)

라. 전문가 14명의 직관에 따른 등급 부여(초급 1점, 중급 2점, 고급 3점, 등급 외 4점)

마. 각 어휘의 평균 점수 계산

바. 3.0~3.357점에 해당하는 어휘 제외(등급 외 14개, 1,826개)

사. ‘바’에서 각 어문 규범별 어휘 수록 비율 및 수효 산출

(한글 맞춤법 50.49% 922개, 표준어 규정 42.33% 773개, 외래어 표기법 7.18% 131개, 총 1,826개)

아. 각 어문 규범의 초, 중, 고급의 균등 비율 산정

(한글 맞춤법 초급 33.51% 309개, 중급 35.03%, 323개, 고급 31.45% 290개, 소계 922개)

(표준어 규정 초급 36.22% 280개, 중급 30.91% 239개, 고급 32.85% 254개, 소계 773개)

(외래어 표기법 초급 35.11% 46개, 중급 36.64% 48개, 고급 28.24% 37개, 소계 131개)

자. 선정 어휘 1,826개 대 700개의 비율로 '아'에서 산정한 초급, 중급, 고급의 비율에 맞추어 각 어문 규범의 초급, 중급, 고급의 어휘를 선정

(한글 맞춤법 초급 119개, 중급 124개, 고급 111개 = 354개)

(표준어 규정 초급 107개, 중급 92개, 고급 97개 = 296개)

(외래어 표기법 초급 17개, 중급 18개, 고급 15개 = 50개) 총 700개

차. 국립국어연구원(2002),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 조남호(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김광해(2003), “등급별 국어 교육용 어휘”에서 제시한 등급을 참조하고, 가급적 실생활에 자주 출현하는 어휘와 설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휘를 중심으로 전문가의 평정에 따라 700개 어휘를 선정

카.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 교재 “바른국어생활”에 등장하는 어휘들 가운데 한글 맞춤법(50.49%), 표준어 규정(42.33%), 외래어 표기법(7.18%)과 관련된 어휘 항목을 가급적 비율대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 어휘들은 어문 규범에는 등장하지 않은 어휘들이지만 실생활에서 아주 중요하고 자주 사용되는 어휘들이기 때문에 추가로 선정한 것이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 관련 어휘 56개, 표준어 규정 54개, 외래어 표기법 25개 총 135개 어휘를 추가로 선정함.⁵⁾

타. 어문 규범에 등재되어 있는 어휘 700개와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 교재 “바른국어생활”에 등장하는 기타 어휘 135개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835개의 어휘 선정

파. 선정된 835개 어휘를 중심으로 한 설문 문항 개발.

(4-8) 어문 규범 등재 어휘 선정 평균 통계⁶⁾

등급	평균값	개수	계	비고	선정 어휘 수
1	1.0	74		초급 (309, 33.51%)	118.43개 (119)
	1.071	62			
	1.143	55			
	1.214	64			
	1.286	54			
	1.357	65		중급 (323, 35.03%)	123.8개 (124)
	1.429	61			
	1.5	47			
	1.571	60			
	1.643	46			
	1.714	44			

5) 100개의 어휘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실생활에서의 중요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어휘들을 고르다 보니 135개의 어휘를 선정하게 되었다.

6) 3등급 어휘는 설문 대상에서 제외하여 전체 1,840개 선정 어휘 중 1,826개를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에서 설문 항목에 선정할 어휘수로 700개 어휘를 등비수로 압축하였다

등급	평균값	개수	계	비고	선정 어휘 수
	1.786	31		고급 (290, 31.45%)	111.15개 (111)
	1.857	41			
	1.923	1			
	1.929	36			
			741		
2	2.0	23			
	2.071	23			
	2.143	18			
	2.214	20			
	2.231	1			
	2.286	11			
	2.357	15			
	2.385	1			
	2.429	14			
	2.5	12			
	2.571	14			
	2.643	10			
	2.714	8			
	2.786	5			
	2.857	1			
	2.929	5			
			181		
3	3.0	2		등급 외 (11)	
	3.071	4			
	3.143	2			
	3.214	1			
	3.286	1			
	3.357	1			
			11		
			933	계 (922, 50.49%)	353.43개 (354)

(4-9) 한글 맞춤법 등재 어휘 선정 평균 통계⁷⁾

등급	평균값	개수	계	비고		
				선정 어휘	비율	최종 어휘 수
1	1.0	83				
	1.071	91				
	1.143	91				
	1.214	103				
	1.286	99				
	1.357	104				
	1.429	110				
	1.462	1				
	1.5	103				
	1.571	111				
	1.643	90				
	1.714	95				
	1.786	84				
	1.857	86				
	1.923	1				
	1.929	71				
			1,323	초급 635 중급 610 고급 78		초급 243 중급 234
2	2	62				
	2.071	65				
	2.143	53				
	2.214	62				
	2.231	1				
	2.286	41				
	2.357	46				
	2.385	1				
	2.429	34				
	2.5	42				
	2.571	34				
	2.643	25				
	2.714	17				
	2.786	11				
	2.857	2				
	2.929	7				
			503	고급 503		고급 223
3	3	3				
	3.071	5				
	3.143	2				
	3.214	2				
	3.286	1				
	3.357	1				
			14	0		
			1,840	1,826개	38.33%	700개

7) 전체 선정 어휘 1,826개 중 700개를 선정하였다. 한글 맞춤법에서 선정한 어휘는 700개 중 50.49%에 해당하는 354개(353.43개)다.

(4-10) 표준어 규정 등재 어휘 선정 평균 통계⁸⁾

등급	평균값	개수	계	비고	선정 어휘 수
1	1.0	9		초급 (280, 36.22%)	107.32개 (107)
	1.071	27			
	1.143	34			
	1.214	36			
	1.286	38			
	1.357	38			
	1.429	44			
	1.462	1		중급 (239, 30.91%)	91.58개 (92)
	1.5	52			
	1.571	50			
	1.643	39			
	1.714	42			
	1.786	46			
	1.857	37			
	1.929	26			
		519	519		
2	2.0	33		고급 (254, 32.85%)	97.33개 (97)
	2.071	28			
	2.143	24			
	2.214	34			
	2.286	25			
	2.357	22			
	2.429	17			
	2.5	24			
	2.571	19			
	2.643	11			
	2.714	8			
	2.786	6			
	2.857	1			
	2.929	2			
		254	254		

8) 전체 선정 어휘 1,826개 중 700개를 선정하였다. 표준어 규정에서 선정한 어휘는 700개 중 42.33%에 해당하는 296개(296.31개)다.

등급	평균값	개수	계	비고	선정 어휘 수
3	3.0	1		등급 외 (3)	
	3.071	1			
	3.214	1			
			3		
합계			776	계(773, 42.33%)	296.31개(296)

(4-11) 외래어 표기법 선정 어휘 평균 통계⁹⁾

등급	평균값	개수	계	비고	선정 어휘 수
1	1.071	2		초급 (46, 35.11%)	17.64개 (18)
	1.143	2			
	1.214	3			
	1.286	7			
	1.357	1			
	1.429	5			
	1.5	4			
	1.571	1			
	1.643	5			
	1.714	9			
	1.786	7			
	1.857	8			
	1.929	9			
		63	63		
2	2.0	6		중급 (48, 36.64%)	18.41개 (18)
	2.071	14			
	2.143	11			
	2.214	8			
	2.286	5			
	2.357	9			
	2.429	3			
	2.5	6			
	2.571	1			
	2.643	4			
				고급 (37, 28.24%)	14.19개 (14)

9) 전체 선정 어휘 1,826개 중 700개를 선정하였다. 외래어 표기법에서 선정한 어휘는 700개 중 7.18%에 해당하는 50개(50.26개)다.

등급	평균값	개수	계	비고	선정 어휘 수
	2.714	1			
		68	68		
3		0	0	등급 외 (0)	
합계			131	계 (131, 7.18%)	50.26개 (50)

위의 기준과 절차를 통하여 설문 조사를 위한 1차 어휘 835개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1차 자문 회의를 통하여 자문 위원들과의 회의 과정 속에서 수정 및 보완 사항이 제기되었다.

첫째, 어문 규범 관련 주요 어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된 어휘 선정 문제이다. 실제로 외래어 표기법에 등장하는 어휘들을 보면 실생활과는 무관한 어휘들이 많이 실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에 등재되어 있는 어휘 중 최종 선정된 어휘들을 보면 (4-12)의 (가)와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들이 많다는 것이다.

(4-12)가. 강가(ganga), 푸가(fuga), 케이프(cape), 미뇽(mignon) 등
나. 돈가스, 프라이팬, 가톨릭, 윈도 등

그러나 (4-12)의 (나)는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교재에 등장하는 외래어 표기의 예들인데, 이들은 외래어 표기법에는 예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생활에 자주 등장하는 중요도가 높은 어휘들이다. 이렇게 외래어 표기법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실생활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외래어 표기들은 실태 조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어휘 선정 과정은 어문 규범집에 등장하는 어휘들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잘 쓰이지 않는 외래어가 선정되었고,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어휘들이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자문 회의에서 본 연구진들과 국립국어원의 연구 용역 감독관, 자문 위원들의 협의를 통하여 실생활에 자주 등장하는 외래어 어휘들을 추가하여 결정하였다.

둘째, 음성 언어에서 거의 실현되지 않는 어휘 선정은 무의미하다. 예를 들어, ‘쉬어도/쉬아도’의 발음의 혼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어휘보다는 ‘잡아/잡어’와 같은 어휘의 혼동이 좀 더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문회의 참여자들은 ‘쉬어도/쉬아도’와 같이 음성 언어로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어휘들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셋째, 설문 문항의 수와 관련된 사항이다. 앞서 제시한 과정 속에서 선정된 어휘는 총 835개이다. 이들 어휘 각각의 이해도와 중요도를 조사할 경우 문항 수는 무려 1,670개나 된다. 설문 문항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응답률에 대한 신뢰도를 보장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자문 회의를 통해 설문 문항의 수, 즉 선정 어휘의 수를 100개로 줄이기로 결정하였다.

4.1.2.2. 2차 어휘 선정

1차 자문 회의를 거쳐 1차 어휘 선정 내용에 대한 수정 및 협의 사항들을 바탕으로 하여 설

문 조사를 위한 2차 어휘 선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2차 어휘 선정과 관련된 선정 경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4.1.2.2.1. 선정 경위

1차 어휘 선정을 통하여 총 835개 어휘가 선정하고, 각각의 해당 어휘가 속하는 어문 규범을 찾아 그 규정을 묻는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800개의 설문 문항은 피설문자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자문 위원들의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2차 어휘 선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100개의 어휘를 선정하게 되었다.

우선 835개의 어휘(해당 어휘가 적용된 문항)를 대상으로 하여 국어 전문가인 참여 연구원 20명(책임 연구원 1명, 공동 연구원 5명, 연구 보조원 8, 보조원 6)에게 초급, 중급, 고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어휘들과 등급 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어휘들을 선별하도록 하였다. 즉,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어휘(혹은 설문 문항)는 4점을 부여하고, 난이도에 따라 초급은 1점, 중급은 2점, 고급은 3점을 각각 부여하도록 하였다.

(4-13) 20명 전문가 평정 2단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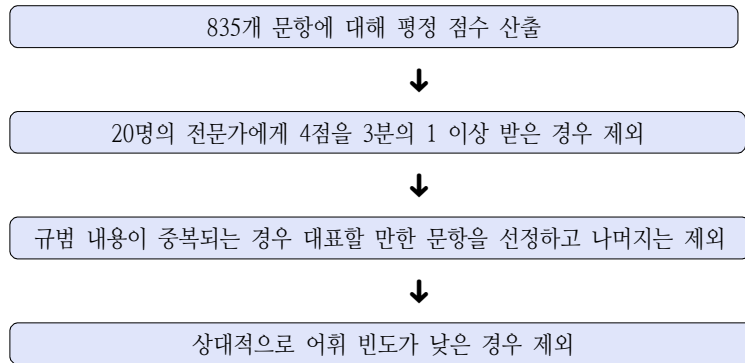
문항	평균	전문가 1	전문가 2		전문가 19	전문가 20
(전략)						
집안의 큰일을 {①치러 / ②치뤼} 몸살이 났다.	2.11	1	2		3	2
그 모든 것이 {①탐탁하다 / ②탐닥하다}.	2.89	4	4		2	4
아기가 {①턱바지/ ②턱받이}를 하고 있다.	2.74	1	4		2	4
(후략)						

이렇게 해서 전체 20명의 전문가가 부여한 점수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각각의 어휘에 평균값을 부여하였다. 우선 자문 회의 과정에서 언급된, ‘쉬어도/쉬아도’와 같은 어휘를 제외하였다. 그 다음은 20명의 전문가들에게서 4점을 3분의 1 이상 받은 경우 선정 어휘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그 후 어문 규범에 등재되어 있는 어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평균값을 바탕으로 하여 대표 어휘를 선정하고 나머지 어휘는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휘를 선정하고자 상대적으로 어휘 빈도가 낮은 어휘가 사용된 문항을 제외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문 문항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100개의 어휘(혹은 설문 문항)를 선정하였다.

4.1.2.2. 선정 기준

835개 어휘 중 100개의 어휘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4-14) 100개의 어휘 목록 선정 기준과 절차



4.1.2.3. 설문 조사

두 차례의 어휘 목록 선정 작업을 거쳐 100개의 어휘(또는 문항) 목록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어휘 항목을 바탕으로 설문 조사지를 개발하여 전국 단위의 어문 규범 세부 항목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도에 대한 인식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본 연구팀이 주관하고 전문 조사 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사(R&R사)’에서 조사·수행하였다.

국민의 어문 규범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재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으로써 2010년 6월 23일부터 7월 16일까지 초·중·고·대학생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어문 규범의 이해도와 일상생활에서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번 설문 조사는 만 9세(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남녀 중에서 초등학교 3학년 100명과 초등학교 5학년 100명, 중학교 2학년 100명, 고등학교 2학년 100명, 대학교 2학년(3~4학기 이수자) 100명, 공무원 100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조사 방법의 경우 연령과 학력을 고려하여 초·중·고등학생에게는 집단 면접을 실시하였고, 대학생과 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별 면접을 실시했다.

총 표본 수는 600명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pm 4.0\%$ 이다. 조사 대상자는 지역·연령대별로 할당된 표본을 추출하였다. 지역의 경우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전국 총 5개소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연령대(또는 직종별)로도 할당된 표본인 100명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15) 표본 설계

구분 권역	조사 대상 표본						
	초등학생 (3학년)	초등학생 (5학년)	중학생 (2학년)	고등학생 (2학년)	대학생 (3,4학기)	공무원 (행정직)	합계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600
수도권	20	20	20	20	20	20	120
강원권	20	20	20	20	20	20	120
충청권	20	20	20	20	20	20	120
전라권	20	20	20	20	20	20	120
경상권	20	20	20	20	20	20	120

(4-16) 응답자 특성

		사례 수	비율
		(명)	(%)
전체		600	100.0
학교(직업)	초등 3학년생	100	16.7
	초등 5학년생	100	16.7
	중 학 생	100	16.7
	고 등 학 생	100	16.7
	대 학 생	100	16.7
	공 무 원	100	16.7
성별	남 성	307	51.2
	여 성	293	48.8
거주지	수 도 권	120	20.0
	강 원 권	120	20.0
	충 청 권	120	20.0
	전 라 권	120	20.0
	경 상 권	120	20.0
성장지	수 도 권	115	19.2
	강 원 권	116	19.3
	충 청 권	115	19.2
	전 라 권	123	20.5
	경 상 권	127	21.2
	기타(제주 및 해외)	4	0.7
전학 유무 (초등학생)	전 학	38	19.0
	비 전 학	162	81.0
성장지 (초등학생)	수 도 권	7	18.4
	강 원 권	7	18.4
	충 청 권	1	2.6
	전 라 권	11	28.9
	경 상 권	8	21.1
	기타(제주 및 해외)	4	10.5

초·중·고등학생은 권역별로 1~2개 학교를 선정하 후 각 학교별로 1개 학급을 선정하여 집단 면접을 실시하였다. 학교 선정의 경우 전국 학교 목록에서 수도권, 강원, 대전, 광주, 대구 지역의 학교를 무작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개씩을 선정하고, 초등학교 3학년과 5학

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1개 반 학생을 전수 조사하였다. 이는 학급 단위로 조사할 경우 개인의 학업 성취 수준을 고려하여 표집할 수 있다는 정점이 있다. 그러나 계획된 조사 인원보다 과대 표집한다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설문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문 인원과 관련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초과 조사된 인원의 경우 사전 조사의 결과값과 심한 오차를 보이는 결과를 배제하고 전산 프로그램의 무작위 표본 추출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다음 대학생의 경우 2학년(3, 4학기 이수자)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각 권역에 위치한 대학교 중 각 권역별로 무작위로 2개 대학교를 선정하여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고 개별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사전 방문 협조를 통하여 시군구청 및 지역주민센터(舊동사무소)에 면접원이 방문하여 개별 면접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설문지에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이해도’와 ‘어문 규범 관련 제시어에 대한 일상생활상의 필요 정도(중요도)’를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문 조사지의 설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4-17) 설문 조사지 내용

구분	문항 번호	세부 조사 내용
한글 맞춤법	1	오늘 내가 입은 옷은 {①무니, ②무늬}가 참 독특하다.
	2	폭설이 마을을 {①덮혔다, ②덮쳤다}.
	3	길이 막혀 늦었다는, 뻔한 {①핑계, ②핑계}는 통하지 않았다.
	4	그는 {①놀음, ②노름}으로 전 재산을 잃었다.
	5	그는 {①쓰슬한, ②쓰쓸한} 표정을 지었다.
	6	사위를 위해 장모님은 {①암담, ②암탕}을 잡으셨다.
	7	할머니는 {①정결히, ②정결이} 세수를 하시고 기도를 하셨다.
	8	매년 남원 {①광한루, ②광한누}에서는 춘향제가 열린다.
	9	선생님의 질문에 성욱이는 {①짹막하게, ②짹막하게} 대답했다.
	10	아직도 {①남존녀비, ②남존여비} 사상에 빠져 있다니.
	11	아이들이 자세를 {①홀뜨리고, ②홀드리고} 만화를 보고 있다.
	12	현재 경기 점수는 {①이 대 일, ②이 대일}이다.
	13	요즘 주머니 사정이 좀 {①넉넉치, ②넉넉지} 않다.
	14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①오투기, ②오투이} 같다.
	15	수레에 짐을 많이 {①실고, ②실고} 간다.
	16	그들은 {①세방, ②셋방}에서 살림을 시작했다.
	17	손님을 가장 좋은 자리에 {①앉혔다, ②앉쳤다}.
	18	{①변변찮은, ②변변찮은} 제 자식을 부탁드립니다.
	19	그는 {①외골, ②외골}로만 가려고 한다.
	20	그것은 {①학생으로서, ②학생으로써} 해야 될 일이다.
	21	얼마나 {①늦을는지, ②늦을런지} 잘 모르겠다.
	22	조금 더 일찍 {①출발할걸, ②출발할걸}.
	23	이 일은 {①며칠, ②몇일}이나 걸리겠습니까?

	24	유리창을 걸레로 {①쓱쓱쓱, ②쓱쓱쓱} 닦았다.
	25	어머니께서는 큰일을 {①치러, ②치뤼} 몸살이 났다.
	26	나는 생각한다. {①그러므로, ②그럼으로} 존재한다.
	27	고무줄을 길게 {①느렸다, ②늘였다, ③늘렸다}.
	28	책상을 벽에 바짝 {①부쳤다, ②붙였다}.
	29	이 숙제는 언제까지 하면 {①돼, ②되}?
	30	{①생각건대, ②생각컨대} 이번 일은 우리가 잘못된 것 같아.
	31	오빠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 매일 {①살고기, ②살고기}만 먹었다.
	32	포기하지 않으면 문제를 더 {①맞힐, ②맞출} 수 있다.
	33	나의 점수를 {①백분율, ②백분률}로 환산했다.
	34	그 연필은 너무 {①알파랴다, ②얇다랴다}.
	35	어서 {①들어오십시오, ②들어오십시오}.
	36	그는 {①학생이었다, ②학생이었다}.
	37	그 자리에는 {①내로라하는, ②내노라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38	그 물을 마시지 {①말아라, ②마라}.
	39	그는 {①넉넉치, ②넉넉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다.
	40	그 일이 발각되었으니 난 이제 {①어떻해, ②어떡해}.
	62	이건 국민 투표에 {①붙이는, ②부치는} 안건이야.
표준어 규정	41	선생님께서 지각한 학생들을 {①나무라셨다, ②나무레셨다}.
	42	조카 {①똥, ②똥}잔치에 다녀왔어.
	43	{①열두째, ②열둘째}, 규칙을 잘 지켜라.
	44	내 친구는 {①멋장이, ②멋쟁이}다.
	45	이 강아지는 {①숫것, ②수컷}이다.
	46	{①윗층, ②위층}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왔다.
	47	토끼가 {①깡충깡충, ②깡충깡충} 잘도 뛰다.
	48	시장할 텐데 {①미숫가루, ②미숫가루}라도 한 잔 타 드릴까요?
	49	봄이 되니까 {①아지랑이, ②아지랭이}가 피어오른다.
	50	두 집안은 이번에 {①사돈, ②사돈}을 맺게 되었다.
	51	{①수평, ②숫평}을 흔히 ‘장끼’라고 부른다.
	52	목수는 집을 짓고 {①미장이, ②미쟁이}는 벽을 바른다.
	53	명하니 {①천장, ②천정}만 쳐다보고 있었다.
	54	오이와 호박은 모두 {①넙쿨, ②덩쿨} 식물이다.
	55	들판에 {①수양, ②숫양}을 풀어 놓았다.
	56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 {①안절부절못하고, ②안절부절하고} 있었다.
	57	땅을 {①마구잡이, ②마구잡이}로 사들였다.
	58	어머니께서 {①총각무, ②알타리무}를 다듬으셨다.
	59	그 일이 얼마나 오래전의 {①일이든가, ②일이던가}.
	60	아이가 {①랜스레, ②랜시리} 겁을 먹고 도망갔다.
	61	넌 글씨가 {①괴발개발, ②개발새발}이구나.
	63	그들은 형제지만 성격이 매우 {①틀리다, ②다르다}.

	64	세계 여행은 늘 그의 {①바람, ②바람}이었다.
	65	정말 {①오랫만에, ②오랜만에} 친구와 놀았다.
	66	그녀가 {①웬일, ②웬일}로 여기까지 찾아왔지?
외래어 표기법	67	이 분은 유명한 {①재즈, ②썰즈} 연주가이다.
	68	이 장비의 {①시그널, ②시그날}이 일정하지 않아.
	69	그의 말은 한마디로 {①난센스, ②넌센스}였다.
	70	그것은 믿을 수 있는 {①데이타, ②데이터}이다.
	71	21세기는 {①디지털, ②디지탈} 시대라 할 수 있다.
	72	아이가 {①로보트, ②로봇} 선물을 받고 좋아한다.
	73	그는 진정한 {①마니아, ②매니아}였다.
	74	{①메시지, ②메세지}가 도착했습니다.
	75	{①밸런타인데이, ②발렌타인데이}가 열흘 남았다.
	76	저 연필이 몇 {①센티미터, ②센치미터}가 되는지 궁금하다.
	77	이번 {①양케이트, ②양케트}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다.
	78	그녀는 {①엑세서리, ②악세사리}를 자주 구입한다.
	79	그의 겨울 {①재킷, ②자켓}은 매우 따뜻해 보였다.
	80	아침에 {①주스, ②쥬스}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대.
	81	이것은 손수 만든 {①초콜릿, ②초코렛}이다.
	82	{①케익, ②케이크}에 초를 여러 개 꽂았다.
	83	누구에게나 {①컴플렉스, ②컴플렉스}가 있다.
	84	{①도넛, ②도나쓰} 한 개를 먹었다
표준 발음법	85	나는 {①후라이드치킨, ②프라이드치킨}을 즐겨 먹는다.
	86	다음 미술 시간에는 {①크레용, ②크레용}을 준비하세요.
	87	선덕여왕은 신라[①신나, ②실라]의 왕이다.
	88	밭에서 무릎을[①바세서 무르블, ②바테서 무르플] 다쳤다
	89	뒷산에 밤나무[①밤나무, ②밤 : 나무]를 심었다. (※ ‘:’는 긴 소리 표시임)
	90	새벽에 닭이[①달기, ②다기] 울었다.
	91	너의 딸을 내 며느리로 삼고[①삼꼬, ②삼고] 싶구나.
	92	이번 역은 선릉[①설릉, ②선능]역입니다.
	93	어머니께서는 김밥[①김밥, ②김빡]을 잘 만드신다.
	94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권력을 공권력[①공뀐력, ②공뀔력]이라고 한다.
	95	반죽 모양이 뭉죽하다[①넉쭈카다, ②넵쭈카다].
	96	어제 답임[①다임, ②다님] 선생님과 면담했다.
	97	숨이불[①숨 : 니불, ②소 : 미불(←숨 : 이불)]을 덮고 자니 포근하다.
	98	얼굴이 얼거나[①억꺼나, ②얼꺼나] 검거나 상관이 없다.
	99	다음 주 월요일[①워요일, ②월요일]에 만납시다.
	100	토끼는 앞발이 짧고[①짧꼬, ②짧꼬], 뒷발이 길다.

위와 같이 100개의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설문지의 각 문항별로 어휘(문항)의 단계를 전문가 평정에 의해서 구분하였다.

(4-18) 설문 문항 별 단계 설정(전문가 평정)

번호	어휘	해당 항	전문가 평점	등급
1	무늬	한글맞춤법 9항	2.00	중
2	덮쳤다	한글맞춤법 22항	2.21	중
3	핑계	한글맞춤법 8항	1.89	중
4	노름	한글맞춤법 19항	1.89	중
5	썹썹한	한글맞춤법 13항	2.00	중
6	암탉	한글맞춤법 31항	1.95	중
7	정결히	한글맞춤법 51항	2.05	중
8	광한루	한글맞춤법 12항	1.89	중
9	짹짹하게	한글맞춤법 21항	1.79	초
10	남존여비	한글맞춤법 10항	1.79	초
11	흘뜨리고	한글맞춤법 22항	2.21	고
12	일 대 일	한글맞춤법 45항	1.53	초
13	섭섭지	한글맞춤법 40항	2.32	고
14	오뎅이	한글맞춤법 23항, 표준어 규정 8항	1.68/ 1.63	초/초
15	걸어서	한글맞춤법 18항	2.47	고
16	셋방	한글맞춤법 30항	2.21	고
17	앉혔다	한글맞춤법 22항	1.95	중
18	변변찮은	한글맞춤법 39항	2.47	고
19	외곶	한글맞춤법 14항	2.26	고
20	학생으로서	한글맞춤법 57항	1.68	초
21	늦을는지	없음(추가100개에 해당)	1.89	중
22	출발할 걸	한글 맞춤법 53항	1.63	초
23	며칠	한글맞춤법 27항	2.11	고
24	썹썹썹	한글맞춤법 13항	2.00	중
25	치러	한글맞춤법 18항	2.11	고
26	그러므로	한글맞춤법 57항	1.42	초
27	늘였다	한글맞춤법 57항	1.89	중
28	불였다	한글맞춤법 57항	1.68	초
29	돼	한글맞춤법 35항	1.79	초
30	생각건대	한글맞춤법 40항	2.42	고
31	살코기	한글맞춤법 31항	1.79	초
32	맞힐	한글맞춤법 57항	2.05	중

33	백분율	한글맞춤법 11항	2.16	고
34	알파랑다	한글맞춤법 21항	2.42	고
35	들어오십시오	한글맞춤법 15항	1.68	초
36	학생이었다	없음(추가100개에 해당)	1.84	초
37	내로라하는	없음(추가100개에 해당)	2.21	고
38	마라	한글맞춤법 18항	1.95	중
39	넉넉지	한글맞춤법 40항	2.32	고
40	어떡해	없음(추가100개에 해당)	2.05	중
41	나무라셨다	표준어 규정 11항	2.05	고
42	둘	표준어 규정 6항	2.11	고
43	열두째	표준어 규정 6항	1.89	중
44	멋쟁이	표준어 규정 9항	1.26	초
45	수컷	표준어 규정 7항	1.84	중
46	위층	표준어 규정 12항	1.79	중
47	깡충깡충	표준어 규정 8항	1.63	초
48	미숫가루	표준어 규정 11항	1.84	중
49	아지랑이	표준어 규정 9항	1.63	초
50	사돈	표준어 규정 8항	1.74	초
51	수평	표준어 규정 7항	2.42	고
52	미장이	표준어 규정 9항	1.37	초
53	천장	표준어 규정 17항	1.89	중
54	넉쿨	표준어 규정 26항	1.95	중
55	숫양	표준어 규정 7항	2.05	고
56	안절부절못하고	표준어 규정 25항	2.00	고
57	마구잡이	표준어 규정 15항	2.42	고
58	총각무	표준어 규정 22항	1.95	중
59	일이던가	표준어 규정 17항	1.68	초
60	팬스레	없음(추가100개에 해당)	1.58	초
61	괴발개발	없음(추가100개에 해당)	2.21	고
62	부치는	한글맞춤법 57항	1.95	중
63	다르다	없음(추가100개에 해당)	1.47	초
64	바람	표준어 규정 11항	1.84	중
65	오랜만에	없음(추가100개에 해당)	1.89	중
66	웬일	없음(추가100개에 해당)	1.89	중
67	재즈	외래어 표기법 3장 1절 3항	1.79	고

68	시그널	외래어 표기법 2장 표1(모음)	2.00	고
69	난센스	외래어 표기법 2장 표1(모음)	1.74	중
70	데이터	외래어 표기법 2장 표1(모음)	1.58	초
71	디지털	없음. [didʒɪtl] 무성파열음 다음에 유음[l]이 올 경우	1.37	초
72	로봇	외래어 표기법3장 표기 세칙1항 (무성파열음-어말)	1.63	중
73	마니아	외래어 표기법 1장 5항	1.58	초
74	메시지	외래어 표기법 2장 표1(모음)	1.53	초
75	벨런타인데이	외래어 표기법 2장 표1(모음)	1.89	중
76	센티미터	외래어 표기법 2장 표1(모음)	1.58	초
77	양케트	외래어 표기법 2장 표1(모음)	2.26	고
78	엑세서리	외래어 표기법 2장 표1(모음)	1.74	중
79	재킷	외래어 표기법 2장 표1(모음)	1.58	초
80	주스	외래어 표기법 2장 표1(모음)	1.53	초
81	초콜릿	외래어 표기법 2장 표1(모음)	1.63	중
82	케이크	외래어 표기법3장 표기 세칙 1항(무성파열음-어말)	1.42	초
83	콤플렉스	외래어 표기법 2장 표1(모음)	1.63	중
84	도넛	외래어 표기법 3장 1절 표기 세칙 1항(무성파열음-어말)	1.53	초
85	프라이드치킨	외래어 표기법 2장 표기일람표(자음)	1.47	초
86	크레용	외래어 표기법 3장 3절 3항	2.05	고
87	신라[실라]	표준 발음법 20항	1.63	초
88	밭에서 무릎을 [바테서 무르플]	표준 발음법 13항	1.75	중
89	밤나무[밤 : 나무]	표준 발음법 6항	2.11	중
90	닭이[달기]	표준 발음법 11항	1.89	초
91	삼고[삼꼬]	표준 발음법 24항	1.89	초
92	선릉[설릉]	표준 발음법 20항	2.26	고
93	김밥[김밥]	표준 발음법 없음	없음	
94	공권력[공뀐녁]	표준 발음법 20항	없음	
95	넙죽하다[넙쭈카다]	표준 발음법 10,23항	2.21	고
96	담임[다밈]	표준 발음법 13항	2.89	고
97	숨니불[숨 : 니불]	표준 발음법 29항	2.16	중

98	엮거나[엮꺼나]	표준 발음법 11항	2.11	중
99	월요일[워요일]	표준 발음법 13항	1.68	초
100	짧고[잘꼬]	표준 발음법 10항	1.95	중

위의 도표는 20명의 전문가 판단에 의해서 어휘 항목(문항)의 등급 수는 초급 33개, 중급 36개, 고급 27개, 없음 4개였다. 이 가운데에서 등급이 없는 어휘(김밥[김밥], 공권력[공편력])는 추후에 추가한 것으로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면서 자주 틀리는 것으로 ‘기타 어휘’에 해당하는 것을 임의로 추가한 것이다.

4.2. 단원 구성의 원리

앞 장에서 단원 구성의 특징으로 단원(unit)과 장(chapter)의 복합적 구성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구성 체제를 유지하기 하기 위한 기본 원리와 원칙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먼저 교재의 분량에 따른 내용 항목 조정의 원리이다. 본 연구 영역에서 교재의 분량을 제한하고 있다. 즉, 초급 교재는 100쪽 내외, 중급 교재는 150쪽 내외, 고급 교재는 200쪽 내외로 그 분량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분량 제한으로 인하여 각 급별 교재의 내용 항목이 일정 부분 조정될 수밖에 없다. 모든 급별 교재에서 어문 규범의 모든 내용을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교재의 양적 제한 때문에 어문 규범 교육 내용 항목을 난이도에 따라 각각의 급별 교재에 분산 배치하였다. 이렇게 단원을 구성하는 것은 구성 원리라기보다는 분량의 제한에서 기인된 제한점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범주의 균형을 고려한 내용 항목 조정 원리이다. 본 연구 영역에서는 4대 어문 규범에 등장하는 어휘의 수와 어문 규범의 항목 수를 고려하여 비례적으로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순으로 설문 문항의 수가 작성되었다. 이러한 비례 논리를 교재의 단원 구성에도 적용하여 각 어문 규범의 범주의 균형을 고려하여 내용 항목을 조정하였다. 이는 특정한 어문 규범 범주에 편중되지 않게 하려는 단원 구성의 원리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교수·학습의 적절성을 고려한 단원 구성 체제이다. 교육 내용의 중요도나 난이도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이를 각 단원에 배치하는 원리로 교수자가 가르치는 데 편리하고, 학습자가 배우는 데 용이한 단원 체제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길잡이’를 두어 현재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내용을 지시하도록 하였다.

네 번째로, 단원의 순서는 4대 어문 규범의 체계와 순서를 따르도록 하였다. 어문 규범에서 이미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구성 체제를 본 개발 교재에서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본래 어문 규범의 체계와 순서를 그대로 따라 어문 규범과 개발 교재 간의 체계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 소단원 중심의 단원 배열의 원리이다. 교재의 구성은 대단원과 소단원의 체제를 따른다. 그래서 각 급별 교재에는 4개의 대단원(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구성되고 그 하위의 소단원들이 균등적으로 배치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대단원은 실질적인 대단원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고 단지 어문 규범의 범주를 구분해 주는 기능만을 담당한다. 따라서 각각의 소단원은 하나의 단원이 되는 독립성을 가지는 동시에 어문 규범의 대범주를 구성하는 종속의 속성을 가지는 양면적 성격을 가진다. 즉 단원을 시작하는 ‘길잡이’와 단원을 끝마치는 ‘마무리’는 대단원에서는 구성하지 않고 각각의 소단원에서만 구성한다.

이러한 단위 구성의 원리를 정리하면 아래의 내용으로 요약된다.

(4-19) 단위 구성 원리

- 가. 양적 제한에 따른 조정
- 나. 범주의 균형성에 따른 조정
- 다. 교수·학습의 적절성에 따른 구성
- 라. 어문 규범의 체계에 따른 구성
- 마. 소단원 중심의 단위 구성

4.3. 단위 내 구성 체제

앞에서 각 급별 교재의 단위 구성 원리와 수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한 개의 단원을 구성하는 단위 내부의 구성 체제에 대하여 기술한다.

소단원(unit) 중심 체제로 교재를 구성하고, 대단원은 분류의 기능만 한다고 앞에서 기술하였다. 소단원의 수는 분량적 제한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는데, 각 급별 교재의 단원의 수로 초급 교재는 15개 단위, 중급 교재는 20개 단위, 고급 교재는 27개 단위¹⁰⁾으로 구성하였다.

소단원 내의 구성 체제는 ‘길잡이’-‘미리보기’-‘탐구하기’-‘연습하기’-‘참고하기’-‘마무리’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소단원의 짜임을 통하여 먼저 학습자에게 학습 목표와 해당 단위에서 학습해야 하는 내용들을 간략히 제시하면서 현재 교수·학습 내용을 학습자에게 인지시키고, 탐구 학습을 통하여 교육 내용의 실제와 원리를 학습한다. 그리고 학습한 내용을 연습하고 좀 더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학습 활동을 수행하고,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단원의 학습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각각의 소단원이 구성된다. 이러한 소단원의 학습 모형을 통하여 소단원 내의 세부 요소들에 대하여 상술하면 아래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4-20) 소단원 세부 구성 체제

	단위 세부 내용	내용 설명
1	소단원 명	단원의 첫 부분에 학습할 내용을 특징적, 인상적으로 나타나게 제시함.
2	길잡이	해당 단원을 학습할 때 목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함.
3	미리 보기	학습할 내용을 암시적으로 제시함.

10) 고급 교재는 원래 25개의 단원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는데, 어문 규범의 항목 수의 문제로 인하여 부족이하게도 27개 단원으로 증가하였다.

4	탐구하기	학습할 내용의 실제와 원리를 탐구함.
5	연습하기	학습한 내용을 연습함.
6	참고하기	학습한 내용에서 심화된 내용을 학습함.
7	마무리	단원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함.

‘소단원명’은 학습할 내용을 메타적인 문법 용어로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어휘나 학습 내용 중 핵심 내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용어로 제시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집필자들에게는 전자의 방식이 편리하겠지만, 학습자들을 고려한다면 후자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길잡이’는 소단원명의 바로 아래에 제시하여 해당 단원을 학습하여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그 목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미리보기’는 학습할 내용을 암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에게 학습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삽화나 사진 자료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탐구하기’는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실재를 통하여 원리를 설명한다. ‘미리보기’에서 제시된 것과 동일한 맥락을 취하지만, 다른 사례를 제시한다. 규범에 관한 설명은 자제하도록 한다. 그리고 ‘탐구하기’의 내용은 ‘탐구 1’, ‘탐구 2’, ‘탐구 3’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 → 응용 1 → 응용 2’ 등으로 각 단원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하도록 하였다(설명문식 구성, 문제식 구성, 그림 활용 구성 등).

‘연습하기’는 연습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연습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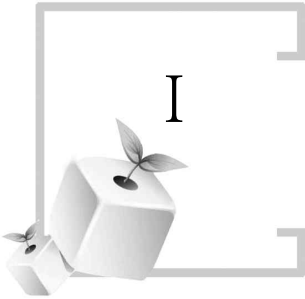
‘참고하기’는 소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심화하여 학습하는 부분이다.

‘마무리’는 단원을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도표나 상자, 화살표, 짧은 줄글 등의 형식으로 정리하도록 하였다.

4.4. 예시 단원

아래에 예시 단원을 작성하여 제시함으로써 교재를 집필하는 데 교재의 형식적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예시 단원은 본보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단원의 구성 체제에 초점을 두고 작성한 것으로 단원의 내용 자체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4-21) 교재 예시 단원



한글 맞춤법

- (1) '야단법썩'은 '야단법석'으로
- (2) '혜택'은 '혜택'으로
- (3) '태능'은 '태릉'으로
- (4) '~지 말아라'는 '~지 마라/말랴'로
- (5) '깨끗하'는 '깨끗이'로
- (6) '떡볶기'는 '떡볶이'로
- (7) '숯가락'은 '숯가락'으로
- (8) '띄다'와 '띠다'
- (9) '오십시요'는 '오십시오'로
- (10) '가수겸 배우'는 '가수 겸 배우'로
- (11) '가던지'와 '가든지'



(3) '태능'은 '태릉'으로



길잡이

-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 'ㄴ, ㄹ'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안다.
- 여러 단어가 어울려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경우 두음 법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안다.
-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안다.





미리 보기



☞ '남녀평등'이 옳다.



탐구하기

탐구 1

‘태능’은 ‘태릉’으로



의존 명사의 두음 법칙

‘냥(兩)’, ‘년(年)’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ㄴ’ 음을 인정한다.

두음 법칙은 ‘ㄹ’이나 ‘ㄴ’이 단어 첫머리에 올 때에 적용된다. 따라서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ㄹ’이나 ‘ㄴ’의 본음대로 적는다. 위 그림처럼, 많은 사람들이 ‘태릉’이 맞는지 ‘태능’이 맞는지 헷갈려 한다. 발음하기는 ‘태능’이 더 편할 수도 있지만,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태릉’이 맞는 말이다. 다른 예들을 더 살펴보자.

여자(女子)-남녀(男女)

양심(良心)-선량(善良)

낙원(樂園)-쾌락(快樂)

역사(歷史)-이력(履歷)

익명(匿名)-은닉(隱匿)

유입(流入)-급류(急流)



신여성이란 개화기 때 신식 교육을 받은 여자를 이르던 말이 었다. ‘신여성’의 발음은 [신녀성]인데 왜 ‘**신여성**’으로 적을까? 이것은 ‘녀성’이 먼저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아서 ‘여성’이 되고, 여기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신-’이 붙은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남존여비(男尊女卑)’와 ‘해외여행(海外旅行)’의 경우 ‘남 존’과 ‘여비’, ‘해외’와 ‘여행’이 합해서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따라서 각각의 두 단어에 대해 두음 법칙이 따로 적용된다. 즉 ‘남 존녀비’, ‘해외려행’이 아니라 ‘남존여비’, ‘해외여행’으로 적어야 맞는 것이다.

‘남녀(男女)’와 ‘남과 여’
‘남녀’는 남자와 여자를 아울러 이르는 한 단어 이다. 반면 ‘남과 여’처럼 각각의 단어로 쓰일 경우에는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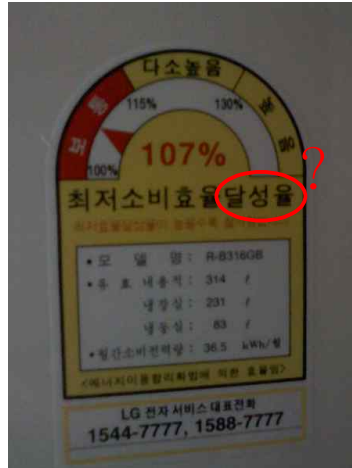
탐구 3

‘달성율’은 ‘달성률’으로

몰염치와 파렴치

‘몰염치(沒廉恥)’와 ‘파렴치(破廉恥)’의 경우 같은 ‘염치(廉恥)’가 들어가는데 왜 표기를 다르게 할까? ‘몰염치’를 보면 ‘파렴치’는 ‘파염치’로 적어야 한 것 같지만, 이렇게 적으면 언중들의 실제 발음인 [파렴치]와 달라지므로, 실제 발음에 따라 ‘파렴치’를 올바른 표기로 인정하고 있다.

‘몰염치’의 ‘몰’은 ‘그것이 전혀 없음’을 뜻하는 접두사이다.(예: 몰상식, 몰인정) 한글 맞춤법 제11항에 따르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된 말은 뒷말이 첫소리에 두음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몰염치’가 바른 표기이다.



한자어에서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그런데 한자음 ‘율’과 ‘률’을 바르게 표기하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한다. 이는 두음 법칙의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른’은 ‘열, 율’로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렬, 른’로 적는다. 즉, ‘비렬(卑劣)’, ‘비률(比率)’을 각각 ‘비열’, ‘비율’로 적고, ‘진렬(陳列)’, ‘백분률(百分率)’을 각각 ‘진열’, ‘백분율’로 적어야 한다.

이러한 예외를 둔 것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른’ 마저 한자 본음대로 표기할 경우, 표기가 실제 발음과 멀어지기 때문이다.

위 사진의 ‘달성율’은 ‘률’이 모음이나 ‘ㄴ’ 받침 다음에 온 것이 아니고 단어의 첫머리에 온 것도 아니므로 ‘달성율’이 아닌 ‘달성률’로 적어야 한다.



연습하기

1. 다음 단어들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 보자.

- 1)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①공염불, ②공념불}에 지나지 않았다.
- 2) 시장 분석이 미흡한 상황에서 창업할 경우 {①실패율, ②실패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
- 3) {①광한누, ②광한루}는 전북 남원시에 있는 {①누각, ②루각}이며, 춘향전의 배경으로 유명하다.
- 4) 이 연못에는 구렁이 부부가 {①쌍용, ②쌍룡}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전한다.

2. 다음의 낱말 수수께끼를 풀어 보자.

				가로 열쇠							
				1) '까닭', '이치'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 그럴 ○가 없다.				세로 열쇠			
				3) 조선 선조 때의 무장(1546~1592). 본관은 평산. 자는 입지(立之). 임진왜란 때 충주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왜군을 막다가 전사하였다.				2) 개화기 때에, 신식 교육을 받은 여자를 이르던 말.			
1)				2)				3)			
	4)										
5)								6)			
7)				8)							
				4) 사회적 지위나 권리에서 남자를 여자보다 우대하고 존중하는 일.				5) 찢어져 나뉘. 집단이나 단체, 사상이 갈라져 나뉘.			
				7) 열을 에너지의 한 형태로 보고 열과 역학적 일과의 관계에서 출발하여 열평형, 열 현상 등을 연구하는 학문.				6) 다른 수나 양에 대한 어떤 수나 양의 비(比).			
				8) 전체 수량을 100으로 하여 그것에 대해 가지는 비율.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단위.							



도움말

두음 법칙은 한자음에서 단어의 첫머리에 'ㄹ'이나 'ㄴ'이 오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다. 그러나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 적용되기 때문에 'ㄹ'이나 'ㄴ'이 두 번째 음절 이하에 올 때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 1. 1) ①, 2) ①, 3) ②, ① 4) ②

2. 1) 리, 2) 신여성, 3) 신립, 4) 남존여비, 5) 분열, 6) 비율, 7) 열역학, 8) 백분율



참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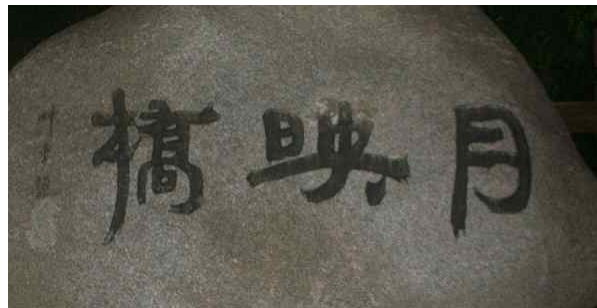
경상북도 안동시에는 어느 부부의 아름답고 승고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나무다리가 있다. 그런데 이 다리의 이름이 표지판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월령교



월영교



위의 그림은 동일한 장소에 있는 표지판이다. 이 다리를 왼쪽 표지판에서는 ‘월령교’라고 하고, 오른쪽 표지판에서는 ‘월영교’라고 하고 있다. 무엇이 맞는 것일까? 이것도 두음 법칙과 관계있는 것일까? ‘월영교’의 한자 표기는 아래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로 ‘月映橋’이다. 두 번째 글자인 ‘映’의 독음은 ‘령’이 아닌 ‘영’이다. 따라서 이 다리의 이름은 두음 법칙과 상관없이 ‘월영교’가 맞다.

이처럼 원래 한자음의 첫소리가 ‘ㄱ’이나 ‘ㄴ’이 아니면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비슷한 예로 잎이 넓은 나무를 ‘활엽수’라고 적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활엽수’로 적어야 하며, 발음도 [활엽수]가 아닌 [화엽수]가 맞다. 활엽수(闊葉樹)의 두 번째 글자 ‘葉’의 음은 ‘엽’이 아니라 ‘엽’이기 때문이다.



마무리

두음 법칙의 원리

두음 법칙에서 주의할 점

두음 법칙은 한자어에 적용된다. 한 자어의 어두에 ‘ㄱ’이나 ‘ㄴ’이 오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		의존 명사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본음대로 적는다.	냥(兩), 년(年), 리(里), 리(理)
녀, 뇨, 뉴, 니 →여, 요, 유, 이	녀자(女子) →여자		
랴, 려, 레, 료, 류, 리 →야, 여, 예, 요, 유, 이	례의(禮儀) →예의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신여성(新女性), 역이용(逆利用), 연이율(年利率), 열역학(熱力學), 중노동(重勞動)
라, 래, 로, 뢰, 루, 르 →나, 내, 노, 뇌, 누, 느	래일(來日) →내일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 적용되기 때문에 ‘ㄱ’이나 ‘ㄴ’이 두 번째 음절 이하에 올 때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남녀(男女)) 혼례(婚禮)) 거래(去來))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 룰’은 ‘열, 율’로 적는다.	나열(羅列), 선열(先烈), 비율(比率), 백분율(百分率)

※ 관련 규정: 한글 맞춤법 제10항, 제11항, 제12항

4.5. 편집 규정

교재 편찬을 할 때 다음과 같은 편집 규정을 정하여 통일성 있게 단계별 교재를 제작한다.

(4-22) 편집 규정

가. 문자: ‘한글’로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괄호 속에 ‘한자’나 ‘로마자’를 병기할 수 있다.

나. 작성 프로그램: ‘한글과컴퓨터’사의 ‘한글 2007’ 이상의 판으로 작성한다.

다. 편집 용지: B5(사륙배판) (182×257mm)

라. 여백 주기: 폭 ‘182’, 길이 ‘257’, 용지 방향 ‘좁게’

마. 용지 여백: 위쪽 15, 아래쪽 15, 왼쪽 25, 오른쪽 25, 머리말 15, 꼬리말 15, 제본 0으로 한다.

바. 글꼴: ‘제목’은 모두 ‘나눔 고딕’, 제목 아래의 ‘내용’은 모두 ‘나눔 명조’로 한다.

(4-23) 글꼴 규정 정리표

	단원 구성	글꼴	색상	크기	정렬	비고
1	대단원 명	나눔 고딕	검정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2	소단원 목차	나눔 고딕	검정	11, 진하게	가운데 정렬	
3	소단원 명	나눔 고딕	검정	13, 진하게		
4	길잡이	나눔 고딕	검정	11, 진하게		내용-나눔명조 그림 등-색상 자유
5	미리 보기	나눔 고딕	검정	11, 진하게		내용-나눔명조 그림 등-색상 자유
6	탐구하기	나눔 고딕	검정	11, 진하게		내용-나눔명조 그림 등-색상 자유
7	탐구 1	나눔 고딕	검정	10, 진하게		내용-나눔명조 그림 등-색상 자유
8	연습하기	나눔 고딕	검정	11, 진하게		내용-나눔명조 그림 등-색상 자유
9	참고하기	나눔 고딕	검정	11, 진하게		내용-나눔명조 그림 등-색상 자유
10	마무리	나눔 고딕	검정	11, 진하게		내용-나눔명조 그림 등-색상 자유
11	바탕글	나눔 명조	검정	10, 보통	양쪽 정렬, 들여쓰기 10	내용-나눔명조 그림 등-색상 자유
12	도표 제목	나눔 고딕	검정	8, 보통		
13	그림 제목	나눔 고딕	검정	8, 보통		

14	날개	나눔 고딕	제목 '파랑', 내용 '검정'	8, 보통	양쪽 정렬	날개 폭 30 내어쓰기 10
15	꼬리말(홀수쪽)	나눔 명조	검정	7	오른쪽 정렬	쪽 번호
16	꼬리말(짝수쪽)	나눔 명조	검정	7	왼쪽 정렬	쪽 번호
17	머리말(홀수쪽)	나눔 고딕	검정	7	오른쪽 정렬	소단원명
18	머리말(짝수쪽)	나눔 고딕	검정	7	왼쪽 정렬	대단원명

※ 해당 글꼴의 예시는 '예시 단위'를 참조하기 바람.

5. 교재의 교육 내용

본 장에서는 개발 교재에 수록될 어문 규범의 내용에 대한 지침을 상술한다. 교재에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이며 담을 내용을 어떠한 순서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한다. 우선은 교재의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하는 근거가 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재 내용을 선정한다. 선정된 교재 내용은 전문가 평정과 설문 조사 결과라는 두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5.1. 교육 내용의 선정과 배열 근거

이 절에서는 설문 조사 결과와 결과를 토대로 표출되는 시사점을 분석하여 단계별 교재의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하는 과정의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설문 조사 결과의 시사점을 교재 내용의 선정과 배열의 적극적 근거로 설정하기에는 설문 조사 결과의 제한점 때문에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설문 조사 결과와 함께 전문가 평정을 고려하여 교재 내용의 선정과 배열의 근거를 제시한다.

5.1.1. 설문 조사 결과

5.1.1.1. 설문 조사 개요

국민의 어문 규범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초·중·고·대학생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문 규범에 대한 이해도와 어문 규범 관련 제시어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이 설문 조사는 교재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번 설문 조사는 6개 연령대(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2학년, 공무원)의 5개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로 각 20명씩 총 60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0년 6월 23일부터 2010년 7월 16일까지 총 23일간 진행하였다.

수집된 설문 조사지를 통해 결과 수치를 추출하기 위해서 ‘검증(verification)’, ‘편집(editing)’, ‘입력(coding/punching)’, ‘오류 제거(data cleaning)’, ‘자료 분석(data processing/analysis)’의 5단계의 처리 과정을 거쳐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분석 자료는 신뢰 수준 95%에서 표본 오차 $\pm 4.0\%$ 를 나타낸다.

(5-1) 설문 조사 개요

	내용
조사 대상	만 9세(초등학교 3학년) 이상 대한민국 국민 남녀 중, - 초등학교 3학년(저학년) 및 5학년(고학년) - 중·고등학교 2학년 - 대학교 2학년(3학기 및 4학기 이수자)

	- 공무원(기능직 제외, 행정직으로 한정)	
조사 방법	- 초·중·고등학생: 집단 면접 - 대학생·공무원: 개별 면접	
표본 수	600명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pm 4.0\%$	
자료 처리 방법	검증 (verification)	응답자 중 일정 비율을 추출하여 조사 결과 및 조사 과정 상의 문제가 없었는지를 유선 검증 - 본 조사의 경우, 조사 특성 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면접원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응답자 자기 기입으로 설문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대학생·공무원에 한해 유선 검증 실시
	편집 (Editing)	설문지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 검증
	입력 (Coding/Punching)	전산 처리를 위해 설문지 내용 부호화(coding) 및 입력(punching)
	오류 제거 (Data Cleaning)	입력된 자료의 오류를 검증하고, 발견된 오류를 설문지와 비교하여 교정
	자료 분석 (Data Processing/Analysis)	통계 패키지(SPSS for Windows) 및 엑셀(Excel) 이용하여 자료를 집계하고 정량 분석

5.1.1.2. ‘이해도’ 조사 결과

최종 분석 결과물에서 어문 규범의 항목별 이해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100개 문항에서 어문 규범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정인지(正認知)’¹¹⁾ 비율은 64.9%로 나타났다. 연령별 평균 정인지 비율을 보면 대학교 2학년이 67.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66.9%), 공무원(66.8%), 중학교 2학년(64.4%), 초등학교 5학년(62.9%), 초등학교 3학년(61.0%) 순으로 나타났다. 어문 규범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준어 규정에 대한 정인지 비율이 70.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한글 맞춤법(65.8%), 외래어 표기법(60.7%), 표준 발음법(58.8%)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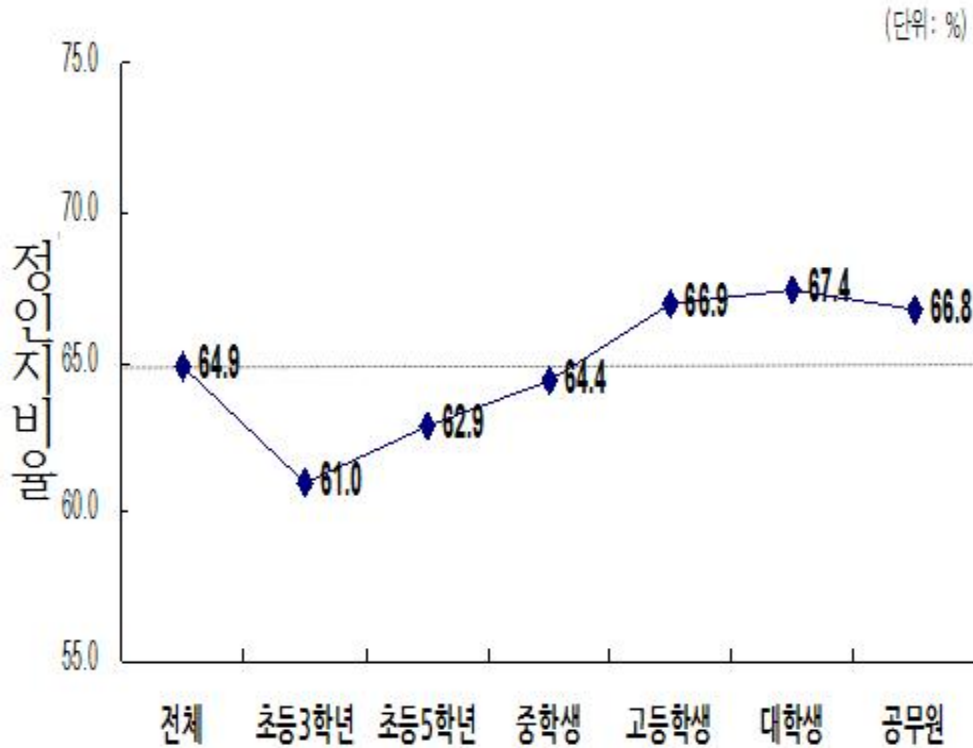
(5-2) 전체 응답자별 어문 이해도 평균 비율(정인지 비율)

구분	전체	초등 3학년	초등 5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공무원
	(%)	(%)	(%)	(%)	(%)	(%)	(%)
전체 평균(100개 문항)	64.9	61.0	62.9	64.4	66.9	67.4	66.8
한글 맞춤법(41개 문항)	65.8	59.2	61.1	66.4	68.1	70.3	70.0

11) ‘정인지(正認知)’란 ‘주어진 문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답을 선택하였음’을 뜻한다. 정답을 맞힌 비율을 ‘정인지 비율’이라 한다.

표준어 규정(25개 문항)	70.2	68.8	70.9	67.8	70.5	73.0	70.4
외래어 표기법(20개 문항)	60.7	60.6	62.3	60.3	63.3	58.2	59.5
표준 발음법(14개 문항)	58.8	53.0	54.9	58.3	62.4	62.3	61.6

(5-3) 응답자별 어문 규범 이해도 평균 비율(정인지 비율)



세부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생(학교 또는 직업별), 여성(성별), 경상권(거주지 및 성
장지)이 타 집단에 비해 어문 규범에 대해 정인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어
규정이 다른 어문 규범에 비해서 정인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특성별
어문 규범에 대한 전체 결과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5-4) 응답자 특성별 어문 규범 결과(정인지 비율)

		사례 수	전체	어문 규범 구분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표준 발음법
				(%)	(%)	(%)	(%)
전 체		600	64.9	65.8	70.2	60.7	58.8
학교(직업)	초등 3학년생	100	61.0	59.2	68.8	60.6	53.0
	초등 5학년생	100	62.9	61.1	70.9	62.3	54.9

	중 학 생	100	64.4	66.4	67.8	60.3	58.3
	고 등 학 생	100	66.9	68.1	70.5	63.3	62.4
	대 학 생	100	67.4	70.3	73.0	58.2	62.3
	공 무 원	100	66.8	70.0	70.4	59.5	61.6
성 별	남 성	307	64.0	64.6	69.9	60.0	57.4
	여 성	293	65.9	67.1	70.5	61.4	60.2
거 주 지	수 도 권	120	64.0	64.8	70.1	58.0	58.8
	강 원 권	120	65.3	67.1	69.2	60.8	59.2
	충 청 권	120	65.3	65.6	70.8	61.5	60.4
	전 라 권	120	64.1	64.0	70.2	61.8	56.7
	경 상 권	120	65.9	67.6	70.8	61.3	58.8
성 장 지	수 도 권	115	64.6	65.5	70.6	59.1	59.1
	강 원 권	116	65.1	67.1	68.9	60.3	59.1
	충 청 권	115	65.4	65.5	71.1	61.5	60.5
	전 라 권	123	63.9	64.0	69.9	61.4	56.7
	경 상 권	127	65.6	67.2	70.7	60.8	58.7
	기타 (제주 및 해외)	4	64.5	61.6	72.0	68.8	53.6
전학 유무 (초등학생)	전 학	38	61.7	60.4	69.2	60.8	53.6
	비 전 학	162	62.0	60.1	70.0	61.5	54.1
성장지 (초등학생)	수 도 권	7	60.4	56.8	69.7	60.0	55.1
	강 원 권	7	65.6	65.9	69.1	65.7	58.2
	충 청 권	1	63.0	63.4	56.0	75.0	57.1
	전 라 권	11	59.9	57.9	70.5	58.6	48.7
	경 상 권	8	61.5	62.8	67.0	55.6	56.3
	기타 (제주 및 해외)	4	62.3	58.5	72.0	66.3	50.0

5.1.1.3. '중요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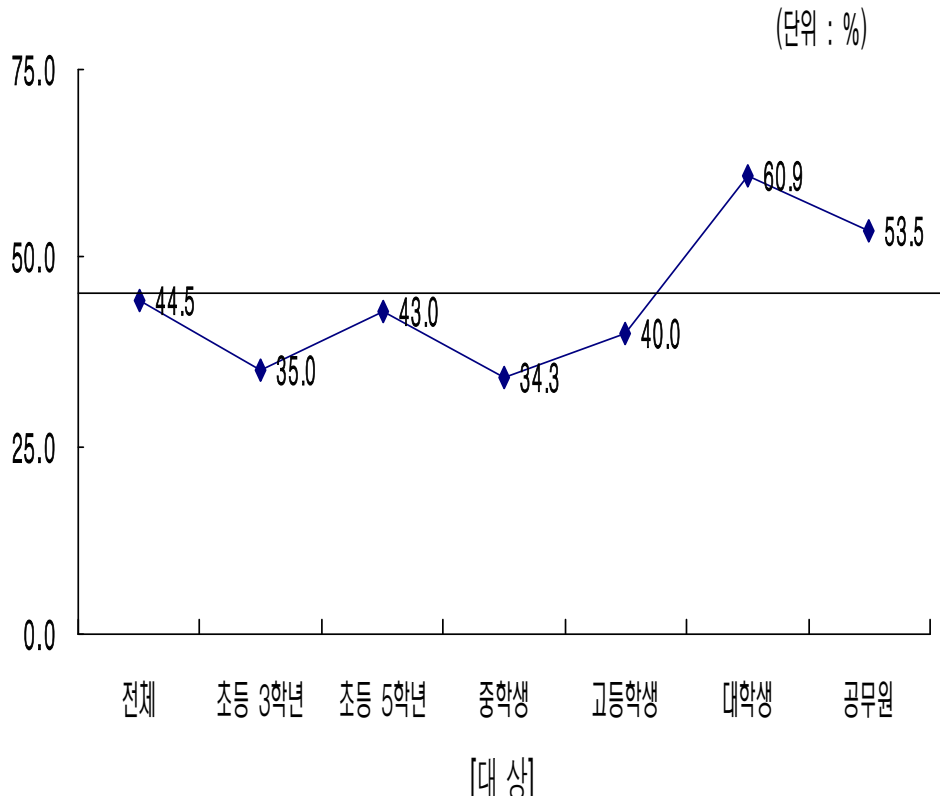
설문 조사지 전체 100개 문항에 대한 중요도를 측정한 결과, 어문 규범 세부 항목에 대한 중요도의 전체 평균 비율은 44.5%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60.9%로 중요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무원(53.5%) > 초등학교 5학년(43.0%) > 고등학생(40.0%) > 초등학교 3학년(35.0%) > 중학생(34.3%) 순으로 나타났다.

(5-5) 응답자별 어문 규범 관련 제시어의 중요도 인식 평균 비율

구분	전체	초등 3학년	초등 5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공무원
	(%)	(%)	(%)	(%)	(%)	(%)	(%)
전체 평균(100개 문항)	44.5	35.0	43.0	34.3	40.0	60.9	53.5
한글 맞춤법(41개 문항)	45.7	34.2	42.6	37.4	42.1	63.3	54.6
표준어 규정(25개 문항)	45.1	35.7	43.3	34.4	39.4	61.4	56.5
외래어 표기법(20개 문항)	41.3	36.3	43.7	28.0	34.5	57.8	47.6
표준 발음법(14개 문항)	44.1	34.6	42.6	33.7	42.9	57.7	53.1

(5-6) 응답자별 어문 규범 전체 관련 제시어의 중요도 인식 평균 비율



세부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생(학교별), 여성(성별)이 타 집단에 비해 어문 규범 관련 제시어에 대한 중요도 인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문 규범별로는 한글 맞춤법 관련 제시어들이 다른 어문 규범 관련 제시어들에 비해 중요도 인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어문 규범 관련 제시어들에 대한 중요도 인식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7) 응답자 특성별 ‘어문 규범 관련 제시어 중요도’ 조사 결과

		사례 수	전체	어문 규범 구분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표준 발음법
		(명)	(%)	(%)	(%)	(%)	(%)
전 체		600	44.5	45.7	45.1	41.3	44.1
학교 (직업)	초등 3학년생	100	35.0	34.2	35.7	36.3	34.6
	초등 5학년생	100	43.0	42.6	43.3	43.7	42.6
	중 학 생	100	34.3	37.4	34.4	28.0	33.7
	고 등 학 생	100	40.0	42.1	39.4	34.5	42.9
	대 학 생	100	60.9	63.3	61.4	57.8	57.7
	공 무 원	100	53.5	54.6	56.5	47.6	53.1
성별	남 성	307	41.7	42.9	42.3	38.9	41.3
	여 성	293	47.3	48.6	48.0	43.8	47.1
거주지	수 도 권	120	49.1	48.7	51.9	45.8	50.1
	강 원 권	120	39.4	42.7	39.0	36.4	35.1
	충 청 권	120	45.6	46.6	45.8	44.0	45.1
	전 라 권	120	51.3	50.7	51.9	50.0	53.5
	경 상 권	120	36.9	40.0	37.0	30.3	36.8
성장지	수 도 권	115	46.7	46.2	49.1	44.6	46.6
	강 원 권	116	39.9	43.1	39.5	36.6	35.9
	충 청 권	115	46.0	46.9	46.2	44.7	45.2
	전 라 권	123	51.0	50.5	51.8	49.6	53.4
	경 상 권	127	38.3	41.7	38.6	30.7	38.6
	기타(제주 및 해외)	4	62.0	56.7	62.0	66.3	71.4
전학 유무 (초등학생)	전 학	38	41.8	40.6	43.9	44.5	37.4
	비 전 학	162	38.4	37.9	38.4	38.9	38.8
성장지 (초등학생)	수 도 권	7	28.9	27.2	33.1	38.6	12.2
	강 원 권	7	41.6	43.6	45.7	42.9	26.5
	충 청 권	1	37.0	29.3	52.0	35.0	35.7
	전 라 권	11	46.3	43.5	46.9	48.6	50.0
	경 상 권	8	43.5	43.6	43.0	43.1	44.6
	기타(제주 및 해외)	4	50.0	48.2	51.0	51.3	51.8

5.1.2. 설문 조사 결과의 시사점

설문 조사 결과 이해도에서는 ‘학교별(학령별) 또는 직업별’의 발달 순으로 어문 규범에 대한 이해도가 순차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상하였던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중요도에서는 예상했던 수치와 약간의 차이가 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설문 조사 결과를 이해도와 중요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8) 설문 조사 결과 요약표

(단위: %)

	어문 규범	전체	초등 3년생	초등 5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공무원
이해도	전체	64.9	61.0	62.9	64.4	66.9	67.4	66.8
	한글 맞춤법	65.8	59.2	61.1	66.4	68.1	70.3	70.0
	표준어 규정	70.2	68.8	70.9	67.8	70.5	73.0	70.4
	외래어 표기법	60.7	60.6	62.3	60.3	63.3	58.2	59.5
	표준 발음법	58.8	53.0	54.9	58.3	62.4	62.3	61.6
중요도	전체	44.5	35.0	43.0	34.3	40.0	60.9	53.5
	한글 맞춤법	45.7	34.2	42.6	37.4	42.1	63.3	54.6
	표준어 규정	45.1	35.7	43.3	34.4	39.4	61.4	56.5
	외래어 표기법	41.3	36.3	43.7	28.0	34.5	57.8	47.6
	표준 발음법	44.1	34.6	42.6	33.7	42.9	57.7	53.1

어문 규범 관련 제시어의 중요도에 대한 전체적인 수치는 44.5%로 예상 수치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은 설문 질문지의 보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중요도를 조사하면서 5개의 보기 척도를 구분하여 ‘매우 불필요-약간 불필요-보통-약간 필요-매우 필요’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응답자가 응답을 하면서 대부분이 ‘보통’에 입력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요도 수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학령이 낮아질수록 어문 규범 관련 제시어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생 및 공무원’ 집단(즉, 성인 집단)과 ‘고등학생 이하’의 집단(즉, 청소년 집단) 사이에는 어문 규범 관련 제시어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차가 현격하였다.

또한 어문 규범에 대한 이해도 역시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어문 규범 관련 제시어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비율은 더욱 낮았다. 2005년 국립국어원에서 전국의 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어문 규범 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에서는 우리 국민의 국어 생활에서 어문 규범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97.3%로 압도적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치되는 결과 수치인데, 2005년도 조사에서는 4대 어문 규범 전체를 지칭하면서 이 4대 어문 규범이 국어 생활에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했음에 반해,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어문 규범 관련 제시어들(어문 규범 본문이나 해설 등에 제시된 어휘)로 문항을 구성하고 그 제시어들의 일상생활상의 필요 정도(중요성)를 질문하였다. 어문 규범 관련 제시어들 각각의 일상생활상의 중요도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응답을 하였기 때문에 중요도 수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어문 규범 관련 제시어의 일상생활상의 중요도를 조사한 목적은 특정 단어(어휘)를 초급·중급·고급 교재 중 어느 급의 교재에 포함시킬지 판단할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어문 규범 전체의 국어 생활상의 필요성(중요도)을 묻는 조사와 이번 어문 규범 관련 제시어의 중요도 조사 간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본 설문 조사에서 중요도가 2005년 조사에 비하여 현격히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두 설문 조사의 위와 같은 조사 목적, 조사 방식(질문 방식, 질문 대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분석된다.

그리고 어문 규범에 대한 중요도의 전체 평균 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한글 맞춤법 > 표준어

규정 > 표준 발음법 > 외래어 표기법'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들이 어문 규범 중에 실제 어문 생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문 규범이 한글 맞춤법이고 상대적으로 실생활에서 그리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어문 규범이 바로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어문 규범에 대한 이해도와는 순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이해도 차원에서는 '①표준어 규정, ②한글 맞춤법, ③외래어 표기법, ④표준 발음법' 순으로 나타났는데, 중요도 차원에서는 '①한글 맞춤법, ②표준어 규정, ③표준 발음법, ④외래어 표기법'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순위의 변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어문 규범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와 실생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설문 조사의 전체 결과를 교재 내용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설문 조사 결과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발 교재의 주 대상이 성인층이기 때문에 설문 조사 전체 결과를 개발 교재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어문 규범에 대한 이해도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초·중·고등학생 집단과 대학생·공무원 집단 간의 비율 차이가 표준 오차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개발 교재의 주 대상인 성인 집단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해석의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개발 교재의 주 대상이 되는 성인 학습자의 '어문 규범에 대한 이해도'와 '어문 규범 관련 제시어의 중요도'에 대한 변수 요인들을 제거하고 정확한 정도를 개발 교재에 반영하여 단계별로 교재를 제작할 수 있다.

우선 성인 집단에 해당되는 '대학생, 공무원'과 청소년 집단에 해당되는 '초·중·고등학생'의 어문 규범에 대한 이해도를 구분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5-9) 청소년 및 성인 어문 이해도 평균 결과(정인지 비율)

구분	전체	청소년 (초·중·고등학생)	성인 (대학생, 공무원)	정인지 비율 차이 (성인 - 청소년)
	(%)	(%)	(%)	(%)
전체 평균(100개 문항)	64.9	63.8	67.1	3.3
한글 맞춤법(41개 문항)	65.8	63.7	70.1	6.4
표준어 규정(25개 문항)	70.2	69.5	71.7	2.2
외래어 표기법(20개 문항)	60.7	61.6	58.8	-2.8
표준 발음법(14개 문항)	58.8	57.1	61.9	4.8

위의 도표에서 응답자를 청소년 집단과 성인 집단으로 양분하여 이해도 비율을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어문 규범에 대한 이해도의 전체 분석 결과에서는 '표준어 규정 > 한글 맞춤법 > 외래어 표기법 > 표준 발음법'의 순으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인 집단만을 분석하였을 때에는 '표준어 규정 > 한글 맞춤법 > 표준 발음법 > 외래어 표기법'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비율에서는 표준 발음법보다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는데, 성인 집단만의 이해도 비율에서는 표준 발음법이 외래어 표기법보다 이해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전체 응답자의 이해도 평균 비율을 그대로 개발 교재에 반영한다면 교재 내용에 표준 발음법의 내용이 외래어 표기법의 내용보다 많거나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교재의 학습 대상인 성인의 어문 규범에 대한 이해도만을 고려하여 개발 교재에 반영한다면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교육 내용이 표준 발음법의 교육 내용보다 많거나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어문 규범별로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은 성인 집단의 이해도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외래어 표기법은 청소년 집단보다 낮은 이해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성인들이 외래어 표기를 할 때 관습적으로 굳어진 표기를 사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은 좀 더 세밀한 조사를 통하여 분석해 내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성인 집단에 해당되는 ‘대학생, 공무원’과 청소년 집단에 해당되는 ‘초·중·고등학생’의 어문 규범 관련 제시어에 대한 중요도 인식 결과를 구분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5-10) 청소년 및 성인의 어문 규범 관련 제시어 중요도 인식 평균 비율

구분	전체	청소년 (초·중·고등학생)	성인 (대학생, 공무원)	중요도 비율 차이 (성인 - 청소년)
	(%)	(%)	(%)	(%)
전체 평균(100개 문항)	44.5	38.1	57.2	19.1
한글 맞춤법(41개 문항)	45.7	39.1	59.0	19.9
표준어 규정(25개 문항)	45.1	38.2	59.0	20.8
외래어 표기법(20개 문항)	41.3	35.6	52.7	17.1
표준 발음법(14개 문항)	44.1	38.4	55.4	17.0

청소년 집단과 성인 집단을 구분하여 어문 규범 관련 제시어에 대한 중요도 인식 비율을 구분하였을 때에, 성인 집단의 어문 규범별 관련 제시어의 중요도의 순위는 전체 평균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한글 맞춤법 ≥ 표준어 규정 > 표준 발음법 > 외래어 표기법’의 순서). 그러나 청소년 집단에 비하여 성인 집단이 인식하고 있는 어문 규범 관련 제시어의 중요도가 월등히 높았다. 어문 규범 관련 제시어들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비율은 성인 집단이 청소년 집단보다 평균적으로 약 19% 더 높게 나타났다.

어문 규범 관련 제시어들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전체 평균에서는 ‘①한글 맞춤법, ②표준어 규정, ③표준 발음법, ④외래어 표기법’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성인 집단만을 대상으로 수치를 분석하면,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대한 중요도 비율이 동수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5장에서 제시한 단계별 설정 원리에 반영한다. 우선 이해도와 중요도의 최고점과 최저점에 대하여 1등부터 100등까지로 나열하고, 이를 분량적 제한을 고려하여 초급 : 중급 : 고급의 비율을 1 : 1.5 : 2의 비율로 적용하면, 22 : 33 : 55의 비율이 산출된다.

(5-11)가 이해도 점수 분포

최고점	96.7
최저점	11.2

나. 중요도 점수 분포

최고점	60.2
최저점	31.5

(5-12) 등급 비율 계산 방식

	초급	중급	고급	계
분량 제한 환산 비율	1	1.5	2	4.5
100% 환산 비율	22	33	45	100

또한 어문 규범에 대한 이해도를 ‘아주 쉬움, 보통 쉬움, 어려움’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중요도를 ‘일상생활에 매우 필요함, 일상생활에 보통 필요함, 일상생활에 드물게 필요함’의 단계별로 구분하였는데, 이를 단순화하여 이해도와 중요도를 각각 ‘높음, 보통, 낮음’의 등급으로 할당하고, 이를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단계를 구분한다.

(5-13) 이해도와 중요도를 고려한 단계 설정 도표

이해도 \ 중요도	중요도		
	높음(1)	보통(2)	낮음(3)
높음(1)	11	12	13
보통(2)	21	22	23
낮음(3)	31	32	33

앞의 제4장에서 설정한 단계 설정의 원리에 맞추어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하였을 때 위와 같은 도표와 같은 단계가 설정된다. 여기에서 도표 안의 숫자는 이해도와 중요도의 각 등급 설정의 코드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이해도가 높으면 1, 보통이면 2, 낮으면 3의 코드를 부여하고, 중요도가 높으면 1, 보통이면 2, 낮으면 3의 코드를 부여하여 결합하여 복합 코드로 표시한다. 이 코드표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이 도표로 정리할 수 있다.

(5-14) 단계 설정 코드표

단계 설정 코드	이해도	중요도
11	높음	높음
12	높음	보통
13	높음	낮음
21	보통	높음

22	보통	보통
23	보통	낮음
31	낮음	높음
32	낮음	보통
33	낮음	낮음

이렇게 이해도와 중요도의 등급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총 9개의 등급을 산출하였다. 이 9개 등급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앞에서 제시한 단계 설정 원리에 따른다. 이 단계 설정 원리에 따라 초·중·고급으로 구분하면 코드 11, 12, 21이 초급 단계(노란색)에 해당하고, 코드 13, 22, 31이 중급 단계(연두색)에 해당하며, 코드 23, 32, 33이 고급 단계(분홍색)에 해당한다.

또한 이 세 단계로 구분한 것을 설문지 100개의 문항에 적용하여 각 단계별 문항 개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5-15) 단계별 설문 문항 개수

단계 설정 코드	단계	문항 개수
11	초급	8
12	초급	6
13	중급	8
21	초급	5
22	중급	12
23	고급	16
31	중급	9
32	고급	15
33	고급	21
합계		100

위의 도표를 바탕으로 단계별 문항 수를 계산하면 초급이 19개, 중급이 29개, 고급이 52개의 수치가 산출된다. 이 산출된 수치에 따라 설문 문항을 단계별 등급으로 분류하면 아래의 도표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5-16) 설문 문항 단계별 등급 분류표

문항 번호	어문 규범	내용	이해도	이해도 등급	중요도 등급	코드	단계 설정	등 급
1	한글 맞춤법 9항	무늬	96.7	1	1	11	이해도,	초 급
3	한글 맞춤법 8항	핑계	92.5	1	1	11	중요도	

5	한글 맞춤법 13항	쓰쓸한	89.2	1	1	11	모두 높음	
26	한글 맞춤법 57항	그러므로	85.8	1	1	11		
28	한글 맞춤법 57항	붙였다	86.5	1	1	11		
42	표준어 규정 6항	돌	87.5	1	1	11		
45	한글 맞춤법 31항	수컷	96.3	1	1	11		
63	한글 맞춤법 57항	다르다	90.7	1	1	11		
6	한글 맞춤법 31항	암탉	86.5	1	2	12	이해도 높고, 중요도 보통	
44	표준어 규정 9항	멋쟁이	90.2	1	2	12		
48	표준어 규정 11항	미숫가루	92.2	1	2	12		
50	표준어 규정 8항	사돈	93.3	1	2	12		
81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 1	초콜릿	86.3	1	2	12		
87	표준 발음법 20항	실라	88.7	1	2	12	이해도 높고, 중요도 낮음	
7	한글 맞춤법 51항	정결히	86.2	1	3	13		
8	한글 맞춤법 12항	광한루	92.8	1	3	13		
18	한글 맞춤법 39항	변변찮은	92.0	1	3	13		
41	표준어 규정 11항	나무라셨다	87.5	1	3	13		
57	표준어 규정 15항	마구잡이	93.0	1	3	13		
70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 1	데이터	85.0	1	3	13		
71	외래어 표기법 조항 없음	디지털	94.0	1	3	13	이해도 보통, 중요도 높음	
84	외래어 표기법 제3장 1절 1항	도넛	96.2	1	3	13		
20	한글 맞춤법 57항	학생으로서	68.0	2	1	21		
22	한글 맞춤법 53항	출발할걸	70.7	2	1	21		
35	한글 맞춤법 15항	들어오십시오	82.3	2	1	21		
40	한글 맞춤법 조항 없음	어떡해	64.2	2	1	21		
65	한글 맞춤법 33항	오랜만에	77.0	2	1	21	이해도 보통, 중요도 보통	
2	한글 맞춤법 22항	뒹쳤다	81.5	2	2	22		
12	한글 맞춤법 45항	일 대 일	73.3	2	2	22		
15	한글 맞춤법 18항	신고	79.2	2	2	22		
17	한글 맞춤법 22항	앉혔다	75.8	2	2	22		
33	한글 맞춤법 11항	백분율	71.7	2	2	22		
36	한글 맞춤법 조항 없음	학생이었다	65.8	2	2	22		
49	표준어 규정 09항	아지랑이	67.8	2	2	22		
53	표준어 규정 17항	천장	78.5	2	2	22		
59	표준어 규정 17항	일이던가	84.0	2	2	22		
76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 1	센티미터	78.0	2	2	22		
91	표준 발음법 24항	삼꼬	77.5	2	2	22		
100	표준 발음법 10항	짤꼬	71.2	2	2	22		
10	한글 맞춤법 10항	남존여비	80.7	2	3	23		이해도 보통, 중요도 낮음
11	한글 맞춤법 22항	흘뜨리고	78.3	2	3	23		
14	한글 맞춤법 23항	오뎅이	66.5	2	3	23		

16	한글 맞춤법 30항	셋방	77.0	2	3	23		
24	한글 맞춤법 13항	쓱쓱쓱	74.3	2	3	23		
31	한글 맞춤법 31항	살코기	68.0	2	3	23		
55	표준어 규정 7항	숫양	73.3	2	3	23		
60	표준어 규정 조항 없음	캔스레	64.2	2	3	23		
67	외래어 표기법 제3장 1절 3항	재즈	75.3	2	3	23		
68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 1	시그널	71.5	2	3	23		
72	외래어 표기법 제3장 1절 1항	로봇	83.5	2	3	23		
79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 1	재킷	75.7	2	3	23		
83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1	콤플렉스	66.2	2	3	23		
86	외래어 표기법 제3장 3절 3항	크레용	81.0	2	3	23		
88	표준 발음법 13항	바테서 무르플	84.8	2	3	23		
98	표준 발음법 11항	얼꺼나	77.0	2	3	23		
23	한글 맞춤법 27항	며칠	55.7	3	1	31	이해도 낮고, 중요도 높음	중 급
27	한글 맞춤법 57항	늘였다	60.2	3	1	31		
29	한글 맞춤법 35항	돼	61.8	3	1	31		
32	한글 맞춤법 57항	맞힐	47.0	3	1	31		
46	표준어 규정 12항	위층	36.2	3	1	31		
56	표준어 규정 25항	안절부절못하고	50.3	3	1	31		
64	표준어 규정 11항	바람	50.3	3	1	31		
66	한글 맞춤법 57항	웬일	53.3	3	1	31		
99	표준 발음법 13항	위료일	61.8	3	1	31	이해도 낮고, 중요도 보통	고 급
9	한글 맞춤법 21항	짤막하게	58.8	3	2	32		
13	한글 맞춤법 40항	십십지	48.7	3	2	32		
21	한글 맞춤법 조항 없음	늦을는지	21.5	3	2	32		
30	한글 맞춤법 40항	생각건대	45.8	3	2	32		
38	한글 맞춤법 18항	마라	49.8	3	2	32		
43	표준어 규정 6항	열두째	56.3	3	2	32		
47	표준어 규정 8항	깡충깡충	56.5	3	2	32		
62	한글 맞춤법 57항	부치는	41.3	3	2	32		
74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 1	메시지	43.0	3	2	32		
80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 1	주스	53.3	3	2	32		
82	외래어 표기법 제3장1절1항	케이크	53.5	3	2	32		
85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 1	프라이드치킨	27.5	3	2	32		
90	표준 발음법 14항	달기	53.3	3	2	32		
93	표준 발음법 조항 없음	김밥	21.7	3	2	32		
96	표준 발음법 조항 없음	담임	25.7	3	2	32		
4	한글 맞춤법 57항	노름	63.8	3	3	33	이해도	낮고,
19	한글 맞춤법 14항	외곶으로만	34.5	3	3	33		

25	한글 맞춤법 18항	치러	38.7	3	3	33	중요도 낮음
34	한글 맞춤법 21항	알따랴다	20.7	3	3	33	
37	한글 맞춤법 조항 없음	내로라하는	30.3	3	3	33	
39	한글 맞춤법 40항	넉넉지	34.8	3	3	33	
51	표준어 규정 7항	수평	63.8	3	3	33	
52	표준어 규정 9항	미장이	63.5	3	3	33	
54	표준어 규정 26항	넝쿨	57.3	3	3	33	
58	표준어 규정 22항	총각무	55.0	3	3	33	
61	표준어 규정 조항 없음	괴발개발	37.7	3	3	33	
69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 1	난센스	19.0	3	3	33	
73	외래어 표기법 제1장 5항	마니아	40.5	3	3	33	
75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 1	벨런타인데이	11.2	3	3	33	
77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 1	양케트	26.2	3	3	33	
78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 1	엑세서리	46.7	3	3	33	
89	표준 발음법 6항	밤 : 나무	49.8	3	3	33	
92	표준 발음법 20항	설릉	38.7	3	3	33	
94	표준 발음법 20항	공편넉	60.0	3	3	33	
95	표준 발음법 10항	넙쭈카다	54.2	3	3	33	
97	표준 발음법 29항	숨 : 니불	58.2	3	3	33	

이와 같이 어휘 항목 100개에 대하여 단계별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앞에서 2차 어휘로 선정된 835개 대부분이 초·중·고급 교재에 담겨야 할 어휘들이다. 따라서 100개 어휘 항목 분류를 기준으로 이들 835개 어휘에 대해서도 각각의 등급별로 분류할 수 있다. 원래 835개 어휘 가운데에서 100개의 설문 조사 어휘 항목을 선정한 것으로, 100개의 어휘가 각각 등급을 대표할 수 있는 어휘로 제시된 것이기에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100개 어휘들이 나타내고 있는 등급을 835개 어휘에 각각 반영하여 835개 전체 어휘의 등급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등급이 설정된 어휘를 대상으로 각 단계별 교재에서 해당 어휘를 교재의 예시 어휘로 선정하였다.(부록으로 제시된 835개 어휘 등급 분류표 참고)

5.1.3. 설문 조사 결과의 제한점

위에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단계별 등급 항목을 조정하였다. 이는 전문가 평정 방법에 의하여 예상하였던 어휘 항목이나 설문 문항의 등급과 실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해도나 중요도를 복합적으로 적용한 등급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예상했던 결과와 실제 조사 결과가 서로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하고 좀 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수정을 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문가 평정에 의한 교육 내용 선정에서는 ‘신라[실라]’라는 단어에 대하여 고급 등급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들의

정답률이 가장 높은 항목이 ‘신라[실라](98.7%)’였다. 이러한 분석 절차를 거쳐 예상 결과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여 교육 내용을 객관적인 근거를 추가하여 재선정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설문 조사 대상자의 수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의 인원이 아니고, 설문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교육 내용 선정과 배열에 반영하였을 때에는 학문적 체계성에 위배되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한다. 따라서 전문가 평정의 방법과 설문 조사 결과를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우선 설문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경우의 제한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5-17) 어문 규범 범주별 이해도 평균 결과

구분	전체
	(%)
전체 평균(100개 문항)	64.9
한글 맞춤법(41개 문항)	65.8
표준어 규정(25개 문항)	70.2
외래어 표기법(20개 문항)	60.7
표준 발음법(14개 문항)	58.8

위의 표에서 보면 어문 규범에 대한 이해도 항목에서 한글 맞춤법(41개 문항), 표준어 규정(25개 문항), 외래어 표기법(20개 문항), 표준 발음법(14개 문항)의 문항 수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해도 수준에서 표준 발음법에 대한 정답률(58.8%)이 가장 낮고 표준어 규정에 대한 정답률(70.2%)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어문 규범에 대한 이해도 조사 결과에 따라 표준 발음법에 대한 교육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한글 맞춤법의 교육 내용을 적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문 규범 범주별 내용 선정 비율을 범주별 정답률에 반비례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률이 낮은 어문 규범 범주의 교육 내용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정하고 정답률이 높은 어문 규범 범주의 교육 내용을 상대적으로 적게 선정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문 조사의 결과 수치만을 적용하여 표준 발음법의 교육 내용을 많이 다루고 한글 맞춤법의 교육 내용을 적게 다룬다면, 어문 규범 교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지 의문이다. 어문 규범이란 언어생활에서 따르고 지켜야 할 공식적인 기준인데, 현행 4대 어문 규범(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중 한글 맞춤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준 발음법의 경우에는 역시 국민의 국어 생활의 통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만든 규범이기는 하지만 음성 언어 중심의 규범이다. 곧 다른 어문 규범의 범주와는 본질적인 대상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 규정의 제2부로 수록되어 있어, 국어 어문 규정집에서의 비중은 한글 맞춤법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문 규범에 대한 이해도 조사 결과만을 따라 교재의 내용을 선정한다면 어문 규범의 단계별 교재를 만들 때 전체 국어 생활에서 차지하는 어문 규범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하

여 균형 있게 교재를 만든다는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표준 발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표준 발음법만을 따로 다루는 특화된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설문 조사 결과만으로 교재의 내용을 선정할 수는 없고 전문가들의 판단이나 어문 규범 자체의 체계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하여야 본 교재 개발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설문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정된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 배열 기본 원칙과 어문 규범 자체의 체계적인 틀의 유지라는 조건을 통해서 단계별 교재의 단원을 배열한 바 있다.

그리고 선정된 교재 내용을 배열하는 데에서도 설문 조사 결과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물론 설문 조사 결과를 교육 내용의 선정 조건에 반영하면 교육 내용 선정 결과가 재조정될 것이 명백하다. 설문 조사 이전에도 선정한 어휘 항목의 등급이 전문가 평정을 거치면서 바뀌는 예들이 발생하였고, 또 100개의 설문 문항의 등급별 수효에도 설문 조사 전과 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 내용의 선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배열의 조건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우선 설문 조사 결과 수치를 여러 배열 조건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면, 어문 규범의 범주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5-18) 어문 규범별 이해도 평균 비율

구분	전체	초등 3학년	초등 5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공무원
	(%)	(%)	(%)	(%)	(%)	(%)	(%)
전체 평균(100개 문항)	64.9	61.0	62.9	64.4	66.9	67.4	66.8
한글 맞춤법(41개 문항)	65.8	59.2	61.1	66.4	68.1	70.3	70.0
표준어 규정(25개 문항)	70.2	68.8	70.9	67.8	70.5	73.0	70.4
외래어 표기법(20개 문항)	60.7	60.6	62.3	60.3	63.3	58.2	59.5
표준 발음법(14개 문항)	58.8	53.0	54.9	58.3	62.4	62.3	61.6

설문 조사 결과 이전에는 교재에 어문 규범의 체계성을 인정하여 어문 규범 배열 순서를 따르는 원칙을 적용하여 ‘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외래어 표기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순으로 단원을 배열하였다. 그러나 설문 조사 결과 이후 위의 도표 내용을 따라 설문 응답자들의 정답률 결과를 어문 규범 범주별로 비교해 보면, 같은 표준어 규정인데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에 해당하는 규범 항목들에 대한 정답률이 가장 높고, 제2부 표준 발음법에 대한 정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어문 규범별 이해도 평균에서 외래어 표기법이 두 번째로 낮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내용을 배열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어문 규범 범주별로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이기에 이를 교재 구성에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어문 규범 범주별 이해도 결과를 어문 규범 교육 내용 배열에 적용한다면, ‘표준 발음법-외래어 표기법-한글 맞춤법-표준어 사정 원칙’이란 순서로 배열될 것이다.¹²⁾

그러나 이것은 어문 규범의 체계성을 무시하고 교육 내용을 배열한 것으로 단순히 어문 규범에 대한 이해도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도가 낮은 순서로 어문 규범의 하위 범주를 정렬시킨 것이다. 그리고 어문 규범 자체의 체계성이나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 순서를 고려한 학습 내용 배열 순서를 배제한 논리이다.

다른 한편으로 설문 조사의 직업별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에 교육 내용의 배열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즉 위의 도표에서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이해도(정답률) 면에서 대학생 집단(58.5%)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이 공무원 집단(59.5%)이었다. 본 연구 영역에서 개발하는 교재의 학습 대상이 일반 성인이기에 때문에 대학생 집단이나 공무원 집단의 정답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직업별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교육 내용 선정이나 배열에서 또 다른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설문 조사 결과 이후에 실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어문 규범에 대한 이해도와 어문 규범 관련 제시어의 일상생활상의 필요 정도(중요도)에 대한 조사 결과값을 교육 내용 배열 조건에 적용하면 배열 순서에서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은 전문가의 판단이나 어문 규범 자체의 체계성, 학문적 성과의 축적물,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 순서뿐 아니라 실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른 정답률, 직업별, 학교급별(연령별) 등의 기준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본 교재 개발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5.2. 교육 내용 선정

우선, 어문 규범의 단계별 학습을 위한 교재에 실릴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 선정 기준으로 전문가의 판단을 통하여 결정하였다.

(5-19) 교육 내용 선정 기준

- 가. 어문 규범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선정한다.
- 나. 어문 규범의 항목이 실생활에 자주 등장하는 것부터 선정한다.
- 다. 어문 규범의 항목 중 실생활에 필요한 것부터 선정한다.

위에서 제시한 교육 내용 선정 기준은 가장 일반적인 선정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기본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것인데, 무표적인 것에서 유표적인 것으로 진행되어 나아가는 것이다. 즉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고빈도에서 저빈도로, 필요성이 큰 것에서 필요성이 작은 것으로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교육 내용이 선정되도록 한 기본 원리이자 기준이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통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그 대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어문 규범의 세부 항목이고, 둘째는 각 어문 규범 항목의 예시로 들어갈 어휘이다. 어휘에 대한 선정은 앞의 제5장에서 이미 1, 2차 어휘 선정 작업을 거쳐 1,841개의 1차 어휘를 선정하고 835개의

12) 한편, 교재 내용 배열 순서를 기존의 방식(‘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외래어 표기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대로 유지하면서, 이해도가 낮은 순위를 고려하여 ‘표준 발음법’이나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설명이나 예시를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사정 원칙’에 비하여 더 상세하게, 더 풍부하게 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2차 어휘(실질적인 교육 내용)를 선정하였고, 이를 통해 100개의 최종 설문 조사 어휘(또는 문항)를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에서 2차 어휘로 선정된 835개의 어휘가 본 교재의 내용으로 선정된다. 즉 초급, 중급, 고급 교재에 예시되는 어휘로 등장하는 후보 항목이 된다.

그리고 본 교재의 주된 교육 내용이 되는 어문 규범 항목을 각 단계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문가 집단에 의하여 내용을 배열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그동안의 개별 전문가의 경험과 직관에 의지한 것으로 객관적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 의견이라고 할 때에는 객관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명의 국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어문 규범의 각 항목별 난이도를 판단하여 초급-중급-고급의 3단계로 구분하여 교육 내용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정된 어문 규범 항목의 단계별 교육 내용은 아래와 같다.

(5-20) 한글 맞춤법 내용 선정

단계	항	내용	단어	비고
초급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 1. 두 모음 사이, 2. 'ㄴ, ㄹ, ㅁ, ㅇ' 받침 뒤의 된소리	소쩍새, 어깨, 오빠, 으뜸, 아끼다, 기쁘다, 깨끗하다, 어떠한, 해쓷하다, 가끔, 거꾸로, 부쩍(부쩍), 어찌, 이따금//산뜻하다, 잔뜩, 살 짝, 훨씬, 담뱃, 움짤, 몽땅, 엉뚱하다	
	제6항	구개음화	말이, 해돋이, 굳이, 같이, 끝이	
	제7항	ㄷ'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뒹저고리, 뒹자리, 엇셈, 웃어른, 핫웃, 무릎, 사뭇, 얼핏, 자칫하면, 뭇, 옛, 첫, 헛.	간혹은 '뒹저고리', '웃어른'은 틀리는 사람이 있음.
중급	제5항	다만 'ㄱ,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깍두기, 법석, 몹시	'깍두기'는 빈번히 틀림. (『깍다』를 연상하기 때문인 듯함.)
	제6항	구개음화	할이다, 갸히다, 묻히다, 닫히다	
	제8항	'계, 례, 메, 폐, 해'의 'ㄷ'은 'ㄱ'으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ㄱ'으로 적는다.	계수, 사례, 연메, 폐품, 해택, 계집, 핑계, 계시다	'연메'는 낱말 뜻을 몰라 틀리며, '핑계'는 간혹 틀림.
	제8항	본음대로	계송, 계시판, 휴게실	
고급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ㄹ'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으로 적는다.	보늬, 오늬, 하늬바람, 날리리, 닝큼, 띄어쓰기, 희망, 희다	'보늬, 오늬'는 낱말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날리리'는 '날리리'로 적는 경우가 있음. '닝큼'을 표 준어가 아닌 것으로 아는 사람도 많음. 이 항목에는 없지만 '띄다'와 '띠다'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매우 많음.
초급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여자, 연세, 요소, 유대	[붙임 1]의 '남녀'와 비교.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양심, 역사, 예외, 용궁, 유행, 이발	[붙임 1]의 '개량, 선량, 사례, 혼례, 와룡, 쌍룡, 하류, 급류, 도리, 진리'와

단계	항	내용	단어	비고
				비교. ※[붙임 1]의 '쌍룡'에 유의!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낙원, 내일, 노인	[붙임 1]의 '쾌락, 극락, 거래, 왕래, 부로, 연로'와 비교.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딱딱, 섹섹, 씹씹, 푹푹딱딱, 쓱쓱	
중급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나, 녀' 음을 인정한다.	이토(泥土), 익명(匿名) 냥, 냥쫘, 녀	[붙임 1] '은닉(隱匿)'과 비교.
	제10항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신여성, 공염불, 남존여비	
	제10항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	
	제11항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리(理), 리(里)	
	제11항 [붙임 1]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 룰'은 '열, 율'로 적는다.	나열, 비열, 선열, 규율, 비율, 선율, 백분율	
	제11항 [붙임 2]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신립(申稜),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崙)	
	제11항 [붙임 3]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국련(국제연합), 대한교련(대한교육연합회)	
	제11항 [붙임 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역이용(逆利用), 연이율(年利率),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표준어 규정(제2부 표준 발음법) 제29항과 연결.
	제11항 [붙임 5]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數)도 붙임 4에 준하여 적는다.	서울여관, 신흥이발관, 육천육백 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뇌성, 누각, 능묘	[붙임 1]의 '지뢰, 낙뢰, 고루, 광한루, 동구릉, 가정란'과 비교
	제12항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내내월(來來月), 상노인(上老人), 중노동(重勞動), 비논리적(非論理的)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꽃꽃하다, 놀놀하다, 눅눅하다, 밋밋하다, 짹짹하다, 씹씹하다, 씹쓸하다, 짹짹하다	
고급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연연불망(戀戀不忘), 유유상종(類類相從), 누누이(屢屢-)	연연불망, '유유상종'은 제 11항에 어긋나고, '누누이'는 제12항의 [붙임 1]에 어긋남.
초급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먹다, 신다, 믿다, 울다, 넘다, 입	

단계	항	내용	단어	비고
			다, 웃다, 쫓다, 있다, 없다 등.	
	제16항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ㅓ, ㅗ’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 일 때에는 ‘-어’로 적는다.	나아, 막아, 앓아, 돌아, 보아/ 개어, 꺾어, 되어, 배어, 쉬어 등.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1.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4. 어간의 끝 ‘ㅓ, ㅗ’가 줄어질 적	1.갈다~가니, 놀다~노니, 불다~부니 등. 4.푸다~퍼, 뜨다~떠, 끄다~꺼 등.	나는 슈퍼맨(o)/ 날으는 슈퍼맨(x) 초등만화 맞춤법과 표준어 편 52~53쪽 참조.
중급	제15항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넘어지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엮어지다 등. /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제15항 붙임 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책이오, 오시오, 아니오	
	제15항 붙임 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	책이요, 붓이요	
	제17항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읽어요, 참으리요, 좋지요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2. 어간의 끝 ‘ㅓ’이 줄어질 적. 5. 어간의 끝 ‘ㄷ’이 ‘ㄹ’로 바뀔 적. 6. 어간의 끝 ‘ㅂ’이 ‘ㅈ’로 바뀔 적.	2.긋다~그어, 낫다~나아, 잇다~이어 등 5.견다~걸어, 듣다~들어, 묻다~물어 등 6.깎다~기워, 굶다~구워, 가깝다~가까워 등	
	제18항 붙임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ㄹ’이 준 대로 적는다.	마지못하다, 마지않다,(하)다마다 등	
고급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3.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 적. 7. ‘하다’의 활용에서 어미 ‘-아’가 ‘-어’로 바뀔 적. 8. 어간의 끝음절 ‘ㄹ’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뀔 적. 9. 어간의 끝 음절 ‘ㄹ’의 ‘ㄴ’이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러’로 바뀔 적.	3. 그렇다~그러니, 까맣다~까마니, 동그랗다~동그라니 등 7. 하다~하여 8. 이르다~이르러, 노르다~노르러, 누르다~누르러 등 9. 가르다~갈라, 부르다~불러, 거르다~걸러 등	(본문 3:78:9)를 고급 단계로 분석한 것은 이들 불규칙 용언들의 경우 어간 및 어미, 또는 둘 모두가 바뀌는 유형으로서 국어의 역사 지식을 통해 활용 양상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초급	제19항	1. ‘-이’가 붙어 명사로 된 것, 2.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3. ‘-이’가 붙어 부사로 된 것, 4.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1.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땀받이, 달맞이, 먹이, 미닫이, 벌이, 살림살이, 쇠붙이 2. 걸음, 뭍음, 믿음, 열음, 엮음, 울음, 웃음, 졸음, 죽음, 앓, 만듦, 3. 같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실없이, 종이, 짓궂이 4. 밝히, 익히, 작히	벼훅이, 실없이, 종이 등은 다소 어려움.
	제19항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	굽도리, 코끼리, 거름, 고름, 노름	다리, 목거리, 무너리 등

단계	항	내용	단어	비고
		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은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제19항	붙임 (1) 명사로 바뀐 것, (2) 부사로 바뀐 것, (3)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것	(1) 귀머거리, 까마귀, 너머, 마감, 마개, 마중, 무덤, 올라미, 주검 (2) 거뭇거뭇, 너무, 도로, 불긋불긋, 비로소, 자주, 차마 (3) 나마, 부터, 조차	(1) 뜨더귀, 쓰레기(쓰레기로 쓰는 사람이 많음) (2) 뜨덤뜨덤, 바투, 오굿 오굿은 빈도수가 낮아서 틀리는 경우가 있음.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1. 부사로 된 것, 2. 명사로 된 것	1. 곳곳이, 날날이, 뭉뭉이 2. 바둑이, 삼발이	1. 앞앞이, 집집이는 '히'로 쓰는 사람이 있음. 2. 곰배팔이는 빈도수가 높지 않은 듯.
	제20항	[붙임]	꼬락서니, 꼬트머리, 바가지, 바깥, 짜라기, 이파리, 지붕, 지푸라기	모가치, 사타구니는 빈도수가 낮은 듯.
	제21항	명사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1. 값지다, 홀지다, 빗길, 옆맹이, 잎사귀, 2. 낚시, 굶다랴다, 굶직하다	덮개, 뜨개질은 '개:개'의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음.
	제22항	용언의 어간에 접미사가 붙은 말	1. '-기-', '-리-'등. 말기다, 옮기다	이 용례는 거의 틀리지 않는 것으로 보임
	제23항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	개구리, 귀뚜라미, 기러기, 날라리	
	제24항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시늉말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	깜짝이다, 꾸벅이다 등	
중급	제21항	다만, (1) 겹받침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	(1)넙따랴다, 째따랴다, 알따랴다 (2)넙치, 울무, 납작하다	
	제22항	용언의 어간에 접미사가 붙은 말 2. '-치-', '-프리/트리-'가 붙는 것	부딪뜨리다/부딪트리다	둘 다 사용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제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	깎쪽이, 꿀꿀이, 오뚝이, 흘쪽이	오뚝이'의 경우는 상호명으로 인하여 틀리는 경우가 매우 많음.
고급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	1.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급히, 꾸준히, 도저히, 어렵듯이, 깨끗이 2.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곰곰이, 더욱이, 생긋이, 일찍이	이 경우는 '-이'와 '-히'의 쓰임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음(51항과 관련됨).
	제26항	'-하다'나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	2.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부질없다, 상없다, 시름없다, 열없다, 하염없다	이 경우는 한 단어인지 두 단어인지 지각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음.
초급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	밋천, 꺾꽂이, 꽃잎 등 [붙임 1], [붙임 2]도 포함	
	제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판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	다달이, 따님, 바느질, 소나무 등	
중급	제27항 [붙임 3]	'이'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날 때	간니, 텃니, 사랑니, 송곳니, 옆니(앞니), 어금니, 머릿니, 젓니, 틀니, 가랑니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판 말이 어울릴	반질고리, 사흔날, 섯달	빈도수 관련일 듯

단계	항	내용	단어	비고
		적에 'ㄹ'소리가 'ㄷ'소리로 나는 것		
	제30항	1.순우리말(1)-(3)2.순우리말과한자어	곶밥, 나룻배, 멧나물, 냇물, 텃밭 등	
	제31항	ㅂ'소리 텃밭, 'ㅎ'소리 텃밭	1. 뱀싸리, 좁쌀, 2.머리카락, 수탉	
고급	제30항	2음절 한자어를 포함하여 조어법, 표준 발음과 관련된 사이시옷 표기 방식	1.2음절 한자어(숫자, 횡수, 찻간, 곳간, 텃밭, 셋방) 2. 해님, 수놈, 머리말, 예사소리, 예-부터, 기차간, 전세방	1. 파생어 여부를 파악하지 못할 때(해님, 수놈), 2. 표준 발음을 모를 때(머리말, 예사소리) 3. 3음절 한자어(기차간, 전세방) 4. 6개의 2음절 한자어를 벗어난 것(초점, 대가, 허점, 이점 등).
초급	제32항	단어의 끝 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	기력아, 엇그저께	'온갖'은 '온갓'으로 적는 예가 간혹 나타남
	제33항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질 적	그건, 그게	뿔을/무얼/뿔'에서 '뿔'을 '뿔'로 적는 예가 간혹 나타남.
	제34항	-아/-어, -았/-었'	가, 갔다, 갸다, 났다	시제 선언말어미 '-았/-었'의 준 형태를 '갸다, 났다'처럼 'ㅅ'으로 적는 예가 나타남.
	제35항		파, 꿔다	
	제36항		가져, 견더	
	제37항		쌔다, 뵈다, 뵈다	
	제40항		간편케, 안타	
중급	제35항 [붙임 2]		괘(괴어), 돼(되어)	배('뵈어'는 매우 잘 틀림.)
	제38항		싸여, 싸어	준말이 두 가지 형태인데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가 많음.
고급	제39항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	그렇잖은, 적잖은	'-잖-'을 '-잖-'으로 적는 경우가 많음.
	제40항 [붙임 2]	어간의 끝 음절 '하-'가 아주 줄 적	거북지, 생각건대, 녀석지, 깨끗지, 익숙지	
초급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개, 대, 돈, 마리 등.	이 경우는 학습 경험이 있으면 대부분 잘함.
	제44항	수를 적을 때에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		이 경우는 학습 경험이 있으면 대부분 잘함.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검, 내지, 대, 밋, 등.	간혹 '등'은 붙여 쓰는 사람이 있음.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호칭어, 관직명	충무공 이순신 장군	이 경우는 학습 경험이 있으면 대부분 잘함.
중급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것, 수, 만큼, 이, 바, 지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음.
	제50항	전문 용어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음.
고급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만, 만큼, 대로'는 의존 명사와 조사로 쓰일 때 구분하지 못하는 경	

단계	항	내용	단어	비고
			우가 많다 .또한 '데'와 '지'는 의존 명사로 쓰일 경우와 '-는데, -은지'처럼 어미로 쓰일 경우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매우 많음.	
	제47항	보조 용언: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덤벼들어 보아라, 떠내려가 버렸다.	
초급	제54항	접미사	심부름꾼, 빗깁 등	
	제55항	두 가지로 구별하여 적던 것	맞추다. 뻔치다	
	제57항	동음이의어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짐.
중급	제51항	부사의 끝 음절 발음 1. '이'로만 나는 것, 2. '히'로만 나는 것, 3. '이, 히'로 나는 것	2. '히'로 나는 것: 극히, 급히, 작히	
	제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	승낙/수락 등	
	제53항	예사소리로 적는 어미	'-을거나, '-을게' 등	
	제56항	-더라, '-던', '-든지'	지난 일과 가리지 아니하는 것.	
	제57항	동음이의어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짐.
고급	제51항	이, 히'로 나는 것	솔직히, 가만히, 분명히 등.	
	제57항	동음이의어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짐.

(5-21) 표준어 규정 내용 선정

단계	항	내용	단어	비고
초급	제3항 ~ 제6항	거센 소리 표준어, 예사소리 표준어,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 등(친숙도와 관련된 것들임)		친숙도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제10항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	괴팍하다. 으레	
	제11항	모음 발음 변화 인정한 형태	상추, 튀기, 허드레	
	제14항 ~ 제16항	본말 표준어, 준말 표준어, 두 가지 표준어	김, 무, 생쥐, 솔개, 귀이개, 거짓부리-거짓불, 노을-놀, 시누이-시뉘, 외우다-외다, 이기죽거리다-이죽거리다, 찌거기-찌끼	친숙도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제17항	단수 표준어	봉숭아, 멸치, 서/석, 어중간, 옹골차다, 천장	
	제18항	복수 표준어	쇠/소, 괴다/고이다 등	
중급	제8항	음성 모음 표준어와 어원 의식이 강한 것	깡충깡충, 오순도순, 보조-삼촌-사돈	음운 대립
	제9항	'ㅣ' 모음 역행 동화	내기, 냄비, 동맹이치다, -장이: 쟁이, 아지랑이	음 변화 원리
	제11항	모음 발음 변화 인정한 형태		
	제12항	명사 '위'와 관련된 것	윗넓이, 위짹, 웃국	합성어로 30항 관련된 것과 예외적인 것.
	제19항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ㅂ)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거슴츠레하다, 나부랭이

단계	항	내용	단어	비고
	제5항 [다만 4]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꺠]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망, 유희 주의[주의/주이], 혐의[허비/허비], 우리의[우리의/우리에], 강의의[강 : 의의/강 : 이에]	
중급	제6항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눈보라[눈 : 보라]말씨[말 : 씨]밤나무[밤 : 나무] 많다[만 : 타] 멀리[멀 : 리] 별리다[별 : 리다] (2)첫눈[천눈]참말[참말]쌍동밤[쌍동밤] 수많이[수 : 마니] 눈멀다[눈 멀다] 떠별리다[떠별리다]	소리의 길이(장단음의 구별)는 현대인들의 발음 습관에서는 잘 구별되지 않으며, 의식적으로 구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학습자들이 학습을 부담스러워 할 수 있으므로 초급에서 다루기보다는 중급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6항 [붙임]	[붙임]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	보아→봐[봐 :], 기어→겨[겨 :], 되어→돼[돼 :], 두어→뒤[뒤 :], 하여→해[해 :]	
	제6항 붙임 [다만]	다만, ‘오아→와, 지어→저, 찌어→찌, 치어→쳐’ 등은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오아→와, 지어→저, 찌어→찌, 치어→쳐’	
	제7항 1번	제7항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1.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감 : 따]-감으니[가므니], 밟다[밟 : 따]-밟으면[발브면], 신다[신 : 따]-신어[시너], 알다[알 : 다] - 알아[아라]	
	제6항 [다만]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	반신반의[반 : 신바 : 닌/반 : 신바 : 니], 재삼재사[재 : 삼 재 : 사]	
	제7항 1번 [다만]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끌다[끌 : 다]-끌어[끄 : 러], 뺨다[뺨 : 따] - 뺨은[뺨 : 븐], 벌다[벌 : 다]-벌어[버 : 러], 썰다[썰 : 다] - 썰어[써 : 러], 없다[엇 : 따]-없으니[엇 : 쓰니]	
	제7항 2번	제7항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2.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감 : 따]-감기다[감기다], 꼬다[꼬 : 다]-꼬이다[꼬이다], 밟다[밟 : 따]-밟히다[발피다]	
	제7항 2번 [다만]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끌리다[끌 : 리다], 별리다[별 : 리다], 없애다[엇 : 썰다]	
	제7항 [붙임]	[붙임] 다음과 같은 복합어에서는 본디의 길이에 관계없이 짧게 발음한다.	밀-물, 썰-물, 쏜-살-같이, 작은-아버지	
초급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받침의 발음에 대해서

단계	항	내용	단어	비고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제9항	받침 ‘ㄱ, ㅋ’,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닭다[닥따], 키읓[키읓], 키읓과[키읓파], 옷[온], 옷다[온 : 따], 있다[읓따], 젓[젓], 빗다[빔따], 꽃[꼇], 쫓다[쫓따], 솔[솔], 뵈다[뵈 : 따], 앞[압], 뒸다[뒸따]	는 대표음 등의 대규칙만 초급에서 다루기로 함.
	제10항	겹받침 ‘ㄴ’, ‘ㄴ’, ‘ㄹ, ㄹ, ㄹ’, ‘ㅁ’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넋[넋], 넋과[넋파], 앓다[안따], 여덟[여덟], 났다[널따], 외꿔[외꿔], 할다[할따], 값[갑], 없다[엷 : 따]	
	제11항	겹받침 ‘ㄹ, ㄹ,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닭[닥], 흙과[흙파], 맏다[막따], 늙지[늑찌], 삶[삼 :], 젊다[점 : 따], 읊고[읍꼬], 읊다[읍따]	
	제13항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까아[까까], 옷이[오시], 있어[이씨], 낮이[나지], 꽃아[꼬자], 꽃을[꼬출], 쫓아[쫓차], 밭에[바테], 앞으로[아프로], 뒸이다[더피다]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옛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넋이[넑씨], 앓아[안자], 닭을[달글], 젊어[절머], 꿔이[골씨], 할아[할타], 읊어[을퍼], 값을[갑쓸], 없어[엷 : 씨]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밭아래[바다래], 늣앞[느밥], 젓어미[저더미], 맛없다[마텟따], 걸웃[거둔], 헛웃음[허두슴], 꽃 위[꼬뒤]	
	제15항 [붙임]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넋없다[너겍따], 닭 앞에[다가페], 값어치[가버치], 값있는[가빈는]	
	제16항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소리를 연음하되, ‘ㄷ, ㅈ, ㅊ, ㅋ, ㅌ, ㅍ, ㅎ’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디근이[디그시] 디근을[디그슬] 디근에[디그세] 지읓이[지으시] 지읓을[지으슬] 지읓에[지으세] 치읓이[치으시] 치읓을[치으슬] 치읓에[치으세] 키읓이[키으기] 키읓을[키으글] 키읓에[키으게] 티읓이[티으시] 티읓을[티으슬] 티읓에[티으세] 피읓이[피으비] 피읓을[피으블] 피읓에[피으베] 히읓이[히으시] 히읓을[히으슬] 히읓에[히으세]	
중급	제10항 [다만]	‘뽳-’은 자음 앞에서 [뽳]으로 발음하고, ‘넣-’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1) 뽳다[뽳 : 따], 뽳소[뽳 : 쏘], 뽳지[뽳 : 찌], 뽳는[뽳 :	

단계	항	내용	단어	비고
		[넙]으로 발음한다.	는→밤 : 는], 뽕게[밤 : 께], 뽕 고[밤 : 꼬] (2) 뽕 - 죽 하 다 [넙 주 카 다] 넙-둥글다[넙똥글다]	
제11항 [다만]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리’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맑게[말께], 물고[물꼬], 얹거 나[얼꺼나]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ㅎ(ㄴㅎ, ㄷㅎ)’ 뒤에 ‘ㄱ, ㄷ, ㅌ’이 결합 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 쳐서 [ㄱ, ㄷ, ㄷ]으로 발음한다.	농고[노코], 종던[조 : 턴], 쌍지[싸지], 많고[만 : 코]	
제12항 1번 [붙임 1]		받침 ‘ㄱ(ㄱ), ㄷ, ㅌ(ㅌ), ㅌ(ㅌ)’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ㄱ, ㄷ, ㅌ, ㅌ]으로 발음한다.	각하[가카], 먹히다[머키다], 밝히다[발키다], 만형[마형], 좁히다[조피다], 넓히다[널피다], 꽃히다[꼬치다], 얹히다[안치다]	
제12항 1번 [붙임 2]		규정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는 ‘ㅌ, ㅌ, ㅌ, ㅌ’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옷 한 벌[오탄벌], 낫 한때[나 탄때], 꽃 한 송이[꼬탄송이], 술하다[수타다]	
제12항 4번		‘ㅎ(ㄴㅎ, ㄷ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낱은[나은], 놓아[노아], 쌍이 다[싸이다], 많아[마 : 나], 얹 은[아는], 닳아[다라], 싫어도 [시러도]	
초급	제17항	받침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ㅌ, 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곧이든다[고지든따], 곧이[구 지], 미닫이[미다지], 땀받이 [땀바지], 발이[바치], 벼훅이 [벼훅치]	
	제22항	제22항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 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되어[되어/되여], 피어[피어/피 여]	
	제22항 [붙임]	‘이오, 아니오’도 이에 준하여 [이요, 아니요]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제18항	받침 ‘ㄱ(ㄱ, ㄷ, ㅌ, ㄴ), ㄷ(ㅌ, ㅌ, ㅌ, ㅌ, ㅌ, ㅎ), ㅌ(ㅌ, ㅌ, ㅌ, ㅌ)’은 ‘ㄴ, ㄴ’앞에 서 [ㅇ, ㄴ, ㄴ]으로 발음한다.	먹는[명는], 국물[궁물], 깎는[깡 는], 키웁만[키웁만], 뭉뭉이[뭉 목씨], 굵는[궁는], 흥만[흥만], 닫는[단는], 짓는[진 : 는], 옷맵 시[온맵씨], 있는[인는], 맞는[만 는], 젓명울[전명울], 쫓는[쫓는], 꽃망울[꼇망울], 붙는[분는], 놓 는[논는], 잡는[잠는], 밤물[밤 물], 앞마당[암마당], 밝는[밤 : 는], 읊는[음는], 엮는[엄 : 는], 값매대[감매대]	
	제18항 [붙임]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 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책 넣는다[챙넌는다], 흙 말리 다[홍말리다], 옷 맞추다[온마 추다], 밥, 먹는다[밤명는다],	

단계	항	내용	단어	비고
중급	제19항	받침‘ㄱ,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값 매기다[감매기다] 담력[담 : 녀], 침략[침냐], 강릉[강능], 향로[향 : 노], 대통령[대 : 통녕]	
	제19항 [붙임]	받침‘ㄱ,ㅅ’ 뒤에 연결되는 ‘ㄹ’도 [ㄴ]으로 발음한다.	막론[막논→망논], 백리[백니→뱅니], 협력[협녁→협녀], 십리[십니→십녀]	
고급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1)난로[날 : 로], 신라[실라], 천리[철리], 광한루[광 : 할루], 대관령[대 : 괄령] (2)칼날[칼랄], 물난리[물랄리], 줄넘기[줄럼끼], 할는지[할른지]	
	제20항 [붙임]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견[의 : 견], 임진왜란[임 : 잔], 생산력[생산력], 결단력[결판력], 공권력[공권력], 동원령[동 : 원녕], 상견례[상견례], 횡단로[횡단로], 이원론[이 : 원논], 입원료[이원료], 구근류[구근류]	
	제20항 [붙임]	첫소리 ‘ㄴ’이 ‘ㄷ’, ‘ㅌ’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닿는[달른], 뚫는[뚫른], 할네[할레]	
	제21항	위에서 지정한 이외의 자음 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감기[감 : 기](×[강 : 기]), 옷감[온감](×[옥감]), 있고[일꼬](×[익꼬]), 꽃길[꼇길](×[꼭길]), 젓먹이[전머기](×[점머기]), 문법[문뻘](×[똥]), 꽃밭[꼇밭](×[꼭밭])	
초급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ㄴ(ㄴ, ㄷ, ㄹ), ㄷ(ㄷ, ㄱ, ㄴ, ㄷ, 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ㄴ,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국밥[국뻘], 깎다[깎따], 낫반이[넉빠지], 샷돈[샷돈], 닭장[닥짱], 침범[침뻘], 뻘대다[뻘때다], 웃고름[온고름], 있던[인뻘], 꽃고[꼇꼬], 꽃다발[꼇따발], 낫설다[넉썰다], 발갈이[반까리],,,솔전[솔썰], 곱돌[곱똥], 댕개[뉥개], 옆집[엇집], 뉘죽하다[넉쭈카다], 읊조리다[읍조리다], 값지다[갑쩌다]	
중급	제27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ㄴ,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다만,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떼가], 할 바를[할빠를], 할 수는[할쑤는], 할 적에[할쩌게], 갈 곳[갈꼇], 할 도리[할토리], 만날 사람[만날싸람]	
	제27항 붙임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할걸[할겅], 할밖에[할빠게], 할세라[할쩌라], 할수록[할쑤록], 할지라도[할쩌라도], 할지언정[할쩌언정], 할진대[할쩌	

단계	항	내용	단어	비고
			대]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신고[신 : ㅍ], 꺾안다[꺾안따], 앉고[안꼬], 었다[언따], 삼고[삼 : ㅍ], 더듬지[더듬찌], 닭고[닭 : ㅍ], 찢지[찢 : 찌], 안기다, 감기다, 굴기다, 옮기다	
	제25항	어간 받침 ‘ㄹ, ㅂ’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넉게[넉게], 할다[할따], 홀소[홀쏘], 떨지[떨 : 찌]	
	제26항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다만,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갈등[갈똥], 발동[발똥], 절도[절또], 말살[말쌀], 불소[불쏘](弗素), 일시[일씨], 갈증[갈쥬], 물질[물쥬], 발전[발쥬], 몰상식[몰쌍식], 불세출[불썰출], 허허실실[허허실실](虛虛實實), 절절-하다[절절하다](切切-)	
고급	제28항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문-고리[문꼬리], 눈-동자[눈똥자], 신-바람[신빠람], 산-새[산썰], 손-재주[손썰주], 길-가[길까], 물-동이[물똥이], 밭-바닥[밭빠닥], 굴-속[굴 : 썩], 술-잔[술잔], 바람-결[바람썰], 그믐-달[그믐딸], 아침-밥[아침빠], 잠-자리[잠짜리], 강-가[강까], 초승-달[초승딸], 등-불[등뽕], 창-살[창쌀], 강-줄기[강쥬기]	
중급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소리를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숨이불, 홀이불, 막일, 샅일, 맨입, 꽃잎, 내복약, 한여름, 남존여비, 신여성, 색연필, 직행열차, 늑막염, 콩엿, 담요, 눈요기, 영엽용, 식용유, 국민윤리, 밤옷	
	제29항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ㄴ'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이죽이죽, 야금야금, 겹열, 율랑울랑, 금윙	제29항은 합성어 및 파생어와 관련된 조항임. 다만의 내용은 제29항에 대한 예외를 보이는 조항이어야 함. '이죽이죽, 야금야금'은 중첩어로서 합성어가 될 수 있지만, '금윙, 겹열'이 해당 조항에 알맞은 예시가 될 수

단계	항	내용	단어	비고
				없음(만약, 위의 한자어를 합성어로 처리한다면 '금-용, 검-열'과 같이 분지해야 할 것).
	제29항 [붙임 1]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소리는 [ㄹ]로 발음한다.	들일, 솔잎, 설익다, 물약, 불여우, 서울역, 물엿, 휘발유, 유들유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유음화'에 의한 것으로, 개별 어휘적이거나 개별 규칙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다룰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됨(기본적인 음운 변동과 관련된 내용이 초급 교재에서 다루어짐으로써 '붙임 1'과 같은 변화는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29항 [붙임 2]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한 일, 옷 입다, 서른여섯, 3연대, 먹은 엿, 할 일, 잘 입다, 스물여섯, 1연대, 먹을 엿	
	제29항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ㄴ(ㄹ)' 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육이오, 삼일절, 송별연, 등용문	
	제30항	2.사이시옷'ㄴ,ㄹ'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콧날, 아랫니, 툇마루, 뱃머리	제30항의 2번과 3번은 결국 비음 동화라는 동일한 음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단지 3번의 경우는 29항에서 보았던 현상이 일차적으로 발생한 것임. 즉, 2번은 비음 동화에 대해 학습하면 쉽게 예측되는 일반적인 변화이며, 3번은 제29항의 내용을 알면 역시 예측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재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음. 일반적인 규칙으로 예측 가능한 것을 개별 규칙으로 기술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부담이 될 것임.
	제30항	3. 사이시옷 뒤에 '이'소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ㄴ]으로 발음한다.	베갯잇, 깻잎, 나뭇잎, 도리깻열, 뒷웃	
고급	제30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1.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넷가, 셋길, 빨랫돌, 콧등, 깃발, 대팻밥, 햇살, 뱃속, 뱃전, 고갯길	굳이 넣는다면, 고급 교재에 포함시키되, 30항의 1번과 같은 내용

단계	항	내용	단어	비고
		때에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은 제외되는 것이 좋을 것임. '[내:까]'는 '넷가'의 실제 발음을 반영한 것(결과)이고 '[내:까]'는 사이시옷이 평폐쇄음화되고 그것이 긴장성을 발생시키는 규칙을 반영한 것(과정)으로 보임. 그러나 실제 발음에서 '넷가'를 '[내:까]'로 읽는지 '[내:까]'로 읽는지는 잘 구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문 규범과는 관계없이 발화마다 발음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5-23) 외래어 표기법 내용 선정

단계	항목	내용	유의	검토
초급	제1항	현행 24자모만으로 적는 이유	매운 라이샤워 표기법과 같이 복잡한 글자를 만들어 쓸 경우 어문 생활의 혼란을 초래함: 아놀드, 란스 등을 쓰지 않음.	
	제3항	받침(종성)	7종성을 어긴 표기의 예가 매우 많음: 헤어샷 등.	
	제4항	파열음 표기에 된소리를 쓰지 않음.	써클, 싸이클, 쎄익스피어 등의 오류.	
		표기 일람표	성인용이므로 초급에서 표기 일람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중급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표음주의 원칙: foot=풋	
	표기 세칙 제1절, 영어 표기 제3항의 2번, 3번	어말의 [f]에 관한 규정, 어말[ʒ]와 관련된 규정	플래시, 슈러브, 쇼핑, 심/미라지, 비전	
	표기 세칙 제1절 영어 표기 제7항	장모음 규정	팀, 루트	
	표기 세칙 제1절	복합어 규정	컵라이크, 북엔드, 헤드라이트/로스앨러모스(로스앨러모스),	

고급	영어 표기 제10항		톱클래스(톱클래스)	
	제4장 제1절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제3항의 원지음과 제3국 발음	
	표기의 기본 원칙 제5항		관용	
		대조표와 표기 세칙의 구조	대조표를 둔 이유, 표기 세칙을 나누어 설정한 이유를 고려함. 영어에서 유래한 외래어와 독일어나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외래어 표기의 차이를 인식해야 하는 이유.	
	제4장 제2절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	중국(과거인과 현대인), 일본, 관용	
	제3절	바다, 섬, 강, 산 등의 표기 세칙		

(5-24)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내용 선정

단계	항목	내용	유의	검토
초급			도로 표지판, 여권 등의 로마자 표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내용 제시	로마자 표기법의 의의(중요성)을 설명
중급	제1항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표준 발음법과 로마자 표기의 관계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음.	로마자 이외의 기호: ù, ö 등의 기호 사용 예	
		표기 일람	표기 일람과 예외 (광희문, 장모음 표기)	
	제3장 제3항, 제4항	표기상의 유의점(고유명사를 대문자로 적는 것), (성과 이름의 순서, 붙임표)		
고급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	자음 동화(백마), ‘ㄴ, ㄹ’ 덧남(학여울), 된소리를 반영하지 않음.	
	제5항	행정 구역 단위와 ‘가’에 붙임표를 사용하는 규정		
	제6항	붙임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각 어문 규범 항목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어문 규범의 원칙 항목은 초급 교재와 중급 교재의 내용으로 선정하고 원칙 중 매우 어려운 것이나 허용 항목은 고급 교재의 내용으로 선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전문가 평정의 기준 이외에 (5-16)에서 제시한 설문 문항 단계별 등급 분류표를 반영하여 정교화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위의 (5-20)~(5-24)의 어문 규범 범주별 교육 내용을 선정한 것을 재배열하면 아래의 도표와 같다.

(5-25) 한글 맞춤법 내용 단계별 선정 결과

단계	항	내용	단어	설문 등급	조정 등급
초급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 1. 두 모음 사이, 2. 'ㄴ, ㄹ, ㄷ, ㅇ' 받침 뒤의 된소리	소쩍새, 어깨, 오빠, 으뜸, 아끼다, 기쁘다, 깨끗하다, 어떠하다, 해쓱하다, 가끔, 거꾸로, 부쩍(부쩍), 어찌, 이따금//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뱃, 움쭉, 몽땅, 엉뚱하다	항목 없음	초급
	제6항	구개음화	만이, 해돋이, 굳이, 같이, 끝이	항목 없음	초급
	제7항	ㄷ'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덧저고리, 돛자리, 엇셈, 옷어른, 핫옷, 무릎, 사뭇, 얼핏, 자칫하면, 뭇, 옛, 첫, 헛.	항목 없음	초급
중급	제5항	다만 'ㄱ, ㅃ'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깎두기, 법석, 몹시	항목 없음	중급
	제6항	구개음화	활이다, 견히다, 묻히다, 닫히다	항목 없음	중급
	제8항	'계, 레, 메, 폐, 헤'의 'ㄱ'은 'ㄱ'으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ㄱ'으로 적는다.	계수, 사례, 연메, 폐품, 혜택, 계집, 핑계, 계시다	초급	초급
	제8항	본음대로	계송, 계시판, 휴게실	항목 없음	중급
고급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으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으로 적는다.	보늬, 오늬, 하늬바람, 늘리리, 닳늬, 띄어쓰기, 희망, 희다	초급	초급
초급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여자, 연세, 요소, 유대	항목 없음	초급
	제11항	한자음 '랴, 려, 레,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양심, 역사, 예외, 용궁, 유행, 이발	항목 없음	초급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낙원, 내일, 노인	중급	중급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딱딱, 짹짹, 씹씹, 푹푹딱딱, 씹씹씹	고급	고급
중급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이토(泥土), 익명(匿名)	항목 없음	중급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나, 녀' 음을 인정한다.	냥, 냥쫘, 년	항목 없음	중급
	제10항 [붙임 2]	점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신여성, 공염불, 남존여비	고급	고급
	제10항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	항목 없음	중급
	제11항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리(理), 리(里)	항목 없음	중급
	제11항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	나열, 비열, 선열, 규율, 비율, 선율, 백분율	등급 동일	중급

단계	항	내용	단어	설문 등급	조정 등급
	[붙임 1]	지는 ‘열, 물’은 ‘열, 올’로 적는다.			
	제11항 [붙임 2]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신립(申昝),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崙)	항목 없음	중급
	제11항 [붙임 3]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국련(국제연합), 대한교련(대한교육연합회)	항목 없음	중급
	제11항 [붙임 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역이용(逆利用), 연이율(年利率),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항목 없음	중급
	제11항 [붙임 5]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數)도 붙임 4에 준하여 적는다.	서울여관, 신흥이발관,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		
	제12항	한자음 ‘라, 레,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뢰, 누, 느’로 적는다.	뇌성, 누각, 능묘	중급	중급
	제12항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내내월(來來月), 상노인(上老人), 중노동(重勞動), 비논리적(非論理的)	항목 없음	중급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꽃꽃하다, 놀놀하다, 눅눅하다, 밋밋하다, 짹짹하다, 씹씹하다, 씹쓸하다, 짹짹하다	초급	초급
고급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연연불망(戀戀不忘), 유유상종(類類相從), 누누이(屢屢-)	항목 없음	고급
	제14항	제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외곶으로만	등급 동일	고급
초급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먹다, 신다, 민다, 울다, 넘다, 입다, 웃다, 쥘다, 있다, 없다 등.	항목 없음	초급
	제16항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ㅑ’일 때에는 어미를 ‘-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 어’로 적는다.	나아, 막아, 얹아, 돌아, 보아/ 개어, 꺾어, 되어, 베어, 쉬어 등.	항목 없음	초급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1.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4. 어간의 끝 ‘ㄴ, ㄹ’이 줄어들 적	1.갈다~가니, 놀다~노니, 불다~부니 등. 4.푸다~퍼, 뜨다~떠, 꺾다~껴 등.	항목 없음	초급
중급	제15항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넘어지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옆어지다 등. /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항목 없음	중급
	제15항 붙임 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책이오, 오시오, 아니오	초급	초급
	제15항 붙임 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	책이요, 붓이요	항목 없음	중급

단계	항	내용	단어	설문 등급	조정 등급
	제17항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읽어요, 참으리요, 좋지요	항목 없음	중급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2. 어간의 끝 'ㅅ'이 줄어질 적. 5. 어간의 끝 'ㄷ'이 'ㄹ'로 바뀔 적. 6. 어간의 끝 'ㅂ'이 'ㅍ'로 바뀔 적.	2.긏다~그어, 낫다~나아, 잇다~이어 등 5.견다~걸어, 듣다~들어, 묻다~물어 등 6.깎다~기워, 굽다~구워, 가깝다~가까워 등	등급 동일	중급
	제18항 붙임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ㄹ'이 준 대로 적는다.	마지못하다, 마지않다.(하)다마다 등	고급	고급
고급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3.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 적. 7. '하다'의 활용에서 어미 '-아'가 '-여'로 바뀔 적. 8. 어간의 끝음절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리'로 바뀔 적. 9. 어간의 끝 음절 '르'의 'ㄴ'이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리'로 바뀔 적.	3. 그렇다~그러니, 까맣다~까마니, 동그랗다~동그라니 등 7. 하다~하여 8. 이르다~이르러, 노르다~노르러, 누르다~누르러 등 9. 가르다~갈라, 부르다~불러, 거르다~걸러 등	등급 동일	고급
초급	제19항	1. '-이'가 붙어 명사로 된 것, 2.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3. '-이'가 붙어 부사로 된 것, 4.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1.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땀받이, 달맞이, 먹이, 미닫이, 별이, 살림살이, 쇠붙이 2. 걸음, 묵음, 믿음, 얼음, 엮음, 울음, 웃음, 졸음, 죽음, 알, 만듦, 3. 같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실없이, 종이, 짓궂이 4. 밝히, 익히, 작히	항목 없음	초급
	제19항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굽도리, 코끼리, 거름, 고름, 노름	항목 없음	초급
	제19항	붙임 (1) 명사로 바뀐 것, (2) 부사로 바뀐 것, (3)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것	(1) 귀머거리, 까마귀, 너머, 마감, 마개, 마중, 무덤, 올라미, 주검 (2) 거뭇거뭇, 너무, 도로, 불긋불긋, 비로소, 자주, 차마 (3) 나마, 부터, 조차	항목 없음	초급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 적는다. 1. 부사로 된 것, 2. 명사로 된 것	1.곳곳이, 날날이, 뭇뭇이 2. 바둑이, 삼발이	항목 없음	초급
	제20항	[붙임]	꼬락서니, 꼬트머리, 바가지, 바깥, 싸라기, 이파리, 지붕, 지푸라기	항목 없음	초급
	제21항	명사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1. 값지다, 홀지다, 빗갈, 옆댕이, 잎사귀, 2. 남시, 굶다랗다, 굶직하다	항목 없음	초급
	제22항	용언의 어간에 접미사가 붙은 말	1. '-기-', '-리-'등. 말기다, 옮기다	항목 없음	초급
	제23항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	개구리, 귀뚜라미, 기러기, 날라리	항목 없음	초급
	제24항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시늉말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	깜짝이다, 꾸벅이다 등	항목 없음	초급

단계	항	내용	단어	설문 등급	조정 등급
중급	제21항	다만, (1) 겹받침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떨어진 것	(1)넙따랑다, 째따랑다, 얹따랑다 (2)넙치, 올무, 납작하다	등급 동일	중급
	제22항	용언의 어간에 접미사가 붙은 말 2. '-치-, -프리/트리-'가 붙는 것	부딛트리다/부딛트리다	등급 동일	중급
	제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	깎쪽이, 꿀꿀이, 오독이, 흘쪽이	고급	고급
고급	제21항	다만, (1) 겹받침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떨어진 것	알따랑다	등급 동일	고급
	제22항	용언의 어간에 접미사가 붙은 말 2. '-치-, -프리/트리-'가 붙는 것	홀프리고	등급 동일	고급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	1.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급히, 꾸준히, 도저히, 어렵פות이, 깨끗이 2.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곰곰이, 더욱이, 생긋이, 일찍이	항목 없음	고급
	제26항	-하다'나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	2.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부질없다, 상없다, 시름없다, 열없다, 하염없다	항목 없음	고급
초급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	밋천, 꺾꽂이, 꽃잎 등 [붙임 1], [붙임 2]도 포함	중급	중급
	제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	다달이, 따님, 바느질, 소나무 등	항목 없음	초급
중급	제27항 [붙임 3]	이'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날 때	간니, 텃니, 사랑니, 송곳니, 옹니(옹니), 어금니, 머릿니, 젓니, 틀니, 가랑니	항목 없음	중급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소리가 'ㄷ'소리로 나는 것	반진고리, 사흔날, 설달	항목 없음	중급
	제30항	1.순우리말(1)-(3)2.순우리말과한자어	곶밥, 나룻배, 땃나물, 냇물, 뒫일 등	항목 없음	중급
	제31항	ㅂ'소리 덧남, 'ㅎ'소리 덧남	1. 땃싸리, 좁쌀, 2.머리카락, 수탉	초급	초급
고급	제30항	2음절 한자어를 포함하여 조어법, 표준발음과 관련된 사이시옷 표기 방식	1.2음절 한자어(숫자, 횡수, 찻간, 곳간, 텃간, 셋방) 2. 해님, 수놈, 머리말, 예사소리, 예-부터, 기차간, 전세방	등급 동일	고급
	제31항	ㅂ'소리 덧남, 'ㅎ'소리 덧남	살코기	등급 동일	고급
초급	제32항	단어의 끝 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	기럭아, 엇그저께	항목 없음	초급
	제33항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질 적	그건, 그게	등급 동일	초급
	제34항	-아/-어, -았/-었'	가, 갔다, 겼다, 냈다	항목 없음	초급
	제35항	‘ㄱ, ㄷ’로 끝난 어간과 ‘-아/-어, -았/-었-’이 어울려 줄 적.	파, 꿇다	항목 없음	초급
	제36항	‘ㄷ’ 뒤에 ‘-어’가 와서 ‘ㄷ’로 줄 적.	가져, 견더	항목 없음	초급
	제37항	‘ㄴ, ㄷ, ㄱ, ㄷ, ㄴ’ 뒤에 ‘-이-’가 와서 ‘ㄴ, ㄷ, ㄱ, ㄷ, ㄴ’로 줄 적.	썰다, 뵈다, 띄다	항목 없음	초급
	제40항	어간 끝 ‘하’의 ‘ㅏ’ 줄고, ‘ㅎ’이 다 음 음절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	간편케, 안타	항목 없음	초급
중급	제35항 [붙임 2]	‘니로 끝난 어간과 ‘-어, -었-’이 어울려 줄 적.	괘(괴어), 돼(되어)	등급 동일	중급
	제38항	‘ㄴ, ㄷ, ㄱ, ㄷ, ㄴ’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 적.	싸여, 썰어	항목 없음	중급

단계	항	내용	단어	설문 등급	조정 등급
고급	제39항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	그렇잖은, 적잖은	중급	중급
	제40항 [붙임 2]	어간의 끝 음절 '하-'가 아주 줄 적	거북지, 생각건대, 녀석지, 깨끗지, 익숙지	등급 동일	고급
초급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개, 대, 돈, 마리 등.	항목 없음	초급
	제44항	수를 적을 때에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		항목 없음	초급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겸, 내지, 대, 밋, 등.	중급	중급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호칭어, 관직명	충무공 이순신 장군	항목 없음	초급
중급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것, 수, 만큼, 이, 바, 지	항목 없음	중급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항목 없음	중급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		항목 없음	중급
	제50항	전문 용어		항목 없음	중급
고급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만, 만큼, 대로'는 의존 명사와 조사로 쓰일 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데'와 '지'는 의존 명사로 쓰일 경우와 '-는데, -은지'처럼 어미로 쓰일 경우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매우 많음.	항목 없음	고급
	제47항	보조 용언: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덤벼들어 보아라, 떠내려가 버렸다.	항목 없음	고급
초급	제54항	접미사	심부름꾼, 빗갈 등	항목 없음	초급
	제55항	두 가지로 구별하여 적던 것	맞추다. 뻘치다	항목 없음	초급
	제57항	동음이의어		등급 동일	초급
중급	제51항	부사의 끝 음절 발음 1. '이'로만 나는 것, 2. '히'로만 나는 것, 3. '이, 히'로 나는 것	2. '히'로 나는 것: 극히, 급히, 작히	등급 동일	중급
	제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	승낙/수락 등	항목 없음	중급
	제53항	예사소리로 적는 어미	'-을거나, '-을게' 등	초급	초급
	제56항	'-터라', '-던', '-든지'	지난 일과 가리지 아니하는 것.	항목 없음	중급
	제57항	동음이의어		등급 동일	중급
	제51항	이, 히로 나는 것	솔직히, 가만히, 분명히 등.	중급	중급
고급	제57항	동음이의어		등급 동일	고급

(5-27) 표준어 규정 내용 단계별 등급 선정 결과

단계	항	내용	단어	설문 등급	조정 등급
초급	제3항 ~제6항	거센 소리 표준어, 예사소리 표준어, 어원에서 떨어진 형태 등(친숙도와 관련된 것들임)		등급 동일	초급
	제10항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	괴팍하다. 으레	항목 없음	초급
	제11항	모음 발음 변화 인정한 형태	상추, 튀기, 허드레	항목 없음	초급
	제14항 ~제16항	본말 표준어, 준말 표준어, 두 가지 표준어	김, 무, 생쥐, 솔개, 귀이개, 거짓부리-거짓불, 노을-놀, 시누이-시누, 외우다-외다, 이기죽거리다-이죽거리다, 찌거리-찌끼	항목 없음	초급
	제17항	단수 표준어	봉숭아, 멸치, 서/석, 어중간, 옹골	중급	중급

단계	항	내용	단어	설문 등급	조정 등급
			차다, 천장		
	제18항	복수 표준어	쇠/소, 꾀다/고이다 등	항목 없음	초급
	제8항	음성 모음 표준어와 어원 의식이 강한 것	깡충깡충, 오순도순, 보조-삼촌-사돈	초급	초급
	제9항	‘ㅣ’ 모음 역행 동화	내기, 냄비, 동맹이치다, -장이:쟁이, 아지랑이	등급 동일	중급
	제11항	모음 발음 변화 인정한 형태	바람	등급 동일	중급
	제12항	명사 '위'와 관련된 것	윗뚝이, 위작, 웃국	등급 동일	중급
중급	제19항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ㅂ)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복수 표준어)	항목 없음	중급
	제23항	방언 표준어	물방개, 애순	항목 없음	중급
	제24항	방언 표준어	귀밀머리, 빈대떡, 코주부, 역겹다	항목 없음	중급
	제25항	단수 표준어	까다롭다, 까치발, 부스러기, 안절부절-못하다	등급 동일	중급
	제6항	거센 소리 표준어, 예사소리 표준어,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 등(친숙도와 관련된 것들임)	열두째	등급 동일	고급
	제7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와 거센소리 인정, 접두사 '숫-'	수놈: 수캐: 숫쥐	등급 동일	고급
고급	제8항	음성 모음 표준어와 어원 의식이 강한 것	깡충깡충	등급 동일	고급
	제9항	‘ㅣ’ 모음 역행 동화	미장이	등급 동일	고급
	제20항	고어 표준어	난봉, 낭떠러지, 애달프다. 오동나무, 자두	항목 없음	고급
	제21항	한자어 표준어	꼭지미역, 솟을무늬, 푼돈	항목 없음	고급
	제22항	한자어 계열의 단어	총각무	등급 동일	고급
	제26항		넙쿨	등급 동일	고급

(5-28) 표준 발음법 내용 단계별 등급 선정 결과

단계	항	내용	단어	설문 등급	조정등급
초급	제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항목 없음	초급
	제2항	표준어의 자음은 다음 19개로 한다.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ㄷ ㅌ ㅍ ㅊ ㅍ ㅊ ㅍ ㅊ ㅍ ㅊ ㅍ ㅊ ㅍ ㅊ	항목 없음	초급
	제3항	표준어의 모음은 다음 21개로 한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	항목 없음	초급
	제4항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는 단모음(單母音)으로 발음한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항목 없음	초급
	제4항 [붙임]	[붙임] ‘ㅏ, ㅑ’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ㅏ, ㅑ	항목 없음	초급
	제5항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	항목 없음	초급

단계	항	내용	단어	설문 등급	조정등급
중급	제5항 [다만 1]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켜, 처’는 [저, 켜, 처]로 발음한다.	가지어→가져[가저], 켜어→껴[껴], 다치어→다쳐[다쳐]	항목 없음	중급
	제5항 [다만 2]	다만 2. ‘예, 레’ 이외의 ‘ㄹ’은 [ㄹ]로 발음한다.	계집[계 : 집/계 : 집] 계시다[계 : 시다/계 : 시다] 시계[시계/시계](時計) 연계[연계/연계](連繫) 메별[메별/메별](袂別) 개폐[개폐/개폐](開閉) 혜택[혜 : 택/혜 : 택](惠澤) 지혜[지혜/지혜](智慧)		
	제5항 [다만 3]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한다.	닐리리, 닝큼, 무늬, 띄어쓰기, 씹어, 툇어, 희어, 희뽀다, 희망, 유희		
	제5항 [다만 4]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의]로,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주의[주의/주이], 협의[협비/협비], 우리의[우리의/우리에], 강의의[강 : 의의/강 : 이에]		
중급	제6항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눈보라[눈 : 보라], 말씨[말 : 씨], 밤나무[밤 : 나무], 많다[만 : 타], 멀리[멀 : 리], 별리다[별 : 리다] (2) 첫눈[친눈], 참말[참말], 쌍동밤[쌍동밤], 수많이[수 : 마니], 눈멀다[눈멀다], 떠별리다[떠별리다]	고급	고급
	제6항 [붙임]	[붙임]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	보아→봐[봐 :], 기어→겨[겨 :], 되어→돼[돼 :], 두어→뒤[뒤 :], 하여→해[해 :]		
	제6항 [다만]	다만, ‘오아→와, 지어→저, 켜어→껴, 치어→쳐’ 등은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오아→와, 지어→저, 켜어→껴, 치어→쳐’		
	제7항 1번	제7항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1.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감 : 따] - 감으니[가므니], 밝다[밤 : 따] - 밝으면[발브면], 신다[신 : 따] - 신어[시너], 알다[알 : 다] - 알아[아라]		
	제6항 [다만]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	반신반의[반 : 신바 : 닌/반 : 신바 : 니], 재삼재사[재 : 삼 재 : 사]		
	제7항 1번 [다만]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끌다[끌 : 다] - 끌어[끄 : 러], 뺄다[떨 : 따] - 뺏은[떨 : 븐], 별다[별 : 다] - 별어[버 : 러], 썰다[썰 : 다] - 썰어[썸 : 러],		

단계	항	내용	단어	설문 등급	조정등급
			없다[엇 : 따]-없으니[엇 : 쓰니]		
	제7항 2번	제7항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2.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감 : 따]-감기다[감기다], 꼬다[꼬 : 다]-꼬이다[꼬이다], 밟다[밟 : 따]-밟히다[밟피다]		
	제7항 2번 [다만]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끌리다[끌 : 리다], 벌리다[벌 : 리다], 없애다[엇 : 썰다]		
	제7항 [붙임]	[붙임] 다음과 같은 복합어에서는 본디의 길이에 관계없이 짧게 발음한다.	밀-물, 썰-물, 쏜-살-같이, 작은-아버지		
초급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항목 없음	초급
	제9항	받침 ‘ㄱ, ㅋ’, ‘ㄴ, ㄷ, ㄹ, ㅂ,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닭다[닥따], 키웁[키웁], 키웁과[키웁파], 옷[온], 옷다[온 : 따], 있다[인따], 젓[전], 빗다[빈따], 꽃[꼇], 쫓다[쫓따], 솔[손], 뺨다[뺨 : 따], 앞[압], 뒤타[뒹따]		
	제10항	겹받침 ‘ㄴㄷ’, ‘ㄴㅌ’, ‘ㄷㄹ, ㄹㅌ, ㄹㅎ’, ‘ㅁ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넋[넉], 넋과[넉파], 앓다[안따], 여덟[여덜], 났다[널따], 외곶[외곶], 할다[할따], 값[갑], 엇다[엇 : 따]	항목 없음	초급
	제11항	겹받침 ‘ㄹㅎ, ㄹㅎㅎ’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닭[닥], 흙과[흑파], 맏다[막따], 늙지[늑제], 삶[삼 :], 젊다[점 : 따], 읊고[읍꼬], 읊다[읍따]	중급	중급
	제13항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까아[까까], 옷이[오시], 있어[이씨], 낮이[나지], 꽃아[꼬자], 꽃을[꼬출], 쫓아[쫓차], 밭에[바테], 앞으로[아프로], 뒤타다[더피다]	중급	중급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넋이[넉씨], 앓아[안자], 닭을[달글], 젊어[절머], 곱이[꼇씨], 할아[할타], 읊어[읍퍼], 값을[갑쓸], 엇어[엇 : 씨]	고급	고급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밭아래[바다래], 늣앞[느밥], 젓머미[저더미], 맛없다[마뎡따], 걸 옷[거돈], 헛웃음[허두슴], 꽃 위[꼬뒤]	항목 없음	초급
	제15항[붙임]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넋없다[너겍따], 닭 앞에[다가페], 값어치[가버치], 값있는[가빈는]	항목 없음	초급
	제16항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소리를 연음하되, ‘ㄷ, ㅌ, ㅊ, ㅋ, ㅌ, ㅍ, ㅎ’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음과	디근이[디그시] 디근을[디그슬] 디근에[디그세] 지웃이[지으시] 지웃	항목 없음	초급

단계	항	내용	단어	설문 등급	조정등급
		같이 발음한다.	을[지으슬] 지웃에[지으세] 치웃이[치으시] 치웃을[치으슬] 치웃에[치으세] 키웁이[키으기] 키웁을[키으글] 키웁에[키으게] 티웁이[티으시] 티웁을[티으슬] 티웁에[티으세] 피웁이[피으비] 피웁을[피으블] 피웁에[피으베] 히웁이[히으시] 히웁을[히으슬] 히웁에[히으세]		
중급	제10항 다만	‘뵤-’은 자음 앞에서 [뵤]으로 발음하고, ‘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넵]으로 발음한다.	(1) 뵤다[뵤 : 따], 뵤소[뵤 : 쏘], 뵤지[뵤 : 쩌], 뵤는[뵤 : 는→뵤 : 는], 뵤게[뵤 : 께], 뵤고[뵤 : 꼬]	등급 동일	중급
	제11항 다만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맡게[맡껐], 물고[물꼬], 얹거나[얹꺼나]	항목 없음	중급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ㅎ(ᄃᆞ, ᄃᆞ)’ 뒤에 ‘ㄱ, ㄷ, 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크, ㄷ, ㄷ]으로 발음한다.	농고[노코], 종턴[조 : 턴], 쌓지[싸치], 많고[만 : 코]	등급 동일	중급
	제12항 1번 [붙임 1]	받침 ‘ㄱ(ㄱ), ㄷ, ㅌ(ᄃᆞ), ㅌ(ᄃᆞ)’ 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크, ㄷ, ㅌ, ㄷ]으로 발음한다.	각하[가카], 먹히다[머키다], 밝히다[발키다], 망형[마형], 좁히다[조피다], 넓히다[넙피다], 꽃히다[꼬치다], 앉히다[안치다]	항목 없음	중급
	제12항 1번 [붙임 2]	규정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는 ‘ㅌ, ㅌ, ㅌ, ㅌ’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웃 한 벌[오탄벌], 낮 한때[나탄때], 꽃 한 송이[꼬탄송이], 술하다[수타다]	항목 없음	중급
	제12항 4번	‘ㅎ(ᄃᆞ, ᄃᆞ)’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낳은[나은], 놓아[노아], 쌓이다[싸이다], 많아[마 : 나], 앓은[아는], 닳아[다라], 싫어도[시러도]	항목 없음	중급
고급	제10항 다만	‘뵤-’은 자음 앞에서 [뵤]으로 발음하고, ‘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넵]으로 발음한다.	넵-죽하다[넵쭈카다], 넵-둥글다[넵똥글다]	등급 동일	고급
초급	제17항	받침 ‘ㄷ, ㅌ(ᄃᆞ)’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ㅌ, 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곧이든다[고지든따], 곧이[구지], 미닫이[미다지], 땀받이[땀바지], 발이[바지], 벼훅이[벼훅치]	항목 없음	초급
	제22항	제22항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되어[되어/되여]피어[피어/피여]	항목 없음	초급
	제22항 [붙임]	‘이오, 아니오’도 이에 준하여 [이요, 아니요]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항목 없음	초급

단계	항	내용	단어	설문 등급	조정등급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ㄴ(ㄴ, ㄷ, ㄹ, ㄴ, ㄷ, ㄹ)’은 ‘ㄴ, ㄹ’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먹는[명는], 국물[궁물], 꺾는[깡는], 키움만[키움만], 뭇뭇이[뭇뭇씨], 굵는[궁는], 흙만[흥만], 닫는[단는], 짓는[진 : 는], 옷맵시[온맵씨], 있는[인는], 맞는[만는], 첫명울[전명울], 쫓는[쫘는], 꽃망울[꼇망울], 붙는[븐는], 놓는[논는], 잡는[잠는], 밤물[밤물], 앞마당[암마당], 밟는[밤 : 는], 읊는[음는], 없는[엄 : 는], 값매대[감매대]	항목 없음	초급
	제18항 [붙임]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책 넣는다[챙닌는다], 흙 말리다[흥말리다], 옷 맞추다[온마추다], 밥, 먹는다[밤명는다], 값 매기다[감매기다]	항목 없음	초급
	제20항	‘ㄴ’은 ‘ㄱ’의 앞이나 뒤에서 [ㄴ]로 발음한다.	신라[실라]	등급 동일	초급
중급	제19항	받침 ‘ㄹ, ㅇ’ 뒤에 연결되는 ‘ㄱ’은 [ㄴ]으로 발음한다.	담력[담 : 녁], 침략[침낙], 강릉[강능], 향로[향 : 노], 대통령[대 : 통녕]	항목 없음	중급
	제19항 [붙임]	받침 ‘ㄱ, ㅁ’ 뒤에 연결되는 ‘ㄱ’도 [ㄴ]으로 발음한다.	막론[막논→망논], 백리[백니→뱅니], 협력[협낙→협녀], 십리[십니→십니]	항목 없음	중급
고급	제20항	‘ㄴ’은 ‘ㄱ’의 앞이나 뒤에서 [ㄴ]로 발음한다.	(1)난로[날 : 로], 신라[실라], 천리[철리], 광한루[광 : 할루], 대관령[대 : 괄령] (2)칼날[칼날], 물난리[물랄리], 줄넘기[줄럼기], 할는지[할른지]	등급 동일	고급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ㄱ’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전련의 : 전년, 임전련임 : 잔년, 생산량[생산녕], 결단력[결탄녀], 공권력[공뀔녀], 동원령[동 : 윈녕], 상견례[상견녀],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 : 윈논], 입원료[이원노], 구근류[구근뉴]	등급 동일	고급
	제20항 [붙임]	첫소리 ‘ㄴ’이 ‘ㄷ’, ‘ㅌ’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달는[달른], 뚫는[뚫른], 할네[할레]	항목 없음	고급
	제21항	위에서 지정한 이외의 자음 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감기[감 : 기](×[강 : 기]), 옷감[온깜](×[옥깜]), 있고[인꼬](×[익꼬]), 꽃길[꼇길](×[꼭길]), 첫머리[전머기](×[점머기]), 문법[문뻘](×[뭇뻘]), 꽃밭[꼇뻘](×[꼭뻘])	항목 없음	고급
초급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ㄴ(ㄴ, ㄷ, ㄹ, ㄴ, ㄷ, 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ㄴ, ㅁ, ㄴ, ㅁ’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국밥[국뻘], 꺾다[깅따], 녀받이[녀빠지], 샷돈[샷똥], 닭장[닥짱], 칠범[칙뻘], 뻘대다[뻘때다], 옷고름[온꼬름], 있딘[인똥], 꽃고[꼇꼬], 꽃다발[꼇따발], 낫설다[낫썰다], 발같이[받까리], 솔전[솔전], 곱돌[곱똥], 덮개[똥개], 옆집[엇집], 넓죽	항목 없음	초급

단계	항	내용	단어	설문 등급	조정등급
			하다[넙쭈카다], 읊조리다[읍쪼리다], 값지다[갑찌다]		
중급	제27항	관형사형 ‘-(으)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다만,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떼가] 할 바를[할빠를] 할 수는[할쑤는] 할 적에[할쩌게] 갈 곳[갈꼐] 할 도리[할토리] 만날 사람[만날싸람]	항목 없음	중급
	제27항 붙임	‘-(으)ㄴ’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할걸[할겅], 할밖에[할빠께], 할세라[할세라], 할수록[할쑤록], 할지라도[할찌라도], 할지언정[할찌언정], 할진대[할찐대]	항목 없음	중급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ㅁ(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신고[신 : 꼬], 꺾안다[껴안따], 앓고[안꼬], 얻다[언따], 삼고[삼 : 꼬], 더듬지[더듬찌], 닳고[담 : 꼬], 찢지[점 : 찌], 안기다, 감기다, 굶기다, 옮기다	등급 동일	중급
	제25항	어간 받침 ‘ㅍ, 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넓게[넙게], 핥다[할따], 훑소[훑쏘], 떨지[떨 : 찌]	항목 없음	중급
	제26항	한자어에서, ‘ㄴ’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다만,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갈등[갈똥], 발동[발똥], 절도[절또], 말살[말쌀], 불소[불쏘](佛素), 일시[일씨], 갈증[갈쑤], 물질[물찹], 발전[발쩐], 물상식[물쌍식], 불세출[불쑤출], 허허실실[허허실실](虛虛實實), 절절-하대[절절하대](切切-)	항목 없음	중급
고급	제28항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문-고리[문꼬리], 눈-동자[눈똥자], 신-바람[신빠람], 산-새[산쑤], 손-재주[손쑤주], 길-가[길까], 물-동이[물똥이], 발-바닥[발빠닥], 굴-속[굴 : 쑤], 술-잔[술쩐], 바람-결[바람겅], 그믐-달[그믐달], 아침-밥[아침빠], 잠-자리[잠짜리], 강-가[강까], 초승-달[초승달], 등-불[등뽕], 창-살[창쌀], 강-줄기[강쑤기]		고급
중급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숨이불, 홀이불, 막일, 샅일, 맨입, 꽃잎, 내복약, 한여름, 남존여비, 신여성, 색연필, 직행열차, 늑막염, 콩엿, 담요, 눈요기, 영염용, 식용유, 국민윤리, 밤옷	항목 없음	중급
	제29항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ㄴ’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이죽이죽, 야금야금, 점열, 올랑올랑, 금웅	고급	고급

단계	항	내용	단어	설문 등급	조정등급
	제29항 [붙임 1]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소리는 [ㄹ]로 발음한다.	들일, 솔잎, 설익다, 물약, 불여우, 서울역, 물엿, 휘발유, 유들유들	항목 없음	중급
	제29항 [붙임 2]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한 일, 옷 입다, 서른여섯, 3연대, 먹은 엿, 할 일, 잘 입다, 스물여섯, 1연대, 먹을 엿	항목 없음	중급
	제29항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ㄴ(ㄹ)' 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육이오, 삼일절, 송별연, 등용문	항목 없음	중급
	제30항	2.사이시옷'ㄴ,ㄹ'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כות날, 아랫니, 툇마루, 뱃머리	항목 없음	중급
	제30항	3. 사이시옷 뒤에 '이'소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ㄴ]으로 발음한다.	베갯잇, 껏잇, 나뭇잎, 도리껏엿, 툇웃		
고급	제30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1.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에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넋가, 섯길, 뽕랫돌, 콧등, 깃발, 대팻밥, 햇살, 뱃속, 뱃전,고껏짓	항목 없음	고급

(5-29) 외래어 표기법 내용 단계별 등급 선정 결과

단계	항목	내용	유의	설문 등급	조정 등급
초급	제1항	현행 24자모만으로 적는 이유	매운라이샤워표기법과 같이 복잡한 글자를 만들어 쓸 경우 어문 생활의 혼란을 초래함: 아놀드, 란스 등을 쓰지 않음.	항목 없음	초급
	제3항	받침(종성)	7종성을 어긴 표기의 예가 매우 많음: 헤어샷 등.	항목 없음	초급
	제4항	파열음 표기에 된소리를 쓰지 않음.	썬쿨, 싸이클, 썬익스피어 등의 오류.	항목 없음	초급
		표기 일람표	성인용이므로 초급에서 표기 일람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등급 동일	초급
중급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표음주의 원칙: foot=풋	항목 없음	중급
		표기 일람표	데이터, 센티미터	등급 동일	중급
	표기 세칙 제1절, 영어 표기 제1항의 1번	무성 파열음	도넛	등급 동일	중급

단계	항목	내용	유의	설문 등급	조정 등급
	표기 세칙 제1절, 영어 표기 제3항의 2번, 3번	:어말의 [ɱ]에 관한 규정, 어말[ɰ] 와 관련된 규정	플래시, 슈러브, 쇼핑, 심/ 미라지, 비전	항목 없음	중급
	표기 세칙 제1절, 영어 표기 제7항	장모음규정	팀, 루트	항목 없음	중급
	표기 세칙 제1절, 영어 표기 제10항	복합어규정	컵라이크, 북엔드, 헤드라이트/로스 앨러모스(로스앨러모스), 톱클래스 (톱클래스)	항목 없음	중급
	표기 세칙 제3절 3항	비자음	크레용	등급 동일	중급
	제4장 제1절	(인명, 지명표기의 원칙)	제3항의 원지음과 제3국 발음	항목 없음	중급
고급	제5항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5항	마니아	등급 동일	고급
		표기 일람표	시그널, 재킷, 콤플렉스, 메시지, 주스, 프라이드 치킨, 난센스, 밸런 타인데이, 앙케트, 액세서리	등급 동일	고급
	표기 세칙 제1절, 영어 표기 제1항의 1번	무성 파열음	로봇	등급 동일	고급
	표기 세칙 제1절, 영어 표기 제3항의 1번	유성 파열음	제즈	등급 동일	고급
	표기의 기본 원칙 제5항		관용	항목 없음	고급
		대조표와 표기 세칙의 구조	대조표를 둔 이유, 표기 세칙을 나 누어 설정한 이유를 고려함: 영어 에서 유래한 외래어와 독일어나 프 랑스어에서 유래한 외래어 표기의 차이를 인식해야 하는 이유.	항목 없음	고급

단계	항목	내용	유의	설문 등급	조정 등급
	제4장 제2절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	중국(과거인과현대인), 일본, 관용	항목 없음	고급
	제3절	바다 섬 강산 등의 표기 세칙		항목 없음	고급

(5-30)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내용 단계별 등급 선정 결과

단계	항목	내용	유의	설문 등급	등급 조정
초급			도로 표지판, 여권 등의 로마자 표기의 중요성 인식 정도면 어떨지?	항목 없음	초급
중급	제1항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표준 발음법과 로마자 표기의 관계	항목 없음	중급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음.	로마자 이외의 기호: Û, Ö 등의 기호 사용 예	항목 없음	중급
		표기 일람	표기 일람과 예외 (광희문, 장모음 표기)	항목 없음	중급
	제3장 제3항, 제4항	표기상의 유의점(고유명사를 대문자로 적는 것), (성과 이름의 순서, 붙임표)		항목 없음	중급
고급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	자음동화(백마), ‘ㄴ,ㄹ’ 덧남(학여울), 된소리를 반영하지 않음.	항목 없음	고급
	제5항	행정구역단위와 ‘가’에 붙임표를 사용하는 규정		항목 없음	고급
	제6항	붙임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항목 없음	고급

위의 (5-26)~(5-30)까지 4대 어문 규범 내용의 단계별 등급을 선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문가 평정의 결과와 설문 조사 결과의 등급을 고려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의 단계별 등급을 우선 적용하고 설문 등급이 없는 항목일 경우는 전문가 평정을 기준으로 등급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평정과 설문 등급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등급 조정을 하지 않았다. 등급 조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5-31) 어문 규정 등급 결과 개수

구분 등급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계
초급	36	8	20	4	1	69
중급	38	8	25	8	4	83
고급	25	8	18	8	3	62
합계	99	24	63	20	8	214

위의 도표와 같이 어문 규범 단계별 교재 내용을 선정하는 데에, 먼저 전문가 평정의 기준을

적용하고, 다음으로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한 설문 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214개의 교육 내용을 선정하였다. 이는 4대 어문 규정에 있는 총 301개의 원칙과 허용 조항¹³⁾ 중 71%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이다. 이 가운데에서 29%에 해당하는 조항이 빠져 있는데, 이는 본 연구진에 속한 전문가 판단에 의해 누구나 알 수 있는 어문 규정 항목을 삭제하였기 때문이다.

5.3. 교육 내용 배열

위에서 교육 내용 선정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평정과 설문 조사 결과 이후에 실제 국민의 어문 규범 항목에 대한 이해도와 일상생활상의 필요 정도(중요도)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선정된 어휘 항목과 어문 규범 항목의 교육 내용을 수정하여 835개의 어휘를 등급별로 제시하였고(부록 참고), 총 214개의 어문 규범 항목을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교육 내용을 교재에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세워야 한다. 교육 내용의 배열 기본 원칙은 아래와 같다.

(5-32) 교육 내용 배열 기본 원칙

- 가. 어문 규범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배열한다.
- 나. 어문 규범의 항목이 실생활에 자주 등장하는 것부터 배열한다.
- 다. 어문 규범의 항목 중 실생활에 필요한 것부터 배열한다.

위 교육 내용의 배열 기본 원칙은 교육 내용 선정 기본 원칙과 마찬가지로 가장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배열의 원칙이다. 곧 쉬운 것부터 앞에 배열하고 어려운 것은 뒤에 배열하는 것이고, 빈도가 높은 것에서 빈도가 낮은 것으로 배열하고, 더 필요한 것부터 배열하고 덜 필요한 것은 나중에 배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열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선정된 교육 내용을 배열한다.

어문 규범 항목들을 각 단계별로 배열할 때 어문 규범의 체계를 따르는 것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정하였다. 즉, ‘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외래어 표기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순으로 배열을 하였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 내의 ‘총칙-자모-소리-형태-띄어쓰기-그 밖의 것-문장 부호’의 순으로 교육 내용을 배열하였다. 이는 어문 규범 자체가 언어의 체계적인 순서에 따른 배열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교재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교육 내용 선정의 기본 원칙과 전문가 평정에 의하여 선정된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각 단계별 교재에 배열하였다. 여기에 다시 설문 항목 단계별 등급 선정 결과를 적용하여 교육 내용 배열의 등급을 조정하였다. 이를 단계별 교재에 적용하여 조정·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13) ‘한글 맞춤법’에서 원칙 조항 56개, 다만·불임 조항 43개(문장 부호 규정 제외), ‘표준어 규정’에서 원칙 조항 56개, 다만·불임 조항 43개, ‘외래어 표기법’에서 원칙 조항 74개, 다만·불임 조항 2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 원칙 조항 18개, 다만·불임 조항 7개이다. 그래서 원칙 조항 205개, 허용 조항 96개로 총 301개이다.

(5-33) 초급 교재 단위 배열

대단원	소단원		설문 등급	조정 등급
한글 맞춤법	1	떠들석하다? 떠들썩하다!		초급
	2	장농? 장룽!		초급
	3	회계년도? 회계 연도!		초급
	4	어름 배달? 얼음 배달!		초급
	5	아름다와? 아름다워!	고급	초급
	6	만난지? 만난 지!	초급	초급
	7	스물 여섯 살? 스물여섯 살!		초급
	8	바램? 바람!		초급
표준어 규정	9	호도과자? 호두과자!		초급
	10	낫[넛], 낫[넛], 낫[넛]!	초급	초급
	11	국물[궁물]! 국밥[국뽕]!	초급	초급
외래어 표기법	12	슈퍼마케? 슈퍼마켓!	초급	초급
	13	빠스? 버스!	초급	초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4	‘ㄱ’은 g!	초급	초급
	15	‘불국사’는 Bulguksa!		초급

(5-34) 중급 교재 단위 배열

대단원	소단원		설문 등급	조정 등급
한글 맞춤법	1	‘야단법쩍’은 ‘야단법석’으로		중급
	2	‘혜택’은 ‘혜택’으로		중급
	3	‘태능’은 ‘태릉’으로		중급
	4	‘~지 말아라’는 ‘~지 마라/말라’로		중급
	5	‘깨끗히’는 ‘깨끗이’로		중급
	6	‘떡볶기’는 ‘떡볶이’로		중급
	7	‘숫가락’은 ‘숫가락’으로	중급	중급
	8	‘띄다’와 ‘떠다’		중급
	9	‘오십시요’는 ‘오십시오’로	중급	중급
	10	‘가수겸 배우’는 ‘가수 겸 배우’로	중급	중급
	11	‘가던지’와 ‘가든지’		중급
표준어 규정	12	‘웃웃’과 ‘웃웃’		중급
	13	‘또아리’는 ‘파리’로	중급	중급
	14	읽다: [일따]는 [익따]로	중급	중급
	15	담요: [다묘]는 [담뇨]로	중급	중급

외래어 표기법	16	‘후라이팬’은 ‘프라이팬’으로		중급
	17	‘윈도우’는 ‘윈도’로	중급	중급
	18	‘로보트’는 ‘로봇’으로	중급	중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9	광주: ‘Kwangju’는 ‘Gwangju’로	중급	중급
	20	홍길동: ‘Gildong Hong’은 ‘Hong Gildong’으로		중급

(5-35) 고급 교재 단원 배열

대단원	소단원		설문 등급	조정 등급
한글 맞춤법	1	소리와 어법		고급
	2	‘하늬바람’과 ‘하니바람’	고급	고급
	3	‘죄어야’의 준말은 ‘꽤야’	초급	고급
	4	‘공부를 하다’와 ‘공부하다’		고급
	5	‘아래방’과 ‘아랫방’	고급	고급
	6	‘짧지 않은’과 ‘점잖은’	고급	고급
	7	‘생각대로’와 ‘생각한 대로’		고급
	8	‘되어간다’와 ‘되어만 간다’		고급
	9	‘남궁 민’과 ‘남궁민’		고급
	10	‘한국 대학교’와 ‘한국대학교’		고급
	11	‘-이’ 또는 ‘-히’로 끝나는 부사의 표기		고급
	12	‘노름’과 ‘놀음’	고급	고급
표준어 규정	13	‘두루’ 쓰는 ‘현대’ 말		고급
	14	‘수눔’과 ‘수캐’	고급	고급
	15	‘오얏’의 현대어는 ‘자두’		고급
	16	‘개다리소반’과 ‘개다리밥상’	고급	고급
	17	표준어의 실제 발음		고급
	18	‘난로’와 ‘횡단로’, 어떻게 발음하나?	고급	고급
	19	‘김밥’과 ‘비빔밥’의 발음 방법		고급
	20	사이시옷은 소리를 내야 하나?		고급
외래어 표기법	21	‘초콜렛’은 ‘초콜릿’으로 표기		고급
	22	‘램프’에서 귀화한 ‘남포’	고급	고급
	23	‘시저’와 ‘카이사르’의 차이		고급

	24	‘성룽’과 ‘청룽’의 차이		고급
로마자 표기법	25	‘학여울’의 발음과 로마자 표기		고급
	26	‘백마’와 ‘종로’의 로마자 표기		고급
	27	‘매산로’와 ‘해운대’의 로마자 표기		고급

위의 등급 조정에서 초·중·고급의 공통 기준으로 우선 어문 규범의 체계적인 특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어문 규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체계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제1 원칙으로 하여 각각 선정된 교육 내용을 어문 규범의 체계 순으로 배열한 것이다. 이 가운데 전문가 평정에 의하여 누구나 알 수 있는 항목들을 삭제하고 배열한 것이다. 초급과 중급 교재에서는 항목을 중심으로 배열한 것이고 고급 교재에서는 원리 설명을 중심으로 배열하였다.¹⁴⁾ 그리고 다음으로 설문 등급을 반영하였다. 설문 등급에서 하나의 항목에 초급과 중급, 또는 초급과 고급 등 두 등급 이상에 모두 등재되어 있는 항목들은 각각의 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등급에 모두 배열하였다. 곧 초급에서는 어문 규범 항목의 원칙 항을 위주로 배열한 것이고, 중급은 허용 항을 중심으로 배열한 것이며, 고급에서는 세부 항목의 원리 이해 위주로 배열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초급 교재에서는 15개 장으로 배열하였고, 중급 교재에서는 20개 장으로, 고급 교재에서는 27개 장으로 배열하였다. 이를 각 단계별, 장별 순서를 고려하여 하나의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5-36) 단계별 교재의 교육 내용 배열 정리표

대단원	초급	중급	고급
I. 한글 맞춤법 : 소리와 형태, 띄어 쓰기, 그 밖 의 것	1. 총칙과 자모	1. 수준 높이기: 초급 진단 및 중급 준비	1. 한글 맞춤법 총칙의 의미
	2. 된소리 5항 1, 2	2. 된소리 5항 다만	2. 소리에 관한 것 9, 13항
	소쩍새, 어깨, 오빠, 으름, 아끼 다, 기쁘다, 깨끗하다, 어머하다, 해쓱하다, 가끔, 거꾸로, 부쩍(부 쩍), 어찌, 이따금 ; 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뱃, 움쭉, 뭉 땅, 엉뚱하다	깍두기, 법석, 몹시	보늬, 오늬, 하늬바람, 날리리, 닝 큼, 띄어쓰기, 희망, 희다 ; 연연 불망(戀戀不忘), 유유상종(類類 相從), 누누이(屢屢-)
	3. 구개음화 6항	3. 구개음화 6항	3. ‘-하다’와 ‘-없다’의 어휘 화 26항 1, 2
	말이, 해돋이, 굳이, 같이, 끝이	활이다, 걷히다, 묻히다, 닫히다	딱하다, 술하다, 착하다, 텅텅하 다, 폭하다 ; 부질없다, 상없다, 시름없다, 열없다, 하염없다
	4. 두음법칙 10, 11, 12항	4. 모음 8항	4. 사잇소리 현상과 사이시옷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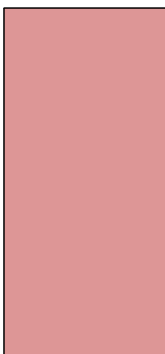
14) 고급 편에서 소단원명은 편의상 잠정적으로 문법 용어를 노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최종 단계에서는 쉽게 풀어 쓰는 방향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붙임’ 제외 여자, 연세, 요소, 유대 ; 양심, 역사, 예외, 용궁, 유행, 이발 ; 낙원, 내일, 노인	계승, 계시판, 휴게실	30항 긋밥, 나룻배, 멧나물, 냇물, 뒷 일, 낫병, 햇수, 찢기, 제삿날, 예 삿일,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텃 간, 횡수
5. 용언의 어미변화 18항 3, 7, 8, 9	5. 두음법칙 10, 11, 12항 ‘다만’, ‘붙임’ 포함	5. 준말 32, 33, 34, 39, 40항
그렇다~그러니, 까맣다~까마니, 동그랗다~동그라니 ; 하다~하여 ; 이르다~이르러, 노르다~노르 러, 누르다~누르러 ; 가르다~갈 라, 부르다~불러, 거르다~걸러 등	이토(泥土), 익명(匿名) ; 냇, 냇줄, 녀 ; 신여성, 공염불, 남존 여비 ;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 료회사 ; 리(理), 리(里) ; 나열, 비열, 선열, 규율, 비율, 선율, 백 분율 ; 신립(申砮),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崙) ; 뇌성, 누각, 능묘 ; 내내월(來來月), 상노인(上老人), 중노동(重勞動), 비논리적(非論理的)	기력아, 엇그저께 ; 그건, 그게 ; 가, 갔다, 갯다, 냇다 ; 그렇잖 은, 적잖은 ; 거북지, 생각건대, 턱턱지, 깨끗지, 익숙지
6. 합성어와 파생어 27항 붙임 1, 2 ; 19, 20항 밀천, 꺾꽃이, 꽃잎, 할아버지, 할 아범, 골병, 골탕, 꿀탕, 며칠, 오 라비 ;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땀받이, 달맞이, 먹이, 미닫이, 벌 이, 살림살이, 쇠붙이 ; 걸음, 묵 음, 믿음, 열음, 엮음, 울음, 웃 음, 줄음, 죽음, 얹, 만들 ; 같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실없이, 좋이, 짓궂이 ; 밝히, 익히, 작히	6. 체언과 조사 14항	6. 조사와 의존명사 42, 43항 다만, 44항
7. 띄어쓰기(1) 41, 42항 꽃이, 꽃마저, 꽃밖에, 어디까 지나, 거기도, 멀리는, 웃고만 ;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7. 어간과 어미(2) 15항	아는 이를 만났다,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 두시 삼십분 오초, 10개, 제일과, 제1어학실습실, 1446년 10월 9일 ;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 십팔
8. 띄어쓰기(2) 43항 한 개, 차 한 대,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연필 한 자 루, 집 한 채, 신 두 켤레, 금 서 돈, 조기 한 손, 버선 한 족, 북어 한 켤	8. 어간과 어미(2) 16, 17항	7. 보조 용언 47항
9. 그 밖의 것 52, 53항 승낙, 수락, 토론, 의논, 목재, 모 과 ; -(으)르거나, -(으)르께, -(으)르까?	9. 어간과 어미(2) 18항 1, 2, 4, 5, 6	8. 원칙과 허용 9. 고유 명사와 전문 용어 48, 49, 50항 김양수, 최치원 선생 ; 대한 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 학 ; 만성 골수성 백혈병, 중

			거리 탄도 유도탄
		10.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1) 21, 22, 23항	10. ‘-이’와 ‘-히’의 발음 51항
		넙따랗다, 짤따랗다, 알따랗다, 넙치, 올무, 납작하다 ; 부딪트리 다/부딪트리다 ; 깔죽이, 꼴꼴이, 오뎅이, 흘죽이	극히, 급히, 작히
		11.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2) 24, 25항	11. 동음이의어 57항
		깜짝이다, 꾸벅이다 ; 급히, 꾸준 히, 도저히, 어렵듯이, 깨끗이, 곰 곰이, 더욱이, 생긋이, 일찍이	가름, 갈음, 거름, 결음, 아름, 알음, 앞, -(으)로서, -(으)로 써
		12.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어 서 된 말(1) 27항 불임 3, 28, 29항	12. 표준어 사정 원칙의 의미 1, 2항
		간니, 텃니, 사랑니, 송곳니, 앞니 (앞니), 어금니, 머릿니, 젓니, 틀 니, 가랑니 ; 다달이, 따님, 바 느질, 소나무 ; 반진고리, 사흔 날, 설달	수놈, 수캐, 숫쥐 ; 난봉, 낭 떠러지, 애달프다. 오동나무, 자두 ; 꼭지미역, 솟을무늬, 폰돈
		13.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어 서 된 말(2) 31항	
		덥싸리, 좁쌀, 머리카락, 수탉	
		14. 준말 35, 36, 37, 38항	
		꽂, 뵈다, 께(괴어), 뵘(되어) ; 가져, 견더 ; 켜다, 뵈다, 띠다 ; 싸여, 켜어	
		15. 띄어쓰기 45, 46항	
		겸, 내지, 밋, 등, 등등, 등지, 등속 ; 그때 그곳, 좀더 큰것, 이말저말, 한잎 두잎	
		16. 그 밖의 것 54, 55, 56항	
		익살꾼, 볼때기, 팔꿈치 ; 맞추 다, 뻗치다 ; 그렇게 종던가?, 얼 마나 놀랐던지 몰라, 배든지 사 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Ⅱ. 표준어 규정	11. 표준어 3, 4, 5, 6, 8, 9, 10, 11항	17. 표준어 12, 13, 14, 15, 16, 17항	13. 표준 발음법의 의미 1항
	12. 표준 발음법(1) 8, 9, 13, 14, 23, 24항	18. 표준 발음법 10, 11, 12, 25, 29항	14. 설측음화의 예외 현상 20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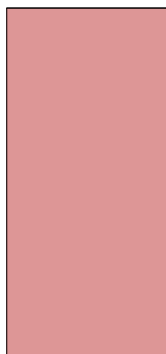
			(1)난로[날 : 로], 신라[실라], 천리[철리], 광한루[광 : 할루], 대관령[대 : 괄령] ; (2)칼날 [칼랄], 물난리[물랄리], 줄넘 기[줄림끼], 할는지[할른지]
	13. 표준 발음법(2) 15, 16, 17, 18, 19항		15. 된소리되기 27, 28항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 떼가] 할 바를[할빠를] 할 수 는[할쑤는] 할 적에[할쩌게] 갈 곳[갈꼐] 할 도리[할토리] 만날 사람[만날싸람] ; 문-고 리[문꼬리], 눈-동자[눈통자], 신-바람[신빠람], 산-새[산 쎄], 손-채주[손째주], 길-가 [길까], 물-동이[물퐁이], 발-바닥[발빠닥], 굴-속[굴 : 속], 술-잔[술짚], 바람-결[바람 켜], 그믐-달[그믐딸], 아침-밥[아침뽕], 잠-자리[잠짜리], 강-가[강까], 초승-달[초승 딸], 등-불[등뽕], 창-살[창 쌀], 강-줄기[강줄기]
			16. 사이시옷 발음 30항 넷가, 셋길, 빨랫돌, 콧등, 깃 발, 대팻밥, 햇살, 뱃속, 뱃전, 고갯길
Ⅲ. 외래어 표기법	14. 외래어 표기법	19. 외래어 표기법	17. 외래어 표기법의 의미 1장 1, 2, 3, 4항
	2장	3장	18. 관용에 따른 표기 1장 5항
			마니아
			19. 인명과 지명 표기 4장 1절
			양카라, 간디, 시저, 헤이그
Ⅳ.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5.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20.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20.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 4장 2절
	2장	3장 3, 4, 5, 7항	도쿄, 동경, 교토, 경도, 타이 완, 대만, 상하이, 상해
			20.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 4장 2절 4항
			21 로마자 표기법의 의미 1장
			22. 음운 변화와 로마자 표기

			3장 1, 8항 백마 Baengma, 학여울 Hangnyeoul, 낙성대 Nakseongdae
			23. 붙임표 2, 6항



제 2 부

각 론



6. 「단계별 어문 규범 교재 집필 지침」: 학교급 편

6.1. 현 학교 교육에서 어문 규범 교육의 현황과 한계점

제도권 국어과 교육에서는 어문 규범 교육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현대적 교육과정이 실시된 이후 3차 교육과정시기까지는 국어과 교육의 상당 부분을 어문 규범을 교육 내용으로 채워 온 경향이 있다. 당시는 특별히 ‘영역별 수업’이 이루어진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어문 규범 교육이 병행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4차 시기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실행되면서 국어학계의 개략적인 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문법 교육으로 그 외연이 확장되고, 6차 교육과정 시기 이후에는 탐구 학습이라는 교수 학습 방법으로써 문법 교육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발전에 힘입어 국어과 수업이 전문화되었는데, 그 결과는 어문 규범 교육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다지 달갑지만은 않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수업의 전문화는 결국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어문 규범 교육을 한다는 것으로, 이는 국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유기하는 것과 동등하게 여겨지고 있다. 화법 수업에서도 ‘이해력, 추론력, 공감력, 소통력, 내용 조직력’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표준 발음법’ 등은 실제 수업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 쓰기 수업에서는 어문 규범 내용이 창의성을 해치는 요인이라고 판단하여, 심지어는 학습자에게 아예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기도 한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어문 규범 교육은 여섯 영역 중 적어도 ‘문법’ 영역에서만큼은 본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국어과 교육에서 문법 교육의 역할은 (6-1)처럼 다양해졌기 때문이다(최미숙 외, 2008).

(6-1) 국어과 교육에서 문법 영역이 해야 할 역할

- ① 정확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적·규범적 지식을 제공하는 영역으로서의 역할
- ② 다양한 소통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언어 자원을 제공하는 영역으로서의 역할
- ③ 자신의 언어를 대상화할 수 있는 주체적 언어 사용자를 길러 내기 위한 영역으로서의 역할

그동안 문법 교육의 목표를 ①에만 한정하여 왔지만, 최근 문법교육계는 ②·③으로 그 국어과 내에서의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문법교육학 전반의 발전으로만 본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일이지만, 어문규범교육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상황은 긍정적이지 않다.

위의 세 개 역할 중에서, ①은 말할 것도 없이 문법 영역이 수행해 내야 할 핵심 역할이다. 규범에 대한 지식 학습은 초등 단계에서부터 강조되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중등학교에서는 ①이 ‘보완’의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최근 초등학교 현장에서 규범적 지식에 대한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황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비해서도 어문 규범 교육의 비중이 더욱 줄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2007 개정 교육과정 내용 중,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문법’ 내용 체계표를 7차와 대조하며 살펴본다.

(6-2)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 내용 체계(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국어 사용의 실제 - 음운 - 단어 - 문장 - 담화/글	
지 식 ○언어의 본질 ○국어의 특징 ○국어의 역사 ○국어의 규범	탐 구 ○관찰과 분석 ○설명과 일반화 ○판단과 적용
맥 락 ○국어 의식 ○국어 생활 문화	

(6-3)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어지식’ 영역 내용 체계

국 어 지 식	• 국어의 본질 - 언어의 특성 - 국어의 특징 - 국어의 변천	• 국어의 이해와 탐구 - 음운 - 낱말 - 어휘 - 문장 - 의미 - 담화	• 국어에 대한 태도 - 동기 - 흥미 - 습관 - 가치
	• 국어의 규범과 적용 - 표준어와 표준 발음 - 맞춤법 - 문법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 내용 체계에는 크게 네 개 범주가 설정되어 있다.

첫째, ‘지식’ 범주는 제7차 ‘국어지식’ 영역에서 ‘국어의 본질’로 일컫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7차에서 ‘실제’ 범주에 포함시켰던 국어의 ‘규범’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식’ 범주에 포함시켰다.

둘째, ‘탐구’ 범주는 7차에서의 ‘국어의 이해와 탐구’에 해당하며, ‘탐구 학습’을 전제로 하고 있어 7차의 ‘국어의 이해와 탐구’ 범주와 동일한 설정 취지에서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 요소는 판이하게 다르다. 7차에서는 내용 요소들이 언어 단위별로 제시되어 있는 반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가 탐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활

동의 방식이나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맥락' 범주는 개정안에서 새로이 설정된 것이다. 문법 영역의 경우, 문법 목표와 관련된 '학습 상황 맥락'을 제시하고 있긴 하나, 현 연구 단계에서는 여전히 명확하게 규정되기 어렵다.

넷째, '국어 사용의 실제' 범주는 '음운, 단어, 문장, 담화/글'이라는 언어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7차에서는 '실제'에서 '국어의 규범'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나머지 세 범주의 '지식과 태도'가 모두 '국어의 규범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의 '실제'란, '언어 단위'이다. 이는 모든 활동이 '다양한 언어 단위로 구성된 자료'를 대상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규범'이 내용 체계표의 한 개 범주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식' 범주 내로 축소, 흡수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성취 기준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7차에 비해 전반적으로 성취 기준의 수를 줄였다. 따라서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교과서 각 단원의 목표를 설정하는 현 교재 편찬 시스템에서는 어문 규범에 대한 교육을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어문 규범 교육의 위상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만 좁아진 것이 아니다. 고등학교 심화 과정에서 그 위상은 현저히 낮아졌다. 다음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심화 과목 『문법』 내용 체계이다.

(6-4)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심화 과목 『문법』 내용 체계

국어와 삶	
(가) 언어의 본질	(나) 국어의 구조
① 언어와 인간	① 음운
② 언어의 특성	② 단어
	③ 문장
	④ 담화
	⑤ 의미
국어와 삶	
(가) 국어와 규범	(나) 국어와 생활
① 정확한 발음	① 일상 언어
② 올바른 단어 사용	② 예술 언어
③ 좋은 문장 표현	③ 매체 언어
④ 효과적인 담화 구성	④ 전문어
국어와 얼	
(가) 국어의 변천	(나) 국어의 미래
① 국어가 걸어온 길	① 통일 시대의 국어

② 한글의 창제와 문자 생활

② 세계 속의 국어

③ 선인들의 국어 생활

③ 국어와 인접 분야

1) ‘국어와 읽’ 범주: 7차의 ‘국어 알기’ 범주 전체가 개정안에서는 ‘국어와 읽’ 범주의 일부로 포함, ‘국어에 대한 구조적 지식’ 비중이 대폭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2) ‘국어와 삶’ 범주: ‘규범’적 언어 생활 이외에도, 일상 언어·예술 언어·매체 언어·전문어 등의 다양한 언어 양상을 경험하는 범주로 설정하였다. 문법 과목에서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전체의 언어관을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3) ‘국어와 열’ 범주: 7차의 심화·선택 과목이었던 ‘국어 생활’이 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상당 부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특히 다문화 관련 내용, 정보화 시대 국어의 발전 방향 등을 포함시킨 점을 유의한다.

즉 제7차에 따른 문법 교과서는 ‘국어와 읽’ 범주 및 ‘국어와 삶’ 범주 내의 ‘국어와 규범’ 정도만 포함하게 되어 있었으나, 7차의 심화 선택 과목이었던 ‘국어 생활’이 폐지되어 그 내용이 ‘문법’ 과목에 대거 편입되었다. 하나의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균형감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어문 규범 교육의 비중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문법 교과서에서 한 단원 이상 할애하기는 어려운 정도’이다. 게다가 그 단원은 궁극적으로 ‘쓰기 교육의 목표’와 닿아 있어서 본격적인 규범 교육 내용으로 채워지리라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법 교과서는 독서 교과서와 결합하여 편찬되고 있다.

요컨대, 학교 교육에서 어문 규범 교육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6-5) 학교 교육에서 어문 규범 교육의 현황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 원인을 진단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6-6) 학교 교육에서 어문 규범 교육 문제의 원인

“국어과 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국어 능력의 외연이 해방 이후 너무나도 확장되어 왔기 때문에, ‘국어 능력’ 속에 어문 규범 능력은 아주 소략한 부분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

국어교육계가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서인지, 당연히 선결되어야 할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6-7) 학교 교육에서 어문 규범 교육을 위한 선결 과제

① 어문 규범 교육의 단독적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단독적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나머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② 단독적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습자가 획득해야 할 ‘어문 규범 능력’이 무엇인지도 밝혀놓은 문헌이 전무하며, 그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황이다.

- ③ 어문 규범 능력의 개념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문 규범 교육의 대상자인 학습자를 상정조차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학습자의 수준이나 요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 ④ 현행 어문 규정집의 내용을 간략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어문 규범 교육의 전부로 간주되어 왔다.

6.2. 새로운 기준 근거 설정: 설문 조사 결과의 활용

그동안 국어교육사에서 어문 규범 교육이 차지한 비중을 생각해 볼 때, 6.1.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한 네 가지 사항은 진작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점들이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사항을 당장에 해결하려고 해도, 문제는 각 사항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점이다. 그동안 국어교육계에서는 교육 내용 요소의 선별 및 배열시 ‘교육 전문가가 경험적으로 판단하는 직관적 중요도’를 유일한 근거로 삼았고, 어문 규범 교육 분야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에 본 용역에서는 6.1에서 제시했던 네 가지 문제점 중, ‘학습자의 수준 및 요구’에 대한 판단 근거가 객관적인 자료로서 제공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았다. 나머지 문제점은 교육 전문가의 인식의 전환으로 해결할 수 있거나, ‘학습자의 수준 및 요구’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축적해 나간다면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학습자의 수준 및 요구’에 대한 분석은, ‘구체적인 어휘 목록’과 함께 제공되어야만 한다. 국어교육을 위해 수행될 조사 연구들은 결과적으로 ‘교육해야 할 내용, 즉 언어 자료’에 대한 교육적 판단 근거를 얻을 수 있어야만 한다. 당연히, 국어교육의 교과 전문성은 ‘언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학습자의 수준’을 분석한다고 ‘학습자 집단’만을 별도로 연구해서는 국어 교재를 편찬하는 데에 직접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용역에서는, 어휘 목록을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개개의 단어에 대해 중요도 및 이해도를 판정하게 하는 설문 조사(집단 면접, 개별 면접)를 실시하였다.

총론에서 기술하였듯이, 본 용역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성인 학습자의 수준을 세 단계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또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제도권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초급·중급·고급의 세 단계를, 각기 ‘학교급 세 단계’에 대응시켜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용역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이하 6.3부터 6.5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6.3. 초등학교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 재구성

6.3.1. 목표 재구성

이하 이어지는 표에서는 현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초등학교 전 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전 학년 〈문법〉 영역에는 모두 20개의 성취 기준이 배열되어 있다. 1학년~4학년까지는 3개의 성취 기준이, 5학년과 6학년에는 각각 4개의 성취 기준이 배열되어 있다. 각 학년의 성취 기준 중, 어문 규범 교육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을 음영 처리하여 제시하였다.

(6-8)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초등학교 전 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 1학년 -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1)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리를 안다.	○ 글자가 자음자와 모음자로 이루어짐을 이해하기 ○ 한글 자모 정확하게 읽기 ○ 자음자와 모음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글자를 소리 내어 읽기 ○ 한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기르기
(2)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한다.	○ 소리 나는 대로 적었을 때와 어법에 맞게 적었을 때의 차이를 이해하기 ○ 한글 자모,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기
(3) 문장 부호의 이름과 쓰임을 안다.	○ 문장에 쓰인 온점, 반점, 물음표, 느낌표의 쓰임 알기 ○ 온점, 반점, 물음표, 느낌표의 쓰임에 맞게 문장 읽기

- 2학년 -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1) 소리를 혼동하기 쉬운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한다.	○ 표준 발음에 대한 규정이 있음을 알기 ○ 자주 사용하는 낱말의 표준 발음 알기 ○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하려는 태도 가지기
(2) 표기와 소리가 다른 낱말을 정확하게 표기한다.	○ 한글 맞춤법 규정이 있음을 알기 ○ 자주 사용하는 낱말의 바른 표기 알기 ○ 표기와 소리가 다른 낱말을 정확하게 표기하기
(3) 낱말과 낱말 간의 의미 관계를 이해한다.	○ 유의 관계, 반의 관계 등의 개념 이해하기 ○ 낱말들 간의 의미 관계를 바탕으로 낱말 더 알기 ○ 낱말들 간의 다양한 의미 관계에 관심 가지기

- 3학년 -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1) 국어사전에서 낱말 찾는 방법을 안다.	○ 국어 품사의 기초 개념 이해하기 ○ 용언의 기본형 알기 ○ 국어사전 찾는 방법 알기 ○ 국어사전의 효용성과 가치 이해하기
(2) 소리가 동일한 낱말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현상을 분석한다.	○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개념 이해하기 ○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사용 양상 관찰하기 ○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활용하여 문장 만들기
(3) 의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문	○ 의도에 따라 문장의 종류가 달라짐을 이해하기

장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감탄문 등 종류가 다른 문장들을 찾아 분류하기 ○ 표현 의도에 맞게 문장의 종류를 달리하여 표현하기
---------------------	--

– 4학년 –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1) 표준어와 방언의 사용 양상을 이해한다.	○ 표준어와 방언의 개념 이해하기 ○ 표준어와 방언이 사용되는 상황 이해하기 ○ 상황에 맞게 표준어와 방언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2) 국어의 높임법을 이해한다.	○ 높임법의 개념과 종류 이해하기 ○ 높임법을 써야 할 상황 이해하기 ○ 높임법을 써서 효과적으로 말하기
(3)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을 분석한다.	○ 문장 성분의 개념 이해하기 ○ 문장 성분 분석하기 ○ 문장 성분과 문장과의 관련성 파악하기

– 5학년 –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1) 반언어적 표현의 특성을 알고 의사소통에서의 역할을 이해한다.	○ 반언어적 표현의 개념 이해하기 ○ 반언어적 표현이 의사소통에서 하는 역할 이해하기 ○ 반언어적 표현을 의사소통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2)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구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 구별하기 ○ 문장이나 글에서 단어의 의미 해석하기 ○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3) 시간 표현 방식을 이해한다.	○ 시간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이해하기 ○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표현하는 방식 이해하기 ○ 시간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4) 말하는이, 듣는이, 상황, 매체 등에 따라 언어 사용 방식이 달라짐을 안다.	○ 의사소통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 알기 ○ 말하는이, 듣는이, 상황, 매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 이해하기 ○ 의사소통 상황과 언어 사용 방식의 관계 파악하기

– 6학년 –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1)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	○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의 개념과 차이 이해하기

국어의 개념을 알고 국어 어휘의 특징을 이해한다.	○ 국어 어휘의 특징 이해하기 ○ 고유어를 살려 쓰는 태도 기르기
(2) 문장의 연결 관계를 이해한다.	○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방법 알기 ○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말의 종류 알기 ○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말을 알맞게 사용하기
(3) 문장에 쓰인 호응 관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 적절한 호응 관계의 중요성과 필요성 이해하기 ○ 문장의 호응 관계를 알고 바르게 표현하기 ○ 각종 매체에 나타난 언어 표현에서 호응 관계에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기
(4) 한글의 의의를 알고 우수성을 설명한다.	○ 한글의 의의 이해하기 ○ 한글의 우수성을 다른 문자 체계와 비교하여 말하기 ○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고 가꾸려는 태도 가지기

위 표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초등학교급 〈문법〉 영역에서 어문 규범 교육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성취 기준은 20개 중 총 6개이다. 1학년에서는 3개의 〈문법〉 성취 기준 모두가, 2학년에서는 3개의 〈문법〉 성취 기준 중 2개가 어문 규범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3학년에서는 어문 규범 교육과 관련되는 내용이 아예 없다가, 4학년에서야 한 개의 성취 기준이 배정되었다. 이후 5학년과 6학년에서는 어문 규범 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성취 기준이 없다.

(6-9)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초등학교급 〈문법〉 영역에서 어문 규범 교육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성취 기준

1학년 - (1)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리를 안다.	○ 글자가 자음자와 모음자로 이루어짐을 이해하기 ○ 한글 자모 정확하게 읽기 ○ 자음자와 모음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글자를 소리 내어 읽기 ○ 한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기르기
1학년 - (2)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한다.	○ 소리 나는 대로 적었을 때와 어법에 맞게 적었을 때의 차이 이해하기 ○ 한글 자모,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기
1학년 - (3) 문장 부호의 이름과 쓰임을 안다.	○ 문장에 쓰인 온점, 반점, 물음표, 느낌표의 쓰임 알기 ○ 온점, 반점, 물음표, 느낌표의 쓰임에 맞게 문장 읽기
2학년 - (1) 소리를 혼동하기 쉬운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한다.	○ 표준 발음에 대한 규정이 있음을 알기 ○ 자주 사용하는 낱말의 표준 발음 알기 ○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하려는 태도 가지기
2학년 - (2) 표기와 소리가 다른	○ 한글 맞춤법 규정이 있음을 알기

낱말을 정확하게 표기한다.	○ 자주 사용하는 낱말의 바른 표기 알기 ○ 표기와 소리가 다른 낱말을 정확하게 표기하기
3학년 - (1) 국어사전에서 낱말 찾는 방법을 안다.	○ 국어 품사의 기초 개념 이해하기 ○ 용언의 기본형 알기 ○ 국어사전 찾는 방법 알기 ○ 국어사전의 효용성과 가치 이해하기
4학년 - (1) 표준어와 방언의 사용 양상을 이해한다.	○ 표준어와 방언의 개념 이해하기 ○ 표준어와 방언이 사용되는 상황 이해하기 ○ 상황에 맞게 표준어와 방언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의 내용을 볼 때, 현 국어과 교육과정 체제에서 초등학교 규범 교육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10) 현 국어과 교육과정 체제에서 초등학교 규범 교육의 문제점

- ① 표음주의와 표의주의의 원리가 과연 초등학교 1학년에서 언급해야 하는 내용인지 재고를 요한다.
- ② 초등학교 2학년에서 한글 맞춤법 규정과 표준 발음법 규정이 있음을 알도록 했다면, 적어도 어문 규정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알도록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러한 내용이 없다.
- ③ 표준어와 방언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표준어 사정 원칙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규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거나 적어도 병행되어야 하는데, 초등학교 단계 전체에서 표준어 사정 원칙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 이외에도, 본 용역에서 실시했던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 결과로 볼 때, 초등학교 학습자 집단의 '요구'에 따라, 초등학교 어문 규범 목표와 내용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6-11) 설문 결과(초등학교 3학년생과 5학년생의 이해도 및 중요도)

	어문 규범	전체	초등 3	초등 5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공무원
이 해 도	전체	64.9	61.0	62.9	64.4	66.9	67.4	66.8
	한글 맞춤법	65.8	59.2	61.1	66.4	68.1	70.3	70.0
	표준어 규정	70.2	68.8	70.9	67.8	70.5	73.0	70.4
	외래어 표기법	60.7	60.6	62.3	60.3	63.3	58.2	59.5
	표준 발음법	58.8	53.0	54.9	58.3	62.4	62.3	61.6
중 요 도	전체	44.5	35.0	43.0	34.3	40.0	60.9	53.5
	한글 맞춤법	45.7	34.2	42.6	37.4	42.1	63.3	54.6
	표준어 규정	45.1	35.7	43.3	34.4	39.4	61.4	56.5
	외래어 표기법	41.3	36.3	43.7	28.0	34.5	57.8	47.6
	표준 발음법	44.1	34.6	42.6	33.7	42.9	57.7	53.1

위 표에 의하면,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의 이해도 순서는 '표준어 규정 - 외래어 표기법 -

한글 맞춤법 - 표준 발음법'이다. 여기에서 시사 받을 수 있는 점은, 역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부터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을 강조해 온 것이 사실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중요도에 대한 수치를 고려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집단의 크기가 크지 않아 확신할 수는 없으나,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에 의하면 판단한다면, 3학년과 5학년 모두에서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본 용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한다면,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중요도'는 전문가가 평정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학습자의 '요구'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교육학에서 '학습자의 요구를 고려한다'는 것은, 학습자 개개인이 요구하는 것을 교수 설계자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학습자 능력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 가장 적절한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 교수 설계자의 역할이 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무작정 교육 내용에서 삭제할 수 없으며, 중요도가 높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은, 교육 내용의 양을 조절하거나 쉽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연구 내용들이 국가 수준 국어과 교육과정에 당장 반영되어, 체계적인 어문 규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어과 교육의 목표가 많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론적으로 본다면 포함해야 할 '필수 내용'이 많아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어과 시수가 줄어들고,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교육 내용의 적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으로 인해, 교육 내용은 오히려 더욱 줄여야 하는 형편이다. 국가 수준의 국어과 교육과정이 수시로 개정될 것이라는 점은, 안 그래도 체계성과 지속성이 부족한 어문 규범 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를 품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학교 현장의 국어과 교사를 대상으로 그 필요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향후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영향력을 줄이고, 학교 수준의 자치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설계시, 각 학교의 국어과 교사가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어문 규정 항목을 지정, 배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용역에서 정리한 '학교급별 어문 규범교육 내용의 재구성 논리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6-12) 학교급별 어문 규범 교육 내용의 재구성 논리 및 절차

- 각급 학교 단계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어문 규범 분야'를 지정하되 그 기준은 '이해도'와 '중요도'로 정한다. '이해도'는 '어문 규범 항목'에 대해서 파악하고, '중요도'는 '어휘 항목'에 대해서 파악하여 선정한다.
- '이해도'는 '어문 규범 항목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력이 얼마나 용이한가'를 의미한다. '이해도'에 따라 '원리를 탐구해야 할 분야'를 정한다.
- '중요도'는 '어휘 항목의 중요성, 일상 생활에서 빈도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중요도'에 따라 '익혀야 할 어휘 항목'을 정한다. 이때 항이나 절의 균형성도 파악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6-13) 초등학교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

- ① 어문 규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태도를 강화한다.
- ② 어문 규정의 전체 체계를 이해한다.
- ③ 중요도가 높은 어휘 항목들의 정확한 용법을 익힌다.

6.3.2. 내용 재구성

또한 이러한 목표에 따라 초등학교 어문 규범 교육의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다. 우선 내용 재구성의 철학을 수립해 보고, 그에 따라 실제 내용 선정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역대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이 중요도가 높은 교육 내용으로 생각해 왔다. 주세형(2008)에 의하면, 초등학교 예비 교사들은 ‘국어과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법’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문법 수업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잘못 쓰는 언어를 바로 잡아 주는 수업’, ‘바른 말 고운 말을 수업’, ‘맞춤법을 정확히 익히는 수업’, ‘국어 순화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요컨대 초등학교 예비 교사들의 상식으로는, ‘정확하고 규범적인 언어를 배우는 수업’이 초등 문법 수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예비 교사 본인 역시 정확한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고백한다는 것이다. 본 용역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아도 특히 ‘표준 발음법’은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인 학습자에게도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확하고 규범적인 언어’를 구사하려는 목적으로만 초등학교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해 온 것이, 학습자의 이해도만을 고려한다면 오류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학습자를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분명히, ‘정확하고 규범적인 언어’를 익히는 것을 초등학교 단계에서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학습자의 요구와 이해도를 고려할 때, 처음부터 규범적 용법을 강조하는 것으로만 일관하기보다는, 안목과 태도를 서서히 형성해 주어 규범적 언어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자각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

따라서 초등학교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무엇보다도 확실히 강화하고, 중요도를 정확히 측정한 어휘 항목을 신중히 선정하여 언어 자료를 보는 안목과 기초적인 탐구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이하에서부터는 내용 선정의 사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교재 내용을 선정하는 과정은, 교육과정 연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복잡한 작업에 해당하므로, 이처럼 간단히 이루어질 작업은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학교급 교재를 위한 내용 선정 작업은, 수많은 변인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본 용역에서 수행했던 성인용 규범 교재 내용을 선정했던 과정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이하 내용은 사실, 성인용 교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교급 교재에 대해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리한,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음을 미리 밝힌다. 또한, 내용의 배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내용의 배열은, 학습자의 요구나 수준에 대한 분석에 따라 배열 원리가 달라질 것이기에, 별도로 연구해야 할 성격의 것이다.

■ 내용 선정의 예시

앞서 성인용 교재에서처럼, 학교급을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내용 선정 원리의 1순위로 삼을 수 있다.

〈전체 학교급 교재 내용 선정의 대원칙〉

“어문 규범의 원칙 항목은 초급 교재와 중급 교재의 내용으로 선정하고, 원칙 중 매우 어려운 것이나 허용 항목은 고급 교재의 내용으로 선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의 원리는 현재 학교급에 따른 규범 교육의 문제점, 재구성된 목표를 차례로 반영함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

〈초등학교급 교재의 내용 선정 원리〉

- 어문 규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어문 규정의 전체 체계를 이해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한글 맞춤법, 표준어, 표준 발음법을 주된 교육 분야로 삼는다.
- 어휘 항목을 확정할 때는 이해도보다는 중요도에 따라 선정한다.
- 한글 맞춤법, 표준어, 표준 발음법에 대해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는 내용보다는 중요도가 높은 어휘 항목들의 정확한 용법을 익히도록 한다. 이로써 언어 자료를 보는 안목과 기초적인 탐구 능력을 길러주도록 한다.

주지하다시피, 본 용역에서 확정한 교육 대상 어휘 목록은 기본적으로 성인용 교재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급 교재에서는, ‘교육 경험적 판단’에 의거하여, 또한 교육과정의 내용과 비교하여, 더 나아가 학교급에 따라 차별화된 내용 선정 원리에 의거하여, ‘성인용 어휘 목록’에서 그 항목을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어휘 목록을 확정해야 한다.

[한글 맞춤법]

- 성인용 목록에 있는 다음 어휘 항목 모두 제시해도 좋으나, 밑줄 친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 좀 더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초등학교급에서의 중요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한글 맞춤법 내에서 음운규칙을 이해해야만 그 원리가 완벽히 이해되는 항들은, ‘중요도가 높은 어휘 항목’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어휘 목록을 확정한다. 원리를 이해하는 내용은 제시하지 않는다.

- 한자어와 관련되는 항목 역시, ‘중요도가 높은 어휘 항목’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어휘 목록을 확정한다. 원리를 이해하는 내용은 제시하지 않는다. 초등학교에서 한자어에 대한 학습은 어휘 능력 증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자어 관련 항목들은, 중요도 높은 어휘 항목에 대한 연습 문제를 구성한다면, 학습자가 부담스러워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는 아니다.

- 제13항: 주로 의성어, 의태어가 많은데, 의성 의태어에 대한 학습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습하므로 예를 중심으로 익히도록 한다.

- 제15항: 3학년 교육과정 내용 중, 용언의 기본형을 익히게 하는 내용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급의 학습자들은 품사 개념을 본격적으로 익히지 않은 상태이고 용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15항에 해당하는 어휘 항목에 대한 연습 문제를 충분히 학습할 수는 있다.

- 43, 44, 45, 48항: 띄어쓰기는 문법 단위에 대한 인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초등학교급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학습시켜야 하는 내용이다. 성인용에서는 ‘겸, 내지, 대, 및, 등’을 중급으로 처리하였으나, 초등학교급에서는 ‘원리’를 익히는 것이 중심이 아닌 데에다, 해당 어휘 항목이 중요도가 높으므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연습하도록 한다.

초급	제19항	1. '-이'가 붙어 명사로 된 것, 2.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3. '-이'가 붙어 부사로 된 것, 4.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1.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u>팔받이</u> , 달맞이, 먹이, 미닫이, 벨이, 살림살이, 쇠붙이 2. 걸음, 묶음, 믿음, 얼음, 엮음, 울음, 웃음, 줄음, 죽음, 앞, 만듦, 3. 같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싫없이, 종이, 짓궂이 4. <u>밝히</u> , 익히, 작히
	제19항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u>굽도리</u> , 코끼리, 거름, 고름, 노름
	제19항	붙임 (1) 명사로 바뀐 것, (2) 부사로 바뀐 것, (3)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것	(1) 귀머거리, 까마귀, 너머, 마감, 마개, 마중, 무덤, 올라미, 주검 (2) 거뭇거뭇, 너무, 도로, 불긋불긋, 비로소, 자주, 차마 (3) 나마, 부터, 조차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 적는다. 1. 부사로 된 것, 2. 명사로 된 것	1.곳곳이, 날날이, 뭉뭉이 2. 바독이, <u>삼발이</u>
	제20항	[붙임]	꼬락서니, <u>꼬트머리</u> , 바가지, 바깥, 싸라기, 이파리, 지붕, 지푸라기
	제21항	명사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1. 값지다, 홀지다, 빗깁, <u>옆댕이</u> , 잎사귀, 2. 낚시, 굶다랴다, 굶직하다
	제22항	용언의 어간에 접미사가 붙은 말	1. '-기-', '-리-'등. 맏기다, 윙기다
	제23항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	개구리, 귀뚜라미, 기러기, 날라리
초급	제24항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시늉말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	깜짝이다, 꾸벅이다 등
	제32항	단어의 끝 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	기력아, 엇그저께
	제33항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질 적	그건, 그제
	제34항	-아/-어, -았/-었'	가, 갔다, 잤다, 냈다
	제35항	·	팼, 뵈다
	제36항	·	가져, 견뎌
	제37항	·	썰다, 뵈다, 띄다
	제40항	·	간편케, 안타
초급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	밑천, 꺾꽂이, 꽃잎 등 [붙임 1], [붙임 2]도 포함

	제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판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	다달이, 따님, 바느질, 소나무 등
초급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개, 대, 돈, 마리 등.
	제44항	수를 적을 때에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	.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겸, 내지, 대, 밋, 등.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호칭어, 관직명	충무공 이순신 장군
초급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	밑천, 껌꽃이, 꽃잎 등 [붙임 1], [붙임 2]도 포함
	제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판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	다달이, 따님, 바느질, 소나무 등
초급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개, 대, 돈, 마리 등.
	제44항	수를 적을 때에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	.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겸, 내지, 대, 밋, 등.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호칭어, 관직명	충무공 이순신 장군
초급	제54항	접미사	심부름꾼, 빗깁 등
	제55항	두 가지로 구별하여 적던 것	맞추다. 뻘치다
	제57항	동음이의어	.
초등학교 교급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 1. 두 모음 사이, 2. 'ㄴ, ㄹ, ㅁ, ㅇ'받침 뒤의 된소리	소쩍새, 어깨, 오빠, 으름, 아끼다, 기쁘다, 깨끗하다, 어머하다, 해쓷하다, 가끔, 거꾸로, 부쩍(부쩍), 어찌, 이따금//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뱃, 움짤, 몽땅, 엉뚱하다
	제6항	구개음화	말이, 해돋이, 굳이, 같이, 끝이
	제7항	ㄷ'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ㅌ'으로 적는다.	덜것고리, 돛자리, <u>엣새</u> , 웃어른, <u>햇웃</u> , 무릇, 사뭇, 얼핏, 자칫하면, 뭇, 옛, 첫, 헛.
초등학교 교급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여자, 연세, 요소, 유대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양심, 역사, 예외, 용궁, 유행, 이발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낙원, 내일, 노인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딱딱, 썹썹, 씹씹, 푹푹딱딱, 씹썹썹썹
초급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먹다, 신다, 믿다, 울다, 넘다, 입다, 웃다, 젊다, 있다, 없다 등.
	제16항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ㅑ'일 때에는 어	나아, 막아, 얹아, 돌아, 보아/

		미를 ‘-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 어’로 적는다.	개어, 꺾어, 되어, 베어, 쉬어 등.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1.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4. 어간의 끝 ‘ㄱ, ㅡ’가 줄어들 적	1. 갈다~가니, 놀다~노니, 불다~부니 등. 4. 푸다~퍼, 뜨다~떠, 끄다~껴 등.

[표준어 규정]

- 초등학교급에서는 항목과 상관없이, 다양한 표준어를 접하도록 연습시킨다.

초급	제10항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	괴팍하다. 으레
	제11항	모음 발음 변화 인정한 형태	상추, <u>튀기</u> , 허드레
	제14항~제16항	본말 표준어, 준말 표준어, 두 가지 표준어	김, 무, 생쥐, 술개, 귀이개, 거짓부리-거짓불, 노을-놀, 시누이-시늬, 외우다-외다, 이기죽거리다-이죽거리다, 찌거기-찌꺼
	제17항	단수 표준어	봉숭아, 멸치, 서/석, 어중간, 옹골차다, 천장
	제18항	복수 표준어	쇠/소, 괴다/고이다 등

[표준 발음법]

- 1항에서 5항, 8항에서 10항까지의 내용은 전통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다루어 왔던 내용과 관련이 있다. 단, 초등학생들은 표준 발음법을 위한 원리로 배우지 않고, 표기 활동을 위한 내용으로 배우기 때문에, ‘실제로 발음을 해 보게 하는 연습 문제’가 아니라 ‘발음 원리’를 익히게 하는 연습 문제를 제시한다면 당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자제하도록 한다.

- 실제로 발음을 해 보게 하거나, 발음과 표기의 관계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되도록, ‘소리나는 대로 써 보기’ 활동을 다양하게 하도록 한다.

- 제11항, 제13항, 제14항: 성인용에서는 중급이나 고급으로 조정되었으나, 학교급에서는 초등학교급에서 그대로 다룬다. 이 역시 발음과 표기의 관계를 익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초급	제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표준어의 자음은 다음 19개로 한다.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ㅁ ㅂ ㅅ ㅆ ㅇ ㅈ ㅊ ㅅ ㅍ ㅎ
	제3항	표준어의 모음은 다음 21개로 한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ㅡ ㅣ ㅥ ㅧ ㅩ ㅪ ㅬ ㅭ ㅯ ㅱ ㅳ ㅵ
	제4항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ㅡ ㅣ ㅥ ㅧ ㅩ ㅪ ㅬ ㅭ ㅯ ㅱ ㅳ ㅵ’는 단모음(單母音)으로 발음한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ㅡ ㅣ ㅥ ㅧ ㅩ ㅪ ㅬ ㅭ ㅯ ㅱ ㅳ ㅵ

	제4항 [붙임]	[붙임] ‘ㄴ, ㄷ’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ㄴ, ㄷ
	제5항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초급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제9항	받침 ‘ㄴ, ㄷ’,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ㄴ, ㅂ]으로 발음한다.	닭다[닥따], 키읓[키읓], 키읓과[키읓꽈], 옷[읓], 옷다[읓 : 따], 있다[읓따], 젓[젓], 빗다[빓따], 꽃[꼇], 꽃다[꼇따], 술[숓], 뺄다[뺌 : 따], 앞[압], 뒳다[뒹따]
	제10항	겹받침 ‘ㄲ’, ‘ㄴ’, ‘ㄷ’, ‘ㄹ’, ‘ㅁ’,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ㅂ]으로 발음한다.	넋[넋], 넋과[넋꽈], 앓다[안따], 여넋[여넋], 뉘다[넋따], 외곶[외곶], 할다[할따], 값[갑], 없다[업 : 따]
	제11항	겹받침 ‘ㄴ, ㄷ, ㅌ’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ㅂ]으로 발음한다.	닭[닥], 흉과[흉꽈], 맑다[막따], 늑지[늑지], 삶[삼 :], 젊다[젊 : 따], 읊고[읍꼬], 읊다[읍따]
	제13항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깎아[까까], 옷이[오시], 있어[이씨], 낮이[나지], 꽃아[꼬자], 꽃을[꼬출], 쫓아[조차], 밭에[바테], 앞으로[아프로], 뒳이다[더피다]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넋이[넋씨], 앓아[안자], 닭을[달글], 젊어[젊머], 곱이[골씨], 할아[할타], 읊어[읓퍼], 값을[갑쓸], 없어[업 : 씨]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발아래[바다래], 늑앞[늑밥], 젓어미[저더미], 맛없다[마뎡따], 걸옷[거돋], 헛웃음[허두슴], 꽃 위[꼬뒤]
	제15항 [붙임]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넋없다[너겍따], 닭 앞에[다가페], 값어치[가버치], 값있는[가빈는]
중급	제11항	겹받침 ‘ㄴ, ㄷ, ㅌ’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ㅂ]으로 발음한다.	닭[닥], 흉과[흉꽈], 맑다[막따], 늑지[늑지], 삶[삼 :], 젊다[젊 : 따], 읊고[읍꼬], 읊다[읍따]
	제13항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깎아[까까], 옷이[오시], 있어[이씨], 낮이[나지], 꽃아[꼬자], 꽃을[꼬출], 쫓아[조차], 밭에[바테], 앞으로[아프로], 뒳이다[더피다]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넋이[넋씨], 앓아[안자], 닭을[달글], 젊어[젊머], 곱이[골씨], 할아[할타], 읊어[읓퍼], 값을[갑쓸], 없어[업 : 씨]
고급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넋이[넋씨], 앓아[안자], 닭을[달글], 젊어[젊머], 곱이[골씨], 할아[할타], 읊어[읓퍼], 값을[갑쓸], 없어[업 : 씨]

초급	제17항	받침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즈, ㅌ즈]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끝이든다[고지든따], 굳이[구지], 미닫이[미다지], 땀받이[땀바지], 발이[바치], 벼훅이[벼훅치]
	제22항	제22항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되어[되어/되여], 피어[피어/피여]
	제22항 [붙임]	‘이오, 아니오’도 이에 준하여 [이요, 아니요]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ㄹ), ㄷ(ㄷ, ㅌ, ㅍ, ㅌ, ㅍ, ㅍ), ㅌ(ㄷ, ㅌ, ㅍ, ㅌ, ㅍ, ㅍ)’은 ‘ㄴ, ㄴ’앞에서 [ㅇ, ㄴ, ㄴ]으로 발음한다.	먹는[멍는], 국물[궁물], 깎는[깡는], 키웁만[키웁만], 뭇뭇이[뭇뭇씨], 굶는[궁는], 훑만[훑만], 닫는[단는], 짓는[진 : 는], 옷맵시[온맵씨], 있는[인는], 맞는[만는], 젓명울[전명울], 쫓는[죗는], 꽃망울[꼇망울], 붙는[분는], 놓는[논는], 잡는[잠는], 밤물[밤물], 앞마당[암마당], 밝는[밤 : 는], 읊는[음는], 엮는[엄 : 는], 값매대[감매대]
	제18항 [붙임]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책 넣는다[챙넌는다], 흙 말리다[흥말리다], 옷 맞추다[온마추다], 밥, 먹는다[밤멍는다], 값 매기다[감매기다]
초급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ㄹ), ㄷ(ㄷ, ㅌ, ㅍ, ㅌ, ㅍ, ㅍ), ㅌ(ㄷ, ㅌ, ㅍ, ㅌ,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ㅌ, ㅍ, ㅍ’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국밥[국뽕], 깎다[깡따], 녀받이[녀빠지], 샷돈[삭뽕], 닭장[닥짱], 칠범[직뽕], 뽕대다[뽕때다], 옷고름[온꼬름], 있던[인뽕], 꽃고[꼇꼬], 꽃다발[꼇따발], 낫설다[난썰다], 발같이[받까리], 술전[숯전], 곱돌[곱뽕], 덮개[뽕개], 옆집[엷집], 넓죽하다[넙쭈카다], 읊조리다[음조리다], 값지다[감찌다]

[외래어 표기법 내용 선정]

제1항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제시하지 않는다. 특히 성인용에 제시되었던 표기 일람표는 초등 학교급에서는 제시하지 않는다.

초급	제1항	현행 24자모만으로 적는 이유	매번 라이샤워 표기법과 같이 복잡한 글자를 만들어 쓸 경우 어문 생활의 혼란을 초래함: 아놀드, 란스 등을 쓰지 않음.
----	-----	------------------	--

[로마자 표기법 내용 선정]

성인용과 마찬가지로 다음 내용만 제시한다.

초급			도로 표지판, 여권 등의 로마자 표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내용 제시	로마자 표기법의 의의(중요성)을 설명
----	--	--	--	----------------------

6.4. 중학교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 재구성

6.4.1. 목표 재구성

이하 이어지는 표에서는 현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중학교 전 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을 제시하였다. 중학교 전 학년 〈문법〉 영역에는 모두 15개의 성취 기준이 배열되어 있다. 7학년~9학년 모두 각각 5개씩의 성취 기준이 배열되어 있다. 이 중 어문 규범 교육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9학년의 두 번째 성취 기준이 유일하다.

(6-14)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중학교 전 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 7학년 -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1)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비교한다.	○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비교하여 이해하기 ○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의 원인과 실태 파악하기 ○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 찾기
(2) 여러 종류의 어휘를 비교하고, 그 사용 양상을 설명한다.	○ 전문어, 유행어, 은어의 개념과 관계 이해하기 ○ 전문어, 유행어, 은어의 사용 양상 및 특성 이해하기 ○ 전문어, 유행어, 은어 사용의 효과와 문제점 파악하기
(3) 국어 단어 형성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 단어 형성과 관련된 국어의 특질 이해하기 ○ 형태소와 단어 개념 이해하기 ○ 단어의 짜임(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이해하기 ○ 단어 형성법을 알고 창조적으로 활용하기
(4)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현상을 이해한다.	○ 중의적 표현과 모호한 표현 구별하기 ○ 중의적 표현을 해석하고 표현의 장단점 이해하기 ○ 모호한 표현이 된 이유를 지적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고치기
(5) 담화나 글의 의미 해석에 상황 맥락이 관여함을 이해한다.	○ 상황 맥락의 구성 요소 이해하기 ○ 상황 맥락이 담화나 글의 의미 해석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 8학년 -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1)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 언어의 기능과 특성 이해하기 ○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언어 사용 방식 비교하기 ○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사용하기

(2)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한다.	○ 속담, 명언, 관용어 등의 개념 이해하기 ○ 관용 표현 사용의 효과를 알고 적절하게 활용하기 ○ 관용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 이해하기
(3) 품사의 개념, 분류 기준, 특성을 이해한다.	○ 품사의 개념 이해하기 ○ 품사의 분류 기준 발견하기 ○ 품사 분류하기 ○ 품사의 종류와 특성 설명하기
(4) 표현 의도에 따라 사동·피동 표현이 달리 사용됨을 안다.	○ 사동·피동 표현의 개념 이해하기 ○ 사동·피동 표현에 따라 의미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하기 ○ 사동·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심리적·사회적 특성 이해하기
(5) 지시어가 글의 구조와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지시어의 개념 이해하기 ○ 담화 또는 글에서 지시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분석하기 ○ 지시어가 담화 또는 글 전체 구조에 끼치는 의미 관계 파악하기

- 9학년 -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1) 언어의 규칙성, 사회성, 역사성, 기호성, 창조성 등을 이해한다.	○ 언어의 규칙성, 사회성, 역사성, 기호성, 창조성 등의 개념 이해하기 ○ 언어의 다양한 특성 이해하기 ○ 언어와 문화의 관계 이해하기
(2) 국어의 음운 체계를 이해한다.	○ 국어 음운 체계의 개념 이해하기 ○ 국어 음운의 특성 이해하기 ○ 국어 음운의 변동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3) 문장의 짜임새를 설명한다.	○ 서술어와 자릿수의 기능 이해하기 ○ 문장의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문장을 확장하는 방법 이해하기 ○ 안은문장과 이어진문장을 알고 문장의 연결 방식 이해하기
(4) 담화 또는 글 구성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 통일성과 응집성의 개념 이해하기 ○ 담화 또는 글에서 통일성과 응집성 판단하기
(5) 한국어의 언어 문화적 특성과 가치를 이해한다.	○ 언어 문화적 특성과 언어의 관계 이해하기 ○ 한국어에 담긴 언어 문화적 특성 파악하기 ○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한국어의 위상 점검하기

위의 내용을 볼 때, 현 국어과 교육과정 체제에서 중학교 규범 교육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15) 현 국어과 교육과정 체제에서 중학교 규범 교육의 문제점

- ① 어문 규범 교육 내용이 양 자체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 ② 중학교 단계에서는 문장 쓰기를 넘어 본격적으로 담화 텍스트 수준의 글쓰기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문장 쓰기 단계를 완성한 초등학교 시기와 연계되지 않는다.
- ③ 국어 음운 체계의 개념을 이해하는 교육 내용 하나만이 등장한다.

위와 같은 문제 이외에도, 본 용역에서 실시했던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 결과로 볼 때, 중학교 학습자 집단의 ‘요구’에 따라, 중학교 어문 규범 목표와 내용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6-16) 설문 결과(중학생의 이해도 및 중요도)

	어문 규범	전체	초등 3	초등 5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공무원
이해도	전체	64.9	61.0	62.9	64.4	66.9	67.4	66.8
	한글 맞춤법	65.8	59.2	61.1	66.4	68.1	70.3	70.0
	표준어 규정	70.2	68.8	70.9	67.8	70.5	73.0	70.4
	외래어 표기법	60.7	60.6	62.3	60.3	63.3	58.2	59.5
	표준 발음법	58.8	53.0	54.9	58.3	62.4	62.3	61.6
중요도	전체	44.5	35.0	43.0	34.3	40.0	60.9	53.5
	한글 맞춤법	45.7	34.2	42.6	37.4	42.1	63.3	54.6
	표준어 규정	45.1	35.7	43.3	34.4	39.4	61.4	56.5
	외래어 표기법	41.3	36.3	43.7	28.0	34.5	57.8	47.6
	표준 발음법	44.1	34.6	42.6	33.7	42.9	57.7	53.1

위 표에 의하면, 중학생의 이해도 순서는 ‘표준어 규정 - 한글 맞춤법 - 외래어 표기법 - 표준 발음법’이다. 여기에서 시사 받을 수 있는 점은, 초등학생들과는 외래어 표기법과 한글 맞춤법의 순서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또한 표준 발음법은 초등학생들과 똑같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중요도 순서는 ‘한글 맞춤법 - 표준어 규정 - 표준 발음법 - 외래어 표기법’이다. 여기에서 시사 받을 수 있는 점은, 학생들이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수치가 다른 수치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앞서 정리한 ‘학교급별 어문 규범교육 내용의 재구성 논리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중학교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6-17) 중학교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

- ① 어문 규범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려는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한다.

- ② 초등학교 단계에서 익힌 어문 규범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어문 규범의 각 분야에 대한 기본 원리를 제대로 탐구한다.
- ③ 초등학교 단계에서 익히지 못한 지식을 익힌다.

6.4.2. 내용 재구성

초등학교급에서 진행된 과정과 동일한 절차와 논리로 기술하였기에, 그 논리는 여기에서 상세화하지 않는다. 중학교 어문 규범 교육에서는, 내용을 구성할 시에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6-18) 중학교급 어문 규범 교육의 내용 선정 원리

- ①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을 주된 교육 분야로 삼되, 초등학교급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심화하도록 더욱 다양한 어휘 항목을 선정하고, 원리를 익히는 활동을 조금씩 포함하도록 한다.
- ②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는 학습자가 학습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태도와 관련된 내용 항목보다는 지식 탐구를 유도하는 교육 내용을 많이 포함시킨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음운 체계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므로, 한글 맞춤법 ‘원리’를 제대로 익힐 수 없는 단계였기에, 사례 중심으로 표기와 발음이 다름을 인식하는 정도로만 학습해 왔다. 그러나 이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음운 체계를 익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익히는 탐구 활동을 본격적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 원리에 대한 지식을 ‘완성’하기는 어려운 단계이다.
- ③ 표준어 사정 원칙에 대해서는 학습자가 많이 어려워하지 않으므로, ‘중요도’가 높은 어휘 항목, 많이 혼동하는 어휘 항목을 선정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 ④ 학습자가 표준 발음법을 어려워하는 데에다, 동시에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탐구 의욕과 학습 의욕을 증진시킨다. 그러나 여전히 ‘원리 탐구 활동’을 많이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전술했듯이,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음운체계에 대해서만 학습할 뿐, 음운 규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학습하는 단계로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⑤ 전술한 이유로 인해 표준 발음법의 원리에 대한 학습을 어려워할 수 있으므로, 한글 맞춤법 중 ‘소리와 관련된 내용’을 연관시켜 지식과 태도를 강화하도록 한다. 즉 두 분야의 원리를 교차 탐구할 수 있는 활동을 조금씩 늘린다.
- ⑥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의 경우, 표준 발음법에 대한 원리 학습을 충분히 한다면 향후 얼마든지 그 원리를 익힐 수 있으므로, ‘중요도’에 근거하여 필수적인 어휘 항목을 선정하여 제공하는 정도에 그쳐도 좋을 것이다. 주요 사례 몇 가지만 제시하여 연습 문제로만 제공한다.

■ 내용 선정의 예시

[한글 맞춤법]

- 성인용 목록에서 밑줄 친 항목을 제외하고 제시한다.
- 11항, 12항: 한자어 관련 규정 중 초등학교에서 다룰 수 없었던 복잡한 내용을 다룰 수 있게 된다. 단어 형성법에 대해 학교에서 배운 단계이므로, 원리 탐구 활동도 포함할 수 있다.
- 15항, 17항: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단어 형성법과 품사를 본격적으로 학습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15항과 17항과 같은 항목들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 즉 문장에서 사용되는 기능을 파악하고 ‘연결형’과 ‘종결형’, ‘어미와 다른 조사’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항목들은 본격적인 탐구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 38항: 준말의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 47항: 보조용언의 띄어쓰기는 초등학교에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보조용언의 개념’을 초등학교급에서 구성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학교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띄어쓰기와 관련된 나머지 항목도, 초등학교에서는 사례 중심으로만 접근했으나, 중학교에서는 문법 의식이 보다 증진된 상태이므로 원리를 익히도록 할 수 있다.

중급	제5항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깎두기, 법석, 몹시
	제6항	구개음화	활이다, 갸히다, 묻히다, 닫히다
	제8항	‘계, 레, 메, 폐, 헤’의 ‘ㄱ’은 ‘ㄱ’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ㄱ’로 적는다.	계수, 사례, <u>연메</u> , 폐품, 혜택, 계집, 핑계, 계시다
	제8항	본음대로	<u>계</u> 송, 계시관, 휴계실
중급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나, 너’ 음을 인정한다.	이토(泥土), 익명(匿名)
	제10항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냥, 냥종, 년 신여성, 공염불, 남존여비
	제10항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
	제11항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리(理), 리(里)
	제11항 [붙임 1]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ړ, 룰’은 ‘열, 율’로 적는다.	나열, 비열, 선열, 규율, 비율, 선율, 백분율
	제11항 [붙임 2]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신립(申稜),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崙)
	제11항 [붙임 3]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국련(국제연합), 대한교련(대한교육연합회)
	제11항 [붙임 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역이용(逆利用), 연이율(年利率),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제11항 [붙임 5]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數)도 붙임 4에 준하여 적는다.	서울여관, 신흥이발관,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뉘, 누, 느’로 적는다.	뇌성, 누각, 능묘
	제12항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내내월(來來月), 상노인(上老人), 중노동(重勞動), 비논리적(非論理的)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끗끗하다, 놀놀하다, 눅눅하다, 밋밋하다, 짹짹하다, 찹찹하다, 씹씹하다, 짹짹하다
중급	제15항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넘어지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얹어지다 등. /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제15항 붙임 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책이오, 오시오, 아니오
	제15항 붙임 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	책이요, 붓이요
	제17항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읽어요, 참으려요, 좋지요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2.긋다~그어, 낫다~나아, 잇다~이어 등 5.견다~걸어, 듣다~들어, 묻다~물어 등

		2. 어간의 끝 ‘ㅅ’이 줄어질 적. 5. 어간의 끝 ‘ㄷ’이 ‘ㄹ’로 바뀔 적. 6. 어간의 끝 ‘ㅂ’이 ‘ㅈ’로 바뀔 적.	6.깁다~기워, 굽다~구워, 가깝다~가까워 등
	제18항 붙임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ㄹ’이 준 대로 적는다.	마지못하다, 마지않다,(하)다마다 등
중급	제21항	다만, (1) 겹받침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	(1)넙따랗다, 째따랗다, 알따랗다 (2)넙치, 올무, 납작하다
	제22항	용언의 어간에 접미사가 붙은 말 2. ‘-치-, -프리/트리-’가 붙는 것	부딪트리다/부딪트리다
	제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	깎쪽이, 꿀꿀이, 오뚝이, 흘쪽이
중급	제27항 [붙임 3]	이’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날 때	간니, 텃니, 사랑니, 송곳니, 앞니(앞니), 어금니, 머릿니, 젓니, 틀니, <u>가랑니</u>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판 말이 어울릴 적에 ‘ㄹ’소리가 ‘ㄷ’소리로 나는 것	반진고리, 사흔날, 선달
	제30항	1.순우리말(1)-(3)2.순우리말과한자어	긋밥, 나룻배, <u>멧나물</u> , 냇물, 뒷일 등
	제31항	ㅂ소리 덧남, ‘ㅎ’소리 덧남	1. <u>뺨싸리</u> , 좁쌀, 2.머리카락, 수탉
중급	제35항 [붙임 2]		괘(괴어), 돼(되어)
	제38항		싸여, 썰어
중급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것, 수, 만큼, 이, 바, 지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	·
	제50항	전문 용어	·
중급	제51항	부사의 끝 음절 발음 1. ‘이’로만 나는 것, 2. ‘히’로만 나는 것, 3. ‘이, 히’로 나는 것	2.‘히’로 나는 것: 극히, 급히, 작히 ·
	제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	승낙/수락 등 ·
	제53항	예사소리로 적는 어미	‘-을거나’, ‘-을게’ 등
	제56항	‘-더라’, ‘-던’, ‘-든지’	지난 일과 가리지 아니하는 것. ·
	제57항	동음이의어	·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짐.

[표준어]

- 표준어 규정 중에서도 문법 의식이 필요한 항목의 경우, 중학교급에서 다룰 수 있다. 친숙한 어휘 항목 중심으로 사례 중심 활동을 했던 초등학교급에서와는 달리, 중학교급에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는 문법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2항의 경우, 초등학교급에서는 무작정 개별 사례를 익히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겠지만, 중학교에서는 원리와 함께 개별 사례를 재확인하는 활동을 하여 지식을 더욱 명료히 할 수 있다.

중급	제8항	음성 모음 표준어와 어원 의식이 강한 것	깡충깡충, 오순도순, 보조-삼촌-사돈	음운 대립
----	-----	------------------------	----------------------	-------

제9항	‘ㅣ’ 모음 역행 동화	내기, 냄비, 동맹이치다, -장이: 쟁이, 아지랑이	음 변화 원리
제11항	모음 받음 변화 인정한 형태		
제12항	명사 '위'와 관련된 것	윗넓이, 위짱, 웃국	합성어로 30항 관련된 것 과 예외적인 것.
제19항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복 수 표준어)	거슴츠레하다, 나부랭이
제23항	방언 표준어	물방개, 애순	
제24항	방언 표준어	귀밑머리, 빈대떡, 코주부, 역겹 다	
제25항	단수 표준어	까다롭다, 까치발, 부스리기, 안 절부절-못하다	‘안절부절못하다’는 특별 히 설명 필요. 비고에 서 술된 내용을 좀 더 참고 할 것.

[표준 발음법]

중학교급 표준 발음법 내용 선정 원리는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전술했듯이, 중학교급에서는 아직 표준 발음법의 원리를 완벽히 익힐 수 없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선정할 경우, 본격적인 음운 규칙을 다루어야만 교육적 가치가 있는 항목은 고등학교급으로 넘기고 중학교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한다. 다만, 음운 규칙을 다루고는 있으나, 중학교 ‘문법’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과 연관되거나, 문법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이 선수 학습 지식으로서 새롭게 활용될 수 있는 활동으로 충분히 구성할 수 있는 경우, 중학교급 내용으로 선정한다. 이와 같은 두 개 원리에 따라 성인편 항목에서 무엇을 더하고 보태야할지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 성인편 교재에서는 ‘중급’에서 다루었으나, 학교급에서는 ‘중학교급’에서 제외해야 할 내용: 제5항, 제19항, 제26항, 제29항, 제30항

- 제5항의 경우, 규정 자체는 발음 시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발음과 달리 표기 된다는 측면에서는 중급에서 발음과 표기를 연관 지어 동시에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중급 교재에 그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학교급 교재의 경우, 본격적인 음운 규칙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관계로, 아래와 같은 정치한 내용은 고등학교급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

- 제26항의 경우, 한자어에 대한 어원적 판단과 된소리에 대한 조건을 복합적으로 해야 하는 관계로, 고등학교급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

- 제26항과 관련되는 내용인 24항과 29항의 경우는 고등학교급으로 넘기지 않고 중학교급에서 그대로 다룬다. 그 이유는, 문법 단위에 대한 인식, 피사동에 대한 학습 내용을 발음과 연계하여 적용하는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19항, 제29항, 제30항의 경우, 고등학교급에서 다루는 음운 규칙과 함께 다루는 것이 좋겠다. - 음운 장단의 경우, 형태소 분석과 문법 의식과 관련하여 다룰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러므로 ‘음운 장단 자체에 대한 지식’보다는 ‘문법 지식을 적용하는 활동’으로 중학교급에서 다루도록 한다.

고등학교급으로	제5항 [다만 1]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켜, 처’는 [저, 켜, 처]로 발음한다.	가지어→가져[가져], 켜어→켜[켜], 다치어→다쳐[다쳐]	‘고등학교급’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 수정
	제5항 [다만 2]	다만 2. ‘예, 레’ 이외의 ‘ㄹ’은 [ㄹ]로도 발음한다.	계집[계 : 집/계 : 집] 계시다[계 : 시다/계 : 시다] 시계[시계/시계](時計) 연계[연계/연계](連繫) 메별[메별/메별](袂別) 개폐[개폐/개폐](開閉) 혜택[혜 : 택/혜 : 택](惠澤) 지혜[지혜/지혜](智慧)	
	제5항 [다만 3]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한다.	닐리리, 닝큼, 무늬, 띄어쓰기, 씹어, 띄어, 희어, 희땀다, 희망, 유희	
	제5항 [다만 4]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의]로,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주의[주의/주이], 혐의[혐비/혐비], 우리의[우리의/우리에], 강의의[강 : 의의/강 : 이에]	
중급	제10항 [다만]	‘뵤-’은 자음 앞에서 [뵤]으로 발음하고, ‘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뵤]으로 발음한다.	(1) 뵤다[뵤 : 따], 뵤소[뵤 : 쏘], 뵤지[뵤 : 켜], 뵤는[뵤 : 는→뵤 : 는], 뵤게[뵤 : 께], 뵤고[뵤 : 꼬] (2) 뵤-죽하다[뵤쭈카다] 뵤-동글다[뵤똥글다]	
	제11항 [다만]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말게[말께], 뭉고[뭉꼬], 얻거나[얻거나]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ㅎ(ᄃᆞ, ᄃᆞ)’ 뒤에 ‘ㄱ, ㄷ, 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ㄱ, ㄷ, ㅌ]으로 발음한다.	농고[노코], 종던[조 : 툰], 썰지[싸치], 많고[만 : 코]	
	제12항 1번 [붙임 1]	받침 ‘ㄱ(ㄱ), ㄷ, ㅌ(ㅌ), ㅌ(ㅌ)’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ㄱ, ㄷ, ㅌ, ㅌ]으로 발음한다.	각하[가카], 먹히다[머키다], 뵤히다[뵤키다], 만형[마형], 좁히다[조피다], 넓히다[넌피다], 꽃히다[꼬치다], 앉히다[안치다]	
	제12항 1번 [붙임 2]	규정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는 ‘ㅌ, ㅌ, ㅌ’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웃 한 벌[오탄벌], 낮 한때[나탄때], 꽃 한 송이[꼬탄송이], 술하다[수타다]	
	제12항 4번	‘ㅎ(ᄃᆞ, ᄃᆞ)’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낱은[나은], 놓아[노아], 썰이다[싸이다], 많아[마 : 나], 앓은[아는], 닳아[다라], 싫어도[시러도]	
중급	제6항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눈보라[눈 : 보라]말씨[말 : 씨]밤나무[밤 : 나무] 많다[만 : 타] 멀리[멀 : 리] 벌리다[벌 : 리다] (2) 첫눈[천눈]참말[참말]쌍둥밤[쌍둥밤] 수많이[수 : 마니] 눈멀다[눈멀다] 떠벌리다[떠벌리다]	
	제6항	[붙임] 용언의 단어의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	보아→뵤[뵤 :], 기어→겨[겨 :], 되어→뵤[뵤 :], 두어→뵤[뵤 :], 하여→해[해 :]	

	[붙임]	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	
	제6항 붙임 [다만]	다만, ‘오아→와, 지어→저, 찌어→찌, 치어→쳐’ 등은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오아→와, 지어→저, 찌어→찌, 치어→쳐’
	제7항 1번	제7항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1.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감 : 따]－감으니[가므니], 밭다[밭 : 따]－밭으면[발브면], 신다[신 : 따]－신어[시너], 알다[알 : 다]－알아[아라]
	제6항 [다만]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 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	반신반의[반 : 신바 : 닌/반 : 신바 : 니], 재삼재사[재 : 삼 재 : 사]
	제7항 1번 [다만]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끌다[끌 : 다]－끌어[끄 : 러], 뿔다[뿔 : 따]－뿔은[뿔 : 븐], 별다[별 : 다]－별어[버 : 러], 썰다[썰 : 다]－썰어[써 : 러], 없다[엮 : 따]－없으니[엮 : 쓰니]
	제7항 2번	제7항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2.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감 : 따]－감기다[감기다], 꼬다[꼬 : 다]－꼬이다[꼬이다], 밧다[밭 : 따]－밧히다[밭피다]
	제7항 2번 [다만]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끌리다[끌 : 리다], 별리다[별 : 리다], 없애다[엮 : 쎌다]
	제7항 [붙임]	[붙임] 다음과 같은 복합어에서는 본디의 길이에 관계없이 짧게 발음한다.	밀-물, 썰-물, 쏘-살-같이, 작은-아버지
고등학교 교급으로	제19항	받침‘ㄱ,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담력[담 : 녁], 침략[침낙], 강릉[강능], 향로[향 : 노], 대통령[대 : 통녕]
	제19항 [붙임]	받침‘ㄱ,ㄴ’ 뒤에 연결되는 ‘ㄹ’도 [ㄴ]으로 발음한다.	막론[막논→망논], 백리[백니→뱅니], 협력[협녁→협녀], 십리[십니→십녀]
중학교 교급	제27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다만, 끝에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떼가], 할 바를[할빠를], 할 수는[할쑤는], 할 적에[할쩌게], 갈 곳[갈꼐], 할 도리[할또리], 만날 사람[만날싸람]
	제27항 붙임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할걸[할겅], 할밖에[할빠께], 할세라[할쎌라], 할수록[할쑤록], 할지라도[할쩌라도], 할지언정[할쩌언정], 할진대[할쨌대]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ㄱ(ㄱ)’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신고[신 : 꼬], 꺾안다[껴안따], 앓고[안꼬], 없다[언따], 삼고[삼 : 꼬], 더듬지[더듬찌], 닮고[담 : 꼬], 짙지[짐 : 찌], 안기다, 감기다, 굼기다, 율기다
	제25항	어간 받침 ‘ㅃ, ㅍ’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넓게[널게], 훔다[할따], 홀소[홀쏘], 뿔지[뿔 : 찌]

고등학교 교급으로	제26항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다만,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갈등[갈똥], 발동[발똥], 절도[절또], 말살[말쌀], 불소[불쏘](弗素), 일시[일씨], 갈증[갈쥬], 물질[물쥬], 발전[발쩐], 물상식[물쌍식], 불세출[불썰출], 허허실실[허허실실](虛虛實實), 절절-하다[절절하다](切切-)	고등학교 교급으로 넘김
고등학교 교급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소리를 첨가하여 [니, 나, 너, 노, 뉴]로 발음한다.	숨이불, 홀이불, 막일, 샷일, 맨입, 꽃잎, 내복약, 한여름, 남존여비, 신여성, 색연필, 직행열차, 늑막염, 콩엿, 담요, 눈요기, 영업용, 식용유, 국민윤리, 밤웃	고등학교 교급으로 넘김
	제29항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ㄴ'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이죽이죽, 야금야금, 겹열, 올랑올랑, 금용	
	제29항 [붙임 1]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소리는 [ㄹ]로 발음한다.	들일, 술잎, 설익다, 물약, 불여우, 서울엿, 물엿, 휘발유, 유들유들	
	제29항 [붙임 2]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한 일, 옷 입다, 서른여섯, 3연대, 먹은 엿, 할 일, 잘 입다, 스물여섯, 1연대, 먹을 엿	
	제29항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ㄴ(ㄹ)' 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육이오, 삼일절, 송별연, 등용문	
	제30항	2.사이시옷'ㄴ,ㄹ'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כות날, 아랫니, 툇마루, 뺏머리	
	제30항	3. 사이시옷 뒤에 '이'소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ㄴ]으로 발음한다.	베갯잇, 깻잎, 나뭇잎, 도리깻열, 뒛웃	

[외래어 표기법]

- 제2항, 표기세칙 제1절 영어표기 제3항, 표기세칙 제1절 영어표기 제7항은 중학교급 문법 교육과정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연계 활동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영어표기 제10항의 경우는 외래어 표기법을 본격적으로 익히는 고등학교급으로 넘긴다.
-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에 대해서는,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학교급에서도 다룬다.

중급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표음주의 원칙: foot=풋	
	표기 세칙 제1절, 영어 표기 제3항의 2번, 3번	어말의 [f]에 관한 규정, 어말[ʒ]와 관련된 규정	플래시, 슈러브, 쇼핑, 심/ 미라지, 비전	
	표기 세칙 제1절 영어 표기 제7항	장모음 규정	팀, 루트	
	표기 세칙 제1절 영어 표기	복합어 규정	컵라이크, 북엔드, 헤드라이트/로스앨러모스(로스앨러모스), 톱클래스(톱클래스)	고등학교급으로 넘김

제10항			
제4장			
제1절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제3항의 원지음과 제3국 발음	

[로마자표기법]

-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학습하는 고등학교급에서 표기일람을 다루도록 하고 중학교급에서는 삭제한다.

중급	제1항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표준 발음법과 로마자 표기의 관계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음.	로마자 이외의 기호: Û, Ö 등의 기호 사용 예	
		표기 일람	표기 일람과 예외 (광희문, 장모음 표기)	고등학교급에서 다룸.
	제3장 제3항, 제4항	표기상의 유의점(고유명사를 대문자로 적는 것), (성과 이름의 순서, 붙임표)		

6.5. 고등학교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 재구성

이하 이어지는 표에서는 현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10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을 제시하였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10학년에서 끝나기 때문에, 11학년과 12학년의 <문법> 영역 성취 기준은 제시되지 않는다. 어문 규범 교육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을 음영 처리하여 제시하였다. 총 5개의 성취 기준 중 2개가 직접 관련되는 것이다.

(6-19)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중학교 전 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 10학년 -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1) 국어의 역사를 이해한다.	○ 옛말과 현재의 말 비교하기 ○ 국어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 이해하기 ○ 국어의 역사적 변천 과정 이해하기
(2) 국어의 음운 규칙을 안다.	○ 두음 법칙, 모음조화, 구개음화, 설측음화, 경음화, 탈락 현상 등의 음운 규칙 이해하기 ○ 국어의 음운 체계와 변동 규칙에 따라 바르게 읽기 ○ 음운 규칙과 표준 발음, 표기의 관계 이해하기
(3)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을 안다.	○ 담화에서 장면에 따라 심리적 태도 등의 표현이 달라진 부분 찾기 ○ 원근 표현, 부정 표현 등 심리적 태도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 방식 이해하기 ○ 담화에 따라 심리적 태도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이유 설명하기

	기
(4)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을 알고 정확하게 사용한다.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 알기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사용하기 ○ 국어를 정확하게 표기하려는 태도 기르기
(5) 한글의 창제 원리와 한글의 독창성을 안다.	○ 한글의 창제 원리 이해하기 ○ 한글의 독창성 이해하기 ○ 국어를 가꾸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태도 기르기

위의 내용을 볼 때, 현 국어과 교육과정 체제에서 고등학교 규범 교육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20) 현 국어과 교육과정 체제에서 고등학교 규범 교육의 문제점

- ① 나선형 교육과정 원리에 따라 중학교에서 익혔던 음운 체계 관련 지식을 고등학교에서 심화하는 의미도 찾을 수 있겠지만, 모든 학교급에서 어문 규범 관련 교육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등학교에서도 ‘(2) 국어의 음운 규칙을 안다.’라는 성취 기준이 또 설정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 ②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가 강조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은 ‘국어를 정확하게 표기하려는 태도’가 근본적이라기보다는, 국어의 음운 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재에서 ‘원리’를 강조하여 교육 내용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 ③ 전반적으로 어문 규범 교육을 체계화한다면, 고등학교 단계는 어문 규범 능력의 ‘완성’ 단계이다. 이렇게 볼 때, 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원리를 탐구하고 종합하는’ 교육 내용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문제 이외에도, 본 용역에서 실시했던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 결과로 볼 때, 고등학교 학습자 집단의 ‘요구’에 따라, 고등학교 어문 규범 목표와 내용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6-21) 설문 결과(중학생의 이해도 및 중요도)

	어문 규범	전체	초등 3	초등 5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공무원
이해도	전체	64.9	61.0	62.9	64.4	66.9	67.4	66.8
	한글 맞춤법	65.8	59.2	61.1	66.4	68.1	70.3	70.0
	표준어 규정	70.2	68.8	70.9	67.8	70.5	73.0	70.4
	외래어 표기법	60.7	60.6	62.3	60.3	63.3	58.2	59.5
	표준 발음법	58.8	53.0	54.9	58.3	62.4	62.3	61.6
중요도	전체	44.5	35.0	43.0	34.3	40.0	60.9	53.5
	한글 맞춤법	45.7	34.2	42.6	37.4	42.1	63.3	54.6
	표준어 규정	45.1	35.7	43.3	34.4	39.4	61.4	56.5
	외래어 표기법	41.3	36.3	43.7	28.0	34.5	57.8	47.6
	표준 발음법	44.1	34.6	42.6	33.7	42.9	57.7	53.1

위 표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의 이해도 순서는 ‘표준어 규정 - 한글 맞춤법 - 외래어 표기법

- 표준 발음법'이다. 여기에서 시사 받을 수 있는 점은, 중학생의 이해도 순서와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이다. 다만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표준 발음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점이 다행스럽다고 하겠다. 중요도 순서는 '표준 발음법 - 한글 맞춤법 - 표준어 규정 - 외래어 표기법'이다. 특기할 만한 점은, 표준 발음법에 대한 이해도는 가장 낮지만, 이전 학교급 학생 집단과는 달리 표준 발음법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물론 수치의 차이가 그다지 없어 집단이 달라지면 그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중학생 집단과는 다르게 표준 발음법의 상대적 위상을 높이 잡았다는 점이 주목된다는 것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자신의 언어생활을 타인이 평가한다는 인식이 강화되어, 대면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하는 것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인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앞서 정리한 '학교급별 어문 규범교육 내용의 재구성 논리 및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을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6-22) 고등학교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 재구성

- ① 정확한 언어 사용을 위한 지식과 태도를 완성한다.
- ② 어문 규범 각 분야에 대한 원리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③ 어문 규정 전체에 대한 체계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다.

(6-23) 고등학교 어문 규범 교육 내용 재구성

- ①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모두를 연계하여 탐구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구성한다.
- ② 중요도가 높은 어휘 항목에 대해서는 그 원리까지 설명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을 많이 구성한다.
- ③ 어문 규정 각 절, 각 항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탐구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을 구성한다.

■ 내용 선정의 예시

고등학교급에서는 어문 규범 능력이 완성되어야 한다. 예외 규정과 예외적 어휘에 대해서도 꼼꼼히 학습하도록 내용을 선정한다. 성인편 어휘 목록 중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모두 그대로 다루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중학교급에서 표준 발음법 관련 내용 중 고등학교급으로 넘긴 내용도 부가하여 다룬다.

[한글 맞춤법]

-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어휘 항목을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급에 서까지 접해 왔을 것이므로, 중학교급에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급에서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대한 포괄적인 활동을 수행하도록 구성한다.

- 국어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그 원리나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고등학교급에서 학습하도록 한다.

고급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니'로 적는다.	보니, 오니, 하늬바람, 널리리, 닝큼, 띄어쓰기, 희망, 희다
----	-----	---	-------------------------------------

[표준어 규정]

고급	제7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와 거센소리 인정, 접두사 '숫-'.	수놈: 수캐: 숫쥐	문법 변화 원리 관련
	제20항	고어 표준어	난봉, 낭떠러지, 애달프다. 오동나무, 자두	친숙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많음.
	제21항	한자어 표준어	꼭지미역, 숫을무늬, 푼돈	친숙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많음.
	제26항	.	.	친숙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많음.

[표준 발음법]

- 표준 발음법의 원리는 고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초등학교급, 중학교급에서는 개별 사례 중심으로 접근하거나, 한글 맞춤법에서 발음과 표기가 다른 경우를 '인식하는 차원'에서만 연습해 왔기 때문에, 음운 규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고등학교급에서 표준 발음법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고등학교급으로	제5항 [다만 1]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켜, 처'는 [저, 켜, 처]로 발음한다.	가지어→가져[가저], 찌어→찌[찌], 다치어→다쳐[다쳐]	'고등학교급'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 수정
	제5항 [다만 2]	다만 2. '예, 레'이외의 'ㄹ'은 [ㄹ]로 발음한다.	계집[계: 집/계: 집] 계시다[계: 시다/계: 시다] 시계[시계/시계](時計)연계[연계/연계](連繫) 메별[메별/메별](袂別) 개폐[개폐/개폐](開閉) 혜택[혜: 택/혜: 택](惠澤) 지혜[지혜/지혜](智慧)	
	제5항 [다만 3]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한다.	닐리리, 닝큼, 무늬, 띄어쓰기, 씹어, 티어, 희어, 희땀다, 희망, 유희	
	제5항 [다만 4]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의]로,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주의[주의/주이], 혐의[혐의/혐비], 우리의[우리의/우리에], 강의의[강: 의의/강: 이에]	
고급	제28항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문-고리[문꼬리], 눈-동자[눈똥자], 신-바람[신빠람], 산-새[산새], 손-재주[손재주], 길-가[길까], 물-동이[물똥이], 발-바닥[발빠닥], 굴-속[굴: 속], 술-잔[술잔], 바람-결[바람결], 그믐-달[그믐달], 아침-밥[아침밥], 잠-자리[잠짜리], 강-가[강까], 초승-달[초승달], 등-불[등뽕], 창-살[창쌀], 강-줄기[강줄기]	
고급	제30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1.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에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	냇가, 셋길, 빨랫돌, 콧등, 깃발, 대팻밥, 햇살, 뱃속, 뱃전, 고깃	

		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고급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1)난로[날 : 로], 신라[실라], 천리[철리], 광한루[광 : 할루], 대관령[대 : 괄령] (2)칼날[칼랄], 물난리[물랄리], 줄넘기[줄럼끼], 할는지[할른지]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견련의: 잔넌, 임잔련임: 잔넌, 생산련생산녕, 결단력[결탄넉], 공권력[공뀨넉], 동원령[동 : 원녕], 상견례[상견넉],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 : 원논], 입원료[이뵤노], 구근류[구근뉴]
	제20항 [붙임]	첫소리 ‘ㄴ’이 ‘ㄷ’, ‘ㅌ’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달는[달른], 뚫는[뚫른], 할네[할레]
	제21항	위에서 지정한 이외의 자음 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감기[감 : 기](×[강 : 기]), 옷감[옉감](×[옉감]), 있고[인꼬](×[익꼬]), 꽃길[꼇길](×[꼇길]), 젓먹이[전머기](×[점머기]), 문법[문뵤](×[뵤뵤]), 꽃밭[꼇뵤](×[꼇뵤])

[외래어 표기법]

- 외래어 표기법을 본격적으로 학습한다. 대조표를 둔 이유, 표기 세칙을 나누어 설정한 이유를 고려하여 학습시킨다. 영어에서 유래한 외래어와 독일어나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외래어 표기의 차이를 인식해야 하는 이유도 학습시킨다.

고급	표기의 기본 원칙 제5항		관용	
		대조표와 표기 세칙의 구조		
	제4장 제2절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	중국(과거인과 현대인), 일본, 관용	
	제3절	바다, 섬, 강, 산 등의 표기 세칙		

[로마자 표기법]

- 로마자 표기법을 본격적으로 학습한다.

고급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	자음 동화(백마), ‘ㄴ,ㄹ’ 덧남(학여울), 된소리를 반영하지 않음.	
	제5항	행정 구역 단위와 ‘가’에 붙임표를 사용하는 규정		
	제6항	붙임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7. 「단계별 어문 규범 교재 집필 지침」: 일반 성인 편

7장에서는 각 단계 교재별로 집필 지침을 정리한다. 총론에서 모든 교재에 공통되는 구성 체제, 내용 선정 및 배열 원리 등의 사항을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각 단계별로 유의해야 하는 집필 지침만을 정리할 것이다.

7.1에서는 초급 교재를, 7.2에서는 중급 교재를, 7.3에서는 고급 교재를 다룬다. 각 절마다 주요 내용, 기술상의 유의점, 교수 학습 방법을 다룬다. ‘주요 내용’에서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목차에 따라 다루어질 내용을 소개하게 될 것이다. ‘기술상의 유의점’에서는 소단원 구성 체제의 특성을 좀 더 상세히 기술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인 체제는 공통적이지만, 각 단계별로 유의하여 다루어야 할 부분을 기술하게 될 것이다. ‘교수 학습 방법’에서는 교수 학습상의 유의점을 다룬다. 본 영역에서 개발할 교재는 기본적으로 자습용 교재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별도의 교수자를 두어 배울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스스로 학습할 때의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뿐만 아니라, 교수자가 교수 학습을 계획하거나 운용할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을 기술하였다.

7.1. 초급 교재

7.1.1. 주요 내용

초급 교재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목차는 다음과 같다.

(7-1) 초급 교재의 목차

대단원	소단원	
한글 맞춤법	1	떠들석하다? 떠들썩하다!
	2	장농? 장롱!
	3	회계년도? 회계 연도!
	4	어름 배달? 얼음 배달!
	5	아름다와? 아름다워!
	6	만난지? 만난 지!
	7	스물 여섯 살? 스물여섯 살!
	8	바람? 바람!
표준어 규정	9	호도과자? 호두과자!
	10	낮[날], 낮[날], 낮[날]!
	11	국물[궁물]! 국밥[국빔]!
외래어 표기법	12	슈퍼마켓? 슈퍼마켓!
	13	빠스? 버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4	‘ㄱ’은 g!
	15	‘불국사’는 Bulguksa!

1부 ‘한글 맞춤법’에서는, 우리말에서 소리와 형태의 관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들을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된소리’, ‘구개음화’, ‘두음법칙’이 소리와 관련된 규정 중에서 핵심이라 할 것이다. 또한, ‘어름’이 아니라 ‘얼음’으로 쓸 줄 아는 능력, ‘형 한테’가 아니라 ‘형한테’로 쓸 줄 아는 능력 역시,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인 형태를 밝혀 적는 원리를 익히는 핵심 내용들이다. 문장 부호 사용 능력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능력은, 문장의 종류를 결정하는 요인을 생각하고 올바른 문장 부호를 선택할 줄 아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물음표와 느낌표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하였다.

2부 ‘표준어 규정’에서는, 표준어 사정 원칙보다는 표준 발음법에 대한 원리를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아, 표준 발음법 단원을 두 개 설정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표준 발음법은 초급 단계의 학습자가 어려워할 만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1부 한글 맞춤법에서 학습했던 내용과 관련되는 내용을 선정하여 배열하였다.

3부 외래어 및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역시, 초급 단계 학습자가 어려워할 만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원리, ‘우리말답게 적는 것’과 ‘원음에 가깝게 적는 것’이라는 두 원리를 어문 규정에서 어떻게 적용하였는지를 익힐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역시 한글 맞춤법에서 학습했던 내용과 관련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7.1.2. 기술상의 유의점

1) 소단원명

단원의 첫 부분에 학습할 내용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초급 단계 학습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문법 용어를 제시하지 않고, 쟁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언어 자료를 대비하여 제시하도록 기술한다.

2) 길잡이

해당 단원을 학습할 때 목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부분이다. 초급 단계 학습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학습할 내용과 행동 양식을 여러 개 결합하지 않는다. 여러 개 결합해야 한다면, 그 관계를 반드시 기술한다. 예를 들어 ‘합성어와 파생어의 개념과 그 형성 원리를 이해하고 올바른 표기법에 대해 학습한다.’는 여러 행동 양식이 결합되어 있어 학습자가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하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3) 미리 보기

삽화 혹은 사진자료를 제시 학습할 내용을 암시적으로 보이려 부분이다. 단, 성인 학습자이므로 삽화가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 오히려 흥미를 잃을 수 있다. 삽화의 내용을 설명해 놓는다.

4) 탐구하기

학습할 내용의 실제와 원리를 탐구하는 부분이다. 해당 항목과 관련된 탐구의 과제 2~3개를 제시한다. 언어 자료가 명시된 자료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실재를 통하여 원리를 설명한다. ‘미리 보기’의 언어 자료 제시 방식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사례를 제시한다. 규범에 관한 설명은 자제하여 기술한다.

5) 연습하기

학습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연습하는 부분이다. 애초에는 ‘되돌아보기’로 이름을 설정하였다가, ‘연습하기’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애초 구성에서 ‘되돌아보기’라고 명명했었던 것은, ‘탐구하기’가 각 소단원의 핵심 지식을 제공하는 본문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그러나 여러 번 회의를 거듭한 결과, ‘연습하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식을 탐구하는 기회를 갖는다고 해서, 지식을 안다고 해서 어문 규범 능력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이다. 즉, ‘아는 것’이 ‘하는 것’이 되도록 하려면 성인이라 하더라도 활동을 통하여 반복 연습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되돌아보기’라는 구상 아래에서는 다시 한 번 ‘지식’을 학습한다는 의미의 활동 정도가 가능하지만, ‘연습하기’라는 구상 아래에서는 ‘아는 것’을 ‘하는 능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본격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고려하여, ‘연습하기’에서는 ‘탐구하기’보다 더욱 흥미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활동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한다.

6) 참고하기

학습한 내용에서 심화된 내용을 학습하는 부분이다. 기존의 ‘더 알아보기’를 ‘참고하기’라는 이름으로 변경한다. 심화의 개념으로 참고자료를 제시하도록 한다.

7) 마무리

단원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도표나 상자, 화살표, 짧은 줄글 등의 다양한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지식을 학습자 스스로 정리하는 기회를 갖도록 기술한다.

8) 자료 제시 방법

활동의 목표에 부합하고 활동의 언어적 본질에도 부합하는 언어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개음화를 설명하는 만화를 제시한다고 하자. 구개음화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표기’와 ‘발음’을 함께 비교하도록 하는 활동을 구성해야만 한다. 만약 ‘발음’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도록 한다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문장 부호를 설명하고자 하는 단원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문장을 자료로 준다면, 이것도 본질에 부합하는 활동이 될 수 없다. 물론 실제 언어 자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문장이 쓰이기는 하지만, 특히 초급 단계에서 학습하게 될 문말 서법에 따라 결정되는 문장 부호에 대한 활동의 경우, 전형적인 문장 형식을 제시한 후 그에 따라 문장의 종류를 생각하게 한 후에야 적합한 문장 부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띄어쓰기도 예를 들 수 있다. 띄어쓰기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어문 규정이기 때문에, 문어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만약 구어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활동을 구성한다면, 이 역시 본질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9) 지식 설명 방법

당초에는 ‘알아두기’라는 구성이 있었는데, 문법 용어 설명, 이전 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내용을 다루려고 하였다. 그러나 논의 결과 이 내용은 삭제하고, 이 내용을 날개로 처리하여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익숙하지 않은 용어 설명 등 본문의 흐름과 구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초급에서는 메타용어 설명 등 개념 이해에 초점을 둔다. 중급과 고급에서는 이전 교재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기술한다.

7.1.3. 교수 학습 방법: 예시 단원을 중심으로

7.1.3.1. 초급 단계의 핵심 교수 학습 방법

1) 초급 학습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

무엇보다도, 기존 책들은 성인을 일률적으로 ‘고급 학습자’로 판단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기존 성인용 교재는 규범 능력의 구성 요소를 ‘규범에 대한 지식’으로만 단편적으로 규정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 설명으로 이루어져, 어문규정해설집과 비슷한, 아니면 해설이 좀 더 친절한 정도로 교재가 출간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본 영역에서는 성인 학습자라 하더라도 ‘초급’ 수준의 규범 능력을 지닐 수도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전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교수 학습 하도록 한다.

2) 어문 규범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형성

본 영역에서 어문 규범 능력의 구인을 ‘지식’으로만 보지 않는다. ‘수행’, ‘태도’까지 규범 능력의 구인으로 보았다. 교수·학습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바람직한 학습 태도가 형성되도록 교수 학습 하도록 한다.

7.1.3.2. 초급 교재 예시 단위

	 한글 맞춤법 (1) 떠들석하다? 떠들썩하다! (2) 장농? 장릉! (3) 회계년도? 회계 연도! (4) 어름 배달? 얼음 배달! (5) 아름다와? 아름다워! (6) 만난지? 만난 지! (7) 스물여섯살? 스물여섯 살! (8) 바람? 바람!
▶소단원명 단원의 첫 부분에 학습할 내용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초급 단계 학습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문법 용어를 제시하지 않고, 쟁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언어 자료를 대비하여 제시하도록 기술한다.	

(4) 어름 배달? 얼음 배달!

길잡이

- 단어의 구조를 이해하여 바르게 적는다.
-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때 이미 있던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을 경우와 소리 나는 대로 적을 경우를 구별한다.



▶길잡이

해당 단원을 학습할 때 목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부분이다.

▶학습의 주안점

· 이 단원에서 배울 학습 목표를 인식하고 학습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말에서는 하나의 구성 성분으로만 단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접두어나 접미사와 같은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 파생되기도 하고, 뜻을 지닌 어근끼리 결합하여 합성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형성된 단어들을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른 것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미리 보기

삽화 혹은 사진자료를 통해 학습할 내용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학습 주안점

〈미리 보기〉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복합어를 어떻게 표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다.

▶끌어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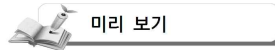
노래가사는 주로 음성으로 듣기 때문에 그 표기에 대한 고민할 때가 많다.

‘길이길이’는 ‘길(-다)’에 ‘-이’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이루어진 모양을 보여주는 것과 그렇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바른 표기인지 생각한다.

▶어휘풀이

길이길이 : 아주 오래도록

(4) 이름? 얼굴!



☞ '길이길이'가 옳다.

29

- 형태소 :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소는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구분한다. 형식 형태소는 주로 실질 형태소에 붙어 실질 형태소에 붙어 주로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형태소. 조사, 어미 따위가 있다.

탐구하기

탐구 1 어름? 얼음!



얼음 신속 배달

어간과 어미
붙임은 '가다, 가고, 가
나치'를 변화시킨 것이다.
이때 '가'는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며 '다, -
고, -나'는 변화하는 부
분이다. 이처럼 용언이
변화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語幹)이라
고 하며 변하는 부분을
'어미(語尾)'라고 한다.

어근과 접사
어근(語根)은 말의 중
심 의미를 나타내는 부
분을 말하며, 접사(接
辭)는 어근에 붙어 새
로운 말을 형성하는 부
분을 말한다. '깨뜨리
다'라는 말에서 중심
의미는 '깨'에 있으므로
로 어근이 되며 '뜨리
'는 어근에 붙은 말어
므로 접사가 된다.

'얼음'은 '얼다'라는 말의 어간 '얼-'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음'이 붙어 이루어진 단어이다. 이에 비해 '어름'은 '두 사람'의 끝이 맞닿은 자리를 뜻하는 단어이다. 어간에 '-이'나 '-음' / '-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하'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접미사	바른 표기	틀린 표기
명사	'-이'	깊이, 높이, 길이	기피, 노피, 기리
	'-음/-ㅁ'	믿음, 울음, 웃음	마들, 우름, 우슴
부사	'-이'	같이, 같이, 많이	가리, 구리, 마나
	'-하'	익히	이키

명사와 접미사 '-이'가 결합된 '깊이, 높이, 길이'는 '기피, 노피, 기리'로 적지 않으며, 명사와 접미사 '-음/-ㅁ'이 결합된 '믿음, 울음, 웃음'은 '마들, 우름, 우슴'으로 적지 않는다.

이 같은 규칙은 부사와 접미사 '-이'와 '-하'가 결합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같이, 같이, 많이'는 '가리, 구리, 마나'로 적지 않으며, '익히'는 '이키'로 적지 않는다.

▶탐구하기

학습할 내용의 실제와 원리를 탐구하는 부분이다. 언어 자료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학습 주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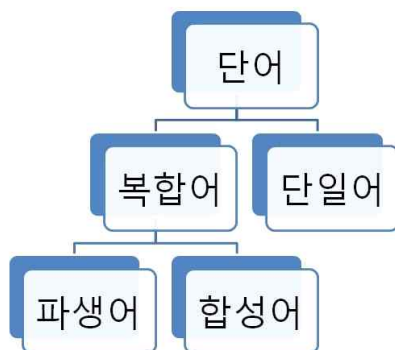
〈탐구하기1〉에서는 복합어의 바른 표기에 대해서 다양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한다.

▶끌어주기

〈도움말〉을 참고하여 '얼음'과 같은 복합어에서 원형을 밝혀서 적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원형을 밝혀 적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것이 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따져 본다.

▶보충학습 - 단어의 유형



단어 : 의사소통 과정에서 가장 기본 단위로, 최소의 자립 형식이다.

단일어 : 하나의 어근으로 된 단어

복합어 : 둘 이상의 어근이나, 어근과 파생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

파생어 : 어근과 파생 접사로 구성된 단어

- 접두사에 의한 파생 : 꽃사과, 헛곡

- 접미사에 의한 파생 : 놀이, 빨리, 공부하다

합성어 : 어근과 어근으로 구성된 단어

탐구 2

'넉두리를 늘어놓다'일까? '넋두리를 늘어놓다'일까?

나는 동생에게 ~~넉두리~~를 늘어놓았다.
넋두리

명사 뒤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따라서 '넋두리'는 '넉두리'로 적지 않는다. 이 말은 '넋'이라는 명사에 '-두리'라는 접미사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른 표기	틀린 표기
명사+자음 접미사	값-지다, 넋-두리	갑지다, 넉두리
용언 어간+자음 접미사	굴-적하다, 넓-적하다	국적하다, 념적하다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도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굴적하다, 념적하다'는 '국적하다, 념적하다'로 적지 않는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결합하였기 때문에 형용사의 어간 '넓-'과 '굴-'의 형태를 그대로 살려서 표기한다.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에서도 원형을 밝혀 적는다. 따라서 '젓아들'과 같이 두 단어의 형태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햇웃음, 깔눴다'와 같이 접두사와 어근의 형태를 구분할 수 있도록 원형을 밝혀 적는다.

젓-	아	들	햇-	웃	음
깔-	눴	다	날-	고	기

▶끌어주기

〈탐구2〉에서는 주로 파생되어 단어를 형성하는 모습으로 실질적인 뜻을 지닌 부분을 밝혀서 적을 때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다.

접두사와 접미사

접사가 붙이는 위치에 따라 접두사와 접미사로 나뉜다. 각각 어근 앞, 어근 뒤에 위치한다.

단어의 구조

단어는 구성 성분에 따라 단일어와 복합어로 구분한다. 하나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예: 책, 국, 산 등)라고 하며, 둘 이상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예: 책꽂이, 새파랗다 등)라고 한다.

탐구 3 '물난리'가 난 걸까? '물랄리'가 난 걸까?



합성어와 파생어
단어를 구성하는 직접 구성
성분이 모두 자립적인 요소
로 이루어진 단어를 합성어
(예: 역국)라고 하며, 그 가
운데 어느 한 쪽이라도 의
존적인 성분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파생어(예: 새파랗
다)라고 한다.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려 하나의 단어를 이룰 때에는 각각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물랄리'는 틀린 표기이고 '물난리'가 바른
표기이다. '물난리'는 '물'과 '난리'라는 두 단어가 어울려 이루어진 단
어인 까닭에 각각의 원형을 밝혀 '물난리'로 적는다.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려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
는다.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려 이루어진 합성어의 경우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물난리, 꽃잎, 부엌일'은 각각 '물'과 '난
리', '꽃'과 '잎', '부엌'과 '일'의 형태를 밝혀 적도록 한다.

물	+	난리
꽃	+	잎
부엌	+	일

▶ 학습 주안점

〈탐구3〉에서는 합성어를 어떻
게 표기할 것인지를 알 수 있
다.

▶ 끌어주기

〈탐구 2〉에서는 어근의 원형을 밝
혀 적어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했
다.

▶ 보충학습 - 직접 구성 요소

형태소가 모여 단어를 이루거나 단어가 모여 구나 문장을 이룰 때와 같이, 구성요소가 모여 하
나의 구성을 이룰 때 그 구성 요소들이 묶이는 방법은 평면적이기보다 층위적이다. 이 때문에 어
떤 구성의 구조를 바로 파악 하려면, 이 층위를 밝혀서 그 묶임의 순서를 바로 알아야 한다. 이 때
사용되는 개념이 직접 구성 요소(또는 직접 성분, Immediate Constituent 줄여서 IC)이다. 직접 구
성 요소란 어떤 구성을 일단 둘로 쪼개었을 때의 그 각각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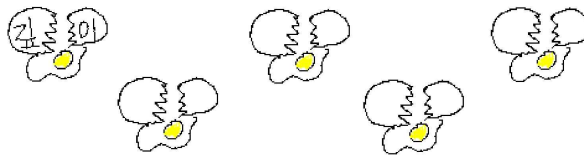
IC분석은 모든 구성에 유용하므로 합성, 구, 문장 등의 분석에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가령 '금
목걸이'의 직접 구성 요소는 '금'과 '목걸이'인데 이것을 잘못 '금목'과 '걸이'로 분석한다면 사람의
목이 금으로 되었다는 뜻이 될 것이다. 또 '맨손체조'는 '맨손'과 '체조'로 분석되어야지 이것을
'맨'과 '손체조'라고 한다면 '맨-'이라는 접두사가 신체의 일부가 아닌 '체조'와도 결합하는 꼴이 되
고 의미도 엉뚱해질 것이다. 이처럼 IC분석은 합성어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 - 〈이
익섭(1983), 국어학 개설〉에서



연습하기

♣ 다음 중 맞춤법이 알맞은 달걀을 고르고, 그것을 적절하게 둘로 쪼개 보자.

1. 이 수영장엔 같이 기피가 2m 이상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2. 이번 사건은 역사에 기려 결마 남을 것이다.
3. 언니가 화를 내자 막내 동생이 울음 얼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4.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는데 밥 좀 달이 마나 주세요.
5. 비가 이렇게 계속 내리다가는 물잔 물난가 날지도 모르겠다.



도움말

앞서 학습하였던 규정을 떠올려 보며 각각의 단어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판단하고, 파생어인 경우에는 무엇이 어근이고 무엇이 접사인지를 가려 보자. 어근의 본래 형태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 어떤 표기가 옳은 것인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 1. 같이, 같-, -이 2. 길이, 길-, -이 3. 울음, 울-, -음
4. 많이, 많-, -이 5. 물난리, 물, 난리

더 알아보기 - 한글맞춤법에서 복합어의 원형을 밝혀 적는 이유

단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그 문장의 의미를 인지하는 중심이 된다. 그런데 그 단어에서 의미를 파악할 때 형태가 바뀌는 것보다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시각적으로 단어와 의미를 바로 연결시킬 수 있고, 형태가 고정되고, 다른 단어들과 변별되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따라서 우리 국어 맞춤법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적되, 그 어법에 맞게 ‘밝혀 적기’를 통해 의미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 신창순(1992), 국어정서법 중에서



참고하기

♣ '노름'과 '놀음'은 어떻게 다를까?

앞서 학습한 규정에 따라 어근에 'ㄴ'이나 'ㄴ'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ㄴ'이나 'ㄴ'이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규정에는 예외가 있다. 본래 어근이 지니고 있던 의미와 떨어진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름'은 본래 그 어근이 '놀다'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단어의 의미가 '도박'이 됨에 따라 본래의 의미에서 멀어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놀음'이 아닌 '노름'으로 적는 것이 옳은 표기이다.

바른 표기	틀린 표기	비고
거름(비료)	걸음	'(땅이) 걸다'의 의미에서 멀어짐.
노름(도박)	놀음	'놀다'의 의미에서 멀어짐.
빈털터리	빈털탈이	'털다'의 의미에서 멀어짐.
목소리	목돌이	'도르다(두르다)'의 의미에서 멀어짐.

♣ '솔나무'와 '소나무', 어떤 것이 맞을까?

앞서 학습한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려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규정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솔	+	나무	→	소나무
불	+	나비	→	부나비



'소나무'는 '솔'과 '나무'라는 두 개의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이지만 '솔나무'는 틀린 표기이고 '소나무'가 바른 표기이다. 이 같은 표기는 앞의 어근 '솔'의 받침인 'ㄹ'과 뒤의 어근 '나무'의 첫소리 'ㄴ'이 발음되는 위치가 동일하여, 앞의 'ㄹ'이 탈락하는 현상이다. '불'과 '나비'가 어울려 이루어진 '부나비'의 경우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합성어의 경우에 각각의 어근을 밝혀 적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하기

학습한 내용에서 심화된 내용을 학습하는 부분이다. 심화의 개념으로 참고자료를 제시한다.

▶학습 주안점

〈참고하기〉에서는 한글맞춤법 규정의 예외적인 경우를 살펴본다.

▶끌어주기

파생어와 합성어의 경우에는 그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가 있다.

1.에서는 파생어에서 원래 의미에서 멀어져서 굳이 원형을 밝히는 것이 필요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2.에서는 합성어에서 발음상의 문제 때문에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이다.

▶보충학습 - 음운의 탈락

음운의 탈락은 주로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같은 소리가 이어질 때 그 중 한 소리가 탈락하는 경우와 체언의 파생과 합성 과정에서 'ㄴ, ㄷ, ㅅ, ㅈ' 앞의 'ㄹ'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솔나무', '부나비'에서 'ㄹ'이 탈락한 것은 뒤의 경우이다.

탈락하는 음운	원인	예시 단어
ㄹ	합성과 파생과정	다달이(달-달-이), 따님(딸-님), 마소(말-소) 바느질(바늘-질), 화살(활-살)
	용언의 활용	같다 : 가니, 간, 갑니다 가시오, 가오 둥글다 : 둥그니, 둥근, 둥굽니다. 둥그시다, 둥그오
ㅎ		낱은[나은], 놓아[노아], 째이다[싸이다]

'ㄹ' 탈락은 표기의 문제이고, 'ㅎ' 탈락은 발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표기에서는 'ㅎ'을 넣어서 쓴다.



마무리

어근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

접사	
항상 다른 어근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	
접두사	접미사
어근의 앞에 결합하는 접사 (뗃-버신, 헛-웃음)	어근의 뒤에 결합하는 접사 (얼-음, 갇-이)

어근	+	어근	→	합성어
꽃		잎		꽃잎
물		난리		물난리

접두사	+	어근	→	파생어
헛-		웃음		헛웃음

어근	+	접미사	→	
높		-이		높이

1	어근에 ‘-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높-이, 얼-음 깨끗-이, 조용-히
2	명사나 ‘용원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낮-두리, 갇-지다
3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나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려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날-고기, 걸-늬다 꽃-잎

※ 관련 규정: 한글 맞춤법 제19, 20항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마무리〉 이 단원에서는 복합어의 바른 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복합어의 경우에는 그 원형을 밝혀 적음으로써 그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했다. 따라서 어근과 접사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단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볼 때 바르고 정확한 표기를 할 수 있다.

다음 단원에서는 ‘디디고’와 ‘딘고’를 통해 준말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7.2. 중급 교재

7.2.1. 주요 내용

중급 교재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목차는 다음과 같다.

(7-2) 중급 교재의 목차

대단원	소단원	
한글 맞춤법	1	‘야단법석’은 ‘야단법석’으로
	2	‘혜택’은 ‘혜택’으로
	3	‘태능’은 ‘태릉’으로
	4	‘~지 말아라’는 ‘~지 마라/말라’로
	5	‘깨끗히’는 ‘깨끗이’로
	6	‘떡볶기’는 ‘떡볶이’로
	7	‘숯가락’은 ‘숯가락’으로
	8	‘띄다’와 ‘피다’
	9	‘오십시요’는 ‘오십시오’로
	10	‘가수겸 배우’는 ‘가수 겸 배우’로
	11	‘가던지’와 ‘가든지’
표준어 규정	12	‘웃웃’과 ‘윗웃’
	13	‘또아리’는 ‘파리’로
	14	읽다: [일따]는 [익따]로
	15	담요: [다묘]는 [담뇨]로
외래어 표기법	16	‘후라이팬’은 ‘프라이팬’으로
	17	‘윈도우’는 ‘윈도’로
	18	‘로봇트’는 ‘로봇’으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9	광주: ‘Kwangju’는 ‘Gwangju’로
	20	홍길동: ‘Gildong Hong’은 ‘Hong Gildong’으로

중급 단계에서는 총 20개의 소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한글 맞춤법 11개 단원, 표준어 규정 4개 단원, 외래어 표기법 3개 단원, 로마자 표기법 2개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기본적으로 초급 단계에서 익혔던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어려운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어문 규범 지식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내용을 선정한 것이다.

제1부 ‘한글 맞춤법’에서 선정한 내용들은 초급 단계에서 선정한 언어 자료에 비해 정오를 판단하기가 더 어려운 것들이며, 중급 단계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어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모든 단계의 학습자들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것이다. ‘날으는’과 ‘나는’, ‘어떡해’와 ‘어떻게’, ‘가든지’와 ‘가던지’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시작하도록 함으로써 중급 단계 학습자들이 본격적으로 어문 규범 능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였다.

제2부 ‘표준어 규정’에서는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 2개, 표준 발음법에서 2개를 선정하였다. 표준 발음법에서는 받침 있는 형태를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제3부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우리말에는 없는 음운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다. 관련하여, 제4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우리말과 외국어 음운의 차이점을 반영하여 표기할 수 있는 대표적 방법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다.

7.2.2. 기술상의 유의점

1) 소단원명

단원의 첫 부분에 학습할 내용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중급 단계는 초급 단계에서 느꼈던 부담감이 여전히 존재하는 단계일 것이다. 그러므로 초급 단계와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문법 용어를 제시하지 않고, 쟁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언어 자료를 대비하여 소단원명을 기술한다.

2) 길잡이

초급 단계의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역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학습할 내용과 행동 양식을 여러 개 결합하지 않는다.

3) 미리 보기

삽화 및 사진 자료의 설명 내용이 초급 단계보다 좀 더 암시적이어도 좋을 것이다.

4) 탐구하기

초급 단계를 참고하여 기술한다.

5) 연습하기

초급 단계를 참고하여 기술한다.

6) 참고하기

초급 단계에서는 그다지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중급 단계에서부터는 어문 규범 능력의 체계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지식의 유기성’, ‘언어 자료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하여 자료를 선택, 제시하도록 한다.

7) 마무리

초급 단계에 비해,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점검할 수 있는 활동 비중을 늘려도 좋다.

8) 지식 설명 방법

문법 용어를 설명해야 할 경우, 초급처럼 낱개 부분을 별도로 두어 설명하여, 본문의 흐름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그러나 또한 낱개 부분에서 이전 교재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기술하는 부분도 포함하도록 한다. 이로써 지식을 더욱 유기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한다.

7.2.3. 교수 학습 방법: 예시 단원을 중심으로

7.2.3.1 중급 단계의 핵심 교수 학습 방법

중급 교재의 핵심 교수 학습 방법은, 어문 규범 능력의 실질적 향상을 위한 적절한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성인용 어문 규범 교재는 대상이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습 문제를 소략하게 구성하거나 심지어는 연습 문제를 아예 구성에 빼고는 했다. 그러나 어문 규범 능력은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연습 문제가 없는 규범 교재는 언어 능력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언어 능력의 향상은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도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복적인 수행 활동의 결과 암묵적 지식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만 지식이 수행 능력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비록 성인용 교재라 할지라도 학습자 스스로 반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습 문제를 포함한 것이다. 중급 단계에서는 ‘연습 문제에 집중하여 어문 규범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교수 학습 방법의 핵심이다.

주어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연습하는 전략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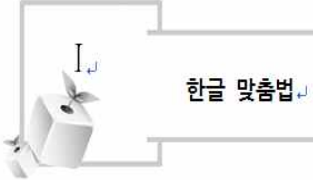
첫째, 지식과 실제적인 국어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관시킨다.

둘째, 학습 과제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셋째, 과제 해결을 위한 기본 절차와 방법을 정확히 파악한다.

넷째, 활용할 사전 지식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한다.

7.2.3.2. 중급 교재 예시 단원

	 한글 맞춤법 (1) '아단법책'은 '아단법칙'으로. (2) '해택'은 '해택'으로. (3) '태농'은 '태릉'으로. (4) '~지 말아라'는 '~지 마라/말라'로. (5) '깨끗하'는 '깨끗이'로. (6) '떡볶기'는 '떡볶이'로. (7) '숯가락'은 '숯가락'으로. (8) '띄다와' '피다'. (9) '오십시요'는 '오십시오'로. (10) '가수겸 배우'는 '가수 겸 배우'로. (11) '가던지'와 '가든자'.
▶소단원명 단원의 첫 부분에 학습할 내용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학습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문법 용어를 제시하지 않고, 쟁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언어 자료를 대비하여 소단원명을 기술한다.	

(1) '아단법칙'은 '아단법칙'으로

길잡이

- 한 단어 안에서 된소리로 발음될 때, 된소리로 적는 이유를 안다.
- 한 단어 안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데도 된소리로 적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안다.
-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된소리로 발음되는데도 된소리로 적지 않는 이유를 무엇인지 안다.



▶길잡이

이 단원에서 배울 학습 목표를 인식하고 학습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의 주안점

·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된소리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알고 이를 통해 우리말과 글을 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발음을 익힐 수 있다.

· <길잡이>이를 통해서 학습자는 한글 맞춤법 중에서 '된소리'를 배움을 알게 된다. '된소리'를 배우고 뒤에 '구개음화'와 '모음'을 배운다는 사실을 알고 학습 과정의 전체와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 된소리 되기(경음화)

파열음과 파찰음, 마찰음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우리 국어에서 자주 나타나는 음운 변동이지만 다양한 조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규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음절 말 자음 ‘ㄱ, ㄷ, ㅂ’ 뒤에서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로 바뀐다.

예) 국밥 → [국뽵], 달고→[달꼬], 입버릇→[입뻘름]

▶미리보기

학습할 내용을 삽화나 사진 등의 자료를 통해 암시적을 보여주며 궁금증을 갖게 한다.

▶학습 주안점

〈미리 보기〉 활동을 통해 하나의 형태를 된소리로 표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

▶끌어주기

한글맞춤법 제5항 된소리와 제54항에 따라 접미사는 일반적으로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따라서 ‘-배기/-빼기’가 혼동되는 단어 중에서 한 형태소 내부에 있어서 ‘ㄱ, ㄴ’ 받침 뒤에서 [배기]로 발음되는 경우인 ‘뚝배기’는 ‘배기’로 표기한다.

다른 형태소 뒤에서 [빼기]로 발음되는 것은 모두 ‘빼기’로 적는다.

(1) '배기'는 '배기'으로

미리 보기



▶ '굵배기'와 '뚝배기'가 올라.

3

▶ 보충 학습

‘-배기/-빼기’가 혼동될 수 있는 단어의 된소리 표기

조 건	표 기	단 어
[배기]로 발음되는 경우	배기	귀통배기, 육자배기, 주정배기
한 형태소 내부, ‘ㄱ, ㄴ’받침 뒤에서 [빼기]로 발음되는 경우	배기	뚝배기
다른 형태소 뒤에서 [빼기]로 발음	빼기	고들빼기, 굵빼기, 억척빼기

▶탐구하기

해당 항목과 관련된 언어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탐구하면서 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제시한다.

▶학습 주안점

〈탐구하기〉 활동을 통해 된소리 발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탐구 1, 2, 3의 활동을 통해서 확인한다.

▶끌어주기

〈탐구1〉은 된소리로 발음 되는 것을 그대로 표기에 반영하는 경우라면, 〈탐구2〉는 된소리로 발음되지만 이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이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를 〈탐구하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1. 한글 맞춤법



탐구하기

탐구 1

'야단법석'은 '야단법석'으로

김○○도 놀랄 '복한 김○○' 내레이션 '야단법석' ?



위 신문 표제에 나타난 '야단법석'은 '야단법석'이라고 해야
올다.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된다. 이에 덧붙여 앞말에 받침이 있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ㄴ, ㄹ, ㄷ,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 된소리로 적음
그 외의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 예사소리로 적음

'법석'의 경우 'ㄴ, ㄹ, ㄷ, ㅇ' 이외의 받침 다음에 발음되는
된소리이다. 따라서 예사소리인 'ㅅ'을 이용해서 '법석'으로 적어
야 한다.

한 단어 안에서 'ㄴ, ㄹ, ㄷ, ㅇ' 이외의 받침 뒤에서 나는 된
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예사소리로 적는다.

▶ 탐구1 도움말(거꾸로/ 거꾸로)

된소리로 나는 것 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즉 국어의 음운 규칙에 따르지 않고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은 원래의 형태가 아니라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거꾸로'로는 [거꾸로]로 발음이 되는데 [거꾸로]로 발음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꾸로'로 표기한다.

▶ 탐구2 도움말(깍두기/깍뚜기)

'ㄱ, ㄷ' 받침 뒤에서는 된소리가 나타나는 필연적인 환경이다. 따라서 된소리로 적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깍두기'는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된소리 [깍뚜기]로 발음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단어에는 '국수, 딱지, 법석, 갑자기, 몹시' 등이 있다.

▶끌어주기

〈탐구3〉 활동은 앞에서 배운 원리 1, 2, 3의 예외적인 규정을 확인하고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 된소리로 적게 된다.

I. 한글 맞춤법

탐구 3 '곰배기'는 '곰배기'로



‘곰배기’가 맞다. 앞의 설명에 따르면, ‘ㄱ’ 받침 뒤에서 발음 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어야 하므로 ‘곰배기’가 맞는 듯 보인다. 그러나 ‘곰배기’의 경우 틀 이상의 배수를 뜻하는 ‘곰’에 그런 특성이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뜻하는 접미사 ‘-배기’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이에 반하여 **뚝배기**는 ‘뚝-’과 ‘-배기’의 형태로 이루어진 말이 아니라, 그 자체가 단일어라는 형태적 차이가 있다. 곰배기의 ‘-배기’와 뚝배기의 ‘-배기’는 처음부터 다른 형태였기 때문에 비록 소리가 둘 다 [배기]로 난다고 할지라도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되어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된소리로 표기한다.

형태소
이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6

▶보충학습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는 받침이 ‘ㄱ, ㄴ’이라고 하더라도 된소리를 반영하여 표기한다. 예를 들어 ‘뚝뚝(-하다)’에서 ‘ㄱ’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지만 ‘뚝’이라는 같은 음절이 거듭나기 때문에 뒷글자도 첫소리와 같은 글자로 적는다.



연습하기

♣ 다음 단어들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한글 맞춤법 규정과 표준어 규정에 근거하여 설명해 보자.

1. 주민들은 {①몸씨, ②몸시} 피곤한 표정으로 뺨에서 내렸다.
이유:
2. 수업 시간에 반 친구들이 끼리끼리 {①속덕거렸다, ②속떡거렸다}.
이유:
3. 진수는 명바닥에 {①털썩, ②탈썩} 주저앉고 말았다.
이유:
4. 국밥에는 역시 {①작두기, ②작두기}가 최고야.
이유:
5. 학생들은 시험을 앞두고 {①잔뜩, ②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유:



도움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
울림소리인 받침 'ㄴ, ㄹ, ㅁ, ㅇ'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
'ㄱ, ㄷ,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ㄱ, ㄷ, ㅂ' 받침 뒤에서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

☞ 1. ②, 2. ①, 3. ②, 4. ①, 5. ②

▶연습하기

‘탐구하기’에서 익힌 내용을 확인하고, 새로운 쟁점을 주어 탐구할 수도 있다.

▶학습 주안점

〈연습하기〉에서는 〈탐구하기〉와 〈미리보기〉를 통해서 익힌 된소리 발음 표기법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끌어주기

먼저 각 문항에 대해 앞에서 배운 원리 4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야 한다. 환경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데 받침이 ‘ㄱ, ㄷ, ㅂ’인 경우에는 된소리를 표기법에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참고하기

중급 단계부터는 어문 규범 능력의 체계적 향상을 위해 ‘지식의 유기성’, ‘언어 자료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자료를 선택, 제시한다.

▶학습 주안점

〈참고하기〉에서는 어미 가운데 된소리 표기를 적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끌어주기

특별한 음운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 ‘ㄹ’ 받침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어미는 예사소리로 표기한다.



참고하기

‘내가 너를 지켜 줄게.’ / ‘내가 너를 지켜 줄게.’

다소 낯간지러울 수도 있지만, 이것은 노래 가사 중 일부이다. ‘내가 너를 지켜 줄게 / 줄게’라는 문장에서 ‘줄게’와 ‘줄게’ 중, 어느 것이 맞을까? ‘줄게’가 맞다.

‘줄게’는 최근 매신저 사용 용례 가운데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틀리는 대표적인 오용 사례이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어미 가운데 ‘ㄷ’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에 대해 된소리가 아닌 예사소리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ㄷ게’로 적어야 한다(제53항 참조). ‘-ㄷ게’를 포함하여 아래에 제시된 어미들은 된소리로 소리가 나서 ‘-ㄷ게’, ‘-ㄷ꺼나’, ‘-ㄷ떨’ 등처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에서 ‘ㄷ’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어미는 된소리가 아닌 예사소리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어미를 적을 때는 주의를 기울여 된소리로 적지 않도록 해야 한다.

-ㄷ꺼나, -ㄷ떨, -ㄷ세, -ㄷ제라, -ㄷ수룩, -ㄷ시, -ㄷ지, -ㄷ지나라,
-ㄷ지라도, -ㄷ지어다, -ㄷ지연정, -ㄷ진대, -ㄷ진저, -출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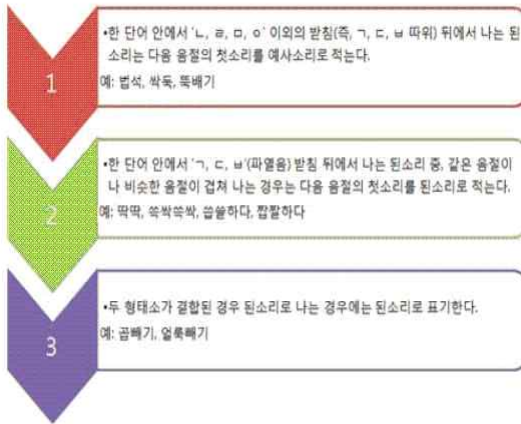
그러나 이와 똑같은 조건인데도 된소리로 적는 어미들이 있다.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는 소리 나는 대로 된소리로 적어야 한다. 그 예는 ‘-(으)ㄷ까?’, ‘-(으)ㄷ꼬?’, ‘-(스)ㄷ니까?’, ‘-(으)리까?’, ‘-(으)ㄷ쏘냐?’, ‘-(으)ㄷ까요?’, ‘-(으)ㄷ깝쇼?’ 등이 있다.

이 나무에 꽃이 피면 얼마나 예쁠까?
날씨가 왜 이리 추울꼬?
제가 날라 드릴까요?

(1) '명리'은 '명리'으로



마무리



※ 관련 규정: 한글 맞춤법 제5항

9

▶마무리

‘마무리’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필수적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마무리〉 이 단원에서는 된소리로 발음나는 것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에 대해 배웠다. 원칙적으로는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지만 받침 ‘ㄱ, ㅂ’과 ‘ㄴ’ 뒤의 어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발음과 표기법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고 바른 표기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 단원에서는 모음을 어떻게 발음하고 이를 표기할지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7.3. 고급 교재

7.3.1. 주요 내용

고급 교재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목차는 다음과 같다.

(7-3) 고급 교재의 목차

대단원	소단원	
한글 맞춤법	1	소리와 어법
	2	‘하늬바람’과 ‘하니바람’
	3	‘죄어야’의 준말은 ‘꽤야’
	4	‘공부를 하다’와 ‘공부하다’
	5	‘아래방’과 ‘아랫방’
	6	‘짧지 않은’과 ‘점잖은’
	7	‘생각대로’와 ‘생각한 대로’
	8	‘되어간다’와 ‘되어만 간다’
	9	‘남궁 민’과 ‘남궁민’
	10	‘한국 대학교’와 ‘한국대학교’
	11	‘-이’ 또는 ‘-히’로 끝나는 부사의 표기
	12	‘노름’과 ‘놀음’
표준어 규정	13	‘두루’ 쓰는 ‘현대’ 말
	14	‘수놈’과 ‘수캐’
	15	‘오얏’의 현대어는 ‘자두’
	16	‘개다리소반’과 ‘개다리밥상’
	17	표준어의 실제 발음
	18	‘난로’와 ‘횡단로’, 어떻게 발음하나?
	19	‘김밥’과 ‘비빔밥’의 발음 방법
	20	사이시옷은 소리를 내야 하나?
외래어 표기법	21	‘초콜렛’은 ‘초콜릿’으로 표기
	22	‘램프’에서 귀화한 ‘납포’
	23	‘시저’와 ‘카이사르’의 차이
	24	‘성룡’과 ‘청룡’의 차이
로마자 표기법	25	‘학여울’의 발음과 로마자 표기
	26	‘백마’와 ‘종로’의 로마자 표기
	27	‘매산로’와 ‘해운대’의 로마자 표기

고급 단계에서는 총 27개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글 맞춤법 12개 단원, 표준어 규정 8개 단원, 외래어 표기법 4개 단원, 로마자 표기법 3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급과 중급에서는 한글맞춤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비대했는데, 고급 단계에서는 어문 규범 능력을 완성해야 하는 단계이므로, 표준어 규정과 비중을 균형감 있게 조절하였다. 또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고급 단계 학습자들은 이제 표준발음법의 원리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표준발음법 내용 중 어려운 내용도 포함하였다.

7.3.2. 기술상의 유의점

1) 소단원명

초급 단계와 중급 단계에서는 학습할 내용과 원리의 쟁점을 핵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언어 자료 2개를 대비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소단원명을 기술하였다. 초급과 중급은 언어 자료를 하나 하나 점검하면서 어문 규범에 대한 지식을 익혀가야 하는 단계이므로 이와 같이 배려한 것이다. 그러나 고급 단계에서는 어문 규범 능력이 완성되어야 하는데, 이는 어문 규범에 대한 세세한 지식뿐만 아니라 핵심 원리에 대한 탐구 능력도 완성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원명 역시 어문 규범 내용에 대한 문법 용어를 그대로 노출하거나, 익혀야 하는 핵심 원리를 기술하도록 한다.

2) 학습 목표

고급 단계의 학습자이기는 하나, 학습 목표 설정 및 기술의 기본적인 취지에 맞도록, 초급 및 중급 단계에서 기술했던 원리에 따라 기술하도록 한다. 즉 해당 단원을 학습할 때 목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할 내용과 행동 양식을 여러 개 결합하지 않는다. 고급 단계의 학습자는 학습 목표만 보더라도 어떤 단계를 밟아 학습해야 하는지 절차를 판단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더욱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3) 길잡이

고급 단계의 학습자에게 길잡이 부분은 이전 단계의 학습자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고급 단계의 학습자는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어느 정도 배웠는지 학습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자습 능력이 더욱 향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더욱 명확히 기술하도록 한다.

4) 미리 보기

고급 단계의 학습자는 이전 단계의 학습자와는 달리, 삽화 및 사진자료 제시 학습할 내용을 좀 더 암시적으로 제시해도 좋을 것이다. 궁금증을 유발하여, 다음 ‘탐구하기’ 단계를 더욱 흥미 있게 접할 수 있도록 기술한다.

5) 탐구하기

고급 단계 학습자의 ‘탐구 활동’은 원리를 중심으로 더욱 명시적으로 구성하고, 다른 지식과의 관련성도 파악하도록 기술하며, 다른 언어 자료를 스스로 찾아보도록 기술한다.

6) 연습하기

이 부분은 초급이나 중급 단계와는 달리 단지 ‘연습 문제’에 머물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탐구 쟁점을 학습하도록 구성하여도 좋다.

7) 참고하기

고급 단계에서는 어문 규범 능력의 체계적 완성을 목표로 하여 비중 있게 다룬다. 중급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식의 유기성’, ‘언어 자료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하여 자료를 선택, 제시하도록 한다.

8) 마무리

중급 단계에 비해,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점검할 수 있는 활동 비중을 더욱 늘려 제시하여도 좋다.

9) 지식 설명 방법

문법 용어를 설명해야 할 경우, 초급과 중급과는 달리 자연스럽게 설명해도 좋다. 날개 부분에서는 이전 교재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기술하여, 지식을 더욱 유기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한다.

7.3.3. 교수 학습 방법: 예시 단원을 중심으로

7.3.3.1. 고급 단계의 핵심 교수 학습 방법

고급 단계에서는 탐구 활동이 핵심이 되어야 하며, 교수 학습 방법 역시 이 부분이 핵심이다. 교재의 ‘탐구하기’ 단계를 보면, 모든 단계에 공통적으로 문법 탐구의 본질에 부합하는 단계적 설명을 하도록 노력했으나, 특히 고급 단계에서는 ‘탐구 하기’ 단계를 정교화하는 데 유의했다.

기존 성인용 어문 규범 교재는 잘못 쓰는 사례를 제대로 고친 결과만을 간략히 제시하거나, 그 원리를 설명하더라도 매우 소략하게 설명하거나, 해당 사례를 설명하는 데에서 그쳤다.

그러나 본 교재는 ‘결과’만 제시하지 않았으며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활용 원리’를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해당 사례만 이해하도록 하지 않고 관련 사례 모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활동의 핵심 발문은 ‘탐구할 쟁점’, ‘학습자가 학습할 쟁점’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탐구 내용을 기술하고자 할 때, 충분히 구조화하여, 각 활동의 결론 부분에서 활동의 목표를 기술해 두어 학습자가 자료를 통해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왕성한 탐구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수 학습 방법이 필수적이다.

첫째, 국어 활동에 대한 자기 점검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

둘째, 규범 교육 내용 지식들이 학습 목표를 반드시 표상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 하도록 한다.

셋째, 관련되는 다른 지식/다른 어문 규정 항목과 관련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7.1.3.2. 고급 교재 예시 단위

	 표준어 규정 (13) '두루' 쓰는 '현대' 말 (14) '수눔'과 '수캐' (15) '오얏'의 현대어는 '자두' (16) '개다리소반'과 '개다리밥상' (17) 표준어의 실제 발음 (18) '난로'와 '횡단로', 어떻게 발음하나 (19) '김밥'과 '비빔밥'의 발음 방법 (20) 사이시옷은 소리를 내야 하나?
▶소단원명 어문 규범 능력을 완성하는 고급 단계에서는 어문 규범에 대한 세세한 지식뿐만 아니라 핵심 원리에 대한 탐구 능력의 완성도 필요하다. 따라서 단위명에서는 어문 규범 내용에 대한 문법 용어나 익혀야 하는 핵심 원리 드러낸다.	

(13) '두루' 쓰는 '현대' 말

간접어

- 국어 공동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표준어가 필요함을 알고 표준어를 바르게 쓸 수 있다.
- 표준어를 사정하는 원칙을 이해하고 바른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다.

▶길잡이

해당 단원을 학습할 때 목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길잡이를 한다. 길잡이만 보더라도 학습의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한다.

▶학습의 주안점

표준어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 기준이 되는 표준어 사정 원칙에 대해 배우는 단원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미리 보기

고급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보다 좀더 암시적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한다. 궁금증을 유발하여, '탐구하기' 단계에 대한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기술한다.

▶학습의 주안점

〈미리 보기〉에서는 방언의 사용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통해 표준어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학습의 주안점

서울 사람과 경상도 지역 사람 사이에서 쓰는 말의 차이로 의미를 혼란이 생겼다. 이런 이유 때문에 표준어가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미리 보기

서울 할머니가 경상도 시골로 이사를 했는데 근처에 사돈의 집이 있었다. 그래서 인사차 놀러갔는데 시골집이라 아주 좋았다.

서울 사돈: "집이 아담하네요."
경상도 사돈: "소잡아도 개잡아서 좋지요."
서울 사돈: "아유, 뭐 하러 소를 잡고 거기다 개까지 잡고 그러세요."
경상도 사돈: "예? 누가 소 잡고, 개를 잡았다고요?"
서울 사돈: "방금 사돈이 소 잡고 개 잡았다고 하시고선."
경상도 사돈: "아이고 어대예, 집이 소잡아도 길이 개잡다고 했는기라예."
서울 사돈: "뭐라고요? 집이 소를 잡고 길이 개를 잡아요?"

-내가 경상도에도 어렵데이. <http://cafe.daum.net/dmj20>에서

[참고]
소잡아도: '비좁아도', '술다'(공간이 좁다)와 '잡다'(잡다)가 합쳐진 '술잡다'에서 'ㅆ'이 탈락된 말.
개잡아서: '가잡다'의 경상 방언. '개작다', '개잡다', '가잡다' 등의 형태로도 쓰임.



▶탐구하기

‘탐구하기’는 원리를 중심으로 명시적으로 구성하고, 다른 지식과의 관련성도 파악하도록 기술하며, 다른 언어 자료를 스스로 찾아보도록 기술한다.

▶학습의 주안점

〈탐구하기〉에서는 표준어의 필요성, 표준어 선정의 원칙 등을 알아본다.

▶끌어주기

〈탐구 1〉 강원도 출신의 김유정의 소설 작품을 통해 ‘사투리’와 이에 대비되는 ‘표준어’의 위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표준어와 함께 문화 다양성 차원에서 각 지역의 방언의 가치도 소중히 여기고 있음도 놓쳐서는 안 된다.

II. 표준어 규정



탐구하기

탐구 1

다음 글을 읽고 표준어를 정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이런이 서울 말이지?’ 하네. 그는 서울사람을 좀 한 번 봐왔다고 큰 게를 하며 팔로 아내의 머리를 흔들며 묻어보았다. 성미가 워낙 경박한지라 지금부터 서울 끝 끝까지 파죽 하고 싶었다. 그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서울구석에서 자란 아내를 데리고 가면 서울사람에게 놀림도 받을 게고 거리가 먼 일이 많을 듯 싶었다. 그래서 서울 가던 죽지려야 할 필수 조건을 아내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 사투리에 대한 주의부터 시작되었다. 농민이 서울사람에게 ‘꼬라리’라는 별명으로 감당되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투리에 있을지니 사투리를 쓰지 말며 ‘말세’를 ‘학살나까로’, ‘학계유’를 ‘학으로’ 고치되 많은 줄지 말 것이라. 또 거리에서 어렸어졌하게 하는 것은 내가 시골뜨기요 하는 일된 것이니 곧 깊은 거제 가고 볼 수는 또렷또렷하게 볼 것이라. -하는 것뿐이었다. 아내는 그 꼼꼼한 설교를 들으며 ‘네, 네’하는 것이었다.

-김유정, ‘소낙비’에서

표준어를 정하는 이유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의 표준어 사정(査定) 원칙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표준어 사용은 기준이 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며, 이는 곧 표준어가 ‘중거(中核)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김유정의 ‘소낙비’에 나타나는 이 장면은 서울로 이사를 갈 꿈을 꾸는 남편이 아내에게 말 주의를 시키는 장면이다. 시골 사람이라고 약점을 잡히는 이유가 사투리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는 표준어가 사투리 또는 지역어에 갖는 상대적 우월성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아내에게 주의를 주는 말이 말투에 있음을 고려할 때 표준이 되는 말은 어휘뿐만 아니라 말소리나 어법 모두가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보충자료 - 방언과 사투리

‘방언’은 흔히 사용되는 말이지만, 이 말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주된 원인은 오해와 편견이라고 생각된다. ‘방언’에 대한 오해의 예로서, ‘방언’을 ‘사투리’와 동일시하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방언’을 “표준말과 달리, 그 지방에서만 사용되는 말”인 ‘사투리’로 오해하는 것이다. ‘방언’은 ‘표준말’과 구별되는 말인 ‘사투리’뿐만 아니라, ‘표준말’과 동일한 말도 모두 포괄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경상도 방언’이라고 할 때, 그것은 토박이 경상도 사람이 사용하는 말 전체를 뜻한다. 그래서 토박이 경상도 사람이 “가아 가서 아아 조오라(가져 가서 아이에게 주어라)”나 “예수는 다리가 네 개다(여우는 다리가 네 개다)”나 “이 사람이 손발이 크다”고 말한다면, 그 말 모두가 ‘경상도 방언’이 되는 것이다.

-〈최명옥(2007), 방언 이야기,국립국어원〉중에서 발췌

탐구 2

다음 대화를 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아들이 사진기로 자신의 모습을 찍고 있다.

엄마: 뭐하니?

아들: 잘방으로 쓰려고 사진 찍어.

엄마: 뭐? 무슨 방?

'잘방'은 '잘림 방'의 줄임말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게시판에 글만을 올렸을 때 운영자에게 삭제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용과 상관 없는 사진을 올리는 것을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화에서 십대인 아들이 사용하는 이 말을 엄마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통신 공간에서 쓰는 말 가운데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말들은 읽는 이들의 흥미를 끌거나 사용하는 집단의 결속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인터넷에서 만들어 개인 또는 일부 집단만이 사용하는 언어는 사회 전체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국어의 규범을 정하고 표준어를 사정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원활한 의사소통이다. 인터넷에서 만들어 사용되는 언어와 같이 일부 집단의 언어가 표준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언어 공동체 구성원이 이들을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끌어주기

〈탐구 2〉는 최근에 인터넷 공간에서 쓰이고 있는 언어 파괴 현상에 대한 생각이다.

언어는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세종대왕 시절의 말과 오늘날의 말이 똑같지 않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변화는 어떤 한 개인이나 집단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이에서 이해될 수 있을 때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를 '사회적 약속'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나 언어 변화를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다. 새말(신어)이 등장하고 인터넷 용어도 널리 쓰여 사회에서 인정받게 된다면 표준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연습하기

1. 다음 밑줄 친 말을 바르게 고쳐 보자.

- ① 조의금과 축의금을 합쳐 보조금이라고 한다.
- ② 과제물을 낼 때 자질기를 하지 마십시오.
- ③ 우리 아이가 한 푼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 ④ 첫째도 안전, 두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2. 다음 단어의 뜻을 구분하여 보자.

- ① 운영(運營): 운용(運用)
- ② 보존(保存): 보전(保全)
- ③ 개발(開發): 계발(啓發)



도움말

1㉠ '부교(副校)'는 한자에 관한 어원적 특징이 남아 있는 단어로서, '부주'라고 쓰면 비표준어가 된다. 1㉡ '일'을 '일', '기쁨'을 '기쁨'이라 하면 '자질기'를 '자질기'라고 하는 것은 '기구(器用)'와 '활상인제', '기구(器用)'와 '활상'이 한자어 단어는 비표준어이다. '자질기'는 '자다'와 '질다'가 합쳐진 말이다. 1㉢ '억'이 아이가 태어나는 날로부터 한 해가 되는 날' 또는 '생일이 돌아온 첫날'을 가리키는 단위의 뜻으로는 표준어를 '돌'이 아니라 '돌'로 개칭한다. 1㉣ 열 이상의 서수사가 아닌 경우는 '둘째'로 쓴다. 열 단위 이하의 경우엔 서수사, 양수사의 구분 없이 '제1'과 '두 번째'의 뜻일 때 모두 '둘째'로 쓰는 데 비해, 열 단위 이상의 경우엔 서수사로 '제1', '제2'의 뜻으로 '첫째', '스물두'로 쓰고, 양수사로 '열두 번째', '스물두 번째'의 뜻으로는 '열둘째', '스물둘째'로 쓴다.

■ 1㉠ 부주교 → 부교장 1㉡ 자질기 → 자질기 1㉢ 일 → 돌 1㉣ 두에 → 둘
 2㉠ '운영(運營)'은 조직이나 기구 등의 운영을 관리하면서 총괄적 강을 뜻하며, '운용(運用)'은 기구, 방법, 통령 등을 사용함을 의미한다. 2㉡ '보존(保存)'은 그냥 차두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을 지킨 채 쓰이며, '보전(保全)'은 특종의 상태를 지켜 말로 같은 상태에 있게 하도록 힘을 나뉘어 써 쓰인다. 2㉢ '개발(開發)'은 지금의 상태보다 나은 상태로 개연적 강을 의미하며, '계발(啓發)'은 순기나 재능 등과 같이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휘할 줄 써 쓰인다.

▶연습하기

‘탐구하기’에서 활동한 사항을 점검하고, 또다른 탐구 쟁점을 ‘연습하기’로 제공할 수 있다.

▶학습의 주안점

〈연습하기〉에서는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휘들을 통해 정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표준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참고하기

‘지식의 유기성’, ‘언어 자료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해당 단원에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여 제시한다.

▶학습의 주안점

〈참고하기〉에서는 표준어 사정의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인 시간적 의미를 확인한다.

▶끌어주기

조선어 학회가 1933년 발표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로 규정한 것 중에서 ‘현재’를 ‘현대’로 수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의 변경으로 특별한 영향은 준 것은 없지만 이를 통해 역사의 흐름에서의 구획을 인식하게 했다.

(18) '무주' 쓰는 '현대' 앞

참고하기

현대 국어

표준어 사정 원칙에 나타나는 ‘현대 국어’는 일반적으로 갑오개혁(1894년) 이후의 국어를 의미한다. 국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삼국 시대부터 통일 신라 시대까지의 국어를 고대 국어로 설정하며, 국어의 중심지가 경주에서 개령(개성)으로 옮겨간 고려 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의 국어를 중세 국어로 설정한다. 또한 16세기 말이나 17세기에 이르러서 국어의 음운과 문법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시기로부터 갑오개혁까지의 국어를 근대 국어로 설정하며, 갑오개혁 이후의 국어를 현대 국어로 설정한다.

표준어 가운데 생소한 것처럼 보이는 말이 들어 있는데 지금은 잘 안 쓰이다라도 갑오개혁 이후에 쓰였던 말일 경우 현대 국어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 ‘현대’의 범위에 이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현대 국어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현대 국어일지라도 갑오개혁보다 앞세 강령기 이전, 앞세 강령기, 광복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의 국어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언어 변화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같은 현대 국어일지라도 생소한 보이는 말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국어가 갑오개혁 이후의 국어를 의미하는 것도 고정불변이 아니다. ‘현대’는 역사의 흐름에서 한 구획이므로, 시간이 흐르면서 그 구획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언어 현상이 현재와 같다고 생각되는 때부터 지금까지의 국어를 현대 국어로 삼는다면, 앞으로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발표된 해, 1945년 광복이 된 해, 1950년 6·25가 일어난 해, 2001년 21세기가 시작된 해 등이 현대 국어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106

▶보충자료 - 표준어의 시대적 기준

표준어 사정의 시대적 기준으로서 ‘현대’이든 ‘현재’이든 그 시대적 범위가 어느 시점이나 시간대를 말하는지 문제가 되어 왔다. <통일안>의 ‘현재’나 <규정>의 ‘현대’는 20세기를 말하는 정도로 받아들여 왔지만, 21세기가 된 현 시점에서는 그러한 기준은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대’의 개념을 흔히 20세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왔지만, 21세기가 된 현 시점에서 이르러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현대’로 보아야 할 것인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대’가 표준어 사정의 시대적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대’라는 개념을 절대적인 시간대로 간주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라는 표준어 사정의 기준은 표준어를 사정하는 시기에서 판단하는 ‘현대’로 해석하여, ‘현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 절대적인 시간대가 아니라 표준어 사정의 시기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된다.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표준어 사정 작업은 1988년의 작업으로 완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표준어 사정 작업도 앞으로 또 언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 시점에서 표준어 사정 기준으로서의 현대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마무리

1	표준어는 한 나라에서 규범으로 쓰이는 언어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제정한 말이다. 국어의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2	표준어 선정 원칙에 나타난 '교양 있는'이라는 말은 표준어가 갖고 있는 '교육의 기능'을 전제로 한 것이다. 여기에서 '교양 있는'이라는 말은 충분한 수준의 교육을 받았거나 다양한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두루 쓰는'이라는 말은 '연령성별의 구분 없이 골고루 쓰는'이라는 뜻을 갖는다.
3	표준어 선정 원칙에 나타난 '현대'라는 말의 뜻은 '강요개혁 이후의 현대 국어'를 의미하며, '서울말'은 '지리적인 기준'을 의미한다.

▶마무리

학습자가 스스로 해당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마무리〉 이 단원에서는 표준어에 대해서 배웠다. 표준어가 선정의 기준은 무엇이고, 표준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 표준어 의미와 역할을 잘 알 수 있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다음 단원에서는 단어의 첫머리에서 나는 소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는 두음법칙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부록

1. 어문 규범

등재 어휘 목록 I (2,056개)

한글 맞춤법	표준어 사정 원칙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번호	어휘	어휘 평정	김광해 (2003)
1	소쩍새	1.71	4
2	어깨	1.21	1
3	오빠	1.21	1
4	으뜸	1.07	3
5	아끼다	1.00	2
6	기쁘다	1.00	1
7	깨끗하다	1.00	1
8	어떠하다	1.21	1
9	해쓱하다	2.43	4
10	가끔	1.07	1
11	거꾸로	1.07	2
12	부쩍	1.36	3
13	어찌	1.07	1
14	이따금	1.29	2
15	산뜻하다	1.64	2
16	잔뜩	1.00	2
17	살짝	1.00	3
18	훔씬	1.00	1
19	담백	2.14	4
20	국수	1.00	2
21	깍두기	1.21	2
22	딱지	1.07	2
23	색시	1.43	2
24	쌉둑	1.64	4
25	법석	2.07	4
26	갑자기	1.07	1
27	몹시	1.00	
28	만이	1.29	3
29	해돋이	1.29	3
30	굳이	1.07	3
31	같이	1.00	1
32	활이다	2.57	
33	걸히다	1.71	3
34	달히다	1.14	
35	묻히다	1.36	3
36	뒹저고리	2.07	4
37	뒹자리	1.29	2
38	엇셈	2.57	
39	웃어른	1.29	3
40	햇웃	2.64	4

41	무릇	1.64	4
42	사뭇	1.71	4
43	얼핏	1.36	
44	계수	2.57	
45	사례	1.86	4
46	연메	3.25	
47	폐품	1.57	3
48	혜택	1.36	3
49	계집	1.57	4
50	핑계	1.43	2
51	계시다	1.21	1
52	계송	3.14	
53	계시판	1.21	3
54	휴게실	1.43	3
55	의의	1.50	2
56	본의	1.71	
57	무늬	1.29	2
58	보늬	3.29	
59	오늬	3.14	
60	하늬바람	2.07	4
61	닐리리	2.36	
62	닝큼	2.57	
63	띄어쓰기	1.21	2
64	희망	1.14	1
65	희다	1.07	1
66	씩다	1.57	
67	틱다	1.71	
68	유희	1.79	4
69	여자	1.21	1
70	연세	1.21	2
71	요소	1.36	3
72	유대	1.64	4
73	이토	2.93	
74	익명	1.57	
75	냥	2.07	2
76	냥쫑	3.00	
77	년	1.71	1
78	남녀	1.57	2
79	당뇨	1.86	
80	결뉴	3.07	
81	은닉	2.21	
82	신여성	2.00	
83	공염불	2.50	
84	남존여비	1.93	
85	양심	1.36	3
86	역사	1.14	1
87	예의	1.14	2
88	용궁	1.14	2
89	유행	1.07	2

90	이발	1.07	3
91	리	2.07	1
92	개량	1.71	3
93	선량	1.86	4
94	수력	1.43	3
95	협력	1.36	2
96	사례	1.71	4
97	혼례	1.50	3
98	쌍룡	2.07	3
99	하류	1.36	3
100	급류	1.64	4
101	도리	1.57	3
102	진리	1.36	2
103	나열	1.36	
104	치열	1.79	4
105	비열	1.86	
106	규율	1.71	4
107	비율	1.43	3
108	실패율	2.00	
109	분열	1.71	3
110	선열	2.57	3
111	진열	1.64	4
112	선율	1.64	3
113	전율	1.79	
114	백분율	2.00	3
115	역이용	2.07	
116	연이율	2.21	3
117	국련	2.71	
118	열역학	2.57	
119	해외여행	1.14	4
120	낙원	1.36	2
121	내일	1.00	1
122	노인	1.00	1
123	뇌성	2.21	4
124	누각	2.00	3
125	능묘	2.50	3
126	쾌락	1.64	4
127	극락	2.00	4
128	거래	1.21	2
129	왕래	1.36	2
130	부로	3.07	4
131	연로	2.21	
132	지뢰	1.64	
133	낙뢰	1.93	
134	고루	1.93	3
135	가정란	2.43	
136	광한루	1.79	
137	동구릉	2.29	
138	내내월	2.79	
139	상노인	2.14	
140	중노동	1.86	3

141	비논리적	1.79	
142	딱딱	1.00	
143	쌩쌩	1.21	
144	씩씩	1.00	3
145	똑딱똑딱	1.14	4
146	쓱쓱쓱쓱	1.14	
147	누누이	1.43	4
148	꽃꽃하다	1.57	
149	놀놀하다	2.79	
150	눅눅하다	1.57	4
151	밋밋하다	1.21	3
152	쌉쌉하다	1.29	3
153	쌍쌍하다	1.79	4
154	쌔쌔하다	1.71	4
155	짹짹하다	1.29	3
156	떡	1.00	1
157	손	1.21	1
158	팔	1.21	1
159	밤	1.00	1
160	집	1.00	1
161	옷	1.00	1
162	꽃	1.00	1
163	발	1.00	1
164	밖	1.00	1
165	넋	1.57	2
166	흙	1.14	1
167	삶	1.36	1
168	여덟	1.36	1
169	곶	2.57	
170	값	1.21	1
171	앞	1.00	1
172	콩	1.00	1
173	낮	1.00	1
174	이	1.07	
175	을	1.07	
176	에	1.07	
177	도	1.07	2
178	만	1.07	1
179	먹다	1.00	1
180	신다	1.00	1
181	민다	1.07	1
182	울다	1.07	1
183	넘다	1.00	1
184	입다	1.00	1
185	웃다	1.07	1
186	찾다	1.00	1
187	쫓다	1.43	2
188	갈다	1.00	1
189	높다	1.00	1
190	좋다	1.00	1
191	깎다	1.29	1

192	앉다	1.14	1
193	많다	1.00	1
194	늡다	1.43	1
195	젊다	1.29	1
196	넓다	1.29	1
197	훔다	1.93	3
198	웁다	2.00	2
199	웁다	1.36	1
200	없다	1.14	1
201	있다	1.00	1
202	넘어지다	1.07	2
203	늘어나다	1.14	2
204	늘어지다	1.14	3
205	돌아가다	1.07	1
206	되짚어가다	1.57	
207	들어가다	1.14	1
208	떨어지다	1.07	1
209	벌어지다	1.14	2
210	엮어지다	1.21	2
211	접어들다	1.21	
212	틀어지다	1.36	4
213	흘어지다	1.21	
214	드러나다	1.50	2
215	사라지다	1.14	
216	쓰러지다	1.14	2
217	막다	1.00	1
218	얹다	1.43	2
219	돌다	1.00	1
220	보다	1.00	1
221	개다	1.50	2
222	겪다	1.50	
223	되다	1.00	1
224	베다	1.14	1
225	쉬다	1.00	1
226	젖다	1.36	2
227	주다	1.00	1
228	피다	1.00	1
229	희다	1.00	1
230	읽다	1.07	1
231	참다	1.07	1
232	종다	1.07	1
233	갈다	1.14	2
234	놀다	1.00	1
235	불다	1.07	
236	둥글다	1.00	1
237	어질다	1.43	3
238	마지못하다	1.93	4
239	긋다	1.14	1
240	낫다	1.21	1
241	잇다	1.29	1
242	짓다	1.14	1

243	그렇다	1.14	1
244	까망다	1.43	1
245	둥그랗다	1.29	2
246	퍼렇다	1.50	2
247	하얗다	1.21	1
248	푸다	1.43	1
249	끄다	1.29	1
250	담그다	1.21	2
251	따르다	1.29	3
252	뜨다	1.14	1
253	크다	1.14	1
254	고프다	1.21	1
255	바쁘다	1.14	1
256	걷다	1.21	1
257	듣다	1.36	1
258	묻다	1.36	1
259	신다	1.36	1
260	깎다	1.93	2
261	굽다	1.57	2
262	가깝다	1.21	1
263	괴롭다	1.43	1
264	맵다	1.21	1
265	무겁다	1.21	1
266	밉다	1.21	1
267	쉽다	1.29	1
268	돕다	1.43	1
269	굽다	1.50	1
270	하다	1.43	1
271	이르다	1.57	1
272	노르다	2.07	
273	누르다	1.93	1
274	푸르다	1.50	1
275	가르다	1.79	2
276	거르다	1.86	3
277	구르다	1.57	1
278	벼르다	2.29	4
279	길이	1.07	1(명사)
280	깊이	1.21	1
281	높이	1.21	1
282	다듬이	1.57	
283	땀받이	2.00	3
284	달맞이	1.36	2
285	먹이	1.07	1
286	미닫이	1.71	3
287	별이	1.43	4
288	벼훅이	2.50	
289	살림살이	1.21	3
290	쇠불이	1.36	3
291	걸음	1.00	1
292	뭍음	1.14	
293	믿음	1.07	3

294	얼음	1.14	1
295	엮음	1.21	
296	울음	1.00	1
297	웃음	1.00	1
298	줄음	1.00	1
299	죽음	1.00	1
300	앓	1.29	4
301	같이	1.07	1
302	굳이	1.07	3
303	길이	1.21	4(부사)
304	높이	1.21	1
305	많이	1.14	1
306	실없이	1.64	4
307	좋이	2.07	4
308	짓궂이	2.07	
309	밝히	1.79	
310	익히	1.64	
311	작히	2.21	
312	굽도리	2.64	
313	다리	1.50	1
314	목거리	2.21	
315	무녀리	2.93	
316	코끼리	1.07	2
317	거름	1.29	2
318	고름	1.36	1
319	노름	1.64	
320	귀머거리	1.43	3
321	까마귀	1.14	2
322	너머	1.14	2
323	뜨더귀	3.21	
324	마감	1.50	3
325	마개	1.29	2
326	마중	1.29	2
327	무덤	1.21	2
328	비렁뱅이	2.15	
329	쓰레기	1.14	1
330	올가미	1.50	4
331	주검	2.86	
332	거뭇거뭇	1.93	4
333	너무	1.07	1
334	도로	1.14	1
335	뜨덤뜨덤	2.57	
336	바투	2.71	4
337	불긋불긋	1.29	3
338	비로소	1.57	1
339	오긋오긋	2.64	
340	자주	1.07	1
341	차마	1.21	2
342	곳곳이	1.36	
343	날날이	1.43	4
344	뭉뭉이	1.93	

345	살살이	1.71	3
346	앞앞이	1.79	
347	집집이	1.50	4
348	곰배팔이	2.64	
349	바둑이	1.21	2
350	삼발이	1.71	3
351	애꾸눈이	1.64	4
352	육손이	2.14	
353	절뚝발이	1.71	
354	절름발이	1.57	3
355	꼬락서니	1.79	
356	끄트머리	1.57	4
357	모가지	1.86	2
358	바가지	1.29	1
359	바깥	1.21	2
360	사타구니	2.00	4
361	싸라기	2.07	3
362	이파리	1.71	4
363	지붕	1.07	1
364	지푸라기	1.29	3
365	짜개	2.21	
366	값지다	1.43	3
367	넋두리	2.00	4
368	빛깔	1.29	2
369	옆댕이	2.43	
370	앞사귀	1.21	3
371	낚시	1.14	2
372	늪정이	2.57	
373	뒹개	1.43	3
374	뜯게질	2.57	
375	갑작갑작하다	2.71	4
376	갑작거리다	2.71	
377	뜯적거리다	2.79	
378	뜯적뜯적하다	2.79	
379	굶다랑다	1.86	4
380	굶직하다	1.64	4
381	깊숙하다	1.36	2
382	넓적하다	1.64	3
383	높다랑다	1.57	2
384	늪수그레하다	2.43	
385	엄죽엄죽하다	2.93	
386	할짝거리다	2.50	
387	넌따랑다	2.14	3
388	넌찍하다	2.00	2
389	말끔하다	1.57	
390	말쑥하다	1.64	4
391	말짱하다	1.57	4
392	실쫘하다	2.36	
393	실끔하다	2.93	
394	알따랑다	2.36	4
395	알팍하다	1.86	2

396	짚따랗다	2.14	
397	짚막하다	1.86	2
398	실컷	1.29	2
399	넙치	1.57	2
400	올무	1.86	4
401	골막하다	2.71	
402	납작하다	1.57	3
403	말기다	1.36	2
404	웁기다	1.29	1
405	웃기다	1.14	3
406	쫓기다	1.36	4
407	뿔리다	1.36	3
408	울리다	1.14	1
409	낙이다	1.36	3
410	쌍이다	1.21	
411	활이다	2.36	
412	굳히다	1.71	3
413	굽히다	1.57	2
414	넓히다	1.79	2
415	앉히다	1.71	3
416	엹히다	2.00	3
417	잡히다	1.29	1
418	돌구다	1.93	
419	숫구다	1.79	4
420	돌우다	2.00	3
421	갓추다	1.36	2
422	곧추다	2.14	4
423	맞추다	1.36	2
424	일으키다	1.29	
425	돌이키다	1.43	
426	없애다	1.50	2
427	도리다	1.93	
428	드리다	1.14	1
429	고치다	1.14	1
430	바치다	1.29	2
431	부치다	1.86	2
432	거두다	1.21	2
433	미루다	1.21	1
434	이루다	1.21	1
435	놓치다	1.21	2
436	덮치다	1.36	3
437	떠받치다	1.50	3
438	받치다	1.50	3
439	받치다	2.29	
440	부딪치다	1.79	2
441	뺨치다	1.79	2
442	엮치다	1.86	4
443	부딪뜨리다	2.50	
444	부딪트리다	2.50	
445	쏟뜨리다	2.36	
446	쏟트리다	2.36	

447	젓뜨리다	2.43	
448	젓트리다	2.43	
449	찢뜨리다	2.36	
450	찢트리다	2.36	
451	홀뜨리다	2.36	
452	홀트리다	2.21	
453	미덥다	1.93	4
454	우습다	1.21	2
455	미쁘다	2.14	
456	갈쭈이	2.07	
457	꿀꿀이	1.29	
458	눈깜짝이	1.57	
459	더떨이	2.64	
460	배불뚝이	1.64	
461	빼죽이	1.57	
462	살살이	1.57	
463	쌩쌩이	1.64	
464	오뚝이	1.50	4
465	코납작이	1.79	
466	푸석이	1.86	
467	홀쭈이	1.36	4
468	깜짝이다	1.21	
469	꾸벅이다	1.29	
470	끄덕이다	1.07	
471	뒤척이다	1.36	
472	들먹이다	1.57	
473	망설이다	1.21	
474	번득이다	1.36	
475	번쩍이다	1.21	
476	속삭이다	1.14	
477	속덕이다	1.64	
478	울먹이다	1.43	3
479	움직이다	1.07	1
480	지껄이다	1.36	2
481	퍼덕이다	1.36	
482	허덕이다	1.29	
483	헐떡이다	1.43	
484	급히	1.14	
485	꾸준히	1.29	
486	도저히	1.43	2
487	딱히	1.50	4
488	어렵풋이	1.43	
489	깨끗이	1.43	
490	갑자기	1.07	1
491	반드시	1.29	1
492	슬며시	1.36	3
493	가까이	1.07	2
494	가랑니	2.21	
495	가름	1.93	4
496	가만히	1.43	2
497	가בות	2.36	

498	가아	2.50	1
499	가윗일	2.50	
500	가지어	1.43	1
501	가하다	1.64	3
502	각별히	1.79	
503	간니	2.50	4
504	간다	1.21	1
505	간소히	1.79	4
506	간편하게	1.43	3
507	간편히	1.36	4
508	갈음	2.14	
509	값없다	2.07	4
510	개	1.57	1
511	개어	1.71	2
512	객쩍다	2.64	
513	거기	1.00	1
514	거름	1.36	2
515	거북하다	1.43	
516	거치다	1.36	2
517	걸잡다	1.86	4
518	걸히다	1.79	1
519	걸음	1.14	1
520	것	1.29	1
521	걸늘다	2.14	
522	걸잡다	2.14	
523	견디어	1.21	1
524	결단코	1.43	4
525	결코	1.14	1
526	검	2.00	3
527	검연쩍다	2.00	4
528	겹겹이	1.50	4
529	젓날	2.21	
530	고랫재	2.92	
531	고요히	1.50	
532	고이	1.21	3
533	곤란	1.36	2
534	골병	1.50	4
535	골탕	1.50	
536	곰곰이	1.36	3
537	곳간	1.57	2
538	공평히	1.43	3
539	과	1.00	
540	과감히	1.43	4
541	괴어	1.71	
542	국말이	1.86	4
543	굶주리다	1.50	3
544	귀때기	1.79	
545	귓밥	1.64	3
546	귓병	1.43	3
547	그것	1.00	1
548	그곳	1.00	4

549	그때	1.00	1
550	그렇다	1.07	1
551	극히	1.29	
552	급급히	1.86	4
553	급히	1.21	
554	기필코	1.29	4
555	깨끗이	1.07	
556	깨끗하다	1.07	1
557	갯목	2.00	3
558	갯잎	1.21	3
559	꺾꽂이	2.14	3
560	꼬아	1.57	2
561	꼼꼼히	1.71	4
562	꽃	1.00	1
563	꽃잎	1.00	2
564	꿀탕	2.50	
565	꿀장	1.86	
566	나	1.21	1
567	나룻배	1.64	3
568	나른히	1.57	
569	나뭇가지	1.07	2
570	나뭇잎	1.07	1
571	나뭇이	2.29	
572	나아	1.64	1
573	날카로이	1.43	
574	남궁억	2.43	
575	낫잡다	2.00	
576	내어	1.36	1
577	내지	2.00	3
578	낸다	1.43	1
579	넷가	1.36	2
580	넷물	1.29	2
581	너	1.21	1
582	넉넉하다	1.21	2
583	년	1.33	1
584	노름	1.57	
585	논란	1.71	
586	놀음	1.57	
587	누이어	1.93	4
588	뉘다	1.93	3
589	느긋이	1.50	
590	느리다	1.00	1
591	는	1.07	
592	는	1.54	
593	늘리다	1.50	2
594	늘이다	1.71	3
595	능히	1.50	
596	다니어	1.21	1
597	다달이	1.50	4
598	다리다	1.50	1
599	다정하다	1.21	2

600	다치다	1.36	1
601	달치다	1.86	
602	달히다	1.79	2
603	달이다	1.71	2
604	답답히	1.86	
605	당당히	1.57	
606	대	1.21	2
607	대	1.86	2
608	대가지	1.93	
609	대대	1.57	3
610	대로	1.57	1
611	대수로이	1.71	
612	덥싸리	2.57	
613	댓잎	2.14	
614	더욱이	1.50	2
615	더하여	1.14	2
616	덧니	1.57	4
617	도	1.00	
618	도리갯열	3.07	
619	도저히	1.43	2
620	돈	1.00	1
621	동	1.14	1
622	되어	1.21	1
623	두렛일	2.50	
624	두어	1.43	4
625	둥긋이	2.21	
626	뒷갈망	2.64	
627	뒷머리	1.71	3
628	뒷웃	2.43	
629	뒷일	2.07	4
630	뒷입맛	2.36	
631	드린다	1.21	1
632	듯하다	1.43	1
633	등	1.00	1
634	등등	1.14	
635	등속	2.14	
636	등지	1.93	2
637	따님	1.29	2
638	따뜻이	1.21	3
639	딱하다	1.36	2
640	딱히	1.29	4
641	때갈	1.86	
642	띄다	1.50	2
643	를	1.07	
644	마되	2.43	
645	마리	1.07	1
646	마소	1.50	3
647	마저	1.36	
648	마치다	1.14	2
649	막히어	1.36	1
650	만난	1.64	

651	만만찮다	2.00	
652	만성	1.93	
653	만큼	1.21	1
654	만하다	1.43	2
655	많이	1.07	1
656	맞먹다	1.79	4
657	맞추다	1.57	2
658	맞히다	1.71	3
659	맷돌	1.71	2
660	머리카락	1.07	2
661	머릿기름	2.00	4
662	머릿니	2.21	
663	머릿방	2.14	
664	멤쌀	2.29	
665	멧나물	2.43	
666	며칠	1.36	1
667	모과	1.57	3
668	모깃불	2.07	4
669	목거리	2.14	
670	목걸이	1.29	2
671	목재	1.50	3
672	못자리	1.86	3
673	무단히	1.71	4
674	무심코	1.29	2
675	무엇	1.07	1
676	무자위	2.64	
677	물난리	1.43	3
678	미터	1.07	2
679	밋	1.21	1
680	밧천	1.43	3
681	바	1.36	2
682	바느질	1.14	2
683	바닷가	1.07	2
684	바치다	1.21	2
685	박사	1.29	2
686	밖에	1.36	
687	반드시	1.21	1
688	반듯이	1.50	
689	반듯이	1.79	
690	반질고리	1.93	
691	발내다	2.29	
692	발치다	1.57	3
693	백혈병	1.58	4
694	뱃길	1.43	3
695	뱃병	2.21	
696	버렸다	1.14	1
697	버젓이	1.64	4
698	버티어	1.43	2
699	번거로이	1.57	4
700	벌놓다	2.50	
701	벌	1.00	1

702	법하다	1.79	4
703	베갯잇	2.36	
704	베어	1.36	1
705	변변찮다	1.93	4
706	범씨	1.71	3
707	벗가리	2.00	
708	보아	1.29	1
709	보이어	1.50	1
710	볼때기	1.71	
711	봇득	2.43	
712	뵈다	1.43	4
713	뵈어	1.64	4
714	부나비	2.07	
715	부딪치다	1.86	2
716	부딪히다	1.86	2
717	부삽	2.00	2
718	부손	2.21	
719	부싯돌	1.79	4
720	부엌일	1.36	2
721	부질없다	1.86	4
722	부치다	1.64	2
723	분	1.07	1
724	분노	1.29	3
725	분명히	1.29	
726	불이다	1.36	1
727	빈번이	1.57	4
728	빗나가다	1.43	2
729	빗물	1.00	2
730	빗갈	1.07	2
731	빗나다	1.07	2
732	뺨치다	1.64	2
733	사랑니	1.43	4
734	사범대학	1.58	3
735	사삿일	2.64	
736	사잣밥	2.71	
737	사흘날	2.07	4
738	산뜻이	1.57	4
739	살	1.00	1
740	살코기	1.43	4
741	삼진날	2.29	4
742	상당히	1.29	3
743	상없다	2.29	
744	새파랑다	1.43	2
745	샛강	1.93	
746	샛노랑다	1.71	3
747	생각하다	1.00	1
748	생긋이	1.57	
749	서어	1.86	1
750	선생	1.07	1
751	선짓국	2.00	4
752	섣달	1.93	3

753	섣부르다	1.71	4
754	섭섭하다	1.43	2
755	섭섭히	1.86	
756	성갈	1.50	4
757	성싶다	1.93	4
758	세어	1.43	1
759	셋방	1.71	4
760	소나무	1.07	1
761	소홀히	1.57	3
762	솔직히	1.36	3
763	속히	1.36	3
764	손	1.00	1
765	송곳니	1.57	3
766	쇠어	2.07	4
767	씻조각	1.64	
768	수	1.00	1
769	수락	1.86	
770	수캐	1.93	
771	수컷	1.86	2
772	수탉	1.86	3
773	순가락	1.29	1
774	숫자	1.07	2
775	술하다	2.00	3
776	승낙	1.64	3
777	시꺼멓다	1.43	2
778	시름없다	2.07	
779	시방정토	3.00	
780	시왕	2.93	
781	시월	1.50	
782	시키다	1.21	1
783	식히다	1.50	2
784	싫증	1.57	3
785	심부름꾼	1.07	3
786	심히	1.43	4
787	십일	1.50	
788	싯누렁다	1.86	2
789	싸이어	1.64	
790	싸전	2.21	4
791	쏘아	1.29	1
792	쏘이어	1.43	3
793	썩어	1.79	2
794	쭈어	1.64	2
795	쓸쓸히	1.43	
796	씩다	2.00	
797	씨	1.00	1
798	아랫니	1.50	4
799	아랫마을	1.57	
800	아랫방	1.79	4
801	아랫집	1.57	3
802	아름	1.57	2
803	아무렁다	1.57	1

804	아무튼	1.71	2
805	아재비	2.43	
806	안녕	1.00	1
807	안치다	1.86	4
808	안팎	1.79	2
809	앓히다	1.71	3
810	앓다	1.14	1
811	알음	2.07	4
812	앓	1.50	4
813	암개	1.86	4
814	암컷	1.57	2
815	암탉	1.71	2
816	앞니	1.36	3
817	양치물	1.79	2
818	어금니	1.36	3
819	어떻다	1.14	1
820	어름	1.93	4
821	얼음	1.29	1
822	엄격히	1.36	3
823	엇나가다	1.71	2
824	엇그저께	1.64	
825	엇저녁	1.64	4
826	엮누르다	2.14	
827	에서부터	1.50	
828	여달이	1.57	4
829	연구하다	1.14	2
830	열심히	1.00	1
831	열없다	2.36	4
832	엮들다	1.71	2
833	예삿일	2.07	3
834	오뉴월	1.86	4
835	오독이	1.57	4
836	오륙십	1.64	
837	옷안	1.36	
838	옷오르다	2.57	
839	요컨대	1.86	4
840	옷잇	2.79	
841	우렁잇속	2.57	
842	우짚다	1.86	4
843	옷옷	1.64	3
844	원	1.00	1
845	월	1.00	1
846	윗니	1.43	3
847	유도탄	1.92	
848	유월	1.43	
849	으로	1.07	
850	으로만	1.50	
851	은	1.07	
852	을	1.07	
853	의논	1.43	2
854	의령	2.36	

855	의젓이	1.93	4
856	이	1.29	
857	이	1.71	
858	이	1.71	
859	이나마	1.21	
860	이다	1.07	
861	이따가	1.29	1
862	이렇다	1.07	1
863	이마빼기	1.93	
864	이순신	1.43	
865	이튿날	1.43	
866	익살꾼	1.57	
867	익숙하다	1.29	3
868	일	1.00	1
869	일꾼	1.36	2
870	일일이	1.36	3
871	일찍이	1.21	4
872	입때	2.07	
873	입쌀	2.43	
874	잇몸	1.21	2
875	잇자국	1.64	
876	있다가	1.64	
877	자루	1.07	2
878	자릿세	1.93	
879	작히	2.43	
880	잔다듬다	2.64	
881	잔다랑다	2.64	
882	잔주름	2.57	
883	장군	1.07	2
884	장꾼	1.79	4
885	장난꾼	1.29	4
886	젓더미	1.64	3
887	저렇다	1.14	2
888	저리다	1.29	3
889	적이	2.21	4
890	전셋집	2.07	
891	절이다	1.50	2
892	접때	1.93	
893	정결하다	1.64	4
894	정결히	1.71	
895	정녕코	2.14	
896	정확히	1.14	3
897	젓니	1.93	4
898	젓몸살	2.29	
899	제삿날	1.71	3
900	조갯살	1.93	
901	조리다	1.43	2
902	조용히	1.07	
903	족히	1.50	4
904	줄이다	1.64	3
905	좁쌀	1.29	3

906	주리다	1.43	4
907	주어	1.14	1
908	죽	1.07	2
909	줄이다	1.29	2
910	중거리	1.79	4
911	중학교	1.07	2
912	지	1.86	
913	지계꾼	1.57	4
914	집집이	1.36	4
915	짓이기다	2.07	4
916	착하다	1.14	1
917	찾간	2.14	4
918	찾잔	1.57	3
919	찾종	2.29	
920	찾집	1.71	4
921	채	1.43	2
922	처럼	1.07	
923	척한다	1.50	4
924	첫아들	1.36	
925	첫바퀴	1.79	4
926	초	1.00	2
927	초파일	1.79	3
928	춧국	2.36	
929	최치원	1.86	
930	충무공	1.64	
931	층	1.00	1
932	치이어	1.64	3
933	칼날	1.14	3
934	켜어	1.77	1
935	컬레	1.36	1
936	코빠기	1.79	
937	콧병	1.64	3
938	괘락	1.50	4
939	괘락	1.93	4
940	킷값	2.36	4
941	타아	1.79	1
942	탄도	2.21	
943	탯줄	1.86	4
944	텃텃하다	1.93	4
945	텃마당	1.86	
946	텃세	1.64	4
947	토론	1.14	2
948	톱니	1.29	3
949	튀간	2.36	
950	튀마루	2.21	4
951	특히	1.21	1
952	틀니	1.43	4
953	툼툼이	1.57	3
954	판자때기	1.64	
955	팔꿈치	1.07	2
956	팔일	1.50	

957	팔알	1.50	
958	퍼어	1.14	1
959	푹하다	1.64	4
960	푼소	2.71	
961	필연코	1.93	
962	핏기	1.64	4
963	핏대	1.71	4
964	하마터면	1.57	4
965	하여	1.21	1
966	하여튼	1.57	3
967	하염없다	1.64	4
968	학년	1.00	1
969	한사코	1.71	3
970	할아버지	1.00	1
971	할아범	1.36	3
972	해죽이	2.21	4
973	햏쌀	1.57	3
974	햏별	1.00	2
975	햏수	1.71	4
976	허락	1.29	2
977	헛되다	1.50	3
978	헛되이	1.50	
979	헛웃음	1.71	
980	헛바늘	1.64	4
981	호	1.57	1
982	홀아비	1.36	4
983	홀몸	1.71	
984	화살	1.07	2
985	황보지봉	2.71	
986	회령	2.43	
987	휏가루	2.14	4
988	휏배	2.50	
989	휏수	1.64	4
990	훗날	1.57	4
991	훗일	1.57	4
992	흔하다	1.36	2
993	흔하여	1.64	2
994	흙내	1.79	4
995	끄나풀	2.14	4
996	나팔-꽃	1.21	2
997	넉	2.00	
998	부엌	1.29	1
999	살-쟁이	1.86	4
1000	칸	1.29	2
1001	털어-먹다	1.79	4
1002	가을-갈이	1.86	4
1003	거시기	1.50	
1004	분침	1.50	4
1005	강낭-콩	1.50	4
1006	고삐	2.64	
1007	사글-세	2.07	4

1008	갈비	1.07	3
1009	갓모	2.64	
1010	굴-젓	1.86	4
1011	말-걸	2.43	
1012	물-수란	2.58	
1013	밀-뜨리다	2.14	
1014	적-이	2.21	4
1015	휴지	1.00	1
1016	돌	1.21	1
1017	돌-째	1.00	2
1018	셋-째	1.14	2
1019	넷-째	1.14	2
1020	빌리다	1.21	1
1021	열두-째	1.21	
1022	스물두-째	1.36	
1023	수-평	1.79	
1024	수-나사	2.14	
1025	수-놈	1.79	4
1026	수-사돈	2.29	
1027	수-소	1.93	2
1028	수-은행나무	1.83	
1029	수-캥아지	2.07	4
1030	수-캐	2.00	
1031	수-컷	1.43	2
1032	수-키와	2.14	
1033	수-탈	1.86	3
1034	수-탕나귀	2.00	
1035	수-돌쩌귀	2.36	
1036	수-돼지	2.07	
1037	수-평아리	2.07	
1038	숫-양	1.93	
1039	숫-염소	1.93	
1040	숫-쥐	1.93	
1041	강충-강충	1.50	2
1042	발가-송이	1.50	
1043	보통이	1.93	
1044	봉죽	2.50	
1045	뽕정-다리	2.36	
1046	아서, 아서라	1.79	
1047	오뚝-이	1.71	4
1048	주추	2.21	
1049	부조(扶助)	2.14	3
1050	사돈(查頓)	1.71	2
1051	삼촌(三寸)	1.14	1
1052	냄비	1.36	3
1053	동맹이-치다	2.14	4
1054	아지랑이	1.50	2
1055	미장이	1.79	4
1056	유기장이	1.86	
1057	멋쟁이	1.21	2
1058	소금쟁이	1.29	2

1059	담쟁이-덩굴	1.57	4
1060	골목쟁이	1.86	
1061	발목쟁이	1.86	
1062	괴팍-하다	2.00	4
1063	미루-나무	1.50	2
1064	미륵	1.57	4
1065	여느	1.50	4
1066	온-달	1.36	
1067	으레	2.00	3
1068	케케-묵다	2.00	4
1069	허우대	1.79	4
1070	허우적-허우적	1.43	4
1071	깍쟁이	1.29	4
1072	나무라다	1.14	2
1073	미수	1.57	3
1074	바라다	1.29	1
1075	상추	1.29	2
1076	시러베-아들	2.83	
1077	주책	1.57	
1078	지루-하다	1.21	2
1079	튀기	2.14	4
1080	허드레	2.00	
1081	호루라기	1.29	2
1082	윗-넓이	1.57	
1083	윗-눈썹	1.50	
1084	윗-니	1.21	3
1085	윗-당줄	2.29	
1086	윗-덧줄	2.29	
1087	윗-도리	1.64	4
1088	윗-동아리	2.07	
1089	윗-막이	2.14	
1090	윗-머리	1.93	
1091	윗-목	1.64	4
1092	윗-몸	1.29	3
1093	윗-바람	2.07	
1094	윗-배	1.64	4
1095	윗-벌	2.07	
1096	윗-변	1.79	
1097	윗-사랑	2.33	
1098	윗-세장	2.57	
1099	윗-수염	1.57	
1100	윗-입술	1.36	3
1101	윗-잇몸	1.36	4
1102	윗-자리	1.86	3
1103	윗-중방	2.36	
1104	위-짹	1.93	
1105	위-쪽	1.43	2
1106	위-채	1.86	4
1107	위-층	1.43	3
1108	위-치마	1.86	
1109	위-턱	1.64	

1110	위-팔	1.64	
1111	웃-국	2.29	
1112	웃-기	2.29	
1113	웃-돈	2.07	
1114	웃-비	2.21	
1115	웃-어른	1.36	3
1116	웃-웃	1.64	3
1117	구법(句法)	2.43	
1118	구절(句節)	2.00	2
1119	구점(句點)	2.21	
1120	결구(結句)	2.29	
1121	경구(警句)	2.07	
1122	경인구(驚人句)	2.75	
1123	난구(難句)	2.50	
1124	단구(短句)	2.50	
1125	단명구(短命句)	2.67	
1126	대구(對句)	2.07	
1127	문구(文句)	1.57	
1128	성구(成句)	2.21	
1129	시구(詩句)	1.79	3
1130	어구(語句)	1.50	4
1131	연구(聯句)	2.14	
1132	인용구(引用句)	1.71	
1133	절구(絶句)	1.93	
1134	귀-글	2.36	
1135	글-귀	1.86	4
1136	귀찮다	1.36	2
1137	김	1.00	3
1138	따리	1.64	
1139	무	1.21	1
1140	미다	1.79	
1141	뺨	1.00	1
1142	뺨-장어	1.29	2
1143	빔	1.64	
1144	샘	1.36	
1145	생-쥐	1.29	2
1146	술개	1.57	2
1147	온-갓	1.50	1
1148	장사-치	1.64	4
1149	경황-없다	1.86	
1150	궁상-떨다	2.00	
1151	귀-개	1.79	3
1152	깎새	1.57	4
1153	낙인-찍다	1.75	
1154	내왕-꾼	2.50	
1155	뚫-자리	1.14	2
1156	뒤웅-박	2.21	2
1157	뒷물-대야	2.57	
1158	마구-잡이	1.64	
1159	맵자-하다	2.50	
1160	모이	1.14	2

1161	벽-돌	1.07	2
1162	부스럼	1.50	4
1163	살얼음-판	1.64	
1164	수두룩-하다	1.57	3
1165	암-죽	2.29	
1166	어음	1.86	4
1167	일구다	1.50	3
1168	죽-살이	2.21	
1169	퇴박-맞다	2.57	
1170	한통-치다	2.57	
1171	거짓-부리	1.83	
1172	노을	1.07	2
1173	막대기	1.07	2
1174	망태기	1.93	4
1175	머무르다	1.07	2
1176	서두르다	1.07	1
1177	서투르다	1.36	2
1178	석새-삼베	2.93	
1179	시-누이	1.57	4
1180	오-누이	1.36	4
1181	외우다	1.29	1
1182	이기죽-거리다	2.14	
1183	찌꺼기	1.50	2
1184	거든-그리다	2.43	
1185	구어-박다	2.43	
1186	귀-고리	1.64	4
1187	귀-땀	1.93	4
1188	귀-지	1.43	4
1189	까딱-하면	1.43	4
1190	꼭두-각시	1.50	4
1191	내색	1.50	4
1192	내숭-스럽다	1.86	
1193	남남-거리다	1.57	
1194	남남-이	1.64	
1195	너[四]	1.43	1
1196	넉[四]	1.43	3
1197	다다르다	1.43	2
1198	땀-싸리	2.21	
1199	더부룩-하다	1.71	4
1200	망가-뜨리다	1.36	4
1201	멸치	1.07	2
1202	반빔-아치	2.57	
1203	보습	1.79	
1204	본새	2.07	
1205	봉숭아	1.29	2
1206	뺨-따귀	2.21	
1207	빠개다[斫]	2.57	
1208	빠기다[誇]	2.21	3
1209	사자-탈	2.07	
1210	상-판대기	2.00	
1211	서[三]	1.36	

1212	석[三]	1.43	1
1213	설령	1.71	4
1214	시름-시름	1.43	4
1215	쌈백-쌈백	2.43	
1216	아궁이	1.50	3
1217	아내	1.07	1
1218	어-중간	1.71	
1219	오금-팽이	2.50	
1220	오래-오래	1.14	4
1221	옹골-차다	2.21	4
1222	우두커니	1.36	2
1223	잠-투정	1.43	
1224	재봉-틀	1.36	2
1225	짚-무르다	1.71	
1226	짚-북데기	2.57	
1227	쪽	1.21	1
1228	천장(天障)	1.79	2
1229	코-맹맹이	1.50	4
1230	흥-업다	2.00	
1231	네	1.21	1
1232	괴다	1.86	
1233	꽤다	1.50	
1234	씌다	1.50	2
1235	죄다	1.43	
1236	찌다	1.57	
1237	거슴츠레-하다	2.14	
1238	고까	2.00	3
1239	고린-내	1.93	
1240	교기	2.21	
1241	구린-내	1.64	4
1242	꺼림-하다	1.93	
1243	나부랭이	1.86	
1244	난봉	2.07	
1245	낭떠러지	1.50	2
1246	설거지하다	1.36	4
1247	애달프다	1.71	
1248	오동나무	1.21	2
1249	자두	1.07	1
1250	가루약	1.14	2
1251	구들장	1.86	4
1252	길품삿	2.43	
1253	까막눈	1.64	4
1254	꼭지미역	2.36	
1255	나뭇갓	2.64	
1256	늪다리	1.86	
1257	두껍달이	2.64	
1258	떡암죽	2.58	
1259	마른갈이	2.50	
1260	마른빨래	1.79	
1261	메찰떡	2.57	
1262	박달나무	1.36	3

1263	밥소라	2.07	
1264	사래논	2.21	
1265	사래밭	2.21	
1266	삿말	2.50	
1267	성냥	1.07	2
1268	숫을무늬	2.71	
1269	외지다	1.79	3
1270	옴파	2.64	
1271	앞담배	1.71	3
1272	잔돈	1.21	2
1273	조당수	2.36	
1274	죽데기	2.36	
1275	지갯다리	2.07	
1276	짐꾼	1.36	
1277	푼돈	1.43	3
1278	흰말	1.50	
1279	흰죽	1.50	4
1280	개다리소반	2.21	
1281	겸상	2.00	
1282	고봉밥	2.36	
1283	단벌	1.93	4
1284	마방집	2.57	
1285	민망스럽다/면구 스럽다	2.00	
1286	방고래	2.71	
1287	부항단지	2.71	
1288	산누에	2.14	
1289	산줄기	1.64	3
1290	수삼	1.71	4
1291	심دون개	2.58	
1292	양파	1.07	2
1293	어질병	1.92	
1294	윤달	1.79	4
1295	장력세다	2.50	
1296	제석	2.50	
1297	총각무	1.64	4
1298	치솔	1.14	1
1299	포수	1.14	3
1300	멍게/우렁쉥이	1.64	4
1301	물방개/선두리	1.79	
1302	애순/어린순	2.14	4
1303	귀밑머리	2.00	4
1304	까뭇개다	2.00	
1305	막상	1.43	4
1306	빈대떡	1.29	2
1307	생인손	2.50	
1308	역겹다	1.50	4
1309	코주부	1.79	4
1310	-게끔	1.71	
1311	겸사겸사	1.71	4
1312	고구마	1.07	1

1313	고치다	1.07	1
1314	골목쟁이	1.79	
1315	광주리	1.50	2
1316	괴통	2.50	
1317	국물	1.07	2
1318	군표	2.00	
1319	길잡이	1.43	3
1320	까다롭다	1.43	2
1321	까치발	1.57	
1322	꼬창모	2.43	
1323	나룻배	1.50	3
1324	납도리	2.64	
1325	농지거리	2.43	
1326	다사스럽다	2.57	
1327	다오	2.00	
1328	담배꽂초	1.50	
1329	담배설대	2.33	
1330	대장일	1.93	
1331	뒤져내다	1.86	
1332	뒤통수치다	1.57	
1333	등나무	1.43	2
1334	등때기	2.07	
1335	등잔걸이	2.14	
1336	떡보	1.86	4
1337	똑딱단추	1.86	3
1338	매만지다	1.71	4
1339	먼발치	1.86	3
1340	며느리발톱	2.36	
1341	명주불이	2.29	
1342	목메다	1.71	3
1343	밀짚모자	1.50	2
1344	바가지	1.14	1
1345	바람꼭지	2.21	
1346	반나절	1.50	3
1347	반두	2.29	
1348	버젓이	1.64	4
1349	본받다	1.43	2
1350	부각	1.79	
1351	부끄러워하다	1.14	2
1352	부스러기	1.21	3
1353	부지깽이	2.29	4
1354	부항단지	2.57	
1355	붉으락푸르락	1.79	4
1356	비켜덩이	2.50	
1357	빙충이	2.50	
1358	빠뜨리다	1.43	3
1359	뻗뻗하다	1.43	
1360	뿔내다	1.36	2
1361	사로잡그다	2.50	
1362	살풀이	2.21	
1363	상투쟁이	2.36	

1364	새앙손이	2.57	
1365	셋별	1.36	3
1366	선머슴	1.79	4
1367	섭섭하다	1.21	2
1368	속말	1.79	4
1369	손목시계	1.07	4
1370	손수레	1.14	3
1371	쇠고랑	1.21	4
1372	수도꼭지	1.07	3
1373	숙성하다	1.71	4
1374	순대	1.07	4
1375	술고래	1.50	4
1376	식은땀	1.50	3
1377	신기롭다	1.50	
1378	쌍동밤	2.00	
1379	쓴살같이	1.57	3
1380	아주	1.00	1
1381	안걸이	2.29	
1382	안다미씩우다	2.57	
1383	안쓰럽다	1.79	4
1384	안절부절못하다	1.93	3
1385	얇은뱅이저울	2.21	
1386	알사탕	1.07	4
1387	암내	1.71	
1388	앞지르다	1.21	2
1389	애벌레	1.21	2
1390	얇은피	1.64	
1391	언뜻	1.57	3
1392	언제나	1.07	1
1393	얼룩말	1.14	2
1394	-에는	1.21	
1395	열심히	1.07	1
1396	열어제치다	1.86	
1397	입담	1.64	
1398	자배기	2.50	
1399	전봇대	1.29	3
1400	주책없다	2.00	4
1401	쥐락펴락	2.21	4
1402	-지만	1.29	
1403	짓고땡	2.57	
1404	짧은작	2.29	
1405	찹쌀	1.43	2
1406	청대콩	2.21	
1407	철범	2.14	4
1408	가는허리/잔허리	1.86	
1409	가락엿/가래엿	2.00	4
1410	가뭇/가물	1.36	2
1411	가엸다/가엹다	1.71	3
1412	감 감 무 소식/감 감 소식	1.71	
1413	개수통/설거지통	2.00	

1414	개숫물/설거지물	2.00	4
1415	갱엿/검은엿	2.07	
1416	-거리다/-대다	1.71	
1417	거위배/횃배	2.29	
1418	것/해	1.82	
1419	게을러빠지다/게을러터지다	1.86	
1420	고깃간/푸줏간	2.21	
1421	곰곰/곰곰이	1.71	4
1422	관계없다/상관없다	1.57	4
1423	교정보다/준보다	2.00	
1424	구들재/구재	2.29	
1425	귀통머리/귀통배기	2.14	
1426	극성떨다/극성부리다	1.86	
1427	기세부리다/기세피우다	1.86	
1428	기승떨다/기승부리다	1.79	
1429	깃저고리/배내옷/배넛저고리	2.36	4
1430	까까중/중대가리	2.14	
1431	꼬까/때때/고까	2.00	2
1432	꼬리별/살별	2.27	
1433	꽃도미/볶돔	2.33	
1434	나귀/당나귀	1.57	2
1435	날걸/세뿔	2.43	
1436	내리글씨/세로글씨	2.00	
1437	넝쿨/덩굴	1.79	2
1438	넉/쪽	1.57	1
1439	눈대중/눈어림/눈짐작	1.71	4
1440	느리광이/느림보/늘보	1.57	3
1441	늦모/마냥모	2.36	
1442	다기지다/다기차다	2.50	
1443	다달이/매달	1.86	3
1444	-다마다/-고말고	1.86	
1445	다박나룻/다박수업	2.45	
1446	닭의장/닭장	1.71	2
1447	댓돌/뒷돌	2.50	4
1448	덧창/겉창	2.50	
1449	독장치다/독판치다	2.79	
1450	동자기둥/쪼구미	2.82	
1451	돼지감자/똥딴지	2.21	
1452	되우/되통/되게	2.36	3
1453	두동무니/두동사	2.43	

	니		
1454	뒷갈망/뒷감당	2.57	
1455	뒷말/뒷소리	2.00	4
1456	들락거리다/들랑거리다	1.93	
1457	들락날락/들랑날랑	1.93	4
1458	딴전/딴청	2.00	4
1459	땅콩/호콩	1.43	2
1460	땀감/땀거리	1.79	3
1461	-뜨리다/-트리다	2.00	
1462	뜯것/뜯귀신	2.21	
1463	마룻줄/용충줄	2.64	
1464	마파람/앞바람	2.43	4
1465	만장판/만장중	2.36	
1466	만큼/만치	1.71	3
1467	말동무/말벗	2.00	3
1468	매갈이/매조미	2.50	
1469	매통/목매	2.50	
1470	먹새/먹음새	2.14	
1471	멀찌감치/멀찌가니/멀찍이	2.14	3
1472	먹통/산먹/산먹통	2.36	
1473	면치레/외면치레	2.29	
1474	모내다/모심다	1.93	
1475	모쪼록/아무쪼록	2.00	2
1476	목판되/모되	2.29	
1477	목화씨/면화씨	2.07	
1478	무심결/무심중	1.86	4
1479	물봉숭아/물봉선화	2.36	
1480	물부리/빨부리	2.36	
1481	물심부름/물시중	2.07	
1482	물추리나무/물추리막대	2.57	
1483	물타작/진타작	2.36	
1484	민동산/별거송이산	2.00	3
1485	밑층/아래층	1.64	4
1486	바깥벽/발벽	1.79	
1487	바른/오른	1.43	3
1488	발모가지/발목쟁이	2.36	
1489	버들강아지/버들개지	1.64	4
1490	벌레/버러지	1.29	1
1491	변덕스럽다/변덕맞다	1.79	3
1492	보조개/불우물	1.50	2
1493	보통내기/여간내기/예사내기	1.93	
1494	불따구니/불통이/불때기	1.86	

1495	부침개질/부침질/ 지침질	2.14	3
1496	불뚱얹다/등화지 다/등화얹다	2.36	
1497	불사르다/사르다	1.93	3
1498	비발/비용	2.36	
1499	뽀두라지/뽀루지	1.93	
1500	살쟁이/살	2.29	4
1501	삽살개/삽사리	1.93	4
1502	상두꾼/상여꾼	2.21	
1503	상씨름/소걸이	2.29	
1504	생/새양/생강	1.71	2
1505	생뽕/새양뽕/생강 뽕	2.29	
1506	생철/양철	2.50	
1507	서럽다/싫다	1.79	2
1508	서방질/화냥질	2.42	
1509	성글다/성기다	2.14	4
1510	-(으)세요/-(으)셔 요	1.79	
1511	송이/송이버섯	1.43	3
1512	수수깡/수숫대	1.71	3
1513	술안주/안주	1.64	2
1514	-스레하다/-스름하 다	1.71	
1515	시늉말/흥내말	1.86	
1516	시새/세사	2.36	
1517	신/신발	1.21	1
1518	신주보/독보	2.50	
1519	심술꾸러기/심술 쟁이	1.64	2
1520	썹썹레하다/썹썹 름하다	2.36	
1521	아귀세다/아귀차 다	2.57	
1522	아래위/위아래	1.43	
1523	아무튼/어떻든/어 쨌든/하여튼/여하 튼	1.86	3
1524	얹음새/얹음얹음	2.14	
1525	알은척/알은체	2.21	
1526	애갈이/애벌갈이	2.36	
1527	애꾸눈이/외눈박 이	2.00	4
1528	양념감/양념거리	1.79	
1529	어금버금하다/어 금지금하다	2.50	
1530	어기여차/어여차	1.93	
1531	어림잡다/어림치 다	1.93	4
1532	어이없다/어처구 니없다	1.71	3

1533	어저께/어제	1.57	1
1534	언덕바지/언덕배 기	1.86	4
1535	얼렁뚱땅/엄병땡	1.93	4
1536	여왕벌/장수벌	1.93	3
1537	여쭙다/여쭙다	1.64	2
1538	여태/입때	1.86	3
1539	여태껏/이제껏/입 때껏	1.93	4
1540	역성들다/역성하 다	2.36	
1541	연달다/잇달다	1.79	3
1542	옛가락/옛가래	1.86	
1543	옛기름/옛길금	2.07	4
1544	옛반대기/옛자박	2.50	
1545	오사리잡놈/오색 잡놈	3.00	
1546	옥수수/강냉이	1.21	2
1547	왕골기직/왕골자 리	2.43	
1548	외겹실/외올실/홀 실	2.71	
1549	외손잡이/한손잡 이	1.86	
1550	욕심꾸러기/욕심 쟁이	1.43	2
1551	우레/천둥	1.71	2
1552	우지/울보	1.71	2
1553	올러대다/올러메 다	2.29	
1554	의심스럽다/의심 쩍다	1.93	3
1555	-이에요/-이어요	2.00	
1556	이틀거리/당고금	2.29	
1557	일일이/하나하나	1.71	3
1558	일찌감치/일찌거 니	1.71	4
1559	입찬말/입찬소리	2.43	
1560	자리옷/잠옷	1.79	
1561	자물쇠/자물통	1.57	2
1562	장가가다/장가들 다	1.71	3
1563	재롱떨다/재롱부 리다	1.64	
1564	제가꿈/제각기	1.79	2
1565	좀처럼/좀체	1.79	2
1566	줄꾼/줄잡이	2.00	
1567	중신/중매	1.86	3
1568	짚단/짚뭇	1.86	4
1569	쪽/편	1.36	1
1570	차차/차츰	2.21	2
1571	책씻이/책거리	2.07	4
1572	척/체	1.79	2
1573	천연덕스럽다/천	1.86	4

	연스럽다		
1574	철따구니/철딱서니/철딱지	2.29	4
1575	추어올리다/추어주다	2.36	4
1576	축가다/축나다	2.57	4
1577	침놓다/침주다	1.93	
1578	통꼭지/통젓	2.36	
1579	파자쟁이/해자쟁이	2.43	
1580	편지투/편지들	2.17	
1581	한턱내다/한턱하다	1.79	
1582	해웃값/해웃돈	2.79	
1583	혼자되다/홀로되다	1.86	
1584	흠가다/흠나다/흠지다	2.07	
1585	가지어(가져)	1.50	1
1586	찌어(찌)	1.71	2
1587	다치어(다쳐)	1.57	1
1588	계집	1.57	4
1589	계시다	1.50	1
1590	시계	1.36	1
1591	연계	2.00	
1592	메별	2.79	
1593	개폐	2.14	4
1594	혜택	1.86	3
1595	지혜	1.50	2
1596	닐리리	2.43	
1597	닝큼	2.57	
1598	무늬	1.43	2
1599	띄어쓰기	1.50	2
1600	씩어	2.14	
1601	띄어	2.14	3
1602	희어	1.86	1
1603	희뽕다	2.58	
1604	희망	1.64	1
1605	유희	1.93	4
1606	주의	1.57	3
1607	협의	1.93	3
1608	눈보라	1.50	2
1609	말씨	1.64	2
1610	밤나무	1.36	2
1611	많다	1.36	1
1612	멀리	1.43	1
1613	벌리다	1.57	2
1614	첫눈	1.50	4
1615	참말	1.36	3
1616	쌍동밤	2.07	
1617	수많이	1.71	
1618	눈멀다	1.86	3

1619	떠벌리다	1.71	4
1620	보아(봐)	1.36	1
1621	기어(겨)	1.43	1
1622	되어(돼)	1.57	1
1623	두어(뒤)	1.43	1
1624	하여(해)	1.50	1
1625	감다(감으니)	1.50	1
1626	밟다(밟으면)	1.57	1
1627	신다(신어)	1.29	1
1628	알다(알아)	1.36	1
1629	끌다(끌어)	1.36	1
1630	뺏다(뺏은)	2.00	2
1631	벌다(벌어)	1.50	1
1632	썰다(썰어)	1.50	2
1633	없다(없으니)	1.64	1
1634	감다(감기다)	1.50	1
1635	꼬다(꼬이다)	1.64	2
1636	밟다(밟히다)	1.64	1
1637	끌리다	1.64	3
1638	벌리다	1.64	2
1639	없애다	3.14	2
1640	밀물	1.50	3
1641	썰물	1.50	3
1642	쓴살같이	1.79	3
1643	작은아버지	1.36	2
1644	어휘 없음	3.09	오류발견.
1645	뒹다	1.50	1
1646	키웁	1.93	
1647	옷	1.21	1
1648	옷다	1.50	1
1649	있다	1.50	1
1650	젓	1.50	1
1651	빛다	1.79	2
1652	꽃	1.21	1
1653	쫓다	1.57	2
1654	솔	1.43	1
1655	뺨다	1.50	2
1656	앞	1.21	1
1657	뒹다	1.43	1
1658	넋	1.71	2
1659	앉다	1.43	1
1660	여덟	1.43	1
1661	넓다	1.43	1
1662	외곶	2.29	4
1663	활다	2.07	2
1664	값	1.29	1
1665	없다	1.43	1
1666	밟다	1.71	1
1667	밟소	2.07	[1]

1668	밟지	1.71	[1]
1669	밟는	1.71	[1]
1670	밟게	1.79	[1]
1671	밟고	1.79	[1]
1672	넓죽하다	2.07	
1673	넓둥글다	2.21	
1674	닭	1.43	1
1675	흙과 : 흙	1.50	1
1676	맑다	1.64	1
1677	늪지	1.71	[1]
1678	삶	1.57	1
1679	젊다	1.43	1
1680	묻고	1.86	3
1681	엷다	1.79	3
1682	맑게	1.57	[1]
1683	묻고	1.86	[3]
1684	엷거나	1.86	[3]
1685	농고	1.43	[1]
1686	종던	1.57	[1]
1687	쌍지	1.50	[2]
1688	많고	1.50	[1]
1689	얇던	1.50	[1]
1690	얇지	1.86	[2]
1691	각하	1.64	3
1692	먹히다	1.50	2
1693	밝히다	1.50	3
1694	만형	1.64	
1695	좁히다	1.43	3
1696	넓히다	1.57	2
1697	꽃히다	1.64	2
1698	얇히다	1.64	3
1699	술하다	1.57	3
1700	당소	1.86	[1]
1701	망소	1.64	[1]
1702	싫소	1.64	[1]
1703	농는	1.71	[1]
1704	쌍네	1.57	[2]
1705	얇네	1.64	[1]
1706	얇는	1.64	[1]
1707	뚫네	1.79	[1]
1708	뚫는	1.79	[1]
1709	농은	1.71	[1]
1710	농아	1.57	[1]
1711	쌍이다	1.64	1
1712	많아	1.57	[1]
1713	얇은	1.57	[1]
1714	얇아	1.71	[2]
1715	싫어도	1.57	[1]
1716	깎아	1.50	[1]
1717	있어	1.36	[1]
1718	꽃아	1.43	[1]

1719	꽃아	1.43	[2]
1720	덮이다	1.36	2
1721	얇아	1.43	[1]
1722	젊어	1.57	[1]
1723	활아	2.00	[2]
1724	윙어	1.93	[2]
1725	없어	1.57	[1]
1726	젖어미	2.21	4
1727	맛없다	1.64	4
1728	겉옷	1.57	3
1729	헛웃음	1.93	
1730	맛있다	1.50	1
1731	멋있다	1.50	1
1732	넋 없다	2.21	
1733	값어치	1.71	3
1734	굳이들다	1.93	4
1735	굳이	1.57	3
1736	미달이	1.79	3
1737	땀받이	2.07	3
1738	버홀이	2.29	
1739	굳히다	1.43	3
1740	단히다	1.36	2
1741	묻히다	1.43	3
1742	먹는	1.21	[1]
1743	국물	1.36	2
1744	깎는	1.29	[1]
1745	뭉뭉이	2.14	
1746	긁는	1.43	[2]
1747	단는	1.36	[1]
1748	짓는	1.43	[1]
1749	옷맵시	1.71	3
1750	맞는	1.36	[2]
1751	젓명울	2.14	
1752	꽃는	1.50	[2]
1753	꽃망울	1.86	3
1754	붙는	1.36	[1]
1755	농는	1.36	[1]
1756	잡는	1.36	[1]
1757	밥물	1.50	3
1758	앞마당	1.50	3
1759	밟는	1.57	[1]
1760	윙는	2.14	[2]
1761	없는	1.36	[1]
1762	담력	1.71	4
1763	침략	1.64	2
1764	강릉	1.50	
1765	항로	1.79	3
1766	대통령	1.36	1
1767	막론	1.93	
1768	백리	1.71	
1769	협력	1.71	2

1770	십리	1.57	
1771	난로	1.36	2
1772	신라	1.29	2
1773	천리	1.57	
1774	광한루	1.79	
1775	대관령	1.64	
1776	칼날	1.50	3
1777	물난리	1.64	3
1778	줄넘기	1.21	2
1779	할는지	2.07	
1780	닿는	1.86	[2]
1781	뚫는	2.07	[1]
1782	할네	2.29	[2]
1783	의견란	2.07	
1784	임진란	2.14	
1785	생산량	1.93	3
1786	결단력	2.14	4
1787	공권력	2.21	4
1788	동원령	2.18	
1789	상견례	2.21	
1790	횡단로	1.86	
1791	이원론	2.09	
1792	입원료	1.93	
1793	구근류	2.45	
1794	감기	1.21	1
1795	옷감	1.36	2
1796	있고	1.43	[1]
1797	꽃길	1.57	3
1798	젓먹이	1.71	3
1799	문법	1.43	
1800	꽃밭	1.57	2
1801	피어	1.29	[1]
1802	되어	1.29	[1]
1803	이오	1.64	
1804	아니오	1.50	1
1805	국밥	1.29	4
1806	깍다	1.50	1
1807	넋받이	2.36	
1808	샀돈	2.14	
1809	닭장	1.36	2
1810	취범	2.36	4
1811	빨대다	2.07	
1812	웃고름	1.57	4
1813	있던	1.57	[1]
1814	꽃고	1.64	[2]
1815	꽃다발	1.29	2
1816	낫설다	1.71	2
1817	발갈이	1.86	3
1818	솔전	2.27	
1819	곱돌	2.50	
1820	뒹개	1.64	3

1821	옆집	1.43	2
1822	넙죽하다	2.00	
1823	윙조리다	2.14	4
1824	값지다	1.79	3
1825	신고	1.43	[1]
1826	껴안다	1.57	2
1827	앓고	1.57	[1]
1828	엎다	1.71	[2]
1829	삼고	1.43	[1]
1830	더듬지	1.79	[2]
1831	닭고	1.64	[1]
1832	안기다	1.36	3
1833	감기다	1.43	3
1834	굶기다	1.79	4
1835	윙기다	1.57	1
1836	넙게	1.86	[1]
1837	할다	2.29	2
1838	훑소	2.50	[3]
1839	뺨지	2.43	[2]
1840	갈등	1.86	2
1841	발동	1.79	4
1842	절도	2.07	4
1843	말살	2.14	4
1844	불소	2.36	
1845	일시	1.50	
1846	갈증	1.79	3
1847	물질	1.71	2
1848	발전	1.71	3
1849	물상식	2.00	4
1850	불세출	2.29	
1851	허허실실	1.79	
1852	절절하다	2.00	4
1853	문고리	1.50	4
1854	눈동자	1.43	2
1855	신바람	1.57	3
1856	산새	1.36	
1857	손재주	1.64	3
1858	길가	1.50	2
1859	물동이	1.64	2
1860	발바닥	1.29	2
1861	굴속	1.86	
1862	술잔	1.36	3
1863	바람결	1.71	3
1864	그믐달	1.50	4
1865	아침밥	1.43	2
1866	잠자리	1.29	2
1867	강가	1.29	2
1868	초승달	1.36	2
1869	등불	1.29	2
1870	창살	1.64	3
1871	강줄기	1.64	3

1872	숨이불	1.71	4
1873	홀이불	1.86	4
1874	막일	1.86	4
1875	삿일	2.29	
1876	맨입	1.50	4
1877	꽃잎	1.36	2
1878	내복약	2.00	4
1879	한여름	1.43	3
1880	남존여비	2.14	
1881	신여성	1.83	
1882	색연필	1.29	2
1883	직행열차	1.86	
1884	늑막염	2.36	4
1885	콩엿	1.71	4
1886	담요	1.36	2
1887	눈요기	1.79	4
1888	영업용	1.71	
1889	식용유	1.36	3
1890	이죽이죽	2.07	
1891	야금야금	1.86	4
1892	검열	2.00	3
1893	올랑올랑	2.71	
1894	금용	1.86	2
1895	들일	1.93	3
1896	솔잎	1.50	3
1897	설익다	1.93	4
1898	물약	1.43	4
1899	불여우	1.64	
1900	물엿	1.64	4
1901	휘발유	1.43	2
1902	유들유들	1.93	4
1903	한 일	1.79	오류 발 견.
1904	송별연	2.50	
1905	등용문	2.33	
1906	넛가	1.57	2
1907	샛길	1.79	4
1908	빨랫돌	2.29	
1909	콧등	1.36	3
1910	깃발	1.36	2
1911	대팻밥	2.14	
1912	햇살	1.36	2
1913	벧속	1.57	2
1914	벧전	2.07	3
1915	고갯짓	1.93	3
1916	콧날	1.71	3
1917	아랫니	1.57	4
1918	뒷마루	2.43	4
1919	벧머리	2.00	3
1920	베갯잇	2.36	

1921	깻잎	1.50	3
1922	나뭇잎	1.64	1
1923	도리깻잎	2.71	
1924	뒷웃	2.57	
1925	fuga 푸가	2.36	
1926	ganga 강가	2.29	
1927	llama 야마	2.71	
1928	Bologna 볼로냐	2.57	
1929	bravo 브라보	2.29	
1930	Sicilia 시칠리아	2.21	
1931	P i n o c c h i o 피노키오	2.07	
1932	Dante 단테	2.00	
1933	Firenze 피렌체	2.21	
1934	Genova 제노바	2.00	
1935	gloria 글로리아	1.93	
1936	Milano 밀라노	2.00	
1937	largo 라르고	2.07	
1938	Macchiavelli 마키아벨리	2.50	
1939	C a m p a n e l l a 캄파넬라	2.79	
1940	Nero 네로	1.93	
1941	divertimento 디베르티멘토	2.71	
1942	Pisa 피사	1.93	
1943	Roma 로마	1.71	
1944	Marconi 마르코니	2.43	
1945	Sorrento 소렌토	2.21	
1946	Torino 토리노	2.07	
1947	Vivace 비바체	2.21	
1948	gap[gæp]갭	2.29	
1949	act[ækt] 액트	2.14	
1950	stamp[stæmp] 스탬프	1.79	
1951	cape[keip] 케이프	2.71	
1952	part[pɑ:t]파트	1.86	4
1953	desk[desk] 데스크	1.79	
1954	mattress[mætris] 매트리스	2.21	
1955	bulb[bʌlb] 벌브	2.71	
1956	zigzag[zigzæg]지 그재그	2.00	4
1957	lobster[lɒbstə] 로브스터	2.57	
1958	signal[signəl]시그 널	2.21	
1959	mask[mɑ:sk]마스 크	1.50	2
1960	jazz[dʒæz] 재즈	1.79	3
1961	graph[græpf]그래 프	1.43	3
1962	olive[ɒliv] 올리브	1.57	

1963	thrill[θril] 스릴	2.00	
1964	flash[flæʃ] 플래시	1.93	
1965	fashion[fæʃən] 패션	1.57	3
1966	sheriff[ʃerif] 셰리프	2.57	
1967	shopping[ʃɒpɪŋ] 쇼핑	1.64	3
1968	vision[viʒən] 비전	1.93	
1969	Keats[ki:ts] 키츠	2.36	
1970	bridge[bri:dʒ] 브리지	2.21	
1971	Pittsburgh[pitsbæ:ɡ] 피츠버그	2.29	
1972	hitchhike[hiʃhaik] 히치하이크	2.43	
1973	chart[tʃɑ:t] 차트	2.07	
1974	steam[sti:m] 스팀	2.00	
1975	ring[rɪŋ] 링	1.43	
1976	lamp[læmp] 램프	1.86	3
1977	hint[hɪnt] 힌트	1.64	4
1978	ink[ɪŋk] 잉크	1.43	2
1979	hotel[houtel] 호텔	1.50	1
1980	pulp[pʌlp] 펄프	2.14	3
1981	slide[slaid] 슬라이드	1.57	3
1982	film[filɪm] 필름	1.36	3
1983	Hamlet[hæmlɪt] 햄릿	2.00	
1984	Henley[henli] 헨리	2.14	
1985	team[ti:m] 팀	1.36	2
1986	route[ru:t] 루트	2.00	
1987	time[taɪm] 타임	1.50	
1988	house[haʊs] 하우스	1.43	
1989	skate[skeɪt] 스케이트	1.43	3
1990	boat[bout] 보트	1.64	4
1991	tower[tauə] 타워	1.50	3
1992	word[wɜ:d] 워드	1.93	
1993	west[west] 웨스트	1.93	
1994	wool[wʊl] 울	1.93	
1995	swing[swɪŋ] 스윙	1.57	
1996	twist[twɪst] 트위스트	1.79	
1997	penguin[peŋɡwɪn] 펭귄	1.71	3
1998	whistle[hwɪsl] 휘슬	2.14	
1999	quarter[kwɔ:tə] 쿼터	2.14	
2000	yard[jɑ:d] 야드	1.86	

2001	Indian[ɪndjən] 인디언	1.43	
2002	bookend[bukend] 북엔드	2.43	
2003	headlight[hedlaɪt] 헤드라이트	2.14	3
2004	flashgun[flæʃɡʌn] 플래시건	2.64	
2005	Los Alamos[lɒs æləməʊs] 로스앨러모스/로스앨러모스	2.50	
2006	top class[tɒpkləs] 톱클래스/톱클래스	2.14	
2007	Hormon[hɔ:mɒ:n] 호르몬	2.00	4
2008	Hermes[hɜ:mes] 헤르메스	2.29	
2009	Schiller[ʃɪlər] 실러	2.43	
2010	Rostock[rɒstɒk] 로스토크	2.36	
2011	Heidelberg[haidəlberk, -berç] 하이델베르크	2.29	
2012	Hamburg[hamburk, -burç] 함부르크	2.07	
2013	chemise[ʃəmi:z] 슈미즈	2.43	
2014	chevalier[ʃəvalje] 슈발리에	2.50	
2015	mignon[miŋ] 미뇽	2.57	
2016	Marseille[marsɛj] 마르세유	2.29	
2017	crayon[kreɪj] 크레용	1.93	2
2018	Montesquieu[mɒtɛskju:] 몽테스키외	2.57	
2019	gloria 글로리아	1.79	
2020	crescendo 크레센도	2.07	
2021	Tosca 토스카	2.21	
2022	allegretto 알레그레토	2.14	
2023	rosso 로소	2.29	
2024	sol 솔	1.93	2
2025	サッポロ 삿포로	2.14	
2026	トットリ 돗토리	2.43	
2027	キューシュウ(九州) 규슈	2.14	
2028	ニイガタ(新潟) 니가타	2.21	

2029	トウキョウ(東京) 도쿄	1.71	
2030	オオサカ(大阪) 오사카	1.86	
2031	Ankara 앙카라	2.00	
2032	Gandhi 간디	1.93	
2033	Hague 헤이그	2.14	
2034	Caesar 시저	2.07	
2035	Pacific 태평양	1.86	
2036	Black Sea 흑해	2.00	
2037	東京 도쿄, 동경	1.64	
2038	京都 교토, 경도	2.07	
2039	上海 상하이, 상해	1.79	
2040	臺灣 타이완, 대만	2.00	
2041	黃河 황허, 황하	2.21	
2042	카리브 해	2.14	
2043	북해	1.79	
2044	발리 섬	2.00	
2045	목요섬	2.36	
2046	홍해	1.86	
2047	발트 해	2.14	
2048	아라비아 해	2.21	
2049	코르시카 섬	2.36	
2050	제주도	1.29	
2051	울릉도	1.29	
2052	주장 강(珠江)	2.43	
2053	위산 산(玉山)	2.43	
2054	Monte Rosa 몬테로사 산	2.43	
2055	Mont Blanc 몽블랑 산	2.29	
2056	Sierra Madre 시 에라마드레 산맥	2.57	

2. 어문 규범 등재 어휘 목록 II(1,841개)

한글 맞춤법	표준어 사정 원칙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번호	어휘	어휘 평정	김광해 (2003)
1	소쩍새	1.71	4
2	어깨	1.21	1
3	오빠	1.21	1
4	으뜸	1.07	3
5	아끼다	1.00	2
6	기쁘다	1.00	1
7	깨끗하다	1.00	1
8	어떠하다	1.21	1
9	해쓱하다	2.43	4
10	가끔	1.07	1
11	거꾸로	1.07	2
12	부쩍	1.36	3
13	어찌	1.07	1
14	이따금	1.29	2
15	산뜻하다	1.64	2
16	잔뜩	1.00	2
17	살짝	1.00	3
18	훨씬	1.00	1
19	담백	2.14	4
20	국수	1.00	2
21	깍두기	1.21	2
22	딱지	1.07	2
23	색시	1.43	2
24	쌉둑	1.64	4
25	법석	2.07	4
26	갑자기	1.07	1
27	몹시	1.00	
28	만이	1.29	3
29	해돋이	1.29	3
30	굳이	1.07	3
31	같이	1.00	1
32	활이다	2.57	
33	견히다	1.71	3
34	달히다	1.14	2
35	묻히다	1.36	3
36	덧저고리	2.07	4
37	돛자리	1.29	2
38	엇셈	2.57	
39	웃어른	1.29	3

40	햇옷	2.64	4
41	무릎	1.64	4
42	사뭇	1.71	4
43	얼핏	1.36	
44	계수	2.57	
45	사례	1.86	4
46	연메	3.25	
47	폐품	1.57	3
48	혜택	1.36	3
49	계집	1.57	4
50	핑계	1.43	2
51	계시다	1.21	1
52	게송	3.14	
53	게시판	1.21	3
54	휴게실	1.43	3
55	의의	1.50	2
56	본의	1.71	
57	무늬	1.29	2
58	보늬	3.29	
59	오늬	3.14	
60	하늬바람	2.07	4
61	닐리리	2.36	
62	닝큼	2.57	
63	띄어쓰기	1.21	2
64	희망	1.14	1
65	희다	1.07	1
66	씩다	1.57	
67	틔다	1.71	
68	유희	1.79	4
69	여자	1.21	1
70	연세	1.21	2
71	요소	1.36	3
72	유대	1.64	4
73	이토	2.93	
74	익명	1.57	
75	냥	2.07	2
76	냥쫓	3.00	
77	년(年)	1.71	1
78	남녀	1.57	2
79	당뇨	1.86	
80	결뉴	3.07	
81	은닉	2.21	
82	신여성	2.00	
83	공염불	2.50	
84	남존여비	1.93	
85	양심	1.36	3
86	역사	1.14	1
87	예의	1.14	2
88	용궁	1.14	2
89	유행	1.07	2
90	이발	1.07	3

91	리	2.07	1
92	개량	1.71	3
93	선량	1.86	4
94	수력	1.43	3
95	협력	1.36	2
96	혼례	1.50	3
97	쌍룡	2.07	3
98	하류	1.36	3
99	급류	1.64	4
100	도리	1.57	3
101	진리	1.36	2
102	나열	1.36	
103	치열	1.79	4
104	비열	1.86	
105	규율	1.71	4
106	비율	1.43	3
107	실패율	2.00	
108	분열	1.71	3
109	선열	2.57	3
110	진열	1.64	4
111	선율	1.64	3
112	전율	1.79	
113	백분율	2.00	3
114	역이용	2.07	
115	연이용	2.21	3
116	국련	2.71	
117	열역학	2.57	
118	해외여행	1.14	4
119	낙원	1.36	2
120	내일	1.00	1
121	노인	1.00	1
122	뇌성	2.21	4
123	누각	2.00	3
124	능묘	2.50	3
125	쾌락	1.64	4
126	극락	2.00	4
127	거래	1.21	2
128	왕래	1.36	2
129	부로	3.07	4
130	연로	2.21	
131	지뢰	1.64	
132	낙뢰	1.93	
133	고루	1.93	3
134	가정란	2.43	
135	광한루	1.79	
136	동구룡	2.29	
137	내내월	2.79	
138	상노인	2.14	
139	중노동	1.86	3
140	비논리적	1.79	
141	딱딱	1.00	

142	씩씩	1.21	
143	씩씩	1.00	3
144	똑딱똑딱	1.14	4
145	씩씩씩씩	1.14	
146	누누이	1.43	4
147	꽃꽃하다	1.57	
148	눌눌하다	2.79	
149	눅눅하다	1.57	4
150	밋밋하다	1.21	3
151	씩씩하다	1.29	3
152	쌍쌍하다	1.79	4
153	쌔쌔하다	1.71	4
154	짹짹하다	1.29	3
155	떡	1.00	1
156	손	1.21	1
157	팔	1.21	1
158	밤	1.00	1
159	집	1.00	1
160	옷	1.00	1
161	꽃	1.00	1
162	발	1.00	1
163	박	1.00	1
164	넋	1.57	2
165	흙	1.14	1
166	삶	1.36	1
167	여덟	1.36	1
168	곶	2.57	
169	값	1.21	1
170	앞	1.00	1
171	콩	1.00	1
172	낮	1.00	1
173	이	1.07	
174	을	1.07	
175	에	1.07	
176	도	1.07	2
177	만	1.07	1
178	먹다	1.00	1
179	신다	1.00	1
180	민다	1.07	1
181	올다	1.07	1
182	넘다	1.00	1
183	입다	1.00	1
184	웃다	1.07	1
185	찾다	1.00	1
186	쫓다	1.43	2
187	같다	1.00	1
188	높다	1.00	1
189	좋다	1.00	1
190	깎다	1.29	1
191	앉다	1.14	1
192	많다	1.00	1

193	늡다	1.43	1
194	점다	1.29	1
195	넓다	1.29	1
196	훔다	1.93	3
197	웁다	2.00	2
198	웁다	1.36	1
199	없다	1.14	1
200	있다	1.00	1
201	넘어지다	1.07	2
202	늘어나다	1.14	2
203	늘어지다	1.14	3
204	돌아가다	1.07	1
205	되짚어가다	1.57	
206	들어가다	1.14	1
207	떨어지다	1.07	1
208	벌어지다	1.14	2
209	엮어지다	1.21	2
210	접어들다	1.21	
211	틀어지다	1.36	4
212	홀어지다	1.21	
213	드러나다	1.50	2
214	사라지다	1.14	
215	쓰러지다	1.14	2
216	막다	1.00	1
217	얇다	1.43	2
218	돌다	1.00	1
219	보다	1.00	1
220	개다	1.50	2
221	겪다	1.50	
222	되다	1.00	1
223	베다	1.14	1
224	쉬다	1.00	1
225	젓다	1.36	2
226	주다	1.00	1
227	피다	1.00	1
228	읽다	1.07	1
229	참다	1.07	1
230	갈다	1.14	2
231	놀다	1.00	1
232	불다	1.07	
233	등글다	1.00	1
234	어질다	1.43	3
235	마지못하다	1.93	4
236	굿다	1.14	1
237	낫다	1.21	1
238	잇다	1.29	1
239	짓다	1.14	1
240	그렇다	1.14	1
241	까맣다	1.43	1
242	둥그랗다	1.29	2
243	퍼렇다	1.50	2

244	하얗다	1.21	1
245	푸다	1.43	1
246	끄다	1.29	1
247	담그다	1.21	2
248	따르다	1.29	3
249	뜨다	1.14	1
250	크다	1.14	1
251	고프다	1.21	1
252	바쁘다	1.14	1
253	걷다	1.21	1
254	듣다	1.36	1
255	묻다	1.36	1
256	심다	1.36	1
257	깎다	1.93	2
258	굽다	1.57	2
259	가깝다	1.21	1
260	괴롭다	1.43	1
261	맵다	1.21	1
262	무겁다	1.21	1
263	밉다	1.21	1
264	쉽다	1.29	1
265	둑다	1.43	1
266	굽다	1.50	1
267	하다	1.43	1
268	이르다	1.57	1
269	노르다	2.07	
270	누르다	1.93	1
271	푸르다	1.50	1
272	가르다	1.79	2
273	거르다	1.86	3
274	구르다	1.57	1
275	벼르다	2.29	4
276	길이(명사)	1.07	1
277	깊이	1.21	1
278	높이	1.21	1
279	다듬이	1.57	
280	땀받이	2.00	3
281	달맞이	1.36	2
282	먹이	1.07	1
283	미닫이	1.71	3
284	별이	1.43	4
285	버홀이	2.50	
286	살림살이	1.21	3
287	쇠불이	1.36	3
288	걸음	1.00	1
289	뉘음	1.14	
290	믿음	1.07	3
291	얼음	1.14	1
292	엮음	1.21	
293	울음	1.00	1
294	웃음	1.00	1

295	줄음	1.00	1
296	죽음	1.00	1
297	얇	1.29	4
298	길이(부사)	1.21	4
299	많이	1.14	1
300	실없이	1.64	4
301	좋이	2.07	4
302	짓궂이	2.07	
303	밝히	1.79	
304	익히	1.64	
305	작히	2.21	
306	굽도리	2.64	
307	다리	1.50	1
308	목거리	2.21	
309	무녀리	2.93	
310	코끼리	1.07	2
311	거름	1.29	2
312	고름	1.36	1
313	노름	1.64	
314	귀머거리	1.43	3
315	까마귀	1.14	2
316	너머	1.14	2
317	뜨더귀	3.21	
318	마감	1.50	3
319	마개	1.29	2
320	마중	1.29	2
321	무덤	1.21	2
322	비렁뱅이	2.15	
323	쓰레기	1.14	1
324	올가미	1.50	4
325	주검	2.86	
326	거뭇거뭇	1.93	4
327	너무	1.07	1
328	도로	1.14	1
329	뜨덤뜨덤	2.57	
330	바투	2.71	4
331	불긋불긋	1.29	3
332	비로소	1.57	1
333	오긋오긋	2.64	
334	자주	1.07	1
335	차마	1.21	2
336	곳곳이	1.36	
337	날날이	1.43	4
338	뭉뭉이	1.93	
339	살살이	1.71	3
340	앞앞이	1.79	
341	집집이	1.50	4
342	곰배팔이	2.64	
343	바둑이	1.21	2
344	삼발이	1.71	3
345	육손이	2.14	

346	절뚝발이	1.71	
347	절름발이	1.57	3
348	꼬락서니	1.79	
349	고트머리	1.57	4
350	모가지	1.86	2
351	바가지	1.29	1
352	바깥	1.21	2
353	사타구니	2.00	4
354	싸라기	2.07	3
355	이파리	1.71	4
356	지붕	1.07	1
357	지푸라기	1.29	3
358	짜개	2.21	
359	값지다	1.43	3
360	넋두리	2.00	4
361	빛깔	1.29	2
362	옆댕이	2.43	
363	앞사귀	1.21	3
364	낚시	1.14	2
365	늪정이	2.57	
366	뎡개	1.43	3
367	뜯게질	2.57	
368	갑작갑작하다	2.71	4
369	갑작거리다	2.71	
370	뜯적거리다	2.79	
371	뜯적뜯적하다	2.79	
372	굶다랑다	1.86	4
373	굶직하다	1.64	4
374	깊숙하다	1.36	2
375	넓적하다	1.64	3
376	높다랑다	1.57	2
377	늪수그레하다	2.43	
378	얼죽얼죽하다	2.93	
379	할짝거리다	2.50	
380	넌따랑다	2.14	3
381	넌찍하다	2.00	2
382	말끔하다	1.57	
383	말쑥하다	1.64	4
384	말짱하다	1.57	4
385	실쭉하다	2.36	
386	실큼하다	2.93	
387	알따랑다	2.36	4
388	알딱하다	1.86	2
389	짤따랑다	2.14	
390	짤막하다	1.86	2
391	실컷	1.29	2
392	넙치	1.57	2
393	올무	1.86	4
394	골막하다	2.71	
395	납작하다	1.57	3
396	말기다	1.36	2

397	웁기다	1.29	1
398	웃기다	1.14	3
399	쫓기다	1.36	4
400	뚫리다	1.36	3
401	울리다	1.14	1
402	낙이다	1.36	3
403	쌍이다	1.21	
404	굳히다	1.71	3
405	굽히다	1.57	2
406	넓히다	1.79	2
407	얹히다	1.71	3
408	엹히다	2.00	3
409	잡히다	1.29	1
410	돈구다	1.93	
411	숫구다	1.79	4
412	돌우다	2.00	3
413	갓추다	1.36	2
414	곧추다	2.14	4
415	맞추다	1.36	2
416	일으키다	1.29	
417	돌이키다	1.43	
418	없애다	1.50	2
419	도리다	1.93	
420	드리다	1.14	1
421	고치다	1.14	1
422	바치다	1.29	2
423	부치다	1.86	2
424	거두다	1.21	2
425	미루다	1.21	1
426	이루다	1.21	1
427	놓치다	1.21	2
428	덮치다	1.36	3
429	떠받치다	1.50	3
430	받치다	1.50	3
431	받치다	2.29	
432	부딪치다	1.79	2
433	뺨치다	1.79	2
434	엮치다	1.86	4
435	부딪뜨리다	2.50	
436	부딪뜨리다	2.50	
437	쏟뜨리다	2.36	
438	쏟뜨리다	2.36	
439	젖뜨리다	2.43	
440	젖뜨리다	2.43	
441	찢뜨리다	2.36	
442	찢뜨리다	2.36	
443	흘뜨리다	2.36	
444	흘뜨리다	2.21	
445	미덥다	1.93	4
446	우습다	1.21	2
447	미쁘다	2.14	

448	갈죽이	2.07	
449	꿀꿀이	1.29	
450	눈깜짝이	1.57	
451	더떨이	2.64	
452	배불뚝이	1.64	
453	빠죽이	1.57	
454	살살이	1.57	
455	쌩쌩이	1.64	
456	오뎅이	1.50	4
457	코납작이	1.79	
458	푸석이	1.86	
459	홀죽이	1.36	4
460	깜짝이다	1.21	
461	꾸벅이다	1.29	
462	끄덕이다	1.07	
463	뒤척이다	1.36	
464	들먹이다	1.57	
465	망설이다	1.21	
466	번득이다	1.36	
467	번쩍이다	1.21	
468	속삭이다	1.14	
469	속덕이다	1.64	
470	울먹이다	1.43	3
471	움직이다	1.07	1
472	지껄이다	1.36	2
473	퍼덕이다	1.36	
474	허덕이다	1.29	
475	헐떡이다	1.43	
476	급히	1.14	
477	꾸준히	1.29	
478	도저히	1.43	2
479	딱히	1.50	4
480	어렴풋이	1.43	
481	깨끗이	1.43	
482	반드시	1.29	1
483	솔며시	1.36	3
484	가까이	1.07	2
485	가랑니	2.21	
486	가름	1.93	4
487	가만히	1.43	2
488	가בות	2.36	
489	가다	2.50	1
490	가윗일	2.50	
491	가지다	1.43	1
492	가하다	1.64	3
493	각별히	1.79	
494	간니	2.50	4
495	가다	1.21	1
496	간소히	1.79	4
497	간편하다	1.43	3
498	간편히	1.36	4

499	갈음	2.14	
500	값없다	2.07	4
501	개	1.57	1
502	개다	1.71	2
503	객쩍다	2.64	
504	거기	1.00	1
505	거북하다	1.43	
506	거치다	1.36	2
507	걸잡다	1.86	4
508	걸늠다	2.14	
509	걸잡다	2.14	
510	견디어	1.21	1
511	결단코	1.43	4
512	결코	1.14	1
513	검	2.00	3
514	검연쩍다	2.00	4
515	겹겹이	1.50	4
516	겹날	2.21	
517	고랏재	2.92	
518	고요히	1.50	
519	고이	1.21	3
520	곤란	1.36	2
521	골병	1.50	4
522	골탕	1.50	
523	곰곰이	1.36	3
524	곳간	1.57	2
525	공평히	1.43	3
526	과	1.00	
527	과감히	1.43	4
528	괴다	1.71	
529	국말이	1.86	4
530	굶주리다	1.50	3
531	귀때기	1.79	
532	긋밥	1.64	3
533	긋병	1.43	3
534	그것	1.00	1
535	그곳	1.00	4
536	그때	1.00	1
537	극히	1.29	
538	급급히	1.86	4
539	기필코	1.29	4
540	깟목	2.00	3
541	깟잎	1.21	3
542	깽꽃이	2.14	3
543	꼬다	1.57	2
544	꼼꼼히	1.71	4
545	꽃잎	1.00	2
546	꿀탕	2.50	
547	꿀장	1.86	
548	나	1.21	1
549	나룻배	1.64	3

550	나른히	1.57	
551	나뭇가지	1.07	2
552	나뭇잎	1.07	1
553	나뭇이	2.29	
554	나다	1.64	1
555	날카로이	1.43	
556	남궁역	2.43	
557	낯잡다	2.00	
558	내다	1.36	1
559	내지	2.00	3
560	넋가	1.36	2
561	넋물	1.29	2
562	너	1.21	1
563	넉넉하다	1.21	2
564	논란	1.71	
565	놀음	1.57	
566	누이다	1.93	4
567	늠다	1.93	3
568	느긋이	1.50	
569	느리다	1.00	1
570	느	1.07	
571	느	1.54	
572	늘리다	1.50	2
573	늘이다	1.71	3
574	능히	1.50	
575	다니다	1.21	1
576	다리다	1.50	1
577	다정하다	1.21	2
578	다치다	1.36	1
579	달치다	1.86	
580	달이다	1.71	2
581	답답히	1.86	
582	당당히	1.57	
583	대	1.21	2
584	대	1.86	2
585	대가지	1.93	
586	대대	1.57	3
587	대로	1.57	1
588	대수로이	1.71	
589	덥싸리	2.57	
590	댓잎	2.14	
591	더욱이	1.50	2
592	더하여	1.14	2
593	덧니	1.57	4
594	도	1.00	
595	도리깽열	3.07	
596	돈	1.00	1
597	동	1.14	1
598	두렛일	2.50	
599	두다	1.21	1
600	둥긋이	2.21	

601	뒷머리	1.71	3
602	뒷웃	2.43	
603	뒷일	2.07	4
604	뒷입맛	2.36	
605	듯하다	1.43	1
606	등	1.00	1
607	등등	1.14	
608	등속	2.14	
609	등지	1.93	2
610	따님	1.29	2
611	따뜻이	1.21	3
612	딱하다	1.36	2
613	때갈	1.86	
614	띄다	1.50	2
615	를	1.07	
616	마되	2.43	
617	마리	1.07	1
618	마소	1.50	3
619	마저	1.36	
620	마치다	1.14	2
621	막히어	1.36	1
622	만난(萬難)	1.64	
623	만만찮다	2.00	
624	만성	1.93	
625	만하다	1.43	2
626	맞먹다	1.79	4
627	맞히다	1.71	3
628	맷돌	1.71	2
629	머리카락	1.07	2
630	머릿기름	2.00	4
631	머릿니	2.21	
632	머릿방	2.14	
633	몹살	2.29	
634	멧나물	2.43	
635	며칠	1.36	1
636	모과	1.57	3
637	모깃불	2.07	4
638	목걸이	1.29	2
639	목재	1.50	3
640	못자리	1.86	3
641	무단히	1.71	4
642	무심코	1.29	2
643	무엇	1.07	1
644	무자위	2.64	
645	물난리	1.43	3
646	미터	1.07	2
647	밋	1.21	1
648	밀천	1.43	3
649	바	1.36	2
650	바느질	1.14	2
651	바닷가	1.07	2

652	박사	1.29	2
653	밖에	1.36	
654	반듯이	1.50	
655	반진고리	1.93	
656	받내다	2.29	
657	백혈병	1.58	4
658	뱃길	1.43	3
659	뱃병	2.21	
660	버렸다	1.14	1
661	버젓이	1.64	4
662	버티어	1.43	2
663	번거로이	1.57	4
664	벌놓다	2.50	
665	벌	1.00	1
666	법하다	1.79	4
667	베갯잇	2.36	
668	변변찮다	1.93	4
669	뱍씨	1.71	3
670	벧가리	2.00	
671	보이다	1.50	1
672	봇둑	2.43	
673	뵈다	1.43	4
674	부나비	2.07	
675	부딪히다	1.86	2
676	부삽	2.00	2
677	부손	2.21	
678	부싯돌	1.79	4
679	부엌일	1.36	2
680	부질없다	1.86	4
681	분	1.07	1
682	분노	1.29	3
683	분명히	1.29	
684	붙이다	1.36	1
685	빈번이	1.57	4
686	빚나가다	1.43	2
687	빚물	1.00	2
688	빚나다	1.07	2
689	사랑니	1.43	4
690	사범대학	1.58	3
691	사삿일	2.64	
692	사잣밥	2.71	
693	사흘날	2.07	4
694	산뜻이	1.57	4
695	살	1.00	1
696	살코기	1.43	4
697	삼진날	2.29	4
698	상당히	1.29	3
699	상없다	2.29	
700	새파랑다	1.43	2
701	셋강	1.93	
702	셋노랑다	1.71	3

703	생각하다	1.00	1
704	생긋이	1.57	
705	서다	1.86	1
706	선생	1.07	1
707	선짓국	2.00	4
708	섣달	1.93	3
709	섣부르다	1.71	4
710	섭섭하다	1.43	2
711	섭섭히	1.86	
712	성갈	1.50	4
713	성싶다	1.93	4
714	세다	1.43	1
715	셋방	1.71	4
716	소나무	1.07	1
717	소홀히	1.57	3
718	솔직히	1.36	3
719	속히	1.36	3
720	손	1.00	1
721	송곳니	1.57	3
722	쇠다	2.07	4
723	씻조각	1.64	
724	수	1.00	1
725	수락	1.86	
726	수캐	1.93	
727	수컷	1.86	2
728	수탉	1.86	3
729	순가락	1.29	1
730	숫자	1.07	2
731	술하다	2.00	3
732	승낙	1.64	3
733	시꺼멓다	1.43	2
734	시름없다	2.07	
735	시방정토	3.00	
736	시왕	2.93	
737	시월	1.50	
738	시키다	1.21	1
739	식히다	1.50	2
740	싫증	1.57	3
741	심부름꾼	1.07	3
742	심히	1.43	4
743	십일	1.50	
744	싯누렁다	1.86	2
745	싸이다	1.64	
746	싸전	2.21	4
747	쏘아	1.29	1
748	쏘이다	1.43	3
749	쑤다	1.64	2
750	쓸쓸히	1.43	
751	씨	1.00	1
752	아랫니	1.50	4
753	아랫마을	1.57	

754	아랫방	1.79	4
755	아랫집	1.57	3
756	아름	1.57	2
757	아무렇다	1.57	1
758	아재비	2.43	
759	안녕	1.00	1
760	안치다	1.86	4
761	안팎	1.79	2
762	않다	1.14	1
763	알음	2.07	4
764	암캐	1.86	4
765	암컷	1.57	2
766	암탉	1.71	2
767	앞니	1.36	3
768	양칫물	1.79	2
769	어금니	1.36	3
770	어떻다	1.14	1
771	어름	1.93	4
772	엄격히	1.36	3
773	엇나가다	1.71	2
774	엇그저께	1.64	
775	엇저녁	1.64	4
776	엮누르다	2.14	
777	에서부터	1.50	
778	여달이	1.57	4
779	연구하다	1.14	2
780	열심히	1.00	1
781	열없다	2.36	4
782	엮들다	1.71	2
783	예삿일	2.07	3
784	오늘월	1.86	4
785	오륙십	1.64	
786	옷안	1.36	
787	옷오르다	2.57	
788	요컨대	1.86	4
789	옷잇	2.79	
790	우렁잇속	2.57	
791	우짚다	1.86	4
792	옷옷	1.64	3
793	원	1.00	1
794	월	1.00	1
795	윗니	1.43	3
796	유도탄	1.92	
797	유월	1.43	
798	으로	1.07	
799	으로만	1.50	
800	은	1.07	
801	의논	1.43	2
802	의령	2.36	
803	의젓이	1.93	4
804	이	1.29	

805	이	1.71	
806	이	1.71	
807	이나마	1.21	
808	이다	1.07	
809	이따가	1.29	1
810	이렇다	1.07	1
811	이마빠기	1.93	
812	이순신	1.43	
813	이튿날	1.43	
814	익살꾼	1.57	
815	익숙하다	1.29	3
816	일	1.00	1
817	일꾼	1.36	2
818	일찍이	1.21	4
819	입때	2.07	
820	입쌀	2.43	
821	잇몸	1.21	2
822	잇자국	1.64	
823	자루	1.07	2
824	자릿세	1.93	
825	잘다듬다	2.64	
826	잘다랗다	2.64	
827	잘주름	2.57	
828	장군	1.07	2
829	장꾼	1.79	4
830	장난꾼	1.29	4
831	젯더미	1.64	3
832	저렇다	1.14	2
833	저리다	1.29	3
834	적이	2.21	4
835	전셋집	2.07	
836	절이다	1.50	2
837	접때	1.93	
838	정결하다	1.64	4
839	정결히	1.71	
840	정녕코	2.14	
841	정확히	1.14	3
842	젓니	1.93	4
843	젓몹살	2.29	
844	제삿날	1.71	3
845	조갯살	1.93	
846	조리다	1.43	2
847	조용히	1.07	
848	족히	1.50	4
849	줄이다	1.64	3
850	줍쌀	1.29	3
851	주리다	1.43	4
852	죽	1.07	2
853	줄이다	1.29	2
854	중거리	1.79	4
855	중학교	1.07	2

856	지	1.86	
857	지계꾼	1.57	4
858	짓이기다	2.07	4
859	착하다	1.14	1
860	찾간	2.14	4
861	찾잔	1.57	3
862	찾중	2.29	
863	찾집	1.71	4
864	채	1.43	2
865	처럼	1.07	
866	척한다	1.50	4
867	첫아들	1.36	
868	챗바퀴	1.79	4
869	초	1.00	2
870	초파일	1.79	3
871	춧국	2.36	
872	최치원	1.86	
873	충무공	1.64	
874	층	1.00	1
875	치이다	1.64	3
876	칼날	1.14	3
877	커다	1.77	1
878	컬레	1.36	1
879	코빠기	1.79	
880	콧병	1.64	3
881	킷값	2.36	4
882	타다	1.79	1
883	탄도	2.21	
884	탯줄	1.86	4
885	텅텅하다	1.93	4
886	텃마당	1.86	
887	텃세	1.64	4
888	토론	1.14	2
889	톱니	1.29	3
890	틔간	2.36	
891	틔마루	2.21	4
892	특히	1.21	1
893	틀니	1.43	4
894	툼툼이	1.57	3
895	판자때기	1.64	
896	팔꿈치	1.07	2
897	팔일	1.50	
898	팔알	1.50	
899	퍼다	1.14	1
900	폭하다	1.64	4
901	푼소	2.71	
902	필연코	1.93	
903	핏기	1.64	4
904	핏대	1.71	4
905	하마터면	1.57	4
906	하여튼	1.57	3

907	하염없다	1.64	4
908	학년	1.00	1
909	한사코	1.71	3
910	할아버지	1.00	1
911	할아범	1.36	3
912	해죽이	2.21	4
913	햏쌀	1.57	3
914	햇별	1.00	2
915	햇수	1.71	4
916	허락	1.29	2
917	헛되다	1.50	3
918	헛되이	1.50	
919	헛웃음	1.71	
920	헛바늘	1.64	4
921	호	1.57	1
922	홀아비	1.36	4
923	홀몸	1.71	
924	화살	1.07	2
925	황보지봉	2.71	
926	회령	2.43	
927	횃가루	2.14	4
928	횃배	2.50	
929	횃수	1.64	4
930	훗날	1.57	4
931	훗일	1.57	4
932	흔하다	1.36	2
933	흙내	1.79	4
934	끼나풀	2.14	4
935	나팔꽃	1.21	2
936	부엌	1.29	1
937	칸	1.29	2
938	털어먹다	1.79	4
939	가을갈이	1.86	4
940	거시기	1.50	
941	분침	1.50	4
942	강낭콩	1.50	4
943	고삿	2.64	
944	사글세	2.07	4
945	갈비	1.07	3
946	갓모	2.64	
947	굴젓	1.86	4
948	말결	2.43	
949	물수란	2.58	
950	밀뜨리다	2.14	
951	휴지	1.00	1
952	돌	1.21	1
953	둘째	1.00	2
954	셋째	1.14	2
955	넷째	1.14	2
956	빌리다	1.21	1
957	열두째	1.21	

958	스물두째	1.36	
959	수평	1.79	
960	수나사	2.14	
961	수놈	1.79	4
962	수사돈	2.29	
963	수소	1.93	2
964	수은행나무	1.83	
965	수강아지	2.07	4
966	수컷	1.43	2
967	수키와	2.14	
968	수탕나귀	2.00	
969	수돌쩌귀	2.36	
970	수돼지	2.07	
971	수평아리	2.07	
972	숫양	1.93	
973	숫염소	1.93	
974	숫쥐	1.93	
975	강충강충	1.50	2
976	발가숭이	1.50	
977	보통이	1.93	
978	봉죽	2.50	
979	뺨정다리	2.36	
980	아서, 아서라	1.79	
981	주추	2.21	
982	부조(扶助)	2.14	3
983	사돈(查頓)	1.71	2
984	삼촌(三寸)	1.14	1
985	냄비	1.36	3
986	동댕이치다	2.14	4
987	아지랑이	1.50	2
988	미장이	1.79	4
989	유기장이	1.86	
990	멋쟁이	1.21	2
991	소금쟁이	1.29	2
992	담쟁이덩굴	1.57	4
993	골목쟁이	1.86	
994	발목쟁이	1.86	
995	괴팍하다	2.00	4
996	미루나무	1.50	2
997	미륵	1.57	4
998	여느	1.50	4
999	온달	1.36	
1000	으레	2.00	3
1001	케케묵다	2.00	4
1002	허우대	1.79	4
1003	허우적허우적	1.43	4
1004	각쟁이	1.29	4
1005	나무라다	1.14	2
1006	미수	1.57	3
1007	바라다	1.29	1
1008	상추	1.29	2

1009	시러베아들	2.83	
1010	주책	1.57	
1011	지루하다	1.21	2
1012	튀기	2.14	4
1013	허드레	2.00	
1014	호루라기	1.29	2
1015	윗넓이	1.57	
1016	윗눈썹	1.50	
1017	윗당줄	2.29	
1018	윗덧줄	2.29	
1019	윗도리	1.64	4
1020	윗동아리	2.07	
1021	윗막이	2.14	
1022	윗머리	1.93	
1023	윗목	1.64	4
1024	윗몸	1.29	3
1025	윗바람	2.07	
1026	윗배	1.64	4
1027	윗벌	2.07	
1028	윗변	1.79	
1029	윗사랑	2.33	
1030	윗세장	2.57	
1031	윗수염	1.57	
1032	윗입술	1.36	3
1033	윗잇몸	1.36	4
1034	윗자리	1.86	3
1035	윗중방	2.36	
1036	위짹	1.93	
1037	위쪽	1.43	2
1038	위채	1.86	4
1039	위층	1.43	3
1040	위치마	1.86	
1041	위턱	1.64	
1042	위팔	1.64	
1043	웃국	2.29	
1044	웃기	2.29	
1045	웃돈	2.07	
1046	웃비	2.21	
1047	구법(句法)	2.43	
1048	구절(句節)	2.00	2
1049	구점(句點)	2.21	
1050	결구(結句)	2.29	
1051	경구(警句)	2.07	
1052	경인구(驚人句)	2.75	
1053	난구(難句)	2.50	
1054	단구(短句)	2.50	
1055	단명구(短命句)	2.67	
1056	대구(對句)	2.07	
1057	문구(文句)	1.57	
1058	성구(成句)	2.21	
1059	시구(詩句)	1.79	3

1060	어구(語句)	1.50	4
1061	연구(聯句)	2.14	
1062	인용구(引用句)	1.71	
1063	절구(絶句)	1.93	
1064	귀글	2.36	
1065	글귀	1.86	4
1066	귀찮다	1.36	2
1067	김	1.00	3
1068	파리	1.64	
1069	무	1.21	1
1070	미다	1.79	
1071	뱀	1.00	1
1072	뱀장어	1.29	2
1073	빔	1.64	
1074	쌈	1.36	
1075	생쥐	1.29	2
1076	솔개	1.57	2
1077	온갖	1.50	1
1078	장사치	1.64	4
1079	경황없다	1.86	
1080	궁상떨다	2.00	
1081	귀이개	1.79	3
1082	깎새	1.57	4
1083	낙인찍다	1.75	
1084	내왕꾼	2.50	
1085	뒤웅박	2.21	2
1086	뒷물대야	2.57	
1087	마구잡이	1.64	
1088	맵자하다	2.50	
1089	모이	1.14	2
1090	벽돌	1.07	2
1091	부스럼	1.50	4
1092	살얼음판	1.64	
1093	수두룩하다	1.57	3
1094	암죽	2.29	
1095	어음	1.86	4
1096	일구다	1.50	3
1097	죽살이	2.21	
1098	퇴박맞다	2.57	
1099	한통치다	2.57	
1100	거짓부리	1.83	
1101	노을	1.07	2
1102	막대기	1.07	2
1103	망태기	1.93	4
1104	머무르다	1.07	2
1105	서두르다	1.07	1
1106	서투르다	1.36	2
1107	석새삼베	2.93	
1108	시누이	1.57	4
1109	오누이	1.36	4
1110	외우다	1.29	1

1111	이기죽거리다	2.14	
1112	찌꺼기	1.50	2
1113	거든그리다	2.43	
1114	구어박다	2.43	
1115	귀고리	1.64	4
1116	귀뿔	1.93	4
1117	귀지	1.43	4
1118	까딱하면	1.43	4
1119	꼭두각시	1.50	4
1120	내색	1.50	4
1121	내숭스럽다	1.86	
1122	남남거리다	1.57	
1123	남남이	1.64	
1124	너[四]	1.43	1
1125	넉[四]	1.43	3
1126	다다르다	1.43	2
1127	더부룩하다	1.71	4
1128	망가뜨리다	1.36	4
1129	멸치	1.07	2
1130	반빛아치	2.57	
1131	보습	1.79	
1132	본새	2.07	
1133	봉숭아	1.29	2
1134	뺨다귀	2.21	
1135	빠개다[斫]	2.57	
1136	빠기다[誇]	2.21	3
1137	사자탈	2.07	
1138	상판대기	2.00	
1139	서[三]	1.36	
1140	석[三]	1.43	1
1141	설령	1.71	4
1142	시름시름	1.43	4
1143	쌈백쌈백	2.43	
1144	아궁이	1.50	3
1145	아내	1.07	1
1146	어중간	1.71	
1147	오금팽이	2.50	
1148	오래오래	1.14	4
1149	옹골차다	2.21	4
1150	우두커니	1.36	2
1151	잠투정	1.43	
1152	재봉틀	1.36	2
1153	짓무르다	1.71	
1154	짚북데기	2.57	
1155	천장(天障)	1.79	2
1156	코맹맹이	1.50	4
1157	흥업다	2.00	
1158	네	1.21	1
1159	괴다	1.86	
1160	꽤다	1.50	
1161	썩다	1.50	2

1162	죄다	1.43	
1163	쪼다	1.57	
1164	거슴츠레하다	2.14	
1165	고까	2.00	3
1166	고린내	1.93	
1167	교기	2.21	
1168	구린내	1.64	4
1169	꺼림하다	1.93	
1170	나부랭이	1.86	
1171	난봉	2.07	
1172	낭떠러지	1.50	2
1173	설거지하다	1.36	4
1174	애달프다	1.71	
1175	오동나무	1.21	2
1176	자두	1.07	1
1177	가루약	1.14	2
1178	구들장	1.86	4
1179	길품삿	2.43	
1180	까막눈	1.64	4
1181	꼭지미역	2.36	
1182	나뭇갓	2.64	
1183	늪다리	1.86	
1184	두껍달이	2.64	
1185	떡암죽	2.58	
1186	마른갈이	2.50	
1187	마른빨래	1.79	
1188	메찰떡	2.57	
1189	박달나무	1.36	3
1190	밥소라	2.07	
1191	사래논	2.21	
1192	사래밭	2.21	
1193	삿말	2.50	
1194	성냥	1.07	2
1195	숯을무늬	2.71	
1196	외지다	1.79	3
1197	옴파	2.64	
1198	잎담배	1.71	3
1199	잔돈	1.21	2
1200	조당수	2.36	
1201	죽데기	2.36	
1202	지겟다리	2.07	
1203	짐꾼	1.36	
1204	푼돈	1.43	3
1205	흰말	1.50	
1206	흰죽	1.50	4
1207	개다리소반	2.21	
1208	겸상	2.00	
1209	고봉밥	2.36	
1210	단벌	1.93	4
1211	마방집	2.57	
1212	민망스럽다/면구	2.00	

	스럽다		
1213	방고래	2.71	
1214	부항단지	2.71	
1215	산누에	2.14	
1216	산줄기	1.64	3
1217	수삼	1.71	4
1218	심돋우개	2.58	
1219	양파	1.07	2
1220	어질병	1.92	
1221	윤달	1.79	4
1222	장력세다	2.50	
1223	제석	2.50	
1224	총각무	1.64	4
1225	চিত	1.14	1
1226	포수	1.14	3
1227	멍게/우렁챙이	1.64	4
1228	물방개/선두리	1.79	
1229	애순/어린순	2.14	4
1230	귀밑머리	2.00	4
1231	까뭉개다	2.00	
1232	막상	1.43	4
1233	빈대떡	1.29	2
1234	생인손	2.50	
1235	역겹다	1.50	4
1236	코주부	1.79	4
1237	게꿈	1.71	
1238	검사검사	1.71	4
1239	고구마	1.07	1
1240	광주리	1.50	2
1241	괴통	2.50	
1242	국물	1.07	2
1243	군표	2.00	
1244	길잡이	1.43	3
1245	까다롭다	1.43	2
1246	까치발	1.57	
1247	꼬창모	2.43	
1248	납도리	2.64	
1249	농지거리	2.43	
1250	다사스럽다	2.57	
1251	다오	2.00	
1252	담배공초	1.50	
1253	담배설대	2.33	
1254	대장일	1.93	
1255	뒤져내다	1.86	
1256	뒤통수치다	1.57	
1257	등나무	1.43	2
1258	등때기	2.07	
1259	등잔걸이	2.14	
1260	떡보	1.86	4
1261	똑딱단추	1.86	3
1262	매만지다	1.71	4

1263	먼발치	1.86	3
1264	머느리발톱	2.36	
1265	명주불이	2.29	
1266	목메다	1.71	3
1267	밀짚모자	1.50	2
1268	바람꼭지	2.21	
1269	반나절	1.50	3
1270	반두	2.29	
1271	본받다	1.43	2
1272	부각	1.79	
1273	부끄러워하다	1.14	2
1274	부스러기	1.21	3
1275	부지깽이	2.29	4
1276	붉으락푸르락	1.79	4
1277	비커덩이	2.50	
1278	빙충이	2.50	
1279	빠뜨리다	1.43	3
1280	뻗뻗하다	1.43	
1281	뽕내다	1.36	2
1282	사로잡그다	2.50	
1283	살풀이	2.21	
1284	상투쟁이	2.36	
1285	새양손이	2.57	
1286	샛별	1.36	3
1287	선머슴	1.79	4
1288	속말	1.79	4
1289	손목시계	1.07	4
1290	손수레	1.14	3
1291	쇠고랑	1.21	4
1292	수도꼭지	1.07	3
1293	숙성하다	1.71	4
1294	순대	1.07	4
1295	술고래	1.50	4
1296	식은땀	1.50	3
1297	신기롭다	1.50	
1298	쌍동밤	2.00	
1299	쏟살같이	1.57	3
1300	아주	1.00	1
1301	안걸이	2.29	
1302	안다미씩우다	2.57	
1303	안스럽다	1.79	4
1304	안절부절못하다	1.93	3
1305	얇은뱅이저울	2.21	
1306	알사탕	1.07	4
1307	암내	1.71	
1308	앞지르다	1.21	2
1309	애벌레	1.21	2
1310	얇은피	1.64	
1311	언뜻	1.57	3
1312	언제나	1.07	1
1313	얼룩말	1.14	2

1314	에는	1.21	
1315	열어제치다	1.86	
1316	입담	1.64	
1317	자배기	2.50	
1318	전봇대	1.29	3
1319	주책없다	2.00	4
1320	쥐락펴락	2.21	4
1321	-지만	1.29	
1322	짓고땡	2.57	
1323	짧은작	2.29	
1324	잡쌀	1.43	2
1325	청대콩	2.21	
1326	촬범	2.14	4
1327	가는허리/잔허리	1.86	
1328	가락엿/가래엿	2.00	4
1329	가뭇/가물	1.36	2
1330	가없다/가엿다	1.71	3
1331	감감무소식/감감소식	1.71	
1332	개수통/설거지통	2.00	
1333	개숫물/설거지물	2.00	4
1334	갱엿/검은엿	2.07	
1335	-거리다/대다	1.71	
1336	거위배/횃배	2.29	
1337	것/해	1.82	
1338	게을러빠지다/게을러터지다	1.86	
1339	고깃간/푸줏간	2.21	
1340	관계없다/상관없다	1.57	4
1341	교정보다/준보다	2.00	
1342	구들재/구재	2.29	
1343	귀통머리/귀통배기	2.14	
1344	극성떨다/극성부리다	1.86	
1345	기세부리다/기세피우다	1.86	
1346	기승떨다/기승부리다	1.79	
1347	깃저고리/배내옷/배넛저고리	2.36	4
1348	까까중/중대가리	2.14	
1349	꼬까/때때/고까	2.00	2
1350	꼬리별/살별	2.27	
1351	꽃도미/볶돔	2.33	
1352	나귀/당나귀	1.57	2
1353	날걸/세뿔	2.43	
1354	내리글씨/세로글씨	2.00	
1355	넝쿨/덩굴	1.79	2
1356	넉/쪽	1.57	1

1357	눈대중/눈어림/눈짐작	1.71	4
1358	느리광이/느림보/늘보	1.57	3
1359	늦모/마냥모	2.21	
1360	다기지다/다기차다	2.43	
1361	다달이/매달	1.64	3
1362	-다마다/고말고	1.71	
1363	다박나룻/다박수염	2.27	
1364	닭의장/닭장	1.50	2
1365	댓돌/틔돌	2.36	4
1366	덧창/겉창	2.43	
1367	독장치다/독판치다	2.71	
1368	동자기동/쪼구미	2.73	
1369	돼지감자/똥단지	2.07	
1370	되우/되통/되게	2.21	3
1371	두동무니/두동사니	2.29	
1372	뒷갈망/뒷감당	2.43	
1373	뒷말/뒷소리	1.86	4
1374	들락거리다/들랑거리다	1.79	
1375	들락날락/들랑날랑	1.79	4
1376	딴전/딴청	1.86	4
1377	땅콩/호콩	1.21	2
1378	땀감/땀거리	1.57	3
1379	뜨리다/트리다	1.86	
1380	뜯것/뜯귀신	2.00	
1381	마룻줄/용총줄	2.50	
1382	마파람/앞바람	2.29	4
1383	만장판/만장중	2.29	
1384	만큼/만치	1.57	3
1385	말동무/말벗	1.86	3
1386	매갈이/매조미	2.36	
1387	매통/목매	2.36	
1388	먹새/먹음새	2.00	
1389	멀찌감치/멀찌가니/멀찍이	2.00	3
1390	먹통/산먹/산먹통	2.21	
1391	면치레/외면치레	2.14	
1392	모내다/모심다	1.79	
1393	모쪼록/아무쪼록	1.86	2
1394	목판되/모되	2.14	
1395	목화씨/면화씨	1.93	
1396	무심결/무심중	1.71	4
1397	물봉숭아/물봉선화	2.14	
1398	물부리/빨부리	2.21	
1399	물심부름/물시중	1.93	

1400	물추리나무/물추리막대	2.43	
1401	물타작/진타작	2.21	
1402	민동산/별거숭이	1.86	3
1403	밑층/아래층	1.43	4
1404	바깥벽/발벽	1.64	
1405	바른/오른	1.21	3
1406	발모가지/발목쟁이	2.21	
1407	버들강아지/버들개지	1.43	4
1408	벌레/버러지	1.07	1
1409	변덕스럽다/변덕맞다	1.57	3
1410	보조개/불우물	1.29	2
1411	보통내기/여간내기/예사내기	1.79	
1412	볼따구니/볼통이/볼때기	1.71	
1413	부침개질/부침질/지침질	1.93	3
1414	불뚱았다/등화지다/등화았다	2.21	
1415	불사르다/사르다	1.79	3
1416	비발/비용	2.21	
1417	뽀두라지/뽀루지	1.79	
1418	살행이/살	2.14	4
1419	삽살개/삽사리	1.79	4
1420	상두꾼/상여꾼	2.07	
1421	상씨름/소걸이	2.14	
1422	생/새양/생강	1.50	2
1423	생뿔/새양뿔/생강뿔	2.14	
1424	생철/양철	2.33	
1425	서럽다/쉽다	1.64	2
1426	서방질/화냥질	2.25	
1427	성글다/성기다	2.00	4
1428	-(으)세요/(으)셔요	1.57	
1429	송이/송이버섯	1.21	3
1430	수수깡/수숫대	1.50	3
1431	술안주/안주	1.43	2
1432	스레하다/스름하다	1.50	
1433	시늉말/흉내말	1.64	
1434	시새/세사	2.21	
1435	신/신발	1.00	1
1436	신주보/독보	2.33	
1437	심술꾸러기/심술쟁이	1.43	2
1438	쓸쓰레하다/쓸쓰름하다	2.21	
1439	아귀세다/아귀차	2.50	

	다		
1440	아래위/위아래	1.21	
1441	아무튼/어떻든/어쨌든/하여튼/여하튼	1.71	3
1442	앗음새/앗음앓음	2.07	
1443	알은척/알은체	2.07	
1444	애갈이/애벌갈이	2.21	
1445	애꾸눈이/외눈박이	1.86	4
1446	양념감/양념거리	1.64	
1447	어금버금하다/어금지금하다	2.36	
1448	어기여차/어여차	1.71	
1449	어림잡다/어림치다	1.71	4
1450	어이없다/어처구니없다	1.50	3
1451	어저께/어제	1.36	1
1452	언덕바지/언덕배기	1.71	4
1453	얼렁뚱땅/엄병땡	1.79	4
1454	여왕벌/장수벌	1.71	3
1455	여쭙다/여쭙다	1.43	2
1456	여태/입때	1.64	3
1457	여태껏/이제껏/입때껏	1.79	4
1458	역성들다/역성하다	2.21	
1459	연달다/잇달다	1.64	3
1460	옛가락/옛가래	1.64	
1461	옛기름/옛길금	1.86	4
1462	옛반대기/옛자박	2.36	
1463	오사리잡놈/오색잡놈	2.91	
1464	옥수수/강냉이	1.00	2
1465	왕골기직/왕골자리	2.29	
1466	외겹실/외올실/홀실	2.57	
1467	외손잡이/한손잡이	1.64	
1468	욕심꾸러기/욕심쟁이	1.21	2
1469	우레/천둥	1.50	2
1470	우지/울보	1.50	2
1471	올러대다/올러메다	2.14	
1472	의심스럽다/의심쩍다	1.71	3
1473	-이에요/이어요	1.79	
1474	이틀거리/당고금	2.14	
1475	일일이/하나하나	1.50	3
1476	일찌감치/일찌거	1.50	4

	니		
1477	입찬말/입찬소리	2.29	
1478	자리웃/잠웃	1.57	
1479	자물쇠/자물통	1.36	2
1480	장가가다/장가들다	1.50	3
1481	재롱떨다/재롱부리다	1.43	
1482	제가끔/제각기	1.57	2
1483	좀처럼/좀체	1.57	2
1484	줄곧/줄잡이	1.79	
1485	중신/중매	1.71	3
1486	짚단/짚뭇	1.64	4
1487	쪽/편	1.14	1
1488	차차/차츰	1.29	2
1489	책씻이/책거리	1.86	4
1490	척/체	1.57	2
1491	천연덕스럽다/천연스럽다	1.64	4
1492	철따구니/철딱서니/철딱지	2.14	4
1493	추어올리다/추어주다	2.21	4
1494	축가다/축나다	2.43	4
1495	침놓다/침주다	1.79	
1496	통꼭지/통젓	2.21	
1497	파자쟁이/해자쟁이	2.36	
1498	편지투/편지틀	2.00	
1499	한턱내다/한턱하다	1.57	
1500	해웃값/해웃돈	2.71	
1501	혼자되다/홀로되다	1.64	
1502	흠가다/흠나다/흠지다	1.86	
1503	찌다	1.50	2
1504	시계	1.14	1
1505	연계	1.86	
1506	메별	2.71	
1507	개폐	1.93	4
1508	지혜	1.29	2
1509	희뽕다	2.42	
1510	주의	1.36	3
1511	협의	1.71	3
1512	눈보라	1.29	2
1513	말씨	1.43	2
1514	밤나무	1.14	2
1515	멀리	1.21	1
1516	벌리다	1.36	2
1517	첫눈	1.29	4
1518	참말	1.14	3
1519	수많이	1.57	

1520	눈멀다	1.71	3
1521	떠벌리다	1.57	4
1522	기다	1.21	1
1523	감다	1.29	1
1524	알다(알아)	1.14	1
1525	꼴다	1.14	1
1526	뽕다	1.86	2
1527	벌다(벌어)	1.36	1
1528	썰다(썰어)	1.36	2
1529	꼬이다	1.50	2
1530	밟히다	1.43	1
1531	끌리다	1.50	3
1532	밀물	1.36	3
1533	썰물	1.36	3
1534	작은아버지	1.14	2
1535	닭다	1.29	1
1536	키웁	1.71	
1537	젓	1.29	1
1538	빛다	1.64	2
1539	솔	1.21	1
1540	뺨다	1.29	2
1541	뒹다	1.21	1
1542	외곶	2.14	4
1543	핥다	1.93	2
1544	밟다	1.50	1
1545	넓죽하다	1.93	
1546	넓둥글다	2.14	
1547	닭	1.21	1
1548	맑다	1.43	1
1549	늑지	1.57	[1]
1550	몹다	1.64	3
1551	얼다	1.57	3
1552	얼거나	1.71	[3]
1553	놓다	1.21	[1]
1554	각하	1.43	3
1555	먹히다	1.29	2
1556	밟히다	1.29	3
1557	만형	1.43	
1558	줍히다	1.29	3
1559	꽃히다	1.50	2
1560	당소	1.71	[1]
1561	싫다	1.50	[1]
1562	쌍다	1.43	[2]
1563	뿜다	1.64	[1]
1564	낱다	1.57	[1]
1565	꽃다	1.21	[1]
1566	뒹이다	1.21	2
1567	젓어미	2.07	4
1568	맛없다	1.43	4
1569	겉웃	1.36	3
1570	맛있다	1.29	1

1571	멋있다	1.29	1
1572	값어치	1.57	3
1573	곧이듣다	1.86	4
1574	굽는	1.29	[2]
1575	닫다	1.14	[1]
1576	옷맵시	1.64	3
1577	맞다	1.14	[2]
1578	젖멍울	2.07	
1579	꽃망울	1.79	3
1580	붙다	1.29	[1]
1581	잡다	1.14	[1]
1582	밥물	1.29	3
1583	앞마당	1.29	3
1584	담력	1.50	4
1585	침략	1.43	2
1586	강릉	1.29	
1587	항로	1.57	3
1588	대통령	1.14	1
1589	막론	1.79	
1590	백리	1.50	
1591	십리	1.36	
1592	난로	1.14	2
1593	신라	1.07	2
1594	천리	1.36	
1595	대관령	1.43	
1596	줄넘기	1.00	2
1597	닭다	1.64	[2]
1598	의견란	1.86	
1599	임진란	1.93	
1600	생산량	1.79	3
1601	결단력	2.00	4
1602	공권력	2.07	4
1603	동원령	2.00	
1604	상견례	2.07	
1605	횡단로	1.71	
1606	이원론	1.91	
1607	입원료	1.71	
1608	구근류	2.27	
1609	감기	1.00	1
1610	옷감	1.21	2
1611	꽃길	1.36	3
1612	젓먹이	1.50	3
1613	문법	1.21	
1614	꽃밭	1.43	2
1615	이오	1.50	
1616	아니오	1.36	1
1617	국밥	1.07	4
1618	넋받이	2.21	
1619	샅돈	1.93	
1620	뽀대다	1.86	
1621	웃고름	1.36	4

1622	꽃다발	1.07	2
1623	낮설다	1.50	2
1624	발갈이	1.64	3
1625	솔전	2.09	
1626	곱돌	2.36	
1627	옆집	1.29	2
1628	윙조리다	2.00	4
1629	꺼안다	1.36	2
1630	엎다	1.50	[2]
1631	삼다	1.21	[1]
1632	더듬지	1.57	[2]
1633	닭고	1.43	[1]
1634	안기다	1.14	3
1635	감기다	1.21	3
1636	굽기다	1.57	4
1637	갈등	1.64	2
1638	발동	1.64	4
1639	절도	1.93	4
1640	말살	2.00	4
1641	불소	2.21	
1642	일시	1.29	
1643	갈증	1.57	3
1644	물질	1.50	2
1645	발전	1.50	3
1646	물상식	1.86	4
1647	불세출	2.14	
1648	허허실실	1.64	
1649	절절하다	1.86	4
1650	문고리	1.29	4
1651	눈동자	1.21	2
1652	신바람	1.43	3
1653	산새	1.14	
1654	손재주	1.50	3
1655	길가	1.29	2
1656	물동이	1.50	2
1657	발바닥	1.07	2
1658	굴속	1.64	
1659	술잔	1.14	3
1660	바람결	1.50	3
1661	그믐달	1.29	4
1662	아침밥	1.21	2
1663	잠자리	1.07	2
1664	강가	1.07	2
1665	초승달	1.14	2
1666	등불	1.07	2
1667	창살	1.43	3
1668	강줄기	1.43	3
1669	숨이불	1.50	4
1670	홀이불	1.64	4
1671	막일	1.64	4
1672	샅일	2.14	

1673	맨입	1.29	4
1674	내복약	1.93	4
1675	한여름	1.36	3
1676	색연필	1.07	2
1677	직행열차	1.79	
1678	늑막염	2.29	4
1679	콩엿	1.64	4
1680	담요	1.21	2
1681	눈요기	1.71	4
1682	영업용	1.64	
1683	식용유	1.14	3
1684	이죽이죽	2.00	
1685	야금야금	1.79	4
1686	검열	1.93	3
1687	올랑올랑	2.64	
1688	금융	1.79	2
1689	들일	1.86	3
1690	솔잎	1.43	3
1691	설익다	1.86	4
1692	물약	1.36	4
1693	불여우	1.50	
1694	물엿	1.50	4
1695	휘발유	1.29	2
1696	유들유들	1.79	4
1697	송별연	2.43	
1698	등용문	2.25	
1699	샛길	1.64	4
1700	빨랫돌	2.14	
1701	콧등	1.21	3
1702	깃발	1.21	2
1703	대팻밥	2.00	
1704	햇살	1.21	2
1705	벧속	1.43	2
1706	벧전	1.93	3
1707	고갯짓	1.79	3
1708	콧날	1.50	3
1709	벧머리	1.79	3
1710	fuga 푸가	2.14	
1711	ganga 강가	2.21	
1712	llama 야마	2.64	
1713	Bologna 볼로냐	2.36	
1714	bravo 브라보	2.07	
1715	Sicilia 시칠리아	2.00	
1716	Pinocchio 피노키오	1.86	
1717	Dante 단테	1.79	
1718	Firenze 피렌체	2.00	
1719	Genova 제노바	1.79	
1720	gloria 글로리아	1.71	
1721	Milano 밀라노	1.79	

1722	largo 라르고	1.86	
1723	Macchiavelli 마키아벨리	2.29	
1724	Campanella 캄파넬라	2.64	
1725	Nero 네로	1.79	
1726	divertimento 디베르티멘토	2.57	
1727	Pisa 피사	1.79	
1728	Roma 로마	1.50	
1729	Marconi 마르코니	2.29	
1730	Sorrento 소렌토	2.07	
1731	Torino 토리노	1.93	
1732	Vivace 비바체	2.07	
1733	gap[gæp]갭	2.14	
1734	act[ækt] 액트	2.00	
1735	stamp[stæmp] 스탬프	1.57	
1736	cape[keip] 케이프	2.57	
1737	part[pa:t]파트	1.71	4
1738	desk[desk] 데스크	1.57	
1739	mattress[mætris] 매트리스	2.07	
1740	bulb[bʌlb] 벌브	2.71	
1741	zigzag[zigzæg]지그재그	1.86	4
1742	lobster[lɒbstə] 로브스터	2.50	
1743	signal[signəl]시그널	2.14	
1744	mask[mɑ:sk]마스크	1.29	2
1745	jazz[dʒæz] 재즈	1.64	3
1746	graph[græpf]그래프	1.21	3
1747	olive[ɒliv] 올리브	1.36	
1748	thrill[θril] 스릴	1.86	
1749	flash[flæʃ] 플래시	1.86	
1750	fashion[fæʃən] 패션	1.36	3
1751	sheriff[ʃerif] 셰리프	2.57	
1752	shopping[ʃɒpɪŋ] 쇼핑	1.43	3

1753	vision[viʒən] 비전	1.79	
1754	Keats[ki:ts] 키츠	2.36	
1755	bridge[bridʒ] 브리지	2.21	
1756	Pittsburgh[pitsbə:g] 피츠버그	2.21	
1757	hitchhike[hiʃhaik] 히치하이크	2.29	
1758	chart[tʃɑ:t] 차트	1.86	
1759	steam[sti:m] 스팀	1.79	
1760	ring[rɪŋ] 링	1.21	
1761	lamp[læmp] 램프	1.64	3
1762	hint[hɪnt] 힌트	1.43	4
1763	ink[ɪŋk] 잉크	1.21	2
1764	hotel[houtel] 호텔	1.29	1
1765	pulp[pʌlp] 펄프	1.93	3
1766	slide[slaid] 슬라이드	1.36	3
1767	film[fɪlm] 필름	1.14	3
1768	Hamlet[hæmlɪt] 햄릿	1.79	
1769	Henley[henli] 헨리	1.93	
1770	team[ti:m] 팀	1.14	2
1771	route[ru:t] 루트	1.79	
1772	time[taim] 타임	1.29	
1773	house[haus] 하우스	1.21	
1774	skate[skeit] 스케이트	1.21	3
1775	boat[bout] 보트	1.43	4
1776	tower[tauə] 타워	1.29	3
1777	word[wə:d] 워드	1.71	
1778	west[west] 웨스트	1.71	
1779	wool[wul] 울	1.71	
1780	swing[swɪŋ] 스윙	1.36	
1781	twist[twɪst] 트위스트	1.57	
1782	penguin[peŋgwin] 펭귄	1.50	3
1783	whistle[hwɪsl] 휘슬	1.93	
1784	quarter[kwɔ:tə] 쿼터	1.93	

1785	yard[jɑ:d] 야드	1.64	
1786	Indian[ɪndjən] 인디언	1.21	
1787	bookend[bukend] 북엔드	2.29	
1788	headlight[hedlaɪt] 헤드라이트	1.93	3
1789	flashgun[flæʃɡʌn] 플래시건	2.50	
1790	Los Alamos [ləʊs æləməʊs] 로스앨러모스/로스앨러모스	2.29	
1791	top class[tɒpkləs] 톱클래스/톱클래스	1.93	
1792	Hormon[hɔːmɒn] 호르몬	1.79	4
1793	Hermes[hɜːməs] 헤르메스	2.07	
1794	Schiller[ʃɪlər] 실러	2.43	
1795	Rostock[rɒstɒk] 로스토크	2.36	
1796	Heidelberg[haidəl bɜːk, -bɜːç] 하이델베르크	2.14	
1797	Hamburg[hambur k, -bɜːç] 함부르크	1.93	
1798	chemise[ʃəmiːz] 슈미즈	2.43	
1799	chevalier[ʃəvəliə] 슈발리에	2.43	
1800	mignon[mɪŋ] 미뇽	2.57	
1801	Marseille[marsɛj] 마르세유	2.14	
1802	crayon[kreɪj] 크레용	1.71	2
1803	Montesquieu[mɒnteskjuː] 몽테스키외	2.50	
1804	gloria[ɡlɔːriə] 글로리아	1.64	
1805	crescendo[kreʃendo] 크레센	2.00	

	도		
1806	Tosca 토스카	2.21	
1807	allegretto 알레그레토	2.07	
1808	rosso 로소	2.29	
1809	sol 솔	1.79	2
1810	サッポロ 삿포로	2.00	
1811	トットリ 돗토리	2.29	
1812	キュウシュウ(九州) 규슈	2.00	
1813	ニイガタ(新潟) 니가타	2.07	
1814	トウキョウ(東京) 도쿄	1.57	
1815	オオサカ(大阪) 오사카	1.71	
1816	Ankara 앙카라	1.86	
1817	Gandhi 간디	1.79	
1818	Hague 헤이그	2.00	
1819	Caesar 시저	1.93	
1820	Pacific 태평양	1.71	
1821	Black Sea 흑해	1.86	
1822	東京 도쿄, 동경	1.50	
1823	京都 교토, 경도	1.93	
1824	上海 상하이, 상해	1.64	
1825	臺灣 타이완, 대만	1.86	
1826	黃河 황허, 황하	2.07	
1827	카리브 해	2.07	
1828	북해	1.71	
1829	발리 섬	1.93	
1830	목요섬	2.29	
1831	홍해	1.71	
1832	발트 해	2.07	
1833	아라비아 해	2.14	
1834	코르시카 섬	2.29	
1835	제주도	1.14	
1836	울릉도	1.14	
1837	주장 강(珠江)	2.36	
1838	위산 산(玉山)	2.29	
1839	Monte Rosa 몬테로사 산	2.29	
1840	Mont Blanc 몽블랑 산	2.07	
1841	Sierra Madre 시에라마드레 산맥	2.43	

3. 등급별 선정 어휘 목록(835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3.1. 초급 어휘 총 186개

네가	없음
가르치다	57항
싸둑	5항
김 선생님	48항
얼음	19항
다르다	57항
노니	18항
공부하러	없음
고마워	18항
떡볶이	19항
년	43항
반듯이	57항
켜도록	34항
시월	52항
자랑스러운	없음
띄어쓰기	9항
엇그저께	32항
넓이	57항
반드시	57항
줄이다	57항
갓다	없음
통틀어	없음
귀머거리	19항
넋두리	21항
손가락	29항
나뭇가지	30항
유월	52항
하야니까	18항
일찍이	24항
더욱이	25항
지곳이	25항
승락	52항
깍두기	5항
게시판	8항
곧이	19항
나뭇잎	30항
잇몸	30항
건힌다	57항

달여	57항
핑계	8항
광한루	12항
거친	18항
믿음	19항
곧이곧대로	19항
만둣	19항
납작하다	21항
햇볕	30항
가져	36항
씩어	38항
좀 더 큰 것, 좀더 큰 것	46항
올 듯하다, 올듯하다	47항
견잡을	57항
놀음	57항
단헛다	57항
가득히	없음
띄게	9항
긋병	30항
아랫니	30항
땃줄	30항
무늬	9항
빗물	30항
하늬바람	9항
뒗마루	30항
노름	57항
횃수	30항
예삿일	30항
등곳길	30항
호일	30항
셋방	30항
선짓국	30항
휴게실	8항
깻잎	30항
겻날	30항
부싷돌	30항
계세요	8항
찾간	30항
만만찮은	39항
넋가	30항
뎡잎	30항
사례	8항
호날	30항
머릿방	30항
변변찮은	39항
닝큼	9항
숫자	30항
곳간	30항
뒗간	30항

두렛일	30항
왕래	12항
멧나물	30항
낙원	12항
텃세	30항
내내월	12항
쌍둥이	8항
찌개	없음
괘스레	없음
강충강충	8항
오독이	8항
네/예	18항
사돈	8항
서툴다/서투르다	16항
수컷	7항
부조	8항
장구	8항
온갖	14항
시누이	16항
구시렁거리다	없음
삼촌	8항
허우적허우적	10항
노을/놀	16항
머무르다/머물다	16항
찌다/쪼이다	18항
괴다/고이다	18항
부스럼	15항
일구다	15항
마구잡이	15항
귀이개	15항
수두룩하다	15항
낌새	15항
경황없는	15항
뒷물대야	15항
맵자하다	15항
강낭콩	5항
적이	5항
발가숭이	8항
허우대	10항
생쥐	14항
아지랑이	9항
멋쟁이	9항
미장이	9항
-습니다	17항
냄비	9항
아지랑이	9항
바라다	11항
-던가	17항
상추	11항
꽁지	26항
잡히다	9항

미숫가루	11항
호루라기	11항
열두째	6항
봉숭아	17항
남남거리면서	17항
천장	17항
-(으)세요/-(으)셔요	26항
-이에요/-이어요	26항
국밥[국뽕]	23항
신라[실라]	20항
닭을[달글]	14항
월요일[워요일]	없음
아니오[아니오/아니요]	22항
주의[주의/주이]	5항
닭이[달기]	14항
감기[감:기]	21항
삼고[삼꼬]	24항
담임[다임]	없음
낱은[나은]	12항
찰나[찰라]	20항
문법[문뽕]	21항
비빔밥[비빔뽕]	28항
맛있다[마뎡따/마싯따]	15항
맛없다[마뎡따]	15항
답례[답네]	19항
상견례[상견네]	20항
-이오[이오/이요]	22항
갈등[갈똥]	26항
밤길[밤깁]	28항
줄넘기[줄럼끼]	20항
빚고[빚꼬]	9항

디지털	없음
프라이팬	2장 국제 음성 기호-모음
파이팅	2장 국제 음성 기호-모음
도넛	3장 1절 1항
데이터	2장 국제 음성 기호-모음
초콜릿	2장 국제 음성 기호-모음
로봇	3장 1절 1항
필름	3장 1절 6항
클로버	3장 1절 6항
톱 클래스	2장 국제 음성 기호-모음
동경	4장 2절 4항
크레용	3장 3절 3항

휘슬	3장 1절 9항
잉크	3장 1절 5항
램프	3장 1절 5항
스케이트	3장 1절 8항
내레이터	3장 1절 8항

3.2. 중급 어휘 총 278개

깟목	30항
비논리적	12항
내일	12항
거래	12항
누각	12항
넋	14항
그러므로	57항
삼 대 일	45항
한 마리	45항
그럼으로	57항
느려서	57항
출발할 걸	53항
들어오십시오	15항
오독이	23항
무엇을, 뭘	33항
열심히	51항
불었다	57항
학생으로서	57항
공평히	51항
또렷이	51항
남존여비	10항
연이율	11항
짤막하게	21항
드리다	22항
살코기	31항
수컷	31항
돼	35항
따뜻이	51항
앉혔다	22항
남녀	10항
젓니	27항
안팎	31항
쫘다	35항
쑤었다, 쫘다	35항
늘려서	57항
학생이었다	없음
그건, 그것은	33항
오랜만	33항
조용히	51항
정확히	51항
늘여서	57항

걸음	57항
마라	18항
덮이다	22항
암탉	31항
암개	31항
섭섭히	51항
의젓이	51항
두둑히	51항
부쳤다	57항
쓱쓱쓱	13항
쑹쑹한	13항
뽀쳤다	22항
맞추다	22항
꽃잎	27항
앞니	27항
고이	51항
도저히	51항
각별히	51항
머리카락	31항
쇠는	35항
뵈요	35항
정결히	51항
불이다	57항
어떡해	없음
절름발이	20항
흘트리지	22항
머칠	27항
싫증	27항
부리나케	27항
툼툼이	51항
묵묵히	51항
백분율	11항
쌉쌀하다	13항
흘어져도	15항
개구리	23항
사랑니	27항
깨끗이	51항
나뭇이	51항
냥	10항
덮쳤다	22항
흘뜨리고	22항
핥았다	22항
골탕	27항
소나무	28항
우짚고	28항
입때	31항
외곶	14항
몹쌀	31항
괘	35항
씩씩	13항
웁아	15항

받치고	22항
꺼꽃이	27항
수탉	31항
적이	51항
특히	51항
죽히	51항
돈구다	22항
굶주리고	27항
접때	31항
비울	11항
쌍룡	11항
걸어서	18항
발쳐라	22항
꿀꿀이	23항
홀쭉이	23항
역사	11항
웃기는	22항
급류	11항
미덥다	22항
아재비	27항
햐쌀	31항
많고	15항
우습다	22항
갈쭉이	23항
웃오르는	27항
여자	10항
예의	11항
미쁘다	22항
가בות이	51항
은닉	10항
윙어	15항
코납작이	23항
속히	51항
양심	11항
해외여행	11항
빛난다	27항
좁쌀	31항
익명	10항
꽃은	14항
손이	14항
움직여	15항
늪으니	15항
놓치지	22항
이토	10항
떡을	14항
밤에	14항
입으렴	15항
있으면	15항
둘째	6항
짓무르다	17항
총각무	22항

알사탕	25항
넝쿨/덩굴	26항
지루하다	11항
쥐락펴락	25항
칸	3항
숫양	7항
숫염소	7항
숫쥐	7항
수캉아지	7항
담쟁이덩굴	9항
서울내기	9항
나무라다	11항
인용구	13항
따리	14항
꼭두각시	17항
쏘이다/쐈다	18항
셋별	25항
가뭇/가물	26항
돌	6항
길잡이	25항
빠뜨리다	25항
다달이/매달	26항
빌리다	6항
유기장이	9항
언뜻	25항
가엸은/가여운	26항
식은땀	25항
단별	22항
성긴/성근	26항
알은척/알은체	26항
담배꽁초	25항
여태껏/이제껏/입때껏	26항
귀고리	17항
산줄기	22항
안절부절못하다	25항
벌레/버러지	26항
본새	17항
চিত	22항
까다롭다	25항
덧창/겉창	26항
먼발치	25항
가락옻/가래옻	26항
부스러기	25항
선머슴	25항
떡보	25항
마파람/앞바람	26항
주책없고	11항
멀치	17항
까딱하면	17항
상판대기	17항
빠가지	17항

가는허리/잔허리	26항
역성들(다)	26항
뺨따귀	17항
-에는	25항
우두커니	17항
살풀이	25항
귀땀	17항
-게끔	25항
농지거리	25항
개수통/설거지통	26항
빠갔다	17항
속말	25항
부지깡이	25항
허드레	11항
보습	17항
부항단지	22항
똑딱단추	25항
다사스러운	25항
짧은작	25항
발모가지/발목쟁이	26항
방고래	22항
새양손이	25항
흥업은	17항
짓고맻	25항
자배기	25항
꽃밭[곧밭]	21항
꽃다발[곧따발]	23항
색연필[생년필]	29항
짧다[짧따]	10항
식용유[시공뉴]	29항
한여름[한녀름]	29항
밤나무[밤:나무]	6항
얼거나[얼꺼나]	11항
넙둥근[넙뚱근]	10항
설익은[설리근]	29항
담요[담:노]	29항
활고[활꼬]	10항
싫다[설:따]	10항
강릉[강능]	19항
넙죽하다[넙쭈카다]	23항
식이섬유[시기서유]	없음
솜이불[솜:니불]	29항
등용문[등용문]	29항
늑막염[능망념]	29항
금리(金利)[금니]	29항
참말[참말]	6항
눈보라[눈:보라]	6항
첫눈[천눈]	6항
야금야금[야금냐금/야그냐금]	29항

외곬[외골]	10항
겨[거:]	6항
백리[뱅니]	19항
담력[담:녁]	19항
납량[남냥]	19항
의견란[의:견난]	20항
선릉[설릉]	20항
몰상식[②몰쌍식]	26항
물가[물까]	28항
깃발[기빨/긴빨]	30항
펑귄	3장 1절 9항
상하이	4장 2절 4항
황하, 황허	4장 2절 4항
매트리스	3장 1절 1항
미농	3장 3절 3항
메시지	2장 국제 음성 기호-모음
주스	2장 국제 음성 기호-모음
마니아	1장 5항
센티미터	2장 국제 음성 기호-모음
재킷	2장 국제 음성 기호-모음
콤플렉스	2장 국제 음성 기호-모음
엑세서리	2장 국제 음성 기호-모음
재즈	3장 1절 3항
패션	3장 1절 3항
시그널	3장 1절 2항
마스크	3장 1절 3항
그래프	3장 1절 3항
라이선스	2장 국제 음성 기호-모음
히치하이크	3장 1절 4항
호텔	3장 1절 6항
쿼터	3장 1절 9항
쇼핑	3장 1절 3항
케이크	3장 1절 1항
프라이드치킨	2장 국제 음성 기호-모음
난센스	2장 국제 음성 기호-모음

3.3. 고급 어휘 총 371개

되짚어갔다	15항
찾아도	15항
할아버지	27항
아무렇든지	40항
웬일	57항
늦을는지	없음
그어	18항
술한	26항
수밖에	41항
채	43항
꺼져 가고, 꺼져가고	47항
앉히다	57항
아무튼	40항
떠난 지	42항
겸연쩍은	54항
알갱이	57항
구우니	18항
길었다	18항
비로소	19항
날날이	20항
꾸준히	25항
이튿날	29항
퍼	34항
쏘이고	38항
걸잡아서	57항
맞힐	57항
어름	57항
저리다	57항
조렸다	57항
왓지	없음
즈음	없음
덜저고리	7항
까망니	18항
치러	18항
절뚝발이	20항
베었다, 뱉다	34항
심부름꾼	54항
코빼기	54항
머지않아	57항
안쳐라	57항
절이다	57항
하느라고	57항
담뱃	5항
묻히다	6항
웃어른	7항
개어	16항
어진	18항

이파리	20항
삼짇날	29항
누이자	37항
그렇잖은	40항
곤란	52항
귀때기	54항
가름	57항
다리기	57항
마쳤다	57항
해쓱해	5항
돛자리	7항
나았니	18항
많이	19항
곳곳이	20항
몹몹이	20항
꿇다랗게	21항
지껄이다	24항
다정타	40항
팔꿈치	54항
맞추다	55항
거리	없음
내로라하는	없음
사귀어	없음
세 살배기	없음
잔뜩	5항
소쩍새	5항
같이	6항
일꾼	54항
거름	57항
달쳤다	57항
갑자기	5항
퍼	18항
달맞이	19항
넙치	21항
서	34항
넉넉지	40항
간편케	40항
살짝	5항
어찌	5항
산뜻하다	5항
법석	5항
얌	19항
열었다	26항
내어, 내	34항
섭섭지	40항
금세	없음
짜깁기	없음
커	18항
갈랐다	18항
얄따랑다	21항
다니어서, 다녀서	36항

생각건대	40항
익살꾼	54항
갈음	57항
마소	28항
기워	18항
버르고	18항
실없이	19항
뜯적거리는	21항
생각다 못해	40항
뿐	41,42항
일러	18항
목걸이	19항
어렴풋이	25항
견디어, 견뎌	36항
요컨대	40항
만	41,42항
팔뚝	5항
실었다	18항
바둑이	20항
꼬락서니	20항
앞사귀	21항
해죽이	25항
치이어, 치여	36항
만난	52항
훨씬	5항
벨었다	16항
굴러	18항
거뭇거뭇	19항
이렇다	40항
그렇다고	40항
저렇다는	40항
기필코	40항
도와	18항
턱받이	19항
보인다	37항
놀렸다	18항
울음	19항
웃음	19항
시름없이	26항
정녕코	40항
버훤이	19항
지붕	20항
낚시	21항
잔다듬는	29항
흔타	40항
줄	42항
국수	5항
비렁뱅이	19항
실컷	21항
탐탁하다	없음
쉬운	6항

너무	19항
슬며시	25항
착해	26항
싸전	28항
토론	52항
빚깎	54항
무릎	7항
쉬어도	16항
얕아	16항
무덤	19항
말짱한	21항
결단코	40항
종이	19항
작히	19항
곰배팔이	20항
값진	21항
덮개	21항
깨끗하다	5항
무녀리	19항
거꾸로	5항
베어	16항
따라서	18항
굽도리	19항
싸여, 싸어	38항
분노	52항
가끔은	5항
주어서	16항
꺾어	16항
코끼리	19항
익히	19항
올무	21항
결코	40항
기빠요	5항
안녕	52항
길이	19항
딱하다면	26항
목재	52항
뒤척이고	24항
시러베아들	11항
짚북데기	17항
사글세	5항
수태지	7항
시구	13항
글귀	13항
뱀	14항
외지고	21항
꼬나풀	3항
미루나무	10항
구절	13항
인마	없음
여느	10항

으레	10항
케케묵은	10항
깍쟁이	11항
튀기	11항
솔개	14항
조이다/죄다	18항
괴발개발	없음
털어먹었다	3항
밀뜨렸다	5항
수탕나귀	7항
수평아리	7항
귀지	17항
다다르다	17항
구린내/쿠린내	19항
나부랭이/너부랭이	19항
고린내/코린내	19항
낭떠러지	20항
황소/수소	7항
수은행나무	7항
수키와	7항
샘	14항
그저께	없음
복사빠	없음
윗몸	12항
윗눈썹	12항
윗도리	12항
윗배	12항
위쪽	12항
위층	12항
위턱	12항
윗자리	12항
웃돈	12항
윗입술	12항
위채	12항
윗벌	12항
윗머리	12항
윗변	12항
윗막이	12항
아서라	8항
위짱	12항
장사치	14항
고까/꼬까	19항
사그라지다	없음
수평	7항
수나사	7항
윗바람	12항
경구	13항
설거지하다	20항
귀밑머리	24항
살쥬이/샬	3항
굴젓	5항

거슴츠레/게슴츠레	19항
멍게/우렁쉥이	23항
휴지	5항
결구	13항
귀찮다	14항
설빔	14항
애달프기	20항
애순/어린순	23항
윗동아리	12항
구법	13항
망태/망태기	16항
이기죽거렸다/이죽거렸다	16항
거시기	4항
웃비	12항
대구	13항
단구	13항
지겟다리	21항
죽데기	21항
빈대떡	24항
말결	5항
괴팍하여	10항
난구	13항
간명구	13항
윗사랑	12항
구점	13항
귀글	13항
빨정다리	8항
웃국	12항
경인구	13항
윗덧줄	12항
성구	13항
거짓부리	16항
수톨쩌귀	7항
경인구	13항
생인손	24항
윗당줄	12항
윗중방	12항
연구	13항
물방개/선두리	23항
웃기	12항
샷말	21항
콧날[콘날]	30항
쌍지[싸치]	12항
밥물[밤물]	18항
생산량[생산냥]	20항
눈동자[눈똥자]	28항
셋길[새:길/쌔:길]	30항
꽃히다[꼬치다]	12항

당소[다쏘]	12항
꽃아[꼬자]	13항
대관령[대:괘령]	20항
손재주[손째주]	28항
뒸다[덥따]	9항
농고[노코]	12항
뿔네[뿔레]	12항
막막하다[망마카다]	12항
볶음밥[보곰밥]	13항
발전[발쩐]	26항
지혜[지혜/지혜]	5항
뿔은[뿔:븐]	7항
만형[마텅]	12항
굵는[궁는]	18항
횡단로[횡단노]	20항
햇살[해살/헨살]	30항
태릉[태릉]	없음
찌서[찌서]	5항
협의[허비/허비]	5항
뵤아[다라]	12항
입원료[이원노]	20항
말살[말쌀]	26항
밭히다[발키다]	12항
춧불[츄뿔]	30항
감으니[가므니]	7항
밟히다[발피다]	7항
좁히다[조피다]	12항
기어[기어/기여]	5항
작은[자근]	7항
닭아서[다까서]	13항
남색[남색]	없음
연계[연계/연계]	5항
고개짓[고개찢/고갠찢]	30항
뱃머리[뱌머리]	30항
뱃전[배쩐/뱌쩐]	30항
희떠운[히떠운]	5항
알아[아라]	7항
끌어[꼬:러]	7항
윙조렸다[윙조렐따]	23항
뵤런타인데이	2장 국제 음성 기호-모음
앙케트	2장 국제 음성

	기호-모음
헤드라이트	3장 1절 10항
솔	3장 5절 7항
마키아벨리	2장 이탈리아어-자음
피츠버그	3장 1절 4항
힌트	3장 1절 5항
루트	3장 1절 7항
타워	3장 1절 8항
원도	3장 1절 8항
워드	3장 1절 9항
알레그레토	3장 5절 4항
교토	4장 2절 4항
황하, 황허	4장 2절 4항
로마	2장 이탈리아어-자음
차트	3장 1절 4항
하이델베르크	3장 2절 3항
라르고	2장 이탈리아어-자음
브라보	2장 이탈리아어-자음
펠프	3장 1절 6항
팀	3장 1절 7항
헤르메스	3장 2절 1항
케이프	3장 1절 1항
지그재그	3장 1절 2항
갭	3장 1절 1항
슬라이드	3장 1절 6항
호르몬	3장 2절 1항
주장 강	4장 3절 4항
북엔드	3장 1절 10항
몽블랑 산	4장 3절 5항
강가	2장 에스파냐어-자음
푸가	2장 에스파냐어-자음
몽테스키외	3장 3절 4항

4. 어문 규범 단계별 교재 수업 시연 후 학생 의견 조사

- 작성일 : 2010년 10월 27일 (수)
- 조사자 : 심승호

1. 학생 의견 분석

1) 응답자의 특징

- 대상 : 태원고등학교¹⁵⁾ 1학년 학생 35명 (남학생: 12명, 여학생: 23명)

2) 수업 내용 및 실시일

- 내용 : 한글 맞춤법 중, (3) 태능? 태릉!(두음 법칙에 대한 내용)
- 실시일 : 2010년 10월 26일(화)

3) 의견 분석

- (1) 한 차시 동안 학습하기에 적절한 분량인가? 제시된 학습 목표가 적절한가?

구분	빈도(명)	비율(%)	의견
적절하다	18		
적절하지 않다	15		
보통이다	0		

- (2) <길잡이>에 제시된 학습 목표가 적절한가?

구분	빈도(명)	비율(%)	의견
적절하다	19		- 배워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가 잘 되어 있다. - 두음법칙에 대해 배운다는 것을 짜임새 있게 제시하고 있다. - 학습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 알아야 할 내용을 짧게 정리해 놓았다. - 내용과 일치하며 가볍게 볼 수 있다. -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 이해하기 쉽다. - 단원에서 중요하고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잘 제시한다. - 한 차시 동안 배워야 할 내용을 적절히 제시한다. - 학습목표에 있는 내용이 책 안에 다 설명되어 있다.

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인문계 고등학교

적절하지 않다	4	- 배울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다. - 너무 간단하게 적혀 있다. 제일 처음 보는 앞장인데 무언가 흥미를 떨어뜨리게 만든다. - 진술 내용이 서로 비슷하다.
보통이다	12	- 흥미를 끌진 않는다. - 초등학생에게 적합한 디자인이다. - 약간 딱딱한 느낌이고 어렵게 느낄 수 있다. - 적당히 괜찮다. - 가벼워 보이거나, 명확하다. - 상관이 없는 그림이 있다(내용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진이 있다.). - 너무 광범위하다.

(3) <미리 보기>는 흥미를 유발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

구분	빈도(명)	비율(%)	의견
도움이 된다	20		- 그림이기에 가볍게 볼 수 있고, 흥미 유발도 된다. - 익숙한 4컷 만화이기에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했다. - 궁금증을 유발한다. - 단순하고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 만화로 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쉽다. - 배울 내용을 만화를 통해 미리 알 수 있다. - 주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활용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 재미가 없다. - 궁금하지 않은 내용이다. - 만화 밑에 만화 내용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보통이다	11		- <미리 보기>에서는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남녀평등’보다는 다른 경우(많이 헛갈려 하는 단어들 위주로)를 예로 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 제목에서 제시한 내용(태능? 태릉!)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예시를 사용했다. - 배울 내용과 관계는 있지만 지나치게 단순하고 재미가 없다. - 도움이 되긴 하나 양이 부족하고 단순하다. -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 너무 짧고 그리 재미있지 않다. - 너무 초등학교 스타일이고 유치하며 진부하다. -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같다.

(4-1) <탐구하기>의 내용이 흥미 있게 구성되어 있는가?

구분	빈도(명)	비율(%)	의견
흥미 있다	19		- 실제 자신과 함께 글이 올라와 있어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게 볼 수 있다. - 평소에 궁금해 하고 혼동이 되었던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 실용적이다. - 지하철과 간판 등 구체적으로 사진을 제시하여 재미있다. - 적절한 예와 그림이 잘 나와 있고 참신하다. - 사진과 내용의 연관성이 높다. -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사진이 제시되어 있어 호기심이 유발된다. - 그림과 같이 제시되어 이해하기 쉽다. -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 볼 수 있다. -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단어를 써서 흥미 있다.
그렇지 않다	5		- 너무 글만 있어서 지루하다. - 재미있는 내용이 없다. - 그림이 너무 단순하고 좀 쉬웠다. - 다른 예들과 보기가 많았으면 좋겠다.
보통이다	11		- 설명이 부족하고 흥미가 떨어지며 너무 딱딱하다. - 흥미는 있으나 약간 딱딱하다. - 좀 더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로 구성되었으면 한다. - 우리 세대(학생)는 별로 관심이 없을 만한 주제들이다.

(4-2) <탐구하기>의 내용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인가?

구분	빈도(명)	비율(%)	의견
그렇다	26		- 여러 적절한 예시들이 있어서 국어 문법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다. -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이기에 도움이 된다. - 실생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 -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 헛갈리는 경우에, 왜 그렇게 써야 하는지 알고 싶게 만든다. - 헛갈리는 내용을 배울 수 있어서 실용적이다. - 새로운 단어를 알게 되었다. - 시험 준비(모의고사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을, 를’과 같은 내용이 참 좋았다.
그렇지 않다	3		- 실생활에 쓰일 것이 별로 없다. - 설명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 별로 보지 못한 단어들이다.
보통이다	6		- 도움이 되긴 하나, 그다지 실생활에서는 필요하지 않을 것도 같다. - 내용은 적절하나, 흥미가 다소 떨어진다. - 일부의 예시만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 실생활에 그리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극한값을 구하는 게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

(4-3) <탐구하기>의 내용이 혼자 공부하기에 적절한 구성인가?

구분	빈도(명)	비율(%)	의견
적절하다	20		- 설명이 간단명료하고 읽어 보았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 적절한 예와 설명이 있기에 혼자 공부할 때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 배워야 할 내용이 사례와 함께 꼼꼼히 제시되어 있다. -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흥미를 유발한다. - 부연 설명이 있기 때문이다. - 혼자 공부해도 이해할 만큼 좋았다. - 한 번만 읽어도 기억이 잘 되었다.
적절하지 않다	2		- 짧은 내용으로 핵심을 집어내는 것도 좋지만, 허술한 내용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다. - 설명하는 부분이 많지 않고, 단순하다. - 내용이 부족하다.
보통이다	13		- 필요한 문법사항들도 추가로 많이 있지만,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 혼자 공부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쉽게 풀어 써져 있기 않기에 적절하지 않다. - 혼자 공부하기에는 자료가 다소 부족하다. - 어려운 단어 등을 쉽게 풀어 놓았으면 한다. - 보충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한다. -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지 않다. - 제시된 자료는 재미있으나 뭔가 허전하다. - 조금 쉽다는 느낌을 받았다. - 혼자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쉽다.

(5) <연습하기>에 제시된 문제가 도움이 되는가?

구분	빈도(명)	비율(%)	의견
도움이 된다	15		-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예시로 하고, 이를 재미있는

			게임 등으로 제시가 되어 학습하기에 좋다. 또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 - 퍼즐 등을 통해 재미있게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다. - 문제를 많이 풀어보야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 - 헛갈리는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며 정리할 수 있다. - 국어책에는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여기에서는 흥미롭게 검토해 볼 수 있었다. -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고, 상기시켜 준다. - 쉽고 적은 문제로 연습해 볼 수 있다. - <탐구하기>와 연관이 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 재미가 없다. - 없어도 될 것 같다. - <탐구>에서 제시된 단어들과의 연계성이 다소 떨어진다.
보통이다	15		- 배운 내용을 되짚어 보기에는 적절하나, 너무 쉽다. - 기본적인 지식을 복습하기에 적당한 것 같다. - 낱말 퍼즐은 어느 교재에나 있는 것이어서 조금 식상한 것 같다. -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단순히 제시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 답이 바로 아래에 있어서 좀 좋지 않은 것 같다. - 퍼즐에서 이 단원과 관련되지 않은 단어가 너무 어렵다. - 문제가 다소 많으나, 재미있다. - 조금 어렵다.

(6) <참고하기>에 제시된 글이 도움이 되는가?

구분	빈도(명)	비율(%)	의견
도움이 된다	24		-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것들을 사진으로 제시하여 참고 자료로 삼을 수 있어, 이해하기 쉽고 낯설지 않게 공부할 수 있다. - 마무리 정리까지 해 주면서 재미있게 구성하여 도움이 된다. -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지식을 추가할 수 있어서 좋다. - 실생활과 관련한 자료이며 좋은 예시이므로 도움이 된다. - <탐구하기>와 관련된 주제이며, 이해가 쉽다. - 본문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 앞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고,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라 좋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 너무 딱딱하고, 참고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내용이 많다. - 원래 알고 있는 지식이었고, 흥미를 이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 너무 재미가 없다.

보통이다	7	- <탐구하기>에서 나온 내용과 거의 비슷해서 조금 지겹지만, 내용은 괜찮다. - 앞에 있는 내용과 겹치고, 재미는 없다. - <탐구하기>에 넣었으면 좋을 것 같다.
------	---	--

(7) <마무리>에 제시된 내용이 적절한가?

구분	빈도(명)	비율(%)	의견
적절하다	27		- 표로 깔끔히 정리되어 있고, 많은 예시가 나와 한눈에 들어온다. - 한눈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마무리하기에 좋다. - 한 번에 한 차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다. - 중요한 규범들만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 - 요약이 되어 있어 복습하기에 좋다. - 핵심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적절하지 않다	0		
보통이다	7		-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한눈에 보기 쉽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 어떻게 보면 잘 활용되지 못한 것 같다. 너무 설명 위주로 제시되어 있다. - 표 이외에 'Tip' 등을 써 주면 좋을 것 같다. - 너무 딱딱하고 보기 어렵다.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 설명을 더 자세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 너무 주입식으로 공부해야만 할 듯한 느낌이었다. - 지금까지 배운 것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좋다.

(8) 교재 내용 및 구성과 관련한 기타 의견

의견
- 이 교재 나오면 나도 사서 공부하고 싶다. 점심시간이나 자투리 시간 내어서 스터디 그룹도 만들어 공부하고 싶다. 도움이 되는 좋은 교재 같다. - 전체적인 내용은 좋다. 하지만 적절한 그림을 사용하고, 흥미 유발적인 참고자료를 더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 만화나 그림이 들어가 있어서 이해하기가 쉬워 좋은 것 같다. - 국어 어문 규범 교재와 같은 것이 있는지 몰랐는데,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 - 알차고 괜찮은 것 같다. - 잘 보았다. 그런데 국어는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셨으면 한다. 전체적으로 딱딱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확률' 부분은 정말 도움이 되었다. - 항상 교재는 지루하고 딱딱했는데 그림도 세련되고 더 꾸미면 좋은 교재가 될 것 같다.

- 설명은 간략해서 좋은데, 구성이 재미가 없다. 예쁘지도 않고, 눈길이 많이 가지 않는다.
- 혼자 공부할 수 있게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교재의 내용면과 구성면에서 지루함과 딱딱함이 느껴지며, 참고(보조)자료인 사진이나 그 자료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적어 주었으면 한다.
- <길잡이>의 사진은 그 장(chapter)의 주제와 관련된 사물의 사진을 넣었으면 좋겠다.
- 예시가 좀 더 추가되었으면 하고, 중급교재치고는 너무 쉬운 것 같다. 기본적인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초급과 중급 사이 정도 되는 것 같다.
- 모르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었지만 실생활에서 상관없는 내용인 것 같다. 실생활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 더 괜찮을 것 같다.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딱딱’ 예시로 나타내 주었으면 한다.
- 다른 교재들과는 약간 다르게 가벼워 보인다. 혼자 공부하기에는 적절해 보인다.
- 내용 설명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 많은 예들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 더 자세히 알려주었으면 좋겠고, 사진도 많았으면 좋겠다.
-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내용 설명을 더욱 늘렸으면 좋겠다.
- <탐구하기>의 내용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 빈칸이 너무 많다. 어려운 단어에 대한 설명 등을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
- 너무 재미가 없고, 허전하다.

4) 의견 조사 결과 종합

(1) 전체적인 내용이나 구성면에서 흥미가 있고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편이었다. 무엇보다 실생활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자료(사진 등)를 제시하고 있으며, 평소에 혼동되는 표현들을 위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2) 반면, 중급교재치고는 다소 쉬웠으며, 보다 실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이 첨가되고 상세한 설명과 예시 등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다. 또한 단순한 구성에서 탈피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겠으며, 디자인 등도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미리 보기>는 흥미를 유발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까?

- _____ ① 도움이 된다 (이유 :)
_____ ②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유 :)
_____ ③ 보통이다 (이유 :)

5-1. <탐구하기>에 제시된 내용이 흥미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_____ ① 흥미 있다 (이유 :)
_____ ② 그렇지 않다 (이유 :)
_____ ③ 보통이다 (이유 :)

5-2. <탐구하기>에 제시된 내용이 실생활에 도움이 될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까?

- _____ ① 그렇다 (이유 :)
_____ ② 그렇지 않다 (이유 :)
_____ ③ 보통이다 (이유 :)

5-3. <탐구하기>에 제시된 내용이 혼자 공부하기에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_____ ① 그렇다 (이유 :)
_____ ② 그렇지 않다 (이유 :)
_____ ③ 보통이다 (이유 :)

6. <연습하기>에 제시된 문제가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까?

- _____ ① 도움이 된다 (이유 :)
_____ ②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유 :)
_____ ③ 보통이다 (이유 :)

7. <참고하기>에 제시된 글이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까?

- _____ ① 도움이 된다 (이유 :)
_____ ②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유 :)
_____ ③ 보통이다 (이유 :)

8. <마무리>에 제시된 내용은 적절합니까?

- _____ ① 도움이 된다 (이유 :)
_____ ②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유 :)
_____ ③ 보통이다 (이유 :)

9. 교재 내용 및 구성과 관련하여 덧붙일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히 써 주십시오.

연구 책임자 :	이관규(고려대학교)
공동 연구원 :	허재영(단국대학교)
	김유범(고려대학교)
	주세형(서강대학교)
	신호철(고려대학교)
	이영호(서울교육대학교)
연구 보조원 :	양세희 하성욱
	윤구희 박보현
	심승호 정지현
	조정인 유성호
	이규범 김남희
	김도혁 김미미
	이수진 정지현
담당 연구원 :	김문오(국립국어원)

어문 규범의 단계별 교재 집필 지침서

발행인	권 재 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3동 827) 전화: 02-2669-9733 팩스 02-2669-9747
인쇄일	2010년 11월 30일
발행일	2010년 11월 30일
인 쇄	합진그래픽
